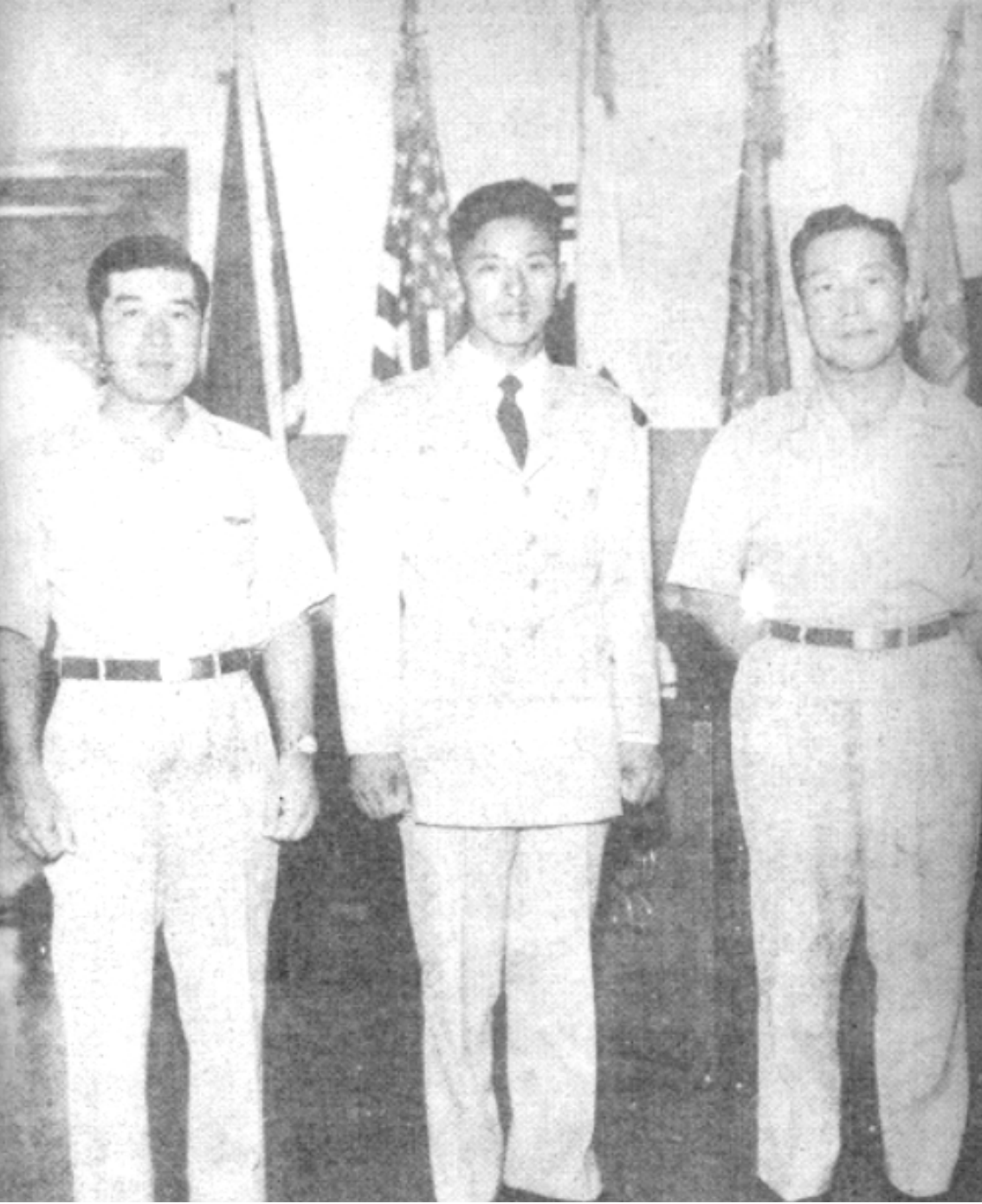


增刊四二八七年四月九日
第三種郵便物取扱認可

三 哩 丑



第 45 號



8월 9일 공군중위(空軍中尉) 임관(任官)과 동시(同時) 금성충무무공훈장(金星忠武武功勳章)을 수여(授與)받고 기뻐하는 귀순(歸順) 조종사 정락현(鄭落賢)(중앙(中央))과 김참모총장(金參謀總長)(우(右)) 장참모차장(張參謀次長(左(좌)))

<취미(趣味)의 미술감상(美術鑑賞)>

오페라 관람석(觀覽席)에서 본 무용(舞踊)



에드가·드가 작(作)

명작조각(名作彫刻)



14세(十四歲)의 무희(舞姬) 에드가·드가 작(作)
(1834~1917)

명작조각(名作彫刻)



발바닥을 들여다 보는 무희(舞姬) 에드가·드가 작(作)
(1834~1917)

<취미(趣味)의 미술감상(美術鑑賞)>

오페라 관람석(觀覽席)에서 본 무용(舞踊)

에드가드가 작(作)

Edgar Degas

「드가」작품(作品)의 특징(特徵)은 움직이는 물체(物體)를 순시적(瞬時的)으로 표현(表現)한데 있다. 「무용(舞踊)의 화가(畫家)」라고 불릴만큼 그는 무희의 춤추는 장면(場面)을 모델로 많은 작품을 그렸던 것이다.

「파리」의 유복(裕福)한 은행가의 가정에서 자라난 「드가」는 오랜 습작기간을 고전연구에 바쳐 처음에는 고전적인 견실(堅實)한 화풍으로 출발 역사화(歷史畫)를 즐겨 그리다 차차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 무용, 카페, 극장등 근대적 민중생활을 묘사(描寫)하기에 이르렀다.

이 작품 역시 「드가」의 후기의 작품으로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바, 그의 독특한 순시적인 표현법과 구도(構圖), 원근법은 놀랄만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시선은 재빨리 앞의 어두운 부분에서 인사하는 무희의 밝은 곳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후면의 돌며 춤추는 무희들에게 보는 훌륭한 색채와 명암은 「드가」독특의 것이라 하겠다.

(1884-1917)



코메트·제45호 목차

<목차(目次)·비(扉)·컬> 이 희 세(李熙世)

★오페라 관람석에서 본 무용<취미의 미술감상> 에드가·드가

화
보

- ◇ 전(前) 국방부장관(國防部長官) 초도순시차(初度巡視次) 來訪
- ◇ 김(金) 참모총장(參謀總長) 초도순시(初度巡視)
- ◇ 장성환(張盛煥) 소장(少將) 참모차장(參謀次長)에 취임(就任)
- ◇ 자유(自由)찾은 MG기(機)
- ◇ 공군예방(空軍藝防) 및 표창(表彰)

<권두언(卷頭言)> 국군(國軍)의 날을 맞으며 소 상 영(蘇尙永) 2

국군(國軍)의 날에 제(際)하여 국방장관(國防長官) 권 중 돈(權仲敦) 4

국군(國軍)의 날 기념사(記念辭) 참모총장(參謀總長) 김 신(金 信) 6

제 2 헌법상(憲法上)의 특이점(特異點) 하나 황 산 덕(黃山德) 8

공화국 언론(言論)의 자유(自由)와 책임(責任) 이 관 구(李寬求) 60

특집 국군(國軍)의 장래(將來)를 위(爲)하여

국방기구개편안(國防機構改編案)	이 희 봉(李熙鳳) 12
-국군조직법(國軍組織法)을 중심(中心)으로-	
미국(美國)의 대한원조전망(對韓援助展望)	박 충 훈(朴忠勳) 19
-군사원조(軍事援助)를 중심(中心)으로-	
미국(美國)의 대극동전략(大極東戰略)	이 규 현(李玆現) 27
극동(極東)의 집단안전보장(集團安全保障)	이 원 우(李元雨) 32

군사경제면(軍事經濟面)에서 본 일본(日本) 정 순 근(鄭淳根) 76
 공산권(共產圈)에 있어서 중공(中共)의 비중(比重) 김 용 현(金用賢) 80

오오 4월(月)에	류 정(柳 呈) 68
창 공(蒼 空)	황 금 찬(黃錫燦) 70
층 계(層 階)	김 상 화(金相華) 72
다이어먼드	이 흥 우(李興雨) 74

남북통일론(南北統一論) 김 창 순(金昌順) 28
 -통일(統一)에 앞서 지나야 할 우리의 태도(態度)-
 여명기(黎明期)의 아프리카대륙(大陸) 홍 시 환(洪時煥) 84

장병수기(將兵手記)

조종사의 하루	박 용 직(朴容稷) 137
정비사(整備士)의 생활	김 상 호(金相好) 139
후보생(候補生) 일기(日記)	김 열 화(金烈會) 142



바다가 그리워 <회(畫)·문(文)> 박 고 석(朴古石) 90
 바닷가 소묘(素描) <회(畫)·문(文)> 백 영 수(白榮秀) 92

생활	나의 등산(登山) 이야기	이 승 녕(李崇寧) 104
과	수렵(狩獵) 잡감(雜感)	서 응 성(徐雄成) 107
취미	씨 없는 수박 재배(栽培)	홍 기 창(洪基昌) 112

수상·수필	신국회(新國會) 의석(議席) 분포(分布) 와 정국(政局)의 장래(將來)	유 승 범(柳承範) 37
	보수양당제(保守兩黨制)의 가능성(可能性)	김 순 겸(金淳謙) 43
	경제자립(經濟自立)에의 조건(條件)	이 연 환(李延煥) 48
	외원(外援)의 실적(實績)과 수혜국(受惠國)의 할 일	부 완 혁(夫琬赫) 54

노(怒)여움의 가지가지 김 자 림(金玆林) 94
 삼각산(三角山)에서 박 명 성(朴明星) 96
 아나운서 생활 문 복 순(文福順) 97
 내가 본 공군(空軍) 황 정 순(黃貞順) 99
 보다 믿음직한 군인(軍人)의 인상(印象) 전 규 현(全桂賢) 101

달밤의 산책 박 제 형 115
 만리포(萬里浦)의 낙조(落照) <시조삼수(時調三首)> 일 석(一石) 116

한국(韓國) 문화(文化)에 대한 세계인(世界人)의 인식(認識) 이 혜 구(李惠求) 64
 -해외소개(海外紹介)를 위한 움직임-

근대(近代) 민족주의(民族主義)의 이데올로기 최 문 환(崔文煥) 122
 「법(法)앞에 평등(平等)」의 현실적(現實的) 의의(意義) 이 건 동(李建銅) 128
 한국(韓國)의 유교주의정치사상(儒敎主義政治思想) 홍 이 섭(洪以燮) 132

※※※	만화(漫畫)에어쇼	정 운 경(鄭雲耕) 149
※※※	하늘의 일기(日記)	이 상 호(李相昊) 150
※※※	급행피서비행(急行避暑飛行)	정 한 기(鄭漢基) 152
※※※	반(反)	김 경 인(金庚彦) 154

전파방해(電波妨害)란 어떤 것 양 신 석(梁震錫) 146

세계(世界)의 항공기발달사(航空機發達史) 이 인 섭(李仁燮) 156

===== 소설 =====
 토요일(土曜日)의 삽화(挿話) 정 인 영(鄭麟永) 167
 치악산(智岳山) 야화(夜話) 홍 은 표(洪銀杓) 181
 밝혀진 등불 오헨리 원작(原作) 196



현석호 전 국방부장관(國防部長官)
초도순시차(初度巡視次)
공본내방(空本來訪)
(8.26) ←



김참모총장(金參謀總長) →
예하부대(隸下部隊)를
초도(初度) 순시(巡視)
(8.29)



→ 장성환(張盛煥) 소장(少將)
참모차장(參謀次長)에 취임(就任)
(8.5)
원내(圓內)·취임사(就任辭)를
하는 장소장(張少將)

자유(自由)찾은 MIG기(機)

정락현(鄭落賢) 조종사 월남귀순(越南歸順)



↑自由大韓의 북으로 온이온 MIG-15 백



<사진증명(寫眞證明)>

- ① 월남 조종사 정락현군의 임관식(任官式) 및 금성총무무공훈장 수여식 광경(8.9) 김참모총장이 중위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 ② 정군의 의거월남(義舉越南)을 찬양, 악수(握手)하는 김참모총장(8.3)
- ③ 내한중이던 「링컨」미국방차관보도 정중위를 접견(接見), 그의 장거(壯舉)를 칭찬(8.8)
- ④ 쓰라렸던 공산치하(共產治下)의 북한실정을 폭로(暴露)하는 정중위의 내외기자회견 광경(7.8)
- ⑤ 자유가 그리워...속초(束草) 대포리(大浦里) 비행장(飛行場)에 안착(安着)한 월남당시의 정락현 조종사



코 메 트
THE COMET



第 45 號

22주(駐)한미해군사령관
「A. J. 타일리」소장과
「W. 프레스」소장과
이취임인사차
군단본부예막(8.12) ↑



태평양지구
미군단본부사령관
「유스틴」소장과
내한인사차
군단본부예막(8.12) ↑



→ 전(前)미314비행사단
부사단장「자코비」
대령에게 김삼모총장이
이수영 지무대령장
(銀輝)支武功勳章(이
수영) (8.11)



<권두언(拳頭言)>

국군(國軍)의 날을 맞으며

정훈감(政訓監)
소 상 영(蘇 尙 永)

온 겨레가 제2공화국 정부수립에 감격하고 경축하여 마지 않은 민족의 향연(饗宴)이 베풀어지는 수려홍풍(秀麗紅楓)의 중추(仲秋)요, 군복을 입은 우리들이 한결같이 기뻐하는 들맞이의 10월이다.

진정 우리의 민주정부수립이며 성장한 국민의 군대의 들맞이고 보니 어찌 그 벽찬 감격과 기쁨을 숨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이룩하여 놓고 경축하면서도 잊을 수 없는 것은 풍년을 구가(謳歌)하기에 앞서 작열(灼熱)의 폭양 아래 구슬땀을 흘린 농민의 노력이 있었고, 제2공화국의 탄생에 앞서 10여 년간의 줄기찬 민권쟁탈의 투쟁과 거룩한 생명의 희생(犧牲)이 있었음으로써 비로소 오늘의 성업을 이룩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며, 자유와 정의를 위한 힘의 상징으로서 또는 국토방위의 역군으로서의 국군이 오늘날과 같이 발전하기에는 험난(險難)의 길을 극복(克服)한 역정(歷程)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 선구자들이 문자 그대로 「무(無)」에서 출발하여 일취월장 발전되고 강화된 현실의 국군을 눈 앞에 보면서 지난 10유년의 건군사를 돌이켜 볼 때 감회(感懷) 또한 새로운 바가 있다.

우리 공군의 모체인 항공기지부대가 국방경비대 제1여단사령부 내에 창설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이래 우리 공군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형극(荊棘)의 길을 걸어 왔다.



태극표식을 띤 L4 10대를 처음으로 조국의 하늘에 날리던 획기적인 감분(感奮)이나 온 겨레의 정성 어린 헌금으로 T6 10대를 구입하여 앞으로 대공군이 되기를 기약하던 일들은 선각자들의 눈물 어린 활동과 투지를 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다.

전투기 한 대 없이 6·25 적침을 당해 비분에 떨던 개전 초기, 전투기의 도입, 출격, 또는 전투비행단의 창설, 단독출격작전의 감행, 전투작전과 병행하여 후방정비기술부문의 확장 등은 전란 또는 휴전기를 통하여 우리 공군이 현대 전술공군으로서 발전하려는 눈부신 약진의 과정이었다.

마침내 재래기종에서 제트기로 전환하고 명실 공히 현대 전술공군으로서 구투를 완전 탈피했을 뿐만 아니라 관제경보기구를 우방으로부터 인수받았으며 수도 주변에 또 하나의 제트비행단을 갖게 된 것은 실로 우리 공군의 비약적인 발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공군의 발전사를 회고하면서 잊을 수 없는 것은 고(故) 이근석(李根楮) 장군을 비롯하여 수많은 선배전우가 조국수호의 창공에서 산화하였고 또는 순직함으로써 국군의 초석이 되고 도약대가 되었다는 거룩한 희생들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들의 유지를 계승하여 더욱 공군을 발전시키고 국토방위의 전선에서 승리를 기약함으로써 그들에게 보고해야 할 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깃긴(喫緊)한 것이다.

조국에 참된 민주주의가 팽배히 태동하는 벽찬 환희 속에서도 우리는 보국어민(保國禦民)의 역군이라는 자부심을 과시함에 앞서 새로운 결의가 있어야 하며 영광된 승리의 최종목적을 달성하는데는 중첩되는 형극의 길을 힘차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전기(戰技)의 연마로 전력을 강화하고 민주군대가 갖추어야 할 모든 소양을 갖추어 명실상부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의 군대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것이다.



국군(國君)의 날에 제(際)하여

-공군장병에게 부치는 글-

국방부장관



오늘 10월 1일은 건군 제12주년을 맞는 국군의 날입니다.

본인이 국방의 중책을 맡은 지 불과 한 달도 채 못 되는 오늘에 당하여 이와 같은 뜻깊은 경축일을 맞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여기는 바입니다.

더구나 오늘 10월 1일은 제2공화국의 신정부수립을 축하하는 경축일임에 또한 그의 더욱 큰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볼 때 우리 공군은 장병 여러분이 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의 공군으로 발

전되기까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파란곡절이 많았던 것입니다.

정
중
장

아직 기억도 새로운 6·25 공산침략전쟁에서 우리 공군은 연습기 정도의 전투능력으로 공산군과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뼈저린 과거가 오늘과 같은 발전된 공군력을 가지게 된 근인(近因)이 되었다고 보는 바입니다.

지난 10여 년 전 불과 몇 간부요원으로 구성된 항공대로부터 발족을 본 공군이 오늘날은 신예 제트전투기를 보유하고 새로운 전술로써 무장된 강력한 전술공군의 위치에 서게 되었음은 본인은 물론 전국민들도 마음 든든히 믿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일익월가(日益月加)로 과학문명이 고도로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쟁양식도 변천되고 있으니만치 더욱더 분발해서 과학의 향상과 아울러 신전술에 능통한 공군으로써 여하한 전쟁형상에도 대처할 수 있는 전투력을 확보치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공산적군은 재침략준비에 여념이 없으며 자유의 천지 이 평화스러운 우리 남한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재인식하고 뼈저린 6·25 전란의 갖은 고초 속에 자라난 과거를 상기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취육적인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각성심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 공군장병에게 사의를 표하며 기쁨 속에 맞는 이날이 더욱더 융성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을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기념사(記念辭)

공군참모총장
공군 중장 김신(金信)



조국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국민은 다 같이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조국건설에의 희망과 의욕에 가슴 부푼 오늘, 평화를 위한 힘의 상징으로서의 우리들 국군은 새 이상과 결의로써 이 날을 맞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참된 역군이 될 것을 기약하면서 건군의 대업에 착수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이래 우리 국군이 걸어온 길은 비록 험난했으되, 줄기찬 전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현대화한 막강의 60만 대군에의 발전을 경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적수공권(赤手空拳)으로 오직 나라와 겨레를 위하는 일념에서 출발했던 그 날을 돌이켜 보면 금석(今昔)의 감이 있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처절을 극한 민족의 대 수난 6·25를 당하여, 적에 대치할 전투기 한 대도 없이 절치역완(切齒扼腕)코 분전을 거듭하였던 사실에 비하여, 오늘날 전투비행단을 핵심으로 한 현대 전술공군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점은 오로지 자유우방의 원조와 국민의 숙성적인 성원에 힘입은 장병들의 피나는 노력의 소산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러나 피나는 노력과 힘에 겨운 희생을 치러야만 했던 지난날의 형극들은 오히려 오늘의 영광을 값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찬연한 국군의 발전사에 그림자처럼 따랐던 고난의 역정을 잊을 수 없으며 그 고난의 대가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큰 고난들을 또 겪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자유와 평화를 앗아가려는 인류의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국군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힘의 시위로서만은 다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부과된 그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신념있는 행동이 앞서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시각 우리의 행동이 가지는 의의와 그것이 나라와 겨레의 장래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으로 나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국위를 선양할 수도 있으며 욕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국군의 날을 당하여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새로운 결의와 확신으로 최후의 일각까지 힘차게 전진할 것을 다시 다짐하는 바입니다. 국군의 역사는 우리 공군에 의하여 보다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2공화국(第二共和國) 헌법상(憲法上)의 특이점(特異點) 하나

황 산 덕(黃山德)



제2공화국의 헌법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을 들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마 곧 그 내각책임제를 꼽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내각책임제는 우리에게만 특유한 것은 아니고, 수백 년 전부터 그것이 창안되어 현재에는 대부분의 민주 국가가 채용하고 있는 제도인 것이므로, 새삼스럽게 이것을 우리 헌법의 특이점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은 못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도 생각이 된다. 그러면 그 밖에 또 무슨 특이한 점이 있는가가 문제가 될 것이지만, 이에 관하여 나는 개정헌법 제13조 2항의 규정이 적어도 아세아에서는 처음 있는 규정이며, 법철학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우리 헌법상 아주 특이한 규정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이 규정은 직접적으로는 정당에 관한 것이다. 즉, 그것은 「정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방점)에 위배된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로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방점 필자)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문제를 정당에 관한 것에만 국한시킬 수 없는 중대한 개념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즉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것이다. 처음에 개정헌법을 초안할 당시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은 이것을 탄압하려는 뜻이 아닌가라는 반대의견이 혁신정당측으로부터 제기되어 부득이 자유라는 말은 빼고 그저 민주적 기본질서라고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하여튼 여기에

기본질서라는 개념이 새로이 우리 헌법상 설정되었다는 것만은 특기할 만하며 내가 알기에는 서독 헌법이 처음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 이후 우리 개정헌법은 그 둘째 번이 되지 않는가 생각된다.

그러면 이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이 어째서 이처럼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가가 문제가 되며,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헌법학자들 사이에는—초안 기초자인 한태연(韓泰淵)교수를 제외하고는—이 용어의 중요성을 그리 심각하게 의식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법철학적 견지에서 보면은 이 개념이야말로 독재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학자들이 고안해 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학자들 사이에 좀 더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된다.

본래 민주국가의 헌법은—수백 년을 내려 온 전통으로서—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최고지상의 목표로 삼아 왔었다. 즉, 기본질서가 아니라 기본권이 앞에 나섰으며,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헌법상의 모든 제도는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러면 근대민주국가의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된 방법은 무엇이었던가 하면, 그것은 총선거의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이 모여서 법률을 제정하고, 그리고는 이러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절대로 침해될 수 없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가령 언론의 자유에 관한 구헌법 제13조의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합, 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과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므로 그 평등한 국민들이 투표하여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국회의원이 되게 하면, 그는 —비록 상대적이기는 하지만—가장 훌륭한 국회의원이 될 것이며, 그리고 이처럼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찬성을 얻은 법률안을 법률이 되게 한다면 그 법률도 또한—비록 상대적이기는 할 망정—가장 타당한 법률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여 제정된 법률에다가 국민의 전체의 운명을 맡기고 오로지 그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향유시키도록 한다면, 이것 이상으로 타당한 방법은 따로이 없으리라는 것이 그 근본신조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근대민주국가의 이러한 기대는 20세기에 들어와 소련의 불세비즘과 독일의 나치스가 생겨나 독재

정치를 마음대로 하게 되자 완전히 어그러지고 말았다.

국민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의 유권자는 결코 평등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정세판단을 그릇칠 수도 있었고 특히 개인적인 정실이라든가 금전에 이끌리는 경우에는 결코 공정하게만 투표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여 선출되는 국회의원이 반드시 훌륭하다고는 볼 수가 없으며, 실제에 있어서의 도리어 반대로 정치적인 흥정을 잘 해내는 간물(奸物) 악당이 당선되는 일이 더 많았다.

이리하여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국회인 것이므로, 따라서 여기에서의 의결이 반드시 공정한대로만 행하여지는 것이 아님도 또한 곧 짐작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 법률안이 국가와 민족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서 찬성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전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만 그것이 그들의 소속정당 내지 정파의 이익에 합치되기 때문에 가표(可票)를 던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리하여 제정되는 법률은 그 내용에 있어서 국가나 민족보다도 어떤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을 더 위주로 하는 것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된다.

물론 아무리 자기의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만을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외부에 대한 정치가로서의 체면도 있는 것이므로,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문면(文面)만은 외견상 그럴듯한 문자로 꾸며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법률조문상 아무리 훌륭한 문구가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이 법률을 실제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뚫고 나아갈 구멍이 있는 것이다. 본래 언어라는 것은 그 의미가 항상 단일한 것이 아니고, 같은 단어이면서도 그것이 갑을 두 의미 또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러므로 법률조문에 나타난 문언을 갑의 의미로 해석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국민의 권리를 잘 보장해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반대로 그것을 을의 의미로 해석 적용하는 경우에는—그 같은 조문이—도리어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된다. 그리고 그 문언에는 확실히 을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므로, 따라서 이것을 을의 의미대로 해석 적용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비합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게 된다. 법률조문을 엄격히(?) 따진다면 그렇게도 될 수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어딘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불평은 할 수가 있지만, 법리론을 전개하면서 정당당당하게 그 조문은 을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갑의 의미로서만 해석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게 된다.

우리가 법령집에서 볼 수 있는 조문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이와 같은 언어의 다의성으로 말미암은 다양해석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소련이나 나치스의 독재자들은 바로 이러한 가능성을 100%로 이용하였던 것이며, 4월혁명 이전의 이승만독재도 주로 이러한 방법을 썼던 것이다. 「헌법에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면 그것은 할 수 있다는 뜻이다」라는 억지를 쓰면서 3인조 투표 같은 것을 감행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식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소위 엄격히(?) 따진다면 법률조문에는 갑뿐만이 아니라 을의 의미도 있는 것이므로, 이때에 있어서 이 조문을 을의 의미로 해석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제지할만한 객관적인 기준(規準)은 없었던 것이다.

소련이나 나치스가 이승만정권의 독재는 모두 이런 식의 독재였으며,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할지라도, 형식적으로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것이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독재를 유효하게 막아 낼 방법은 과거의 헌법에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또다시 대두할런지도 모르는 독재를 어떻게 하면 막아 낼 수가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법률조문을 오로지 갑의 의미로만 해석 적용하게 하고 그리고 을의 의미로는 해석 적용하지 못하도록 막아 낼 수 있는 객관적인 그 무슨 기준은 없을 것인가. 그리고 이에 대하여 제2공화국 헌법이 제시한 대답이 바로 민주적 기본질서인 것이다. 즉 법률조문을 갑의 의미로 해석 적용하면 그것은 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방향에 맞기 때문에 타당하지만, 만일 그것을 을의 의미로 해석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념에 배치되기 때문에 부당하다라는 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실제문제에 부닥처 정·부당을 가려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 내용이 어떠한가에 관하여는 아직 학자들 사이에 확정된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독재의 방지를 위하여 우리 신헌법이 채택한 특이한 수단인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앞으로 좀 더 철저한 연구가 있을 것이 요청된다. 그러나 우리 국민대중은 4월학생혁명을 뒤따라 생겨난 이 신헌법 속에 법철학적으로 가장 심각한 고민에서 생겨난 독재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만은 알아 두어야 할 것이며, 그것에 관하여 법학자들이 무어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민주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주목하고 있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필자·법박(法博)·서울법대교수>

국방기구개편안(國防機構改編案)

- 국군조직법을 중심으로 -

이 희 봉(李熙鳳)

내 용

1. 국방기구개편의 의의
2. 민주군제(民主軍制)의 원리
3. 국방기구개편안의 주요내용

1. 국방기구개편의 의의

4월혁명의 소산인 개정헌법은 정부형태의 변혁을 가져오게 하였고, 정부형태의 변혁은 행정부의 조직개편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차제(此際)에 국방부로서도 국방기구 전반에 걸친 재검토



<특집·국군의 장래를 위하여>

를 하여야 할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일례를 들건대, 6월 15일의 개헌에 수반하여 행정권의 일부인 군통수권의 소재가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원으로 이행한 사실은, 국방기구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국군조직법이 개정된 헌법의 생리에 맞을 리 무한한 것이며 필연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국방기구개편에 대한 노력은 취급될 범위의 차이는 있었으나 이미 4월혁명 전부터 착안되고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4281년 11월 30일에 제정되어 금일까지 현행법으로서 적용되고 있는 국군조직법이 제정 당시의 실정과 6·25 동란을 겪은 국군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현실과는 유리된 법조문으로 화했고, 설상가상 격으로 국군조직법은 4월혁명 개헌 이전의 구헌법정신에도 위배된 요소가 다분히 깃들여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의 개정을 추진해 왔던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그 간 근 10차에 걸쳐 일부 개정법률안을 법제실에 제출한 바 있었으나, 무슨 이유인지 일차도 반영되지 않은 채 반려(返戻)되어 왔던 것이다.

차제(此際)에 국방부로서는 군통수권을 포함한 전반적 국방기구를 재검토하여 민주혁명정신에 부합되고 군사조직원리에 귀일(歸一)시킬 수 있으며, 한국 실정에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방부에 국방체제개편조정위원회를 5월 말에 설치하고 근 2개월에 걸쳐 연구심의한 바, 국방기구개편에 대한 그 성안(成案)을 보게 되었다. 지면의 제한관계로 여기에서는 국군조직법에 관련된 부분만을 중심으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기구개혁 또는 개편에 있어 우리가 하나 확실히 하여둘 필요가 있는 것은 기구개혁의 목적론인바, 이는 군사조직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나의 커다란 과제인 것이다.

정치인은 흔히 기구개혁의 주목적과 가치를 경제적 요소에 귀결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국가예산의 과반 또는 근 반액을 소비하는 국방기구에 대하여는 특히 그 개편에 있어 정치적 매력으로서의 경제면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기구개혁의 진목적은 어디까지나 그 조직의 효율적인(efficient) 운용을 제1차 목적으로 하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경제면은 제2차적인 것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는 흔히 우리나라에서 기구개혁을 논할 때마다 경제면에만다만 결부시켜 왈가왈부하는 피상적 기구개혁론자가 지식층에 많이 있음을 느낀 소감이기에 부언해 두는 바이다.

2. 민주군제의 원리

본인은 여기서 민주정치가 무엇이며 국방조직 또는 군제의 원리원칙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여기서는 다만 조직의 원리원칙 중에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표방하는 한국적 제약하에서 국군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면은 여하한 조직원리를 특히 강조하여야 하며 우리 행정조직체에서 보이고 있는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몇 가지 점을 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선진 제국가가 공히 받아들이고 있는 군제의 원리는 우선 정치우선(Politics Supremacy)의 원칙과 문민우위(Civil Supremacy)의 원칙이라 하겠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있어서도 구헌법이나 개정헌법은 공히 이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느니만큼 이 점은 더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즉 첫째 정치우선의 원칙은 헌법 제72조에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고 종전부터 국방정책 또는 조직이 국회의 입법사항으로서 강력한 통제를 받아 온 점을 살펴볼 때 충분히 이 원리가 보장되었다고 보며, 문민우위의 원칙에 있어서도 헌법 제69조에서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이를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에 있어서는 현역을 면한 후 10년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건국 초창기에 있어서의 제요소를 고려하여 연수경과규정없이 현역을 면한 후면 하시(何時)든지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 관대한 규정을 마련했다는 차이는 있을망정 그 근본정신은 문민우위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며, 군인의 집권으로서 과거 일본과 같이 군부 횡포의 화근을 없애려는데 있는 것은 민주정치하의 제국과 하등 다름이 없이 이 원리가 보장된 제도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정치우위의 원칙 또는 문민우위의 원칙은 비단 헌법규정으로서만 그칠 문제가 아니라 이는 국방기구 전반에 걸쳐 이 정신이 반영되도록 조직되어야 할 것이고 법적으로 이 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므로, 문제는 그 실제운영에 있어서의 이 정신의 시현(示顯)방식일 것이며 이의 성공 여부는 이를 운영하는 문무관의 지도적 정신에 뒷받침받아야만 보장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여기서 강조하는 바이다.

이외에 우리나라의 군제(軍制)에 있어 특히 중요시하여 강조할 것은 계층의 원칙(Scalar Principle)의 구현 방식일 것이다.

계층의 원칙이란 계통제(Hierarchy)와 동일시되는 것으로 이는 우리의 정부조직 또는 군제에서 형식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나 그 내용에 있어서의 지휘권(또는 지도권)(Leadership)과 권한의 위임(Delegation of Authority), 그리고 직능의 개념규정(Functional Definition)에 있어서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 중에서도 특히 지휘권(Leadership)에 있어서의 상층관리(Top management)의 강화와 현대행정의 복잡화로 인한 고도의 분업은 각 전문분야의 표준화 및 전문화를 기하여야 하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직무의 분화가 수평과 수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이상 각 직무담당자 또는 집단에게 그들의 책임과 권한이 발현될 수 있는 권한의 위임이 수반되어야만 그 조직체가 보다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금일의 행정목적인 능력 경제봉사의 3대 목표에 부합될 수 있다고 보는 바다. 따라서 방대하고 복잡한 기구를 가진 국방기구는 중앙집중(Centralization)보다는 분권(Decentralization)이 일층 요망되며, 권한의 하부로의 대폭적 위임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목적달성에 귀일화시킬 수 있는 조직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힘을 배경으로 하는 군제는 분권화를 통하여 민주정치체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고, 강력한 지휘의 통일(Unity of Command)은 군사적 효율면에서는 수궁이 갈 수 있으나 자칫하면 헌법정신인 문민우위 정치우선의 원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은 묵과할 수 없는 것이며 특히 후진국의 여건은 이를 막아내도록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다. 이밖에도 조직상에 고려할 제문제는 많이 있으나 지면관계로 이만큼 줄이고 다음은 국방기구개편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3. 국방기구 개편안의 주요내용

금반(今般) 국방부가 성안한 국군조직법안 내용을 현행 국군조직법과 비교하여 그 내용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주요 골자에 대해서만 남은 지면을 이용하여 이를 간단히 설명할까 한다.

1. 군정 군령의 일원화와 군사권한에 대하여

과거 봉건국가의 영주나 군국주의행정수반은 군이라는 강력한 힘이 자기들의 권력지배에 불가결의 요소였으므로 군정과 군령을 분리시켜 군통수의 실권인 군령만은 내각이나 국회의 관여없이 이를 직접 장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현대 민주주의 이념과도 상반되는 군통

수제도입은 취인을 요치 않는 바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헌법제정 당시에 있어서도 군정과 군령을 분리치 않고 일원화한 제도를 그 헌법정신으로 하고 구헌법 제61조, 제66조, 제72조에 뚜렷이 규정하였던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국군조직법은 이 정신을 위배한 내용으로 제정되었던 것이다. 군정과 군령의 일치성은 정부조직법 제18조에서 다시 「군사에 관한」이란 종합적 용어로써 이를 부연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통수권(즉 군사권한)은 구헌법하에서는 대통령에 있었지만, 개정헌법에 있어서는 대통령은 다만 국가를 대표하고 국군의 상징적이며 형식적인 최고사령관이 되는 지위를 갖게 되었을 뿐 행정권의 일부인 통수의 실권은 국무원에 귀속된다고 규정됨에 따라 모든 군사사항은 군정 군령 할 것 없이 국무원에 귀속되는 것이며, 이 권한은 국무원을 대표하는 국무총리가 국방부장관을 거쳐 삼군을 지휘감독하도록 개정헌법이 밝히고 있으니만큼 의당 국군조직법상에 군사권한에 대한 명확한 헌법정신의 해석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첫째의 개편요강인 것이다.

따라서 헌법정신에 의거하여 대통령의 의례적인 국군총사령관의 지위를 명확히 법에 밝히는 동시에 국무총리에서 연유하여 국방부장관을 거쳐 삼군참모총장으로 내려 나오는 통수체계에 있어 군정 군령을 분리치 않고 모든 군사사항을 지휘감독하는 체제로 개편하는 동시에 이를 국군조직법에 밝히자는 것이 금반의 개편안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편요강인 것이며 이 정신에 위배된 현행 국군조직법상의 참모총장은 없애고 기타 군령기관도 이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2. 연합참모본부의 개편

현행 연합참모본부설치법에 근거를 두고, 군금(軍令)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연합참모회의와 본부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고로 이를 개편하여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군사적 전문분야에 있어 보좌하는 참모기구로서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국과 동등한 위치에 두려고 하는 것이 연합참모본부에 대한 개편의 골자이다.

이와 같이 개편될 부서는 군사참모부로 개칭하고 그 업무내용은 현 연합(然參)과 대동소이한 것이나 업무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서는 현재 국방부내 국에서 갖고 있는 기능의 일부를 군사참모부에서 담당케 하지는 것이며, 군사참모부의 구성은 주로 군인으로 하되 그 요원은 삼군에서 균등하게 차출된 인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특집·국군의 장래를 위하여>

주요 차이점이라 하겠다.

국방부장관이 국방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군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여 삼군을 효과적으로 지휘감독케 하려면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의 편성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며, 군사사항이 군령과 군정을 다 포함한 개념이 니만큼 국방부장관의 군령행사면에 있어서의 보좌참모부서가 꼭 필요하게 됨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즉 연합을 종전과 같은 애매한 위치에서 탈피시켜 지휘체제를 확립시켜 보자는 것이 금반 개편안의 근본의도이고, 민주주의국가에서 두려워하는 푸러샤식 일반참모부의 재생을 기도한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미국의 연합(joint staff) 개념을 받아들여지는 것이 군사참모부의 성격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국방부 내의 일부를 차지하여 장관을 보좌하는 참모기관으로서 구상한 것이다. 이 군사참모부를 통합하여 국방부장관을 군사면에서 보좌시키는 자로서 연합참모총장과 차장을 두자는 것이다. 이 연합참모총장은 개인으로서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군사면에서 전문적 조언을 하는 동시에, 자문기관이 되는 연합참모총장회의의 의장직을 겸임함으로써 삼군의 용병작전면에서의 보다 통일되고 효율적인 자문에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현대의 전략개념과 집단안전보장체제 하에 있어서의 군제를 고려하여 필요할 시 설치되는 연합부대만은 삼군참모총장을 경유치 않고 연합참모총장회의의 의장의 자격으로서 작전지휘케 하자는 것이 연합참모총장에 대한 이번 개편의 내용이라 하겠다.

3. 3군제유지와 연합참모총장회의 및 군사정책회의

금반개편에 있어 심각히 토론된 내용의 하나는 삼군제의 존속이나, 단일군제의 채택이나 하는 문제였다.

금일의 복잡화한 행정효율의 향상방안은 기능별의 표준화와 전문화를 통한 대폭적 권한의 위임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반면 군사의 효율적면에서 볼 때는 중앙집권화를 통한 강력한 통일된 지휘가 요망된다고 시인도 했다.

우리는 이 상반되는 조직의 원리를 여하히 국방기구에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숙고한 바 있었다. 군대의 존재가치는 평시 전시의 양면에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장시일에 연구와 토의 끝에 민주주의 정치체제 발전에 보다 큰 무게를 두고 삼군제존속의 결론을 보게 되었으나 삼군제가 가질 수 있는 삼군간의 반목과 중복을 피하는 방안으로서의 연합참모총장

미국(美國)의 대한원조(對韓援助) 전망(展望)

—군사원조를 중심으로—

박 충 훈(朴忠勳)



평소에 미국의 대한원조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던 점을 금년 4월 1일자로 국방본부에서 기(既)히 발행된 「미국의 대외원조 전망」이라는 소책자에서 논술한 바 있는데 금번 편집자의 요구에 의해서 이를 간단히 요약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편 미안하게 생각되는 것은 1961 미회계연도의 미국방비 및 대외원조에 대한 미국회에서의 토의에 관한 새로운 자료의 불비로 본고를 보강치 못하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1.

인도를 방문한 후르시초프 소련 수상은 인도의회에서의 연설에서 세계 각국의 방위비는 천억 불에 달하는데 군축을 단행하여 그중의 150 내지 2백억 불을 전환해서 수억 인민을 기아와 빈곤에서 구제하는 역사적 과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하는데 이는 소련의 후진국 원조경쟁에 있어서 선전적 발언에 불과한 것이라 하겠으나 우주시대에 있어서의 미소경쟁은 ICBM 및 수폭(水爆)의 위력과 그 Balance를 상호 유지하면서 군사면보다는 경제경쟁의 성격을 더하게 되며 이 경제경쟁은 후진국에 대한 원조경쟁을 일층 치열하게 만들게 되어가고 있다. 이제 미국의 대외원조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첫째 군사원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미국 방위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회의제도와 군사 정책회의제도를 채택케 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

우리는 삼군제를 존속시킴으로써 보다 선의의 경쟁과 견제를 통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체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며, 다만 삼군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기능만은 이를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그 마찰을 피해 보려는 것이 금번개편과 아울러 의도한 법적 조치의 기준태도였다. 따라서 삼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에 직결되며 그 어간(於間)에는 회의체 이외의 어떠한 존재도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이 개편의 골자이다.

이 이외에도 현행 국군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국방위원회와 그 소속 중앙정보국과 국방자원관리위원회 그리고 군사참의원과 국방부부속기관에 대한 개편도 검토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국방부로서의 건의안과 정부조직법에 규정하고 있는 국방부조직에 대한 개편안도 성안한 바 있으나 지면제한관계로 다음 기회에 밀기로 하고 이상과 같이 국방부에서 성안을 보게 된 국군조직법안에 입각한 국방기구개편대강을 간추려 설명함에 그치겠다.

<필자·전 국방부차관>

레이크 항공사 아·유 양(嬢) 「수카르노」대통령과 염문(艶聞)?



그레이트레이크 항공사의 여승무원인 캐롤·아·유 양은 그녀가 수카르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네 번째 부인이 되리라는 인도네시아의 풍문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당년(當年) 22세의 아·유 양과 수카르노 대통령이 서로 알게 된 것은 3년 전의 일이다. 당시 하와이 대학의 미인이었던 캐롤 양은 하와이의 전통적인 알로하 키스를 수카르노 대통령에게 함으로써 인도네시아에서 비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 후로 수카르노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캐롤 양을 자택으로 방문하였다. 인도네시아로부터 이곳으로 오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캐롤 양이 수카르노 대통령의 네 번째 부인이 되리라는 풍문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자하다고 한다.

수카르노 대통령은 캐롤 양을 인도네시아로 초청하였다.

미국은 현재 소련에 비해서 missile면에 있어서 열위(劣位)에 놓여 있다고 하며 1963년에 가서 missile gap이 제일 많아지고 그후부터는 그 gap이 점점 감소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missile gap에 대비해서 미국 행정부는 SAC의 B-52 수폭기, 소련을 포위한 기지망, IRBM의 전개, Polaris잠수함의 취역 등을 종합한 역전으로서 대항하되 그 저지력에 있어서는 미국이 도리어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균형예산을 위해서 국방력을 약화하고 있으며 FY61에 요청하고 있는 410억은 부족한 것이며 Atlas 계획확장, B-52의 25% 상시 공중대기, B-70 폭격기 등을 위해서 25억 불을 더 증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ICBM에 있어 Blance를 유지하기에 이르는 때까지는 미국의 SAC 해외기지와 IRBM은 미국방위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은 확인을 요치 않으며 FY61에 NATO 제국에 4억 불을 군원(軍援)으로 증액 요청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취해진 조치라 할 것이다.

ICBM의 Balancs를 이루기 전에 있어서의 동맹국가의 집단방위력이 중시됨과 동시에 그 후 단계에 있어서 즉 Nuclear Stalemate 또는 ICBM Stalemate 하에서도 제한전쟁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계속 자유진영 제국의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소련 수상이 금년 초 쏘비에트 의회에서 120만 명을 감군하고 Manned bomber는 박물관에 장식하게 되었다는 것은 국방력을 Rocket 의존일변도로 하는 인상을 주고 있으나 120만을 감군한 후에도 그 병력은 242만 명으로서 미국의 현 병력 248만 명과 비슷한 것이며 소련의 전통적인 군사정책은 전면 제한의 양형태의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었던 만큼제한전쟁에 대비하는 재래식 군대를 약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특히 중공의 군사력은허터 국무장관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자유진영에 대해서 커다란 위협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므로 ICBM Balance 여부에 불구하고 동맹 제국의 재래식 군사력은 강력히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미국의 군사원조도 장기간 계속될 것이 예측된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원조는 무기원조와 일반 소모성 물자로 되어 있는데 무기원조는 대체로 미국이 신무기로 전환한 후 구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많은 만큼 장기간 계속될 것이나 경제원조 중점주의로의 전환에 따라 한국과 극히 소수의 국가에

제공되고 있는 소모성 원조의 물자는 이를 급격히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3

다음에 미국의 대외원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미소의 경제경쟁이라 하겠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61년은 GNP가 5천억 불을 초과해서 미국사상 최고번영의 해가 될 것이라고 미국경제의 건전성을 과시한 바 있으나 후르시쇼프의 1959년부터 시작된 신7개년 계획은 미국에 대한 경제 정면도전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후르시쇼프는 금년 초 Soviet 회의에서 Stalin 사후 6년간에 공업생산이 90% 증가되었고 소비물자는 전년에 비해 10.3%의 증가를 보였으며 바타는 1인당 소비량이 미국의 7, 8봉도(封度, 파운드)에 대해서 소련은 8, 3봉도로서 미국을 능가하였다고 호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CIA 장부 Allen Dulles씨는 1959년 11월 미 양원협의경제위원회 경제통계소위원회 회의에서의 증언을 통해서 소련의 7개년 계획은 신중히 입안된 것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며 이 계획은 7개년의 공업생산고를 80% 증대하는 과제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 목표는 달성될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후르시쇼프가 호언하다시피 10년 후인 1970년까지 또는 그보다 더 빠르게 공업생산고에 있어서 미국을 능가할 수는 도저히 없다고 하였고 더구나 1970년까지 소련국민이 세계최고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아주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소련은 장래 경제향상에 의해서 중립적인 저개발 제국에 침투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물자와 역무(役務)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Dulles 장관은 국력비교의 진실한 척도는 국민총생산이나 공업생산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자원의 사용방법이 국력의 정도를 주로 결정한다는 견지에서 미국이 국력증강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소비물자나 서비스의 생산에 많은 경제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비공산당선언이라고 불리우는 경제성장의 단계론을 발표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MIT의 로스토우(Rostow)교수도 작년 11월 CIA 장관이 증언한 바 있는 합동경제위원회에 대한 보고서에서 미소대립의 본질을 분석함과 동시에 60년대의 10년간에 미국이 취할 정책방향을 시사하였는데 로스토우 교수는 말하기를 오늘부터 1970년까지의 사이에 결정적 시련이 행하여질 것이며 미국의 정치지도자들이

그 시련에 대응하기 위해서 손 밑에 있고 명백히 풍부한 자원(상품과 역무는 물론 의지, 숙련, 재능, 미국적 전통에의 충실 등의 제(諸)자원)을 동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효과적인 미국의 군사 및 외교정책 으로서는 전면전쟁과 제한전쟁의 어떤 형태의 전쟁에 있어서도 공산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도록 미국의 정책을 세우야 하고 이 기간동안 다음의 3분야에서 공공지출을 증액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 (1) 소련의 missile 우위 중 미국의 기지를 공고히 할 것.
- (2) 제한전쟁저지를 위한 충분한 공수능력을 가질 것.
- (3) 저개발지역에 대한 국제적 원조계획에 미국이 충분히 기여하여야 할 것 등이다.

미 대한원조실적 연도별 재원별

단위: 100만불

	군사원조			경 제 원 조								군사 및 경제 총계
	주요물자	기타물자	군원계	방위지원			기술지원	D L F	P.L. 480	경제계		
				시설재	전액	전액중 402조						
1954	—	—	—	95	105		200	—	—	—	200	200
1955	—	—	420	135	126	(28)	261	—	—	15	276	696
1957	—	—	379	101	223	(53)	324	5	—	48	377	756
1957	120	150	270	98	199	(45)	297	5.5	—	19	321	591
1958	117	69	(1)213	35	180	(40)	215	6.8	7.1	50	278	491
1959	—	—	(2)206	35	175	(35)	210	6.1	10.1	33	260	466
1960	?	86	(2)209	10	170	(—)	180	(6.5)	—	(4)35	221	430
계			(3)1,697	509	1,178	(201)	1,687	22	18	200	1,933	3,630

- (1) world-wide spare parts pool에 의한 부속품을 포함치 않은 액수임
- (2) 미국방성공표 숫자임
- (3) 1960년 2월 25일 미 국방총성(國防總省)의 공표에 의하면 1950~1959년간의 대한 미군원의 총액은 1,291,947천 불이라고 되어 있다.
- (4) PL480의 1960년분은 협정에정액임

<특집·국군의 장래를 위하여>

덜레스 장관이나 로스도우 교수는 다 같이 미국의 경제자원에 있어 소련보다 우월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소련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제 자원이 국력증강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과 국민적인 기풍에 있어서 선구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은 항상 개척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후진국 경제개발원조는 미소경제전쟁의 일부 분으로서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4

미국의 대한원조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당시의 이 대통령이 도미하여 한미의정서를 협의한 후인 1955년 이후부터이다. 미국의 대한원조는 별표(전면의)와 같으며 FY58부터는 DS에서 DLF가 분리함으로써 DS가 대폭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군사원조도 FY58부터 감소의 경향이 심해졌으며 그 내용에 있어 소비물자인 기타물자의 점차적인 감소경향을 알 수가 있다.

한국경제의 원조의존도는 국제수지에 있어서 미국원조비율은 80%이며 원조의 대GNP비율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경제, 국방은 미국원조에 극도로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은 미국의 원조수혜국 중 가장 많은 원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콘론 보고에서는 한국의 위치를 단순한 피원조국가보다는 달리 미국청년의 피의 대가를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의 정치, 경제면의 건전한 발전에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할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드레이퍼(Draper)보고에서도 한국, 월남, 중국 등 대공 최전선 국가에 대하여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으로서 군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대외원조국 중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나 금후(今後) 얼마나 이러한 특권적 대우가 계속 될 것이며 그 전망은 어떠한 것인가? 대한원조의 낭비성을 지적하는 미국 국회의원도 많으나 한국이 매년 병사 1일당 3백 불 정도의 미국의 군사원조를 얻어 반공국가 중 미국에 다음가는 국방군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또 휴전 후 연평균 2억 5천만 불의 경제원조로서 6·25의 황폐에서 오늘의 경제안정과 산업부흥을 보게 된 것은 우리 국민의 노력과 미국 대외원조의 커다란 성과의 하나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우리는 원조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대외원조정책의 변경에 따라 언제까지 최우선대우를 받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이다.

6

방위원조(DS)는 1958년에 자본계 원조를 대부분 DLF쪽으로 돌리게 됨으로 3억 불 원조 규모가 8천만 불 삭감된 2억2천만 불로 되었고 FY60에는 3천만 불이 또 삭감되어 1억8천만 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DS를 받는 12개국 중 한, 중, 월 3개국이 과거에는 3분지 2를 받던 것이 FY61에는 56%로 감소되었으며 자유중국에 대해서는 DLF를 늘이고 DS를 대폭 삭감하는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다. 민주당 상원 부총무 맨스필드 의원이 FY63 이후는 일체 증여형식을 중단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미국의 DS계획은 원조 항목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라 하겠으며 FY60의 요청보다 1억천백만 불이 감소된 7억2천4백만 불로 되어있다. FY61의 대한원조는 대체로 전년도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그 후에 있어서도 그 감소의 정도는 타국보다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바 그는 대한군원 중 소모성 물자의 부분을 이 부문에서 받아 들이게 될 것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DS원조가 점차적으로 삭감되는 것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DS의 점차적 삭감에 대비해서 한국의 외화획득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은 체언을 불요(不要)할 것이다.

DLF차관은 아직까지 9천백만 불의 승인을 받고 있을 따름인데 미국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인 만큼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개발 3개년계획 또는 5개년계획 등을 수립해서 강력히 추진하면 사업이 경제적으로 건전하다 하면 다른 나라보다 우대를 받을 것으로 믿는 바 DLF 외에 세계은행 또는 앞으로 설립되는 IDA UN 특별기금 등을 통해서 시설재 도입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공법 480호에 의한 잉여농산물 도입은 한국군을 유지하기 위한 환화 조달이 그 중요한 목적인 만큼 군사비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하고 군사 소모성 물자의 공급증단에 따라 이 부분이 증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한국농업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악화하는 면이 있는 만큼 무한정 증가시킬 수도 없는 애로가 있는 것이다.

7

다음에 미국원조에 의해서 조성되는 대총자금은 1954년 이후 1959년까지 6,293억 환이 지출되었는데 경제부흥사업에 63.2%인 3,976억 환, 국방비 지원에 33.9%인 2,135억 환 그리고 기타에 29%인 181억 환으로 되어있다. 대총자금세입은 1958년에 최고에 도달하였고 1959년은 경제지원의 삭감으로

미국의 원조가 군사우선원조에서 후진국 경제개발로 그리고 증여형식에서 차관형식으로 그리고 미국 단독원조에서 다수 공업국의 합동원조로 이행됨에 따라 한국의 위치는 정비례해서 그 특권적 위치에서 서열이 하나씩 떨어져 갈 것을 피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다행히 미국의 정책이 급작스러운 변화를 단기간에 취하지 않는 나라인만큼 그러한 변화가 급속히 올 것으로 보이는 않으나 원조가 감소되어 가는 것은 이미 사실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5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원조별로 이를 검토하기로 하면 첫째, 군사원조면에 있어서 한국은 서독과 아울러 미국이 육군사단을 배치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가장 중요시되는 지역이라 할 것이다. 한국방위는 한국군이 대부분의 방위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한국군에 대한 급속한 약화는 있을 수 없을 것이며 도리어 미국은 적의 무기현대화에 대비해서 한국군의 장비현대화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이다. 이 현대화는 비록 일부 미국 재고장비를 이양해서 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게 되는데 원조총액에 증액이 어려운 만큼 병력유지비 원조액에 압력을 주게 될 것이며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서 병력삭감문제가 대두될 것이 예견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군원 중에는 타국에는 주고 있지 않는 부식, 피복 등 소모성 물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병력유지원조를 압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물자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으로 삭감을 면치 못할 것이고 그런 경우에 새로이 소요되는 막대한 환화(圓貨)를 여하히 지면(支辨)하느냐에 관해서 우리는 경제성장이나 현병력유지나 하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FY61에 있어서는 FY60보다 다소 군원이 증액될 것이라 하는데 이는 주로 무기공여에 충당되고 소모성 물자는 대폭 삭감될 것이라 한다. FY62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이 계속 강화되어 갈 것이며 앞으로 몇 년 후가 될는지 잘 모르나 멀지 않은 장래에 군사원조는 무기원조에 한하며 소비성 물자는 일체 군원에서 제외되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에 한해서 방위원조로 전환될 것이 예견되는 것이다. 무기원조는 원자무기를 동맹국에 공여하는데 대한 미 국회의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한국군의 무기현대화도 촉진될 것이며 그 반면에 Smaller Force 주장이 강력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인해서 450억 환이나 감소 되었고 금(今)회계년도는 71억이 더 감소 되어 1,335 억으로 되어있다. 93년도의 대충자금 현금예산은 물자대(代) 195억 환을 제외한 1,140억 환으로 되어있는데 국방비 지원 530억 환은 총액의 46.3%로써 상술한 평균 지원을 33.9%를 훨씬 넘고 있는데 이는 국방비 지원을 위해서 경제부흥면의 희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대충자금 지원의 국방비 총액에 대한 비중은 1956년의 48%를 최고로 그 후 연년이 감소되어 금회계년도에는 36%로 저하되어 점차 국내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감을 주고 있다. 군사원조정책의 변경에 따라 소모성 물자를 환화예산으로 조달하게 된다면 국방비의 대폭적 증가는 불가피하게 될 것인바 대충자금수입은 감소일로에 있으므로 그 증가수요를 대충자금에 의존하기는 곤란할 것이며 따라서 조세수입을 비롯한 국내재원에 더 일층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을 저해치 않고 국내재원을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는가를 고려할 때 대폭적인 증가는 불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군원물품의 국고예산으로의 전환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8

앞으로의 10년간은 미소 양국의 대결의 기간이며 그 대결은 군사와 경제의 경쟁에서 치열해지고 또 대외원조경쟁에 있어서 더욱 심해질 것이 예견되는 것이다. 미국은 강력한 군사저지력을 보유하면서 자유세계 공업국가들과 합동해서 후진국 원조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그 원조의 성격은 군사우선에서 경제개발원조로 전환하여 소련의 도전에 대항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특혜적 위치를 계속 보유하게 되기는 할 것이나 군원은 무기공여에 한하고 경제원조는 증여에서 차관으로 전환하는 미국의 일반정책의 열외적인 존재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제 최대한 자력으로 군사력을 유지하고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위대하고 곤란한 문제와 정면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로스토우교수의 '과도적 사회'에 놓여 있는 한국은 이 단계에서 도약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정부와 전국민의 비상한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

부강한 미국도 국제무대에서 선주자(先走者)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개척자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빈곤하고 후진적인 한국은 그 경제개발과 국력의 신장을 위해서 국민 각자가 개척자로서 이 시련을 극복해야 할 단계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필자·공군준장·국방부 관리국장>

미국(美國)의 대극동전략(對極東戰略)

불안한 해외기지와 폴라리스 유도탄의 출현

이규현(李揆現)



지난 6월에 미국과 일본 사이의 안전보장 조약을 반대하는 일본의 시위가 폭력으로 화하여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방일 초청이 취소됨에 이르렀을 때 미국 자신은 물론이고 그 맹방(盟邦)들에 대한 충격은 심각한 것이었으며, 일본의 정치적인 불안정과 폭력적인 반정부 및 반미 시위에 대처하여 일본에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가 일단 유사시에 과연 얼마 만한 가치가 있을는지 의문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군기지의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는 그전에도 없었던 바가 아니며, 백악관공보비서 해거티씨를 공항에서 감금하다시피 하고 국회 의사당에서 주야결행으로 살인사태까지 내고 있던 소요가 단지 안보조약이 좌절되고 기시 수상이 사퇴함으로써 종식할 것인지 혹은 그 이상의 엄중한 사태로 발전할 것인지 용이하게 추측할 수 없었다.

특히 지리적으로 자유세계의 전초기지를 이루고 있으며 그 공군 지원을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에 의지하고 있는 한국에 대하여 일본의 그와 같은 사태는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다. 수십만 명이 반미 시위를 전개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것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체하지 못할 지경이라면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만 마지 화약고 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나 다를 것이 무엇인가? 만약에 미국이 일본에 있는 기지를 모두 포기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따위의 의문이 우리의 뇌리를 스쳤다. 그 당시에 버지니아에서 열린

미국의 최고 군사 전문가들의 회의에서 이 문제가 토의되었다고 하는 보도도 전혀 근거없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현재 미국은 횡수하(橫須賀), 좌세보(佐世保), 후목(厚木), 암국(岩國), 횡전(橫田), 입천(立川), 아시아, 이따즈케 등 일본 각지에 8개의 공군기지와 2개의 해군기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기지들을 만약에 상실한다면 큰 재난이 될 것이라고 미군 당국자들은 말한다. 미해군에서 최대의 규모인 제7함대는 진주만 이서(以西)의 유일한 큰 수리시설을 잃어버리게 되고, 큰 정비를 하기 위하여 함정을 교체하려면 동 함대는 2배의 세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한다. 미공군이 일본에 가지고 있는 요격기와 제트 경폭격기는 비교적 적은 수효인데 만일 그것이 다른 곳으로 이동된다면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에 전술공군력을 미국서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한다. 또한 일본의 선거(船渠)와 저장시설과 수리시설과 제조시설이 없다면 한국에 재개될지도 모르는 지상전을 지원하는 것은 지극히 곤란하게 될 것이다. 일본 이외의 기지는 몹시 취약하다. 휴전선을 넘어오는데 제트 전투기로 3분도 안 걸리므로 세계에서 적지에 가장 접근하여 있는 김포기지를 포함하여 한국에 있는 공군기지는 공산군의 기습을 받을 위험성이 있으며, 오키나와는 이미 미군의 군사시설이 너무 밀집하여 있으며 비올빈(比律賓, 필리핀)의 시설은 충분한 것이 못 되어 일본에 있는 수리시설에 대치할만한 것은 아무데도 없다. 이와 같이 중요성이 높고 대가가 용이하지 않을수록 그에 대한 신뢰성이 의문시된다고 하는 것은 미군 당국자들로서 더욱 고민이 클 것이다.

일본의 기지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볼 때에 이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존에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설사 기술한 6월의 소요가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6월 22일에 미국상원은 적어도 앞으로 10년 동안 효과를 가질 미국일안보조약을 90대 2로 인준하였는데 그 전날 이 문제를 토의하는 상원회의에서 “일본땅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인들은 일본 정부의 동의 없이는 일본 외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외교분과위원장 윌리엄 폴브라이트 의원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하여 일본이 심각하게 반대하고 동의하려 하지 않는다면 이 조약의 정신은 우리가 그 행동을 취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우리가 일본의 동의없이 우리 군대를 전장에 투입하는 대기기지로 일본에

<특집·국군의 장래를 위하여>

있는 기지를 사용한 한국 전쟁 당시와 같이 이제는 일본에 있는 우리 기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폴브라이트 의원은 “그렇다. 단독적인 병참(兵站)지원은 있을 수 있으나 단독적인 이동은 있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만약에 소련이나 중공이 핵비탄(飛彈)을 발사하여 그것이 워싱턴이나 뉴욕에 낙하한다 치면 그래도 우리는 그에 보복하기 위하여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군대를 사용하기 전에 일본 정부와 협의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조약에 의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조약의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될 것이냐 하는 것은 당해 보아야 알겠지만 흐루시초프가 미군 기지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하여 온갖 협박적인 언사를 던지고 6월에 일본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일부 국민들의 폭력적인 압력으로 정부에 상당히 중대한 규정을 강요할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 해외 기지로 말미암아 갖는 두통이란 일본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북은 아이슬란드에서부터 지중해 인도양을 거쳐 일본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공해군의 기지군으로써 유라시아 대륙 상의 공산국가들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으며 그것이 소련이나 중공에 대한 전쟁 저지력을 형성하고 대량 보복의 힘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그 기지군의 거의 모두가 대소의 문제 거리가 없는 것이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미국이 든든히 믿고 앞으로 다년간 그에 의지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유지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그 실례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이미 상술한 바와 같거니와 오키나와에는 미 해병 제3사단의 3분의 2 병력에 해당하는 약 만2천 명과 1개 육군 낙하산 전단 약 2천 명과 그 지원용 야포대(野砲隊) 2개, 나이키 허큘리스 대공 미사일 대대 및 호크 대공 미사일 대대 등과 초음속 전투기로 장비된 공군이 배치되어 있으며 메이스 유도탄이 불원 배치될 예정인데, 이곳 주민들 간에는 일본통치로 복귀하려는 운동이 있으며 6월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방문하였을 때 반미 시위 군중으로 말미암아 숙소의 뒷문으로 빠져나와 비행장으로 향하였다.

한국에는 제1기갑사단 및 제7보병사단 등 2개 육군 사단이 오네스트 존, 로켓포 및 공군의 매터도어, 미사일로 장비되어 약 5만 명의 미군인이 주둔하고 있는데 미군 지도자들은 4월 혁명 이후 이곳의 장래의 방위 정책에 관하여 우려를 품고 있다고 한다.

비올빈에는 미 해군이 생그리포인트와 수비크바즈 항공 기지 등에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비올빈 정부는 원조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으며 미군에 대한 권한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파키스탄에 대하여는 흐루시초프가 만일 동서 파키스탄의 미군 기지에서 미군의 정찰기가 뜨면 미사일로 공격할 것이라고 협박한 바 있었다.

중동에 있어서는 토이기(土耳其, 터키)의 혁명으로 어느 정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아다나에 있는 중요한 공군 기지의 장래는 신정부가 든든히 확립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을 것이라 한다. 영국이 수에즈에서 손에 댄 이후로는 중동에 무슨 사건이 생기면 아다나가 서방측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주요기지로 된다.

모로코에서는 장기간의 보복용으로 건설된 대규모의 공군기지에서 현지 주민들의 민족주의의 압력에 못 이겨서 미군 폭격기들이 철수를 개시하였으며 1963년까지에는 이곳에 있는 5개의 기지가 다 폐쇄될 것이다.

리비아에서는 미 제17공군 사령부가 트리폴리에서 서독으로 철수하였다. 모로코와 리비아에서 철수한 비행기들은 대부분이 서독으로 이동하였는데 공산군 미사일의 용이한 사거리 내에 들어간 셈이다.

프랑스 내의 핵 폭격기들은 핵무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프 정부의 고집에 부닥쳐서 전부 철수 완료하였고 기지는 폐쇄되었다.

영국에 있는 기지는 아직까지는 안전하나 일부 노동당원이 핵폭탄 금지 운동을 지지하여 정치 문제화하여 가고 있다.

노르웨이에는 미군 기지는 없으나 만일 미국의 첩보 비행기가 노르웨이의 비행장을 사용하면 공격하겠다는 소련의 협박을 받은 바 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그 나라 정부의 압력을 받고 미육군의 대대 전투단이 철수를 완료하였다. 제2차 대전 초기부터 주둔하고 있던 미 지상군이 다 철수된 것이며 공군기지의 장래도 불안정하다.

이상과 같은 해외 기지에 관한 여러 문제는 그것이 존재하는 주인 나라의 정치 정세와 대외 정치 노선의 변화 및 그 나라들과 미국과의 미묘한 관계 등에 기인한 것인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정확한 위치가 적에게 알려져 있는 고정 기지가 미소 양국이 핵탄두 미사일을 시초부터 사용하는 소위 전면전쟁의 상정하에서 과연 어느 적의 공격을 견디어 낼 수

있을런지는 상당한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미 대륙방위와 대소(對蘇)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 내의 대륙간 탄도탄 진지가 견고하게 지하로 구축되고 또한 열차에 적재되어 발사되게 되는 것도 그것이 적의 고정 목표화하는 것을 피하려는 기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세 하에서 지난 7월 20일 케이프 카나베랄 연해에서 수중에 잠항하면서 원자력 잠수함이 발사한 폴라리스 유도탄의 성공은 미국의 전략전문가들을 기쁘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8월 8일 의회에 보낸 특별교서에서 특히 이 폴라리스 유도탄에 언급하여 그 「첫 시험 발사가 장거리의 사정에 있어 소총을 사격할 때와 같은 정확도를 보여 주었다」는 사실에 지극히 만족한 뜻을 표명하였다. 수개월을 잠수한 채로 북극의 빙도(氷島) 밑을 포함하여 7대양의 구석구석을 쾌속도로 달릴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에 사정 거리 1,200마일의 유도탄 16개를 장비한 것은 지구상 원하는 곳에 이동하는 비밀기지를 수십 개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손에 새로운 안전과 전쟁 저지력을 주었으며 실로 전략상의 신기원을 획(劃)하였다고 할 것이다. 계획보다 5년 일찍이 성공한 이번의 조지워싱턴호의 폴라리스 발사실험은 수중 40휘트에서 진행된 것이며 이 원자력 잠수함에 16개 적재할 수 있는 폴라리스 유도탄은 매개(每個)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탄들을 포함하여 제2차 대전에 양쪽에서 사용된 전체 폭탄을 합친 것과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다. 잠수한 채로 6천 마일 거리까지도 무전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이 잠수함 군이 유라시아 대륙을 둘러싸면 소련과 중공을 비롯하여 동유럽의 모든 위성 국가의 영토 중 사정거리 안에 들지 않는 지점이 없어진다. 지금 폴라리스의 사정거리는 1965년 이전으로 2,500마일로 연장되게 계획되어 있다. 그와 같은 개량형이 발전되면 그것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말하듯이 더욱 변용성과 위력과 불가손(不可損)의 성격을 지닌 무기를 미국에 제공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금회계년도에 본래 원자잠수함을 3척 더 건조에 착수할 예정이던 것을 5척으로 증가하였으며 1965년까지에는 45척의 유도탄 발사 원자력 잠수함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그중 30척은 항상 유라시아 대륙 주위를 순항하게 계획되어 있다.

그와 같은 계획이 실현됨에 따라서 미국이 두통거리의 해외기지를 서슴치 않고 폐쇄하고 전혀 해외기지에 의지하지 않아도 좋을 날이 올는지 두고 볼 만한 일이다.

<필자·한국일보논설위원>

극동(極東)의 집단안전(集團安全) 보장(保障)



이원우(李元雨)

1.

딘(J.Deane)이 그의 저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묘한 동맹이었던 서구제국과 소련의 공동전선은 전쟁수행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달성되자 새로운 긴장에 직면하게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정치는 미·소 양대국으로 분극화하였다.

미·소 양국의 세계사적인 입장도 이를 계기로 하여 획기적인 변화를 다 하였고 냉전의 격화와 더불어 아세아에서도 분극현상이 촉진되었다. 오늘날 아세아는 세계의 분극현상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일방의 극에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반공민주세력이 압도적으로 강한 북방아세아의 각 도서(島嶼)를 두고 있으며 다른 극에 중국대륙을 두어 그 중간에 동남아세아가 동요하면서 새로운 진영을 형성하려 하고 있다.

북방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일본·비율빈·국부중국 등 4개국은 오늘날 다른 아시아제국과는 달리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국가군을 형성하고 있다. 이 국가군은 모두 대륙부의 중공의 주변에 산재하는 도서나 반도이며 중공과 그의 동조국가군과 대립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은 중공으로부터의 침략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중공은 이들 제국을 지배하고 공산화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기 4개국의 숙명적인 지리적 위치를 미 국무차관보 J 그레압 파슨스씨는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이들 신흥국가의 대부분은 극히 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제1의 임무는

이와 같은 국가의 존속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원조계획과 태세가 군사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 기인한다. 최대의 필요사는 안전보장이다.

첫째로 우리들은 공산측의 공세를 저지시키기 위하여 동지역 내에 기지와 해군력을 보유하여 모든 사태에 응하여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둘째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 군사원조계획 아래 지역제국의 병력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하여 있으며 이와 같은 국가가 국내의 파괴활동과 국외로부터의 간섭에 저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이들 4개국과 쌍무적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중공이 한국 침략을 시작하자 집단방위체제를 진지하게 수행하게 되었고 디·엔·비엔프가 함락되어 공산군이 전 동남아시아를 석권할 위험이 발생하게 되자 SEATO를 형성하게 되었다.

2.

한편 제1차 세계대전 후 세계는 집단안전보장체제에 의하여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였다.

월슨이 말한바 하나의 새로운 체제로서의 집단안전보장의 이념은 1648년의 웨스트페리아 의회 이후 수 세기에 궁(巨)하여 유럽 국가체제의 지도방식이 되고 있었던 세력균형의 결함을 커버하는 평화유지를 위한 안전보장방식으로서 합리적인 일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세력균형은 국가 간의 대립을 전제로 하여 대립하는 국가 또는 국가군의 힘의 균형을 보지(保持)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려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힘의 균형은 그것을 언제나 국제적인 규모로서 조정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항상 자기 붕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더구나 국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원적인 것이며,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극히 곤란한 일이다. H·J 모오겐소오는 국력을 구성하는 제(諸)요소로서 지리, 천연자원, 인구, 산업능력, 군비, 국민적 기질, 국민적 사기, 외교적 자질 등을 열거하고 있으나 국력은 이와 같은 물적 내지 실체적 요소 외에 인적 내지 비실체적 요소를 가미하여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종합적 전체로서의 국력을 측정할 객관적 척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의 판단은 주관에 위임할 도리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힘을 정확하게 판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힘의 증가에 전력을 기울이게 된다. 여기에

힘의 균형을 조지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려는 세력균형정책 그 자체가 오히려 균형을 파괴하고 대립을 격화시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집단안전보장체제는 바로 이와 같은 세력균형에 대신하는 평화유지를 위한 방식이며 세력균형과 같이 국가 간의 대립을 전제로 하면서 단지 힘의 균형만으로서 안전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립관계에 있는 국가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관계국이 상호 간에 불가침을 약속하는 동시에 이에 위반하여 평화를 파괴하는 국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제국가의 힘을 집결하여 집단으로서의 강제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고 회복하려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집단안전보장체제는 종래의 국제법질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국가가 최악의 경우에 실력에 호소하여 사태를 해결한다는 것은 국가에 인정된 가장 강력한 근본적인 권력이었고 타국으로부터 침해를 받았을 때 그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전쟁에 호소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주권작용이라고 생각되고 있었다. 집단안전보장체제는 바로 이와같은 사고방식에 대한 정반대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으며 이것은 종래의 국제법질서의 근본적인 변혁 및 발전을 의미한다.

그러나 집단안전보장체제도 평화유지를 위한 유일의 수단은 아니며 그 기능에는 중대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이 체제는 국가 내의 대립을 커버하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그것이 발동되는 경우에는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권력정치적 현실로부터의 제약을 당연히 예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문제로서 각 국가 자국이 이해관계를 완전히 떠나서 전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한 일이며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보통이다.

집단안전보장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제연합의 본래의 이상은 권력정치에 중지부를 찍고 권력정치에 대신하는 국제협력의 새로운 방식을 확립하는 것이었으나 현실의 국제연합은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권력정치가 행해지는 장소가 되었고 각국의 외교전략이 교착하는 무대가 되었다.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체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전제로 하는 안전보장이사회 중심의 체제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노골적으로 표면화된 양대진영의 대립과 항쟁의 확대심각은 전쟁 전의 기대를 전적으로 파괴하였고 소련의 일방적인 거부권 행사가 남용되자 국제연합의 중추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는 일편의 소란한

국제선전전의 무대로 화하고 말았다. 따라서 국제연합 15년간의 궤적은 집권 정치의 강약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3.

이상과 같이 집단안전보장체제라 할지라도 현실의 권력정치의 영향을 전혀 무시할 수 없고 숙명적인 자기모순을 내포하고 있으며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국제연합의 집단적 안전보장의 불비(不備)를 보충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지역적인 안전보장기구라 하겠다. 국제연합헌장이 성립된 이래 제51조에 규정된 집단적 자위권을 중핵으로 하는 지역적 협정이 속속 성립하였다. 집단적 자위권은 2국 이상의 국가로 구성된 국가군이 공동으로 침략을 방위하는 권리를 말한다.

아세아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후 다수한 지역적 안전보장방식이 주창되었다.

첫째로는 1954년 6월 23일 인도지나(印度支那)의 휴전에 관한 제네바회의가 개최되고 있을 때 이든 영국의상이 하원에서 발언한 것으로서 로카르노 방식에 의한 지역적 안전보장이 있다. 동남아세아제국이 서로 타국의 영토적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할 무력의 행사나 위협을 삼갈 것을 약속하고 그중 어떤 국가가 이를 위반하면 다른 제국이 협력하여 위반을 방지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적 협정이면 제3국을 목표로 하고 이에 대항한다는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 외의 제3국을 목표로 하여 이에 대하여 지역 내의 제국이 동맹적으로 결합한다는 의미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아세아에 있어서의 로카르노 방식의 지역적 안전보장협정은 현상으로는 정당한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나 현실적인 실현이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현하(現下)의 국제정치 하에서는 가장 타당한 결론이라 하겠다.

둘째로 인도와 서장(西藏, 티베트) 간의 통상과 교통에 관하여 인도 및 중공 간에 1954년 4월 29일에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명시된 평화5개원칙에 의한 평화지역의 방식이 있다. 평화5원칙이란 상호 간의 영토보전과 주권에 대한 존중, 상호불가침, 상호 간의 국내문제에 대한 불간섭, 호혜평등, 평화적 공존의 원칙을 말한다. 이와 같은 5원칙에 의하여 서로 지방의 영토보전과 독립을 존중하고 침략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를 양국관계의 근본원칙으로 하여 평화적인 관계와 교통을 수립하려고 한다.

이 방식은 대항적인 동맹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나 진정한 안전보장의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안전보장의

신국회(新國會)의 의석분포(議席分布)와 정국(政局)의 장래(將來)

류승범(柳承範)

방식은 침략이나 공격이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국이 협력한다는 요소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침략을 행하지 않는다는 약속만으로는 진정한 안전보장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지상의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확보하는 수단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소위 평화5원칙의 방식은 효과적인 안전보장의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상기한 바와 같이 로카르노 방식이 실현불가능이고 제2의 방식인 평화5원칙이 진정한 안전보장방식이 아니라고 하면 결국 아세아에 있어서의 자유국가간에 공동적인 안전보장협정을 체결할 도리밖에 없다. 아세아에서도 공산제국 간에는 그들의 중심인 중공과 소련 간에 1950년 2월에 체결된 중·소 우호동맹조약이 있어 공산진영의 지역적 안전보장기구가 성립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아세아자유제국 내에는 SEATO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동남아세아는 세계에 있어서의 가장 불안정한 지역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와 같은 지역에서 지역적인 안전보장을 설정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것은 재언을 요치 않는 일이라 하겠다.

<필자·경희대 교수>

자유세계(自由世界)의 군사동맹(軍事同盟)

한미(韓美)상호 방위조약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조인
미일(美日)안보조약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
미중(美中)상호 방위조약 1954년 12월 2일 워싱턴에서 조인
미비(美比)상호 방위조약 1951년 8월 30일 워싱턴에서 조인
동남아 조약 1954년 9월 6일 마닐라에서 조인. [가맹국]미·영·프·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타이·필리핀·파키스탄 등 8개국임.
앤저스 조약 1951년 9월 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인 [가맹국]미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북대서양 조약 1948년 3월 브뤼셀에서 조인 [가맹국]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노르웨이·덴마크·아이슬란드·포르투갈(이상원조인국) 그리스·터키(52년 2월 가맹), 서독(55년 5월 가맹) 이상 15개국
중부 조약 1955년 2월 24일 바그다드에서 조인. [가맹국]터키·이란·영국·파키스탄 이상 4개국 (미국은 준가맹국, 원가맹국인 이란은 1959년 3월 24일 탈퇴)
미주상호방위조약 1948년 4월 30일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파에서 조인. [가맹국]캐나다를 제외한 남북미주 21개국.

1

4월혁명으로 이승만 자유당정권이 붕괴되고 자유당의 거수기적 존재였던 제4대국회가 해산되자 개정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7·29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7·29 총선거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4월혁명의 결실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의의에 자못 지대한 바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7·29 총선거는 이와 같은 의의에 비추어 명실상부한 공명선거가 되었어야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관권의 간섭은 없었을망정 공명성을 헤치는 불상사는 도처에서 발생한 바 있었다. 즉 금품에 의한 매수는 거의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었으며 10여 투표구에서는 소위 반혁명세력을 규탄한다는 미명 하에 투표소를 습격해서 투표함을 파괴, 소각하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다행히 정부당국이 수습에 만전을 기한 결과로 그 후 재선거가 실시되었고 이로써 7·29 총선거는 그 막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여사(如斯)한 불상사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12년간에 걸쳤던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패가 순전히 선거의 불공정성에 기인한다 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만일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자유분위기를 파괴하고 선거의 공명성과 공정성을 헤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다면 민주주의는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고 다시 4월혁명과 같은 피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7·29 총선거의 결과를 볼 것 같으면 민·참여원을 포함해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을 맺었으며 야당세력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혁신계는 여지없이 참패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다. 즉 민주당은 민의원에서는 3분지 2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다수의 의석을 차지했으며 참의원에서도 과반수의 의석을 점유하게 된 것이다.

선거의 결과가 이렇게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나타난 이유를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즉 첫째로 민주당은 12년에 걸쳤던 이승만 자유당정권 하에서 꾸준히 정당으로서의 명맥을 이어오면서 투쟁해 온 야당이었던 점, 둘째로 과거 여당이었던 자유당은 야당으로서는 존재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규탄을 받았다는 점, 셋째로 아직 혁신정당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박약한 데다가 혁신정당은 그 조직과 선전에 있어서 보수당에 비해 열세하였다는 점, 넷째로 국민의 다대수가 민주당의 집권으로서 정국의 안정을 기대했다는 점 등이 그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넷째번의 국민의 다대수가 민주당으로 하여금 자유당의 정권을 계승하게 할 것을 원했고 또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점유하여 정국안정에 기여하여야 하겠다고 믿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물론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에 비해 혁신계가 참패하였다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라 할 수 없다. 의회정치 내지 정당정치의 본질이 보수대 혁신의 양당이 병립하여 상호견제의 묘를 다함으로써만이 비로소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혁신야당 없는 보수정당만의 존재는 보수세력에 의한 정치의 독점을 결과하게 될 것이다. 이승만 자유당정권이 혁신정당 탄압을 위한 구실로 이용하였던『혁신정당은 좌익, 환언하여 공산당과 합사하며 대한민국의 국시에 위배되는 존재이다』하는 그릇된 선전이 아직 국민들의 뇌리 가운데 잠자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은 전연 그릇된 생각인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한국의 의회정치 내지 정당정치를 본궤도 위에 올려 놓으려면 국민이 혁신정당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시정해서 보수대 혁신의 양당정치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

7·29 총선거가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을 맺자 정계의 일부에서는 정국의 안정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치적으로 볼 때에는 반가운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뜻의 견해를 피력한 바 있었다. 사실 민주당이 민의원에서 3분지 2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다수의 의석을 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국민으로서 크게 관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내각책임제 하에 있어서는 흔히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의 불안정을 시현하는 예가 많다. 제4공화국시대의 프랑스가 거기에 해당하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한 것은 그러한 정국의 불안정을 견제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그러나 어느 특정한 정당이 의회 내에서 3분지 2 이상이라는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했다는 것은 일당의 독재 내지 일당의 견제를 결과할 가능성을 예상케하는 것이다. 즉 3분지 2 이상의 의석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원하기만 한다면 헌법의 개정은 물론이고 기타 제법률의 개폐도 임의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이나 의회의 소집 또는 폐, 휴회 등까지도 타파의 협력을 얻지 않고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대통령중심제에 의한 정체를 가졌던데다가 내각책임제에 대한 인식이 박약한 일반국민은 일인의 독재뿐인 것으로 알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전연 그릇된 생각인 것으로서 일인의 독재가 있는 반면에 일당의 독재가 있으며 일당의 독재는 일인의 독재보다도 더욱 악질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민주당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구파 분당론이 실현 안되어 민주당의 신·구파가 분당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민주당에 의한 일당독재 내지 일당견제가 시현될 것을 예상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민주당의 대표최고위원인 장면(張勉) 씨는 “민주당이 비록 3분지 2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다수의 의석을 점유했지만 민주당의 생리로 보아 일당의 독재는 있을 수 없다”고 언명한 바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장면 씨의 이와 같은 언명은 민주당이 신·구파로 분당하지 않을 때 일당의 독재 내지 견제가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논평에 대한 해명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나 장면 씨의 그와 같은 언명이 민주당이 3분지 2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다수의 의석을 점유함으로써 시현된 일당독재 내지 일당견제의 가능성을 불식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또 민주당의 생리로 본다면 더욱 일당독재 내지 일당견제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첫째로 일당의 독재 혹은 견제를 방지하자면 그것을 견제할만한 강력한 야당이 비록 소수라고 하더라도 국회 내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 의석분포를 볼 것 같으면 3분지 2 이상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극소수의 혁신계와 구자유당계 그리고 일인일당격인 무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그들의 정치적 생리로 말할 것 같으면 언제라도 민주당의 신·구파에 동조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무소속의 원내교섭체인 민정구락부(民政俱樂部)가 민주당의 독재를 견제할 만한 강력한 야당이 되리라고는 현단계에서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민주당의 독재와 견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신·구파가 분당함으로써 여·야로 서로 갈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신·구파는 서로 분당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분당을 하게 되는 것은 현단계에서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신·구파 분당에 의한 민주당의 일당독재 내지 일당견제의 방지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7·29 총선거에서 국민이 무분별하게 민주당 후보에다 표를 집중시켰던 까닭으로 앞으로 당분간 한국의 정치는 보수당인 민주당의 독무대가 될 것이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이 과거 자유당이 3분지 이라는 압도적인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이승만 일인독재를 뒷받침했던 것처럼 일당의 독재와 견제를 일삼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막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상되는 한국정계의 장래는 민주당의 신·구파가 분당하느냐 분당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웅이 결정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민주당이 분당하지 않고 정권을 담당한다면 비교적 안정된 정국을 장기간 끌고 갈 수는 있겠으나 다수 대 소수가 서로 견제의 묘를 다 할수 있는 의회정치는 바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참의원의 의석분포를 볼 것 같으면 민의원과는 달라서 민주당이 우세하지만 민의원에서처럼 절대다수는 되지 못한다. 그라고 반민주당노선으로 단결할 수 있는 혁신계 무소속 구자유당계의 의석을 합치면 과반수 정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민의원에서 민주당의 일당독재 내지 일당견제의 기도를 참의원에서 견제할 수 있지 않은가 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참의원 내의 비민주당 의원들이 반민주당노선으로 합치느냐도 기대할 수 없는 일이며 또 민주당은 민의원에서 참의민의 존폐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할 수 있음으로 참의원에 의한 민의원의 견제란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분당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에는 일리가 없는 바 아니지만 국민으로서의 다음의 사실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확실히 민주당이 사일혁명 후 집권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신·구 양파로 분당하게 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일는지 모른다. 민주당의신·구 양파는 정치적 생리에 있어서 이질적이지만 자유당정권을 상대로 해서 유일한 야당으로서 투쟁해 온 정치적 동지이며 또 정강이나 정책에 있어서는 동일한 이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번 7·29 총선거에서 3분지 2 이상이라는 절대다수의 의석을 점유하였다는 사실은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일당의 독재 내지 견제의 가능성을

예견케 할 뿐만 아니라 정당정치의 본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합당한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정당정치라 집권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이 있음으로서만이 비로소 본래도 위에 오를 수 있는 것이며 그들은『동』이 있으면『반동』이 있다는 물리법칙이 자연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정치의 역학에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당의 간부들은 극력 독재와 견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3분지 2 이상이란 절대다수의 의석은 정국의 안정을 위해서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언설(言說)로서 독재와 전횡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것이며 한편 야당으로 등장할 것이 예상되던 혁신계가 참패한 현단계에 있어서 혁신계를 포함한 무소속과 자유당계가 민주당의 집권을 견제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차지하게 된 3분지 2 이상의 의석을 점유하게 된 것을 계기로 분당하지 않는다면 독재와 견제에 대한 가능성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신·구 양파 분당을 반대하는 파의 주장에 의한다면 첫째로 분당은 국민의 신망을 배신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보수정당에 의한 정책의 독점 내지 매점을 결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민주당이 3분지 2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된 것은 위에서도 논급한 바와 같이 국민이 신정권의 담당자로 민주당을 선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분당은 보수양당정치를 재연케 할 것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은 민주당을 신정권의 담당자로 선택은 했을망정 그들에 의한 독재와 전횡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며 오히려 민주당의 신·구파가 그 정강과 정책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면 분당함으로써 독재와 견제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국민의 신망에 보답하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보수양당정치가 의회정치 내지 정당정치의 본질에 합당하지 않지만 보수세력을 상대할 만한 혁신정당이 없고 보면 그것은 부득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혁신야당이 없다는 것이 일당의 독재나 견제를 허용해도 좋다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하면 당분간 보수양당정치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8월 19일에 있었던 제2차 국무총리지명에서는 신파의 장면 씨가 117표로서 인준을 획득한 바 있었다. 이것은 구파측의 영수 김도연(金度演) 씨에 대한 제1차 지명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론이라고 보겠지만 사실은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장면씨가 인준을 획득하게 된 것은 그만큼 의회 내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구파 내의 2, 3인의 배신이 결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집권의 기회를 놓친 구파가 여당 내의 비주류파로 남아 있게 될 것인지 혹은 분당으로서 야당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인지가 주목되는 사실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의 신·구파 분당은 위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필연적인 것이지만 장면 씨의 국무총리인준획득은 신·구파 분당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신파의 수령인 장면 씨는 설혹 국무총리인준을 구파에 빼기더라도 야당이 되지는 않을 것이며 여당인 민주당 비주류파로 남아 있겠다고 언명한 바 있지만 이것은 분당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말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또 집권투쟁을 하다가 패배한 이상에는 야당의 위치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며 또 그래야만 민주당의 3분지 2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다수의 의석이 의미하는 일당독재 내지 일당전제의 가능성도 불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민주당의 구파지도자들도 이러한 견지에 입각해서인지 그들의 정치적 귀추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듯 하거나 민주당을 위해서나 한국의 정치적 장래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구파는 민주당이라는 간판을 버리고 새살림을 꾸미는 방법으로 행로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고도 좋은 일일 것이다.

(필자·한국일보 논설위원)



**여자들이 따르자면
표정이 풍부해야**

오늘날엔 젊은 남자들이 처녀들의 가슴을 뒤설레게 하려면 얼굴을 피로에 지친 듯이 꾸미는 반면 몸둥이에는 표정이 풍부해야 한다고 영화 「재(회(灰))와 금강석」에 출연하여 유럽의 제임스 딘으로 지명된 약관의 파란 영화배우 즈비그뉴 지볼스키는 말하였다.

그는 자기의 눈이 생기가 없고 얼굴도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지 못함을 시인하면서 “나는 던처럼 내 몸둥이를 가지고 연기를 할 수밖에 없다. 수백 년 동안 여자들은 이리꿈틀 저리꿈틀 몸을 비비꼬아 남자를 유혹하곤 하여왔다 이제와선 몸둥이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를 남자의 차례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파란의 남배우들은 딘이나 부란도식 연기에 대한 숭배열을 불질러 놓았다고 지볼스키는 폭로하였다.

보수양당제(保守兩黨制)의 가능성(可能性)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를 한국적 풍토에 비추어서—

김 순 겸(金淳謙)



1.

4·19학생혁명의 의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자에 따라 각각 다른 견해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독선적 권위주의에 입각한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협의적인 상호적 인격존중을 기저로 하는 민주정치의 건설을 위한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고 정치제도 상으로 볼 적에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책임제에로의 변화를 초래케 하였다는 것은 기지(既知)의 사실이다. 앞으로 내각책임제가 과연 올바른 그 기능을 발휘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이 나라의 검은 구름을 개제하고 새로운 보람과 즐거운 희망을 가져올 것인지 국민 누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여기에서 이 나라 정국의 앞날을 예견한다기보다 내각책임제를 성공적으로 운용함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정당제도를 고찰하려고 한다. 정당제도라고 하면 군소정당제와 양대정당제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적에 어떠한 정당제도를 택하는 게 좋을 것인가? 생각건대 정국의 혼란과 불안을 조성하는 군소정당제보다는 집권당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어려운 여러 가지 국사를 해결함에 도움이 되고 재(在)야당은 건전한 입장에서 시정을 비판하고 다음의 정권 담당의 준비를 갖추는 정당제도인 양대정당제가 우리 현실에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양대정당제를 취하게 되면 이념정당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 대 개혁의 정당제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렇지 않고 동질정당의 대립인 보수 대 보수의 양당제로 나가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문제의 초점으로 하고 이를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본질과 그 요건,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풍토에 비추어 고찰하려고 한다.

2.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의의

보수정당 또는 혁신정당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무엇을 보수라고 하며 무엇을 혁신이라고 하는지 그 개념을 먼저 뚜렷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보수주의라고 하면 현상에 만족하고 변화를 싫어하는 반면에 혁신이라고 하면 현상에 불만을 품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려고 하는 진보주의라고 할 수 있다.

광의로 해석하여 진보주의는 인간의 정신적 자유를 그 기본원칙으로하면서 자기발전과 자아표현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자유를 이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정신적 태도이다. 발전을 위한 자신의 능력을 자각한 진보주의자는 자기의 현 처지에 만족하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진보주의자의 이론은 19세기 중산계급에 속한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교의(敎義)이었고 이것은 각 방면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회이론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근대적 의미의 보수주의관 역시 진보주의관과 한가지로 중산계급의 출현기에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구주(歐洲)에 있어서 초기 보수주의자들은 대부분 지배계급에 속하는 귀족, 고승, 부호(富豪) 및 관료이었다. 이들은 합리적 사회관으로서의 진보주의를 배척하고 자신의 견해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19세기 중엽에 와서 비로소 보수주의라고 하는 사회적 및 정치적 이론을 발전시켰다. 광의로 보아 보수주의는 현상유지의 경향을 그 특색으로 하는 사회관이다. 보수주의자는 진보주의자에 비하여 이성에 의하여 사회질서를 개선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또 자아발전과 자아개선을 위한 범인의 능력을 별로 믿지 않는다. 보수주의자는 진보주의자의 국가관 즉, 인간이 그들의 안녕과 편의를 위하여 수립된 기구가 국가이며 따라서 인간은 임의로 이를 제조적할 수 있다고 하는 국가관을 반대한다. 보수주의자는 국가란 신의(神意)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며 서서히 유기적 성장을 하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법률이나 재산권도 오랜 세대를 두고 서서히 발전한 소산이라고 본다. 따라서 보수주의자는 극단적으로 보아 합리적 제의에 의하여 기존하는 사회질서를 개선하려는 기도나 급진적 방법에 의하여 사회기구를 개혁하려는 의도를 반대한다. 그러므로 보수주의는 새로운 법적 및 정치적 기구를 시험하기보다는 과거의 기구에 만족한다.

유기적인 서서한 발전을 초래하지 않는 변화는 어느 것이나 위험하다고 본다. 이 유기적 발전개념에는 기구상의 단순한 변화를 가지고는 사회악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이념이 내포되어 있다.

변화와 안정에 관한 두 말은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지만 이것 이외에 다른 개념도 고찰하여야 한다. 보수주의자는 어떤 절대적 법칙에 의하여 사회가 움직여져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한번 어떤 법칙을 수립하면 이에 대한 여하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에 반하여 진보주의자는 더욱 변화를 시험적으로 받아들일려는 경향이 많고 불변의 법칙이 사회의 운영을 좌우한다는 것을 별로 믿지 않으려 한다. 여기에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의의를 간단히 설명하였거니와 그것은 뚜렷하고 고정적인 실천계획도 아니고 그것은 어떤 형태의 태도를 의미하는 인생관이며 생활, 제도 및 인생을 좌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회집단과 어느 집단 속의 개인이 진보적이나 혹은 보수적이나를 구별하는 조건이 몇 개 있다. 다음에 열거하는 그 조건들이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연령이 많으나 또는 적으나에 따라 사회적 변화에 대한 그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불안, 불만, 그리고 변화는 젊은이의 특징이고 침착, 자족 그리고 안정은 노년층이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늙을수록 개신성(改新性)과 진취성은 감소되는 것이 사실이다.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게 되고 변화보다는 안정을 높이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창조력과 계획성을 위한 정력은 쇠약하여진다. 그러므로 보통으로 진보주의자는 청년층에서, 보수주의자는 노년층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둘째로 문화발전이 다른 여러 가지 변화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히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즉, 어느 사회에서나 부력, 권력, 또는 신분에 있어서 평등성을 찾아볼 수 없다. 혹자는 만족스러운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에 혹자는 이 지위를 얻으려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한다. 후자는 기존하는 사회질서와 제도에 불만을 느끼고 자기 자신도 혜택을 입어 보고 싶기 때문에 질서와 제도의 변화 운동에 참여한다. 이러한 진보주의자는 교육, 수입 그리고 지위와 같은 문화의 소산을 재분배하려고 노력한다. 이에 반하여 혜택을 받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사회질서에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효력에 반항한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문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의 자연적

조정은 특권층의 보수주의를 발전케 하며 현상유지에서 이익을 보는 사회의 구성원은 변화가 개혁은 원하는 서민층의 진보주의에 반기를 든다.

셋째로 보수주의적인 것과 진보주의적인 것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교육이다. 어떠한 사회문제이든지 주의성 있게 연구한 자는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게 된다. 즉, 그는 연구를 통하여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변화를 지지하는 진보주의자가 되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진보주의는 사회적 개혁이나 정치적 혁신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하여 줄기차게 노력한 이론가가 세운 이념과 계획에 의하여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의 한 제도적 기관으로서의 학교는 보수주의적 요소를 조성케 한다. 학교라는 기관은 그 사회의 전통과 그 사회집단의 기술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료에서 선택하여 교육을 시켜야 하고 또한 기존질서를 지지하도록 압력을 받게 된다. 과거와 현재의 문화는 학교라는 매개를 통하여 연결되고 또한 미래를 계획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는 정치적 질서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 전반을 보존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3. 한국의 풍토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 일반적인 의의와 요건을 약기(略記)하였거니와 과연 우리 한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먼저 보수 대 혁신정당의 대립을 가상하고 그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기성세대의 무능과 불신에 대한 반항은 4·19혁명으로 나타났지만 여기에 기성지도자의 몰락은 진보세력의 발아를 돕는 기후를 조성케 하였다. 그들 속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던 비특권계급이 햇빛 속에서 복종을 강요하던 특권계급의 권위를 타도하였다는 사실은 혁신세력의 온상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둘째의 이유가 된다. 셋째로 현상에 불만이 많고 새로운 바람이 불어 오기를 고대하는 민주사회주의적인 사람은 물론 사회민주주의적인 세력이 앞으로 기반을 닦아 보려고 하는 노력이 엿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넷째로 우리 국민 대다수가 빈곤에 허덕인다는 사실은 혁신적인 정당들이 그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소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적 색채를 띠고 이러한 빈민층에 경제적 평등을 내걸고 그들을 포섭하려는 노력을 하기가 무엇보다도 좋다고 보겠다. 다섯째로 서구민주주의의 단점을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주의의 장단을 주장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적 입법은 물론 모든 면에 평등을 기간으로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복리국가의 건설방법을 합리적으로 내세우는 이론가들이 있다는 사실은 진보주의를 행동강령으로 하는 혁신계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다. 이외에는 혁신계의 진보주의자들이 자라날 수 있는 동인은 직접 간접으로 많이 있을 것이다.

이상에 열거한 것과 같이 혁신계의 세력이 발전할 수 있는 소지와 동인을 우리 한국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찰의 각도를 달리하여 볼 적에 이 혁신정당의 육성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니 그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 사회가 산업화된 사회가 아니고 조직화 되지 못한 농촌사회라는 점이다. 기능적으로 분업화되고 조직화 된 공업사회에서는 부익부, 빈익빈하는 사회적인 악현상이 나타나고 수적으로 우세한 단결된 적능적 세력들 즉, 다수의 공장 노동자들은 소수 유산층의 피해를 절실히 실감하고 혁신세력의 전위가 되지 않는 농업사회의 농부들은 지역적으로 서로 떨어져 산다는 이유도 있지만 현재의 궁경(窮境)을 몸소 겪으면서도 단결된 힘으로서 뭉칠 수가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 농부들의 비조직적인 활동을 초래한 이유를 살펴보면 농부들의 개성이 지나치게 전통에 집착하는 동시에 모험과 투기를 싫어하는 점에도 있는 것이다. 매사에 체념을 잘하고 운명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는 경향은 여러모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 사람들이 이론상으로 보면 당연히 혁신의 깃발을 먼저 들어야 함에도 그렇게 못하는 큰 이유가 되는 것이다.

둘째로 혁신세력의 이론이 공산주의의 이론을 각색하여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하고 국민 일반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에 혁신세력의 육성에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6·25 사변의 쓰라린 민족적 체험은 공산주의의 배격에 대한 정신적 무장을 무엇보다도 잘 시켰다. 공산주의의 달콤한 이론이나 매력 있는 허위선전에는 손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국민 각자는 일종의 공산이란 전염 독소에 대한 면역성이 생겼다. 그런데 진보세력의 정당은 그 성격들이 국민에게 공산주의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점을 제시한다고 해도 국민 대다수는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혁신계의 정당이 4·19혁명 이후 우후죽순 격으로 많이 나왔지만 7·29 총선거라는 국민의 심판에서 불과 3석밖에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를 더욱 확증하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미국의 정당제도가 보수양당제라는 사실이 우리나라의 혁신정당이 육성되어 보수 대 개혁의 대립을 하지 못 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얼핏 생각하면 미국의 정당제도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우리 민족에게 모독이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현실을 냉정히 분석할 적에 사대의존성을 뿌리 뽑지 못

<53면에 계속>

경제자립(經濟自立)에의 조건(條件)

이 정 환(李廷煥)



일관된 목표와 노력을 가지자

우리가 자립경제를 지향함에 있어서는 너무나 많은 애로가 가로놓여 있다. 국토의 양단, 인구의 과잉, 기술, 자원의 부족 등을 고려하여 볼 때에 보통 정도의 노력으로 자립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에 있어서는 자립경제는 달성할 수 없는 급단의 열매일까. 그렇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자립경제의 수준과 목표를 어떠한 선에 두는가에 달려 있지 않을까? 지나치게 높은 생활수준, 생활수준 및 고용수준을 목표로 한다며는 자립경제에의 길은 요원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우리들에게 알맞은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자립경제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자립경제를 지향하는 첫째의 길은 달성 가능한 목표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면 이 설정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거의 경제정책을 되돌아볼 때에 첫째로 자립경제를 위한 목표의 설정이 너무나 막연하였으며, 둘째로는 자립경제를 지향하는 경제정책에 일관성이 보이지 않았다.

옛 희랍신화에 「페넬로페의 직물」이란 이야기가 있다. 그 신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옛날 페넬로페라는 미녀가 있어 못 남자들의 동경의 상대가 되어 있었으나, 그녀는 드디어 여러 남자들의 경쟁을 떨치고 올리스즈와 결혼하게 된다. 그런데 호사다마라 할까 올리스즈가 전쟁에 나가게 되고 페넬로페는 독수공방을 하게 된다. 그랬더니 전쟁의 기간이 길어지고

남편 올리스즈의 귀환이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사방에서 재혼의 청이 들어오게 되었다. 처음에는 굳이 청혼을 거절해 왔으나 나중에는 도저히 여러 남자들의 청혼을 거절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페넬로페는 궁여지책으로 자기의 시아버지를 위한 옷을 한 벌 짜고 난 후에 누구에게 개가할 것인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모든 남자들은 1개월·2개월을 기다리고 1년, 2년을 기다렸다. 이리하여 날은 가고 해는 갔으나 페넬로페의 옷은 영원히 짜지지 않았다. 왜 그랬는가 하면 낮에는 베를 짜다가 밤이 되어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실을 다 풀어 버리고, 그다음 날은 다시 짜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니 언제까지 기다라도 시아버님의 옷 베가 완성될 리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자립경제를 지향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페넬로페의 직물이 되어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일정한 목표와 방향이 설정되면 그것의 실천을 위한 노력이 중단됨이 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새롭게 내각책임제를 확립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내각의 경질이 정책의 중단과 변경을 가져 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경제는 비약(飛躍)하지 않는다」는 마샬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자립경제를 위한 경제시책에 있어서는 내각의 변경과 경질을 초월하여 일관성이 있기를 회구하여 마지 않는다.

경제자립을 위한 주체적 조건

슈페터라는 유명한 경제학자는 경제가 발전하는 계기를 기업가적 정신에 두었다. 기업가적 정신이라 함은 자유경쟁에 이기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 상품 등등의 신생산 방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 슈페터의 이론은 경제의 발전이 기술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또는 사회제도라든가 하는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요인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경제생활을 담당하여 나가는 주체적 면에 더 많이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슈페터의 이론은 2차전 이후의 후진국 개발론에 있어서 그 정당함이 논증되어 왔으며 최근의 후진국 개발론에 있어서는 슈페터로 돌아가라는 말이 유행되고 있다. 초기의 후진국 개발론자는 후진국을 개발시키는 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 하나는 사회제도를 가지는가, 자본주의적 체제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후진국에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문제만 가지고서는 후진국 개발

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 10여년의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부족하였겠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실제로 경제생활을 담당하여 나갈 사람들이 옹당히 갖추어야 할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후진국에 있어서는 국가의 산업정책을 담당하여 나갈 지도자가 그 이념과 기술 및 생활태도에 있어서 부족하며, 일반대중은 무기력하여 적극적으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기업가적 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주체적 조건의 결핍이 후진국 개발의 기본적 암이 되어있는 것이다. 경제자립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도 문제는 동일한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경제자립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바라는 할 것은 주체적 조건의 확립이다.

오늘날 우리가 자립경제를 지향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저지하는 여러 가지 동향을 만들어 내는 기본적 원인은 고도히 의존적이고, 근면하지 못하며, 겸소하지 못한 우리 백성들의 생활태도라고 필자는 보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 백성들의 이러한 생활태도를 시정하여 나가는 것이 첫째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자립경제는 타국의 원조를 받지 않고 자력으로 자국의 경제생활을 하여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우선 개개인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의존성을 버리고독립적인 경제생활을 건설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이다. 우리들은 역사적으로 물려받은 가족제도의 결과로 지극히 타력의존적인 사고방식과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다. 어떤 외국인은 나에게 이러한 충고를 하였다. 자기가 생각키로는 원래의 동양적인 가족제도의 기본정신은 협동에 있었다고 보나 금일에 있어서는 이 제도의 나쁜 면인 의존성이 너무나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개인이 각자의 생활을 타인에 의존시키려고 한다면, 이러한 개인생활의 집합체인 국민경제도 의존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의존성을 없앤다는 것이 자립경제를 확립하는데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에 수입할 물자는 많으나 수출할 물자는 적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수지는 점점 불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 불리한 국제수지를 극복하자면 우리는 타국민보다 더 많이 일을 하여 조금이라도 더 많은 물자를 산출하여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증대시켜야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한가지 애로가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백성이 매우 게으르다고 하는 것이다. 옛날에 어떤 외인은 한국인을 세가지 S를 좋아하는 백성

이라 하였다. 담배 잘 피우고(Smoking), 정자 나무 밑에 모여서 잡담 잘하고(Shading), 낮잠 잘 자는(Sleeping)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 한다. 우리 백성이 이렇게 게으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선천적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회제도의 결함에서 나온 후천적인

성격이라고 본다. 옛날의 봉건제도 하에서 아무리 근면하더라도 모든 농작물을 양반들에게 수탈당한다고 한다면 백성은 자연히 게을러지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백성의 게으른 성질은 가혹한 수탈제도에서 싹텄었으나, 날이 가고 달이 가는 동안에 이제는 게으른 것이 제2의 천성과 같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립경제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는 백성들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극을 주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으며, 백성은 각자가 자기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래보다 좀 더 노력하여야 될 것이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립경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비생활의 실태를 보살펴 볼 때 우리가 모두 다 자립경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활이 지나치게 사치한 것이 왜 자립경제에 배반되는 것일까. 첫째로 국민들이 사치하면 사치할수록 사치물자의 도입을 위하여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외환이 낭비될 것이며, 둘째로 국민들이 사치하면 사치할수록 자본축적을 위한 저축수준을 감퇴시키고 자원을 소모물재용으로 전용시킴으로서 공업화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 생활에 본격적인 사치풍조가 생기게 된 것은 6·25 사변 이후인 것 같고, 이러한 풍조가 생기게 된 것에는 두 가지 기본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그 하나는 정치사태의 불안으로 인하여 백성들 간에 단기간의 향락 내지 안일을 즐거워하는 동향이 생긴 것이고, 또 하나는 선진국 특히 미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하여 일어난 시위효과(Demonstration effect)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경제적 실정에 맞지 않는 지나친 사치풍조를 시정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고, 둘째로 민족적 자각에 의한 국민의 자숙이 필요할 것 같다.

소비구조를 변경하고 기술을 지향시키라

자립경제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제도적인 면에 있어서는 논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우선 소비구조의 문제와

기술의 문제에 대하여 논하여 보기로 하겠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필자가 객관적인 제요인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해방이후에 우리나라의 소비구조는 미국의 영향을받아서 새로운 방향으로 변경되어가고 있으나, 그 구조가 자립경제에는 심히 불리하게 형성되어 가고 있다.

소비구조가 자립경제에 유리하자면은 우리들은 소비생활에 있어서 가급적으로 수입물자를적게 써야 하는 것이고, 또한 수출물자를 증대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첫째로 해방후의 소비구조의 변경이 수출물자의 공급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해방 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중요수출물자의 하나는 쌀이었다. 우리는 염가한 잡곡, 또는외래미를 도입함으로써 연간 5·6백만 석의 쌀을 대외수출을 하고 온 것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있어서는 쌀은 그다지 수출되지 못하고 대부분 이 국내소비로 충당되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국내수지에 적자가 격심하여지는 나라에 있어서는 이것은 적지 않은 큰 문제인 것이다. 쌀이 소비용으로 충당되어 버리고 수출이 되지 못한 것에는 국가의 무역정책 및 곡가정책에도 그 책임이 있겠으나, 우리 국민의 식생활구조에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식생활은 미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이 주의가 분식병용주의로 변경됨으로써 쌀의 수출이 좀더 용이하게 되지 않을 것인가. 또한 쌀의 수출문제를 도외시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식생활은 근대적인 합리적 생활을 이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불순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로 해방 후의 소비생활의 방향이 외재소비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것은 자립경제를 위하여 지극히 불리한 조건이다. 근대는 자동차와 커피의 시대이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이러한 물자를 위하여 소비되는 외화는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연내 다방에서 소비되는 커피 대금이 연간 약 10억 환, 천대 1로 환산하여 약 100만 불 내외의 외환이 소비되고 있다니 놀라운 사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교통수문제의 해결에도 가소링 일변도의 방향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다방에서 사용되는 음료수 문제에 있어서도 국내산의 자원으로 대용하는 연구가 필요치 않을까. 요컨대 일언이폐지(一言以蔽之)하면 자립경제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의 적절한 지도와 민간의 자발적인 자각에 의하여 우리들의 소비생활구조에 변경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끝으로 자립경제의 수립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기술의

향상문제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 이 원고를 종결지우고자 한다.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자립경제 즉, 국내균형과 국제균형의 규모를 크게 하여 나가자면은 그 기반을 기술의 발전에 두어야 되는 것이다.

2차대전 이후에 있어서 서독과 일본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게 된 것도 밑바탕에 우수한 기술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나 2차전 이후의 시기를 가리켜 기술의 시기라고 한다. 그 뜻은 전후의 미국경제가 급속한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계속적인 번영을 이룩하고 있으며, 선진제국간에 격심한 기술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에서이다.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자립경제를 지향하자면은 우리도 급속히 우리나라에 고유한 기술체계를 확립하여 우수하고 염가한 제품을 세계시장에 보낼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고유한 기술체계의 확립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한 면에 있어서 선진국가의 최신 기술체계의 도입에 힘쓰고 동시에 또한 다른 면에 있어서는 기초과학의 확립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결론으로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는 많고 국토와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 있어서 선진국가와 같은 고도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자면은 기술의 혁신에 의한 가공무역만이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이라는 점이다.

〈필자·연세대 교수〉

~~~~~  
<45면에서 계속>

하고 사고와 행동면에 아메리카 나이즈되는 경향이 있음을 직시할 적에 미국의 정당제도를 우리나라에 재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만일 우리가 미국보다도 영국과 더욱 가까운 유대를 맺게 된다면 틀림없이 보수대 혁신의 정당대립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본다.

넷째로 혁신정당을 운용하기 위한 자금의 곤란도 혁신계의 육성을 시들게 하는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지금은 몰락했지만 보수적인 자유당의 뒤에 집권하게 된 민주당이 보수적 야당으로 줄기차게 집권당을 비판, 공격, 투쟁하였다는 사실이 또한 앞으로 보수양대정당의 대립 가능성을 길잡아 놓았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의 내분으로 반드시 보수야당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며 앞으로 남북통일이 되기 까지에는 혁신계의 정당이 육성될 수 없을 것이다. 육성될 계기가 통일 전에 온다고 하면 보수정당이 여러 가지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당, 불신임된 정당으로 타락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다.

〈필자·연세대 강사〉

## 외원(外援)의 실적(實績)과 수혜국(受惠國)의 할 일

-한국외교도입(韓國外交導入)의 전망(展望)과 그에 따른 대비책(對備策)-



부 완 혁(夫琬赫)

### 1. 외원(外援)의 실적(實績)

외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은 외원 액수가 적어질수록 커지는 것 같다. 한 때 1년간 3억 8천만 불의 선까지 올라갔을 때는 그다지 큰 관심을 안 가졌으나 금년도에 2억 불의 선을 깨트리고 1억 8천만 불의 선까지 저하되니 전 국민이 이래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 삭감이 피치 못할 현실이면 우리는 무슨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는데는 과거의 우리는 과연 얼마만한 액수의 원조를 받아들여서 어떠한 용도에 이를 활용하였는가 라는 것을 회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거 실정에 대한 반성이 없이는 장래의 대책이 세워지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실정을 가장 간결하게 설명한 것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에 와 있는 ICA원 조운용에 대한 미측 책임자인 모이어 박사가 금년 초에 국방연구원에서 행한 강연내용을 들 수 있다. 유솜(USOM 미국 국제협조처주한사절단)단장인 모이어 박사는 작년 6월말까지의 총계에 의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모이어 박사는 1953년 휴전 이래 우리는 총액 15억 불의 원조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대체로 첫째는 철도, 발전, 중소기업, 전화, 수도, 공도(公道), 어선 등 소위 시설사업계획에 5억 불을 충당하였고 다음에 나머지 10억 불은 원면(原棉), 석유, 비료, 산업기계 등 소위 원자재 수입에 충당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원조자금을 가지고 외국으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자를 도입하여 온 비중은 우리 전체수입량의 83%에 해당할 만큼 막중한 것이지만 그러한 물자 수입재원을 제공하였다는 것 이상으로 큰 공헌을 원조로 행하여 왔다는 사실을 모이어 박사는 또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 물자를 도입해다가 우리 국내에서 판매함으로써 생기는 대충자금을 가지고 허다한 사업의 사업비에 충당하였다는 것이다. 그 비중은 우리 정부예산의 48%를 이 대충자금으로 충당하였다는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좀 더 상세히 대충자금의 우리 재정에 대한 공헌의 내용을 살펴 본다면 군사비 예산에 그 대충자금의 4할 내지 5할을 제공하였고 그 외에는 요소비료공장, 한강보수공사, 조림(造林)공사, 498개소의 수리(水利)공사(몽리(蒙利)면적 50만 에이커 一일정보(一町步)는 2.5 에이커에 해당하니 약 20만 정보(町步)), 2천 4백 개의 교실 및 철도부설, 항만구축, 발전시설 및 공로건설 등을 위한 환화(圓貨)경비로 사용되었던 것이라 하였다. 셋째로 그는 원조가 이와 같이 물자도입, 재원 및 대충자금의 두 가지 형태로 제공한 공헌 이외에 제3의 형식으로 적지 않은 도움을 우리 경제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기술원조를 말하는 것인데 그 실적은 다음과 같다. 즉 1955년부터 1959년에 이르는 4개년 간에 1천4백 명이 외국에 갔으며 국내 각 대학에 행정대학원·경영경제학과 등 각종 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설립하였고 20만 명의 회원을 가진 4H클럽을 전국에 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흥부에는 우리나라의 장기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산업개발위원회를 기술원조의 일환으로 부치(附置)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제 앞서 언급한 물자도입재원으로 수입한 원조물자를 원자재 도입 10억 불의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소개하여 보면 소위 시설사업계획 5억 불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다. 즉 시설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첫째 철도시설개선을 위하여 95대의 디젤기관차 3백 개의 교량 및 170리의 철로를 부설하였고 둘째 12만 7천 킬로와트에 해당하는 시설을 수리하였다는 것이다. 셋째로 약 4천만 불에 달하는 금액을 2백40개 공장 건설자금으로 배정하였는데 그중에는 시멘트, 직물, 초자(硝子), 화학, 제약, 타이어 철강제품, 식료품 가공 및 요업(窯業)공장 등이 포함되며 금년 1월 현재로 101개의 공장이 준공되었으며 금년 말까지는 109개의 공장이 더 완성되리라 한다. 넷째로 기외(其外) 시설로는 전화, 상수도, 공로 및 어업시설이 있다. 전화는

1953년 8천 대의 가입자가 있었는데 1959년 말에는 6만7천백 대로 증가되었으며 상수도는 54개 도시읍에 설치되었고 공로에 관하여는 3백78개의 교량과 2백80리의 도로가 개설되었으며 어업에 관하여는 5백30척의 어선이 증가된 결과 1957년의 삼치 어획고가 2만 7천 톤(噸)이었던 것이 6만 톤으로 증가된 것만 보아도 얼마나 어업에 원조가 기여하였는지 그 정도를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10억 불의 원자재 도입에 관하여는 원면이 14%, 석유류가 13%, 비료가 27%, (연간 5천만 불) 그리고 산업기계가 13% (총액 1억2천4백만 불)에 달한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2. 외원실적의 평가

그러나 이와 같이 광범하고도 다기(多岐)한 면폭(面幅)을 가진 공헌을 한 외원을 경제적으로 평가해 볼 때 우리는 명암양상(明暗兩樣)의 효과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15억 불에 달하는 외원을 받아들여서 활용한 결과, 첫째 전제(戰災)가 복구되고 둘째 경제적 및 재정적 안정을 촉진하였으며 셋째 자립을 위한 보다 장기적 발전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고 넷째 이러한 경제적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정치적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것은 확실히 부인할 수 없는 외원의 효과의 명랑한 일면인 것이다. 이것은 외원을 제공하는 정책의 목적이다.

외원을 받아들이는 정책의 목적이 첫째 군사적 안전을 보장하며 둘째 국민의 경제적 복리를 도모하며 셋째는 장차 자립자성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끌어 나가자는데 있었으니 만치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인간사회의 일이 그러하듯이 외원효과의 어두운 면을 우리는 이를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경제원조는 이것이 미국민의 한국민 전체에 대한 원조이지 결코 우리 정부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서나 또는 국민 일부층의 소수인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휴전 이후의 실적을 돌이켜 볼 때 기개인(幾個人)의 정상배(政商輩)에게 편중된 이득을 주었으며 나아가서는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서라기보다는 여당의 정치적 이득을 위하여 남용된 점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즉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활용되지 못하고 이(李)정권의 독재와 부패화를 위하여 원조의 적지 않은 부분이 외원 본래의 정신을 망각하고 악용되었다고 비난을 국내외로부터 받아왔던 것이다. 외원자금을 배정하는데 있어 실수자(實需者)에 대한 배정에 치우치고 환율은 비현실적인 공정한율을 적용함으로써 소위 음폐(陰蔽)보조를 제공하였고 그 배정대상이 불요불급의 사업이나

과잉시설이나 불건전한 기업체로 선정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던 것이다. 다행히 4월민주혁명은 이러한 과거의 불미스런 사태를 시정하는데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앞으로 이러한 과거의 암흑의 면을 시정하고 명랑한 면을 증대시키려 하면은 따라서 우리는 먼저 일반공매제와 실수자제의 이해득실, 현실환율통용과 비현실적인 공정한율통용의 장단 그리고 음폐보조의 양성화의 문제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투자사업과 원자재 도입과의 배정비율을 적절히 책정하는 동시에 그 사업종목이나 물자품목을 선정하는데도 엄격하고도 과학적인 표준을 세워서 행하여야 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충자금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정, 금융정책의 맹점을 시정하는 동시에 기술원조의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다.

이런 정책의 방향전환을 말로 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구체적으로 그 반영이 파급하는 면이 하도 넓기 때문에 그 정책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리 용이하지는 않은 것이다. 과거의 정책상의 실수로 인하여 보다 많은 부당 이득을 보아 온 계층은 정책전환으로 인해서 그 이득을 상실할까봐서 필사적으로 그 전환을 반대할 것이 예견될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그들은 오늘날 부정축재자들이라고 국민의 지탄을 받을만큼 거대한 실력과 기득권을 이 나라 재공, 경제면에 확립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은 더욱 곤란한 것이다. 즉 외원운용 상의 과오는 그만큼 독재와 부패의 세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오의 시정은 그만큼 그런 세력의 강대한 저항을 예기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썩은 정치의 소산은 맑은 정치로만 청소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청신한 정치란 그리 손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 3. 외원체감과 우리의 대비책

그러나 그러한 맑은 정치를 실행함으로써 외원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낼 수 있도록 활용할 필연성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외원의 액수가 삭감됨에 따라서 더욱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우리 정부는 4월민주혁명 직후에 미국측으로부터 종래의 실책을 시정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제의를 받아 왔던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은 지명된 시정책과 아울러 이 제의를 받아들여 현재 외원운용요강을 작성하는 등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오늘날까지 하여 온 것을 부정하지 못하겠지만 그중에 몇 가지 점을 추려서 적어보기로 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첫째는 환율의 현실화인 것이다. 환율을 고쳐야 할 필요는 수출의 진흥이나 건전한 기업운영의 장려에도 있다 하겠지만 우선은 재정수입의 증가와 음폐 보조의 일소에도 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외원으로 들어오는 물자를 얻어 쓴다는 그 자체가 벌써 외원재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인데 그 물자의 가격을 제값을 다 내지 않고 적정한 대가이하로 쓰겠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재정의 결함을 묵인하고 그 수요자가 이중으로 덕을 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 수혜자에게 보조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이유를 널리 국민 앞에 공개함으로써 당당하게 보조할 것이지 결코 암암리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 수요자가 약한 다수자가 아니라 강한 소수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성화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더욱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양성화의 첩경은 단일적인 현실환율을 채택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부산물로 적지 않은 이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즉 비현실적인 공정환율을 고집함으로써 생기는 외환에 대한 가수요와 재정상의 결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채택하고 있는 외환공채 또는 외환세제도와 같은 우회적인 시책이 불필요하게 되며 따라서 복잡한 환율을 둘러싸고 생기는 투기나 남용도 아울러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또 우리 예산에 대한 한미공동심의회가 우리 주권을 침해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논의도 대폭적으로 그 필요가 멸살될 것이다.

둘째 시설계획사업에 치중하여 원조자금을 배정하는 방침을 세워야 하며 그 중에서도 전력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경제의 장래를 생각하여 볼 때 공업화의 길을 밟는 것이 불가피할 것인데 공업화의 길은 각 기업체가 다 같이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전력, 도로, 항만, 수도, 창고 등의 시설인 것이다. 이것을 경제학상으로 산업구조간 투자 또는 외부경제(절약) 시설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은 거대한 자금을 요하는 동시에 이것은 비영리적인 것이거나 또는 자본의 회수가 장기에 걸치는 투자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후진국의 민간자본이나 재정자금에 기대하기 어려울뿐더러 선진국의 민간자본 도입으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도 이러한 시설투자가 적지 않았던 것은 앞에 적은 바에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하여서도 아직은 부족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일상생활 면에서 부족을 느낄만하다면 그런 시설에 원대한 공업화계획을 위하여 미흡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겠다.

물론 정부당국에서도 유의하는 바가 아주 없지 않겠지만 문제는 일반공업발전 계획에 앞서야 할 이런 기본적인 시설투자가 항상 뒤떨어졌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이 선후관계를 바꾸어서 전력 등 시설이 다른 부문의 공업화과정을 촉진하고 유도하여 나갈수록 적극성을 띠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원자재도입의 표준을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자재가 원조물자로 도입하는 결과는 극단한 표현을 빌린다면 세계 제일의 염가의 원료를 도입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격은 세계 제일의 고가가 되는 형편에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나 이와 같은 불건전한 기업운영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종류의 산업의 제품이 국산품이라는 미명 아래 유사품목의 수입금지조치로까지 보호받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국민의 소실대중의 희생을 무릅쓰고 독점기업체를 키워주는 결과가 되고마는 것이다. 우리는 기업의 장래를 위하여서도 열등기업체는 초기에 도태되는 것이 좋겠고 국민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불건전 독점기업체를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는 잉여농산물의 도입이 우리나라의 농업경영에 큰 피해를 입혀서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이 전란으로 인하여 정책상 비교적 푸대접을 받아 온 것은 어느 시기와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한 면도 없지 않았으나 미국의 잉여농산물도입의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나 우리나라 농민의 입장에서 보나 이 이상 용허(容許)될 수 없는 일이다. 혹자는 국방비조달을 위하여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도 하지만 부유한 미국의 농민을 돕고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잉여농산물이 빈곤한 한국에 도입되어 우리 농민과 농업을 저해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원조의 정신을 말살하는 것이다. 국방상의 견지로 보더라도 농가출신의 자체가 주가 되어 있는 국군에 필요한 경비가 농민에게 고통과 손실을 주는 재원에서 마련된다는 것은 사기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주는 것이다.

국군은 국세로 유지되고 잉여농산물의 도입으로 마련되는 재원은 농업 기타 산업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원조가 감소되고 무상원조가 유상원조로 전환되는 것이 전망된다면 우리는 이상의 제반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하여서도 국민전체 특히 부유층의 내핍생활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필자·조선일보 논설위원〉

## 언론(言論)의 자유(自由)와 책임(責任)

이 관 구(李寬求)



매스 커뮤니케이션 그중에도 언론의 중요성은 여기서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근대 매스컴의 연원은 언론의 자유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민주정치 사회가 나타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구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약 5백여 년 전인 1450년대의 관권주의사회에서 매스컴이 관권주의 이론을 뒷받침으로 생겨났음을 찾아볼 수 있다. 관권주의라 함은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 국가가 개인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며 사람의 능력은 개인으로서는 미약하지만 조직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강대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권주의사회의 기능은 그들 구성원의 사고 및 행동의 통일을 유지하며 또 지도세력의 항구적인 지배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조성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설복과 강압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국가의 안전은 모든 것에 우선하며 통치자의 부덕한 행위도 언론의 강압도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당시의 이러한 정치철학은 인쇄술이 발달한 이후에도 꾸준히 계승되어 온 것이었다. 따라서 관권주의사회는 먼저 언론기관의 취재활동을 제한하고 신문발행을 허가제로 하여 그 발행인을 임의로 결정하는 동시에 사전 검열제도를 실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관권주의적 인식은 18세기 후반 자유주의적 사상의 보급과 자유주의적 정치의 혁명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일으키고야 말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전제주의사상은 오늘에 있어서도 일부 국가에 뿌리를 박고 있으니 이는 소련 및 그 위성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언론의 통제에서 볼 수 있고 또 그 밖의 후진국가 중에서도 검열제를 실시하거나 신문지법으로 언론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가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전제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의 기본적 이념은 개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인간은 그 자신의 역량을 이해할 능력이 있으며, 따라서 종교·정치 및 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자신의 이해력을 행사할 자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외부의 제한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고 공언하였던 것이다. 이 자유주의적 이론은 17세기에 발아하여 18세기에 결실하고 19세기에 보급되었는데 인간이 천직의 선택권과 지성의 힘을 완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자유주의사회의 임무인 것이다.

이리하여 이 시대의 매스컴은 공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개인의 기업체로 변해졌다. 즉, 개인은 아무라도 언론기관을 경영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그의 주위에서나 정부기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아내 가지고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일부후진국가에서는 아직도 관권주의가 정치제도에 뿌리를 박고 있어 언론자유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동시에 자유주의적 이론이 민주 언론의 궁극적인 이론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점차 회의적 경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자유주의와 더불어 언론은 개인의 지성과 선택의 권리를 추구하고 개인의 복지를 위하여 위정자들에 관한 진실을 밝히고 정치적 토론을 자극하며 정부에 대한 공격과 비판을 활발하게 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잡았다. 정부는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며 개인이 나라의 주인이므로, 개인은 정부의 하는 일을 알고도 그의 잘못을 가려 정부를 교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언론은 중대한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맡게 되었고 그 책임이야말로 공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시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나오게 되었다. 이것이 곧 사회적 책임의 이론인데, 이는 오늘날 선진민주주의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신문윤리강령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1957년 4월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채택한 신문윤리강령도 역시 사회적 책임이론이 뒷받침하고 있는 바, 그 일절을 소개하면 이러하다.

먼저 신문의 자유를 논함에 있어서 신문의 자유는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서 끝까지 이를 옹호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일반법의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신문의 자유를 제한 또는 간섭하는 법률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법률을 억제하고 반대하는 자유도 물론 이에 포함한다고 한 다음, 신문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신문은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그 공공성이 용인되고 신문인은 독특한 사회적 위치를 지닌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공중이 신문에 의하여 사건과 문제의 진상을 파악하고 이를 판단의 기초로 삼는다는 신뢰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신문의 최대의 책임은 공중의 이러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공공의 이익에 충실하게 복무함에 있다. 이 책임은 또한 신문의 공공성을 보전하는 최대의 요소이다. 신문은 항상 정의에 입각하여 부정과 대결함에 용감하고 약자의편을 들어 그 호소를 대신함으로써 그 공공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고 하였다.

미국의 대법관 올리버 홉스의 말을 빌리면 언론의 자유란 것은 만원을 이룬 극장에서 「불이야 하고 외치는 무절제한 방종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 불이야 하는 외마디 소리가 극장 속을 극도의 혼란에 빠트려 경우에 따라서는 크나큰 불상사까지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임에, 이는 문자 그대로「무절제한 방종」이 아니면 범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자유가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저러한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여기서 사회적 책임으로 뒷받침하는 신문의 윤리가 확립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자율적 윤리강령은 신문 이외의 영화 기타의 각종 매스컴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지만, 수백 년 동안 피의 희생이 따르고 민주투쟁을 통하여 자라난 신문의 윤리강령과 금세기에 들어와 비로소 생겼거나 발달하게 된 다른 매스컴의 윤리강령과는 그 역사적 배경이 서로 다른만치 약간 그 성격을 달리한다. 전자는 정부 등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존중하고 있지만, 후자는 정부 등 권력기관에 다소 추종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금세기로 들어와 자유주의이론은 사회적 책임이론으로 변모되었거니와 한편으로는 전근대적인 관권주의가 후진국에서 그 잔해를 찾아볼 수도 있고 한걸음 나아가서는 공산주의이론으로 적극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공산주의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마스의 이론은 통일에 신비적 가치를 두고 있다. 계급의 통일, 당의 통일, 선택의 통일 등이 그러하다. 소련의 이론가들은 사람은 서로 의견을 달리해서는 안 되며 타협은 약하다는 증거로 밖에 아니 본다. 그러므로 언론도

국가의 의견과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소련제도하에서는 매스컴이 국가 기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것은 인민에게 결정된 사실을 알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행할 바를 지시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즉 언론기관은 대기업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소유를 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국가와 업수행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요컨대 금세기로 들어와서 매스컴은 민주주의사회와 공산주의사회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고, 어떤 의미에서는 후자가 그의 국가기관으로서 굉장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적 규모는 더욱 발전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이론면에 있어서 양자가 모다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에 더욱 주목된다.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는 17, 8세기 계몽운동시대에 대두한 자유주의이론으로부터 사회적 책임이론으로 변모되었다. 즉 언론을 국가로부터 분리시켜 자유와 독립을 누리게 하였다.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과의 양자 중 하나를 택하라면 차라리 후자를 택해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이미 그 단계를 벗어나 언론활동 자체를 사회적 책임과 도의적 표준에 비추어 검토해 보자는 경향으로 흐르게 되었다. 이는 매스컴이 오랫동안 지내는 동안에 사회의 비판을 받게 되고 언론기관이 그 막대한 권한을 언론 본래의 사명을 위하여 행사하지 않고 언론인의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데 오용했다든가, 썬세이셔널한 오락면과 개인의 인권침해에 악용했다든가, 또 특수한 실업(實業)계층에 조종되었다든가, 이런 등등의 비판이 있음으로써 선진국가의 언론인들은 자발적으로 윤리강령을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기본인권으로서 존중하는 바이로되 여기서는 공공성을 토대로 하여 사회적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를 용인하지 않게 된 것이다.

<필자일일신문사장>

### 금언

- ◇기적은 신앙이 키운 최고의 총아이다
- ◇사랑은 행복이며 행복은 사랑이다
- ◇질서가 천국의 첫째 법률이다
- ◇모든 지식은 의혹에서 시작되며 신앙에서 끝난다
- ◇기적을 바라는 자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한다
- ◇은혜를 갚는데도 너무 서두르면 도리어 일종의 망이 된다
- ◇군자는 말을 느리게 해도 행동은 기민해야 한다

## 한국문화(韓國文化)에 대(對)한 세계인(世界人)의 인식(認識)

—해외소개(海外紹介)를 위한 움직임—



이혜구(李惠求)

국내에서 한국문화의 해외소개를 부르짖는 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 보인다. 최근의 예만 들어 보아도 6월인지 7월에 조선일보 사설이 그 해외소개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몇 가지 플랜을 제창하였고 KBS에서도 그에 대한 정담을 방송하였고 또 지금 코메트지도 이런 제목을 내건 것 등이다.

한편 한국이 해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섭섭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멀리 떨어진 데서 한국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 요망하는 사람도 있어서 한국 문화소개에 힘을 얻게 된다.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이쪽에서 아무리 자기 존재를 알리고 싶어도 저쪽에서 알아보려는 마음이 없으면 허사이기 때문이다.

런던대학·소르본대학·라이덴대학·콜롬비아대학·하버드대학 등에 한국과가 있고 그 도서관에는 한국서적 신문 등이 비치되어 있다.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2, 3년 전 소르본대학에서 한국어와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옥(李玉)씨와 함께 그 대학의 한국과 주임교수 아게노에 교수 집에 찾아갔었을 때 그 노교수의 술회담이다. —자기는 민주주의나 공산주의의 선전에는 아무 흥미가 없고 문화에 관한 것만이 소용된다. 정치의 선전책보다 문화에 관한 책을 한국에서 많이 보내주기를 바란다. 소르본대학에 한국어과가 있고 앞으로 한국 역사의 강좌를 증설하고 싶은데 그에 대하여 한국정부에서도 힘을 써주기 바란다. 앞으로 한국과가 잘 되어가려면 그 과를 지망하는 학생이 나와야 하고 그러려면 그 과 졸업생을 한국정부에서 앞선해서 한국으로

데려다가 1, 2년간 붙여 강사로 채용하고, 그 젊은 학자는 한국 체재(滯在) 중 한국 공부를 하고, 다시 부모로 돌아와 조교 교직에 앉을 그런 희망을 갖도록 힘써 주었으면 좋겠다— 대개 이런 뜻이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우리 문화의 해외소개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유효적절히 하느냐 그러려면 저쪽에서 무엇을 요하느냐 즉 대상과 방법을 연구하는데 한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외국에서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을 원하는 것은 외국의 대학에 있던 한국과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중국과 일본을 더 깊이 연구하려면 한국을 전연 빼놓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일본 아악(雅樂)을 연구하는 일 미국인 학자에게 한국 아악도 참고로 연구하여 보라고 권한 적이 있었다. 그 권유의 이유는 그가 규정한 일본 아악의 특색이 한국 아악에도 나오면 그 규정은 다시 수정되어야 할 터이니 그런 과오를 막기 위하여서라도 일차 한국 아악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그 독실한 학자는 한국에 와서 한국 아악을 공부하고 그 수확을 기뻐하였고 그 말을 들은 나도 기뻐었다.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을 기뻐할 사람은 동양학을 연구하는 사람 이외에 세계의 비교문화를 연구하는 학자일 것이다. 동서의 거리가 단축된 금일 서양 뿐만 아니라 동양을 포함한 전세계에 보편타당성을 가질 학설을 세우려는 서양 학자에게는 한국문화도 연구재료가 될 것이다.

요컨대 우리가 한국문화를 해외에 소개할 때 우리를 받아들이라는 외국대학의 한국과에 우선적으로 모든 자료를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우리나라에 무슨 외국대학에 줄 것이 있으냐고 절망적으로 단념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가난하여도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음악방면으로 말하자면 문교부에서 민속악보 2집을 계속 냈고 방송국에서 테이프를 사용할 국악 라이브러리를 만들었고 기타 KBC에서는 UP의 레코드를 제작하기 시작하고 공부실에서는 팜플렛, 슬라이드를 만들었고, 또 지금 한국음악을 소개하는 영화를 제작 중이다. 이런 귀중한 문화재를 만들고도 간혹 소중히 보관을 못하거나 또는 적절하게 배포하지 못하는 느낌이 있는 것이 유감이다. 외국학자가 사무실로 찾아가서 이리이러한 것이 거기서 만든 것이 있는데 줄 수 없으냐고 청하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없다고 거절당하여 실망한 빛을 더러 보았다. 또 재외공관에 고적도보(古蹟圖譜)나 한글사전이니 그런 책이 혹은 짐케짜 속에서 잠자고 있거나 않은지? 앞으로는 한국문화의 해외소개를 위하여 국내에서 제작발간되는 문화재를



한곳에서 조사수집하여 목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려대학교에서 국내출판물을 소개하는 간행물을 발행하는 것을 확대하면 족할 것이다. 그런 정기간행물에 책 뿐만 아니라 레코드, 슬라이드, 영화 기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실었으면 그것을 이용할 사람에게 편리할 것이다.

해외공관에서는 국내인사보다 더 절실히 한국문화소개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다. 주외대사는 문정관(文政官)을 원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실불능인 현재로는 유학생 또는 교환교수를 촉탁으로 써서 학장의 급한 것을 면할 수 없을까? 어느 점에서는 유학생이 자기가 공부하는 대학의 지식인을 더 많이 알고 한국문화의 소개에는 적임자일 것 같기도 하다.

유학생의 말이 나와서 생각하는데 미국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유학생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일 같이 기뻐다. 그런 우수한 학생은 한국 소개로 간 것이 아니지만 훌륭히 자기가 한국인의 우수한 것을 예시하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우수한 학생에게 감사와 권장의 의미에서 상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전언한 바와 같이 외국대학의 한국과에 한국연구자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한국문화소개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과 지망의 학생이 계속 나와 자국어에 한국문화에 대한 논문을 쓰고 도서관에서 그것을 일반독자에게 읽게 할 수 있다면 한국문화소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책처럼 문화를 표시하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중국대학에서 몽고인학생과 같이 공부한 모교수의 회고담이 생각난다. 그 몽고학생은 우리나라에 문헌이 비교적 많다는 말을 듣고 부러워하면서 그 말을 한 한인학생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영웅 성길사한(成吉思汗)이 아세아와 유럽을 석권하였건만 그에 관한 문헌이 없는 것을 통탄하였다는 삽화다. 외국도서관에 가서 섹스피어에 관한 책 수가 어마어마한데 비하여 우리문화에 관한 책이 손가락으로 세일 수 있을 만치 영성(零星)한 것을 생각하면 몽고학생의 심정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음악방면에서도 구미 각 대학의 아프리카 음악에 관한 문헌은 많고 그 연구가 성하다. 그에 비하여 한국음악에 관한 문헌은 계정식(桂貞植)씨의 학위논문 외 2, 3편에 지나지 않았다. 문헌이 적어서 한국음악을 연구하려도 연구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앞으로 국내에서는 국외학술잡지에 한국문화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고 또 각국 백과사전에도 한국문화에 관한 조항을 삽입토록 노력하여 일반 독자층의 눈에도 한국이 들어가도록 하여야겠다. 우리가 외국어

로 한국문화에 관한 발표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손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발표를 하게 원조하는 것이다. Ezra Pound나 Waley의 번역으로 중국이나 일본의 시가 널리 알려진 것을 생각하여 보면 알 수 있다. 앞으로는 우리 학생을 외국으로 파견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특히 외국의 한국과 졸업생을 국내로 초청하여 그로 하여금 한국문화에 관한 저술을 하도록 편의를 도모하여 주고 국내에서 출판토록 알선도 하여 줄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대학의 한국과에 너무 치중한 감이 있으나 그 이유는 한국과야말로 진정으로 한국문화를 연구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기야 우리가 15분 짜리의 발성영화로 한국문화를 수록하여 외국의 TV에 제공하면 일시에 수백만의 외국인에게 소개할 수 있겠지만 TV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극난(極難)하다고 한다. 장치는 이런 방법도 개척하여야 하겠지만 당장 주력하여야 할 곳은 외국대학의 한국과라고 생각한다.

한국문화의 소개에는 예술사절단의 해외파견 국제학회에서의 참석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비용의 막대한 것은 그 실현을 용이케 하지 않는다. 다만 그런 비용을 자변(自辯)할 수 있다면 정부는 그것을 막지 말고 오히려 편의를 도모하여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될 수 있으면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까지 하여도 좋다. 재외회관에서는 실제예술사절단을 요망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예술사절단이 해외로 갈 수 있을 경우에도 재외공관과 외국대학의 한국과가 제휴하여 사전에 선전을 잘하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 재외공관에서 선전을 하고 한국과에서 친절한 비판을 하면 그보다 힘 되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현재 전쟁 상태 중이고 군사비에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어 마음대로 한국문화 해외소개에 필요한 경비를 염출(捻出)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외국대학에 한국과가 늘어드는 편이어서 힘을 얻고 또 국내에서도 해외소개의 필요를 제창하고 있어 앞으로는 그 동작이 활발하여지리라고 믿지만 당장 우리가 할 것은 지금까지의 소개자료라도 정비 보관을 잘하고 그 이용에 대하여 각 기관이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유효적절히 하도록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필자·서울대 음대교수>

시(詩)

**오오 사월(四月)에**  
가곡(歌曲)을 위한 시작(試作)

류 정(柳呈)

오오 사월(四月)에

불이 붙은 진달래

노(怒)한 불길은

산(山)과 들을 덮었다

슬기로워라 이땅의 아들딸들

꽃봉오리의 그 목숨 방패 삼아

독재(獨裁)의 무리 끝내 물리쳤으니

울어라



또 웃어라

제2공화국(第二共和國)은

창공(蒼空)에 눈도 부신 민권(民權)의 태양(太陽)

오오 사월(四月)에

진달래는 졌으나

꽃다운 녀은

붉게 살아 빛난다

끈끈하여라 이땅의 아들딸들

메아리하는 그 외침 외어받아

정의민족(正義民族)의 힘찬 노래 올려라

싸우자

또 지키자

제2공화국(第二共和國)은

은 세계(世界) 우러르는 자유(自由)의 국토(國土)



시(詩)

## 창공(蒼空)

황금찬(黃錦燦)

그대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언제부터 그렇게들 창공(蒼空)을  
헤엄치는 재주를 배웠는가,  
독수리나, 보랏매가 아니면 못 오르던  
하늘에, 언제부터 그대들은 유성(流星)이 있는가.

수미산(須彌山) 상봉(上峯)엔  
삼십삼천(三十三天)이 있어 그중의 일천(一天)이 도리천(兜利天)인데  
그 하늘을 일러 영겁(永劫)이라 했고,  
창공(蒼空)은 흔히들 구만리(九萬里) 장천(長天)이라 했다.  
옛날엔 삼천구만리(三千九萬里)가 이제는 제법  
지상(地上)에서 손 끝도 닿고 어찌면



하루의 산보로(散步路)가 될 수도 있고  
땅이 싫으면 이사도 갈 수 있는 창공(蒼空),  
거기에 있는 땅들은 그대들의 것,  
그대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창공(蒼空)의 주인(主人)이여,  
하늘의 수호자여,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용사(勇士)여,  
다시 우리들의 핏줄이여,

그대들이 창공(蒼空)을 갈고 가는 것을 보면  
나는 꽃을 뿌려 그대들의 슬기를 노래하고 싶다.  
그리고 창공(蒼空)의 주인(主人)이라고 부르고 싶다.

개척자(開拓者)  
그대들은 창공(蒼空)의 개척자(開拓者)라  
지혜(智慧)의 날개를 펴서 좁아지는 하늘에  
그대들도 호흡을 같이 하라



---

---

시(詩)

## 층 계(層階)

—R파일럿을 추모(追慕)한다—

김 상 화(金相華)

먹구름이 덮힌다.

중심을 잃은 바람은 서고

태양은 무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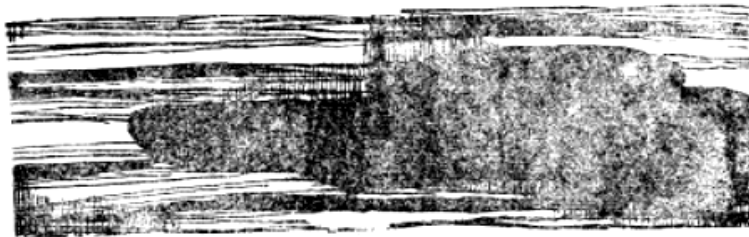
……그의 심장이 멎은 것이다.

……생명의 층계가 무너진 것이다.

무너진 층계(層階)에

은하(銀河)의 이슬이 맺혀지고

수정(水晶)같은 그의 눈동자가



---

---

별속에서 잠들면

막(幕)을 닫은 청춘제단(靑春祭壇) 앞에

세월이 운다.

그러나 죽지않은 그의 생명(生命)

무너진 생명(生命)의 층계(層階)는

또하나의 생명(生命)을 피게 한다.

막(幕)이 내려지고

그는 갔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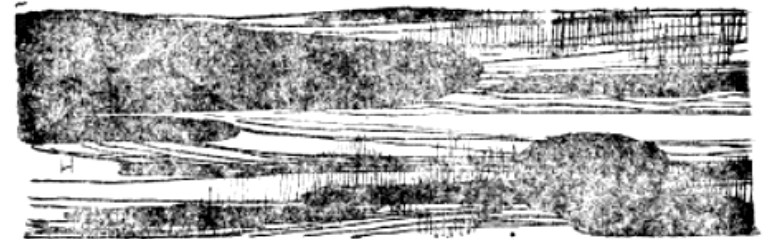
이 땅속에서 피어나는

진주(眞珠)빛 꽃이 있다.

……먹구름이 씻기워지고.

……가을하늘에 또다시.

……생명(生命)의 층계(層階)가 걸린다.





## 다이아몬드

이흥우(李興雨)

오뇌(懊惱)의 축적이 유원(悠遠)한 시공(時空)을 지질 듯이 내면(內面)으로

옥죄여 죄여 들며

도달한 예각(銳角)의 정점(頂點)에서 이내처럼 구름처럼 혼돈된다.

역력히 맺힌 절망의 침묵이 찬연히 선의(善意)의 비수(匕首)를 품는다.



탄화(炭化)한 온갖 선악(善惡)의 사념(思念)들이 멸망하며 희소(稀少)한

순연(純然)의 결정(結晶)을 맺는다.

백열(白熱)의 열도(熱度)를 거치며 에이도록 갈갈이 응고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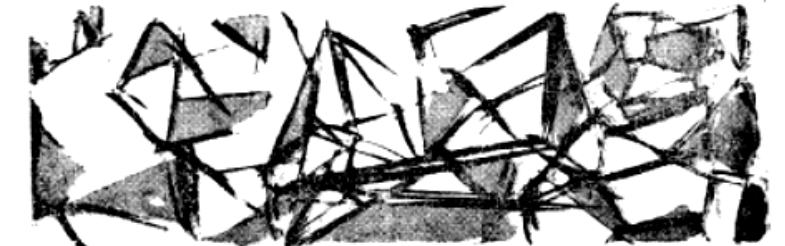
초연(超然)의 경도(硬度).

명명(明明)히 밝은 체념(諦念)의 냉엄한 광망을 무변광(無邊光)의 범열처럼

서기(瑞氣)처럼 발사(發射)한다.

다시 유원(悠遠)의 시공(時空)을 향하여 한 개의 존재(存在)가

고정불도(固定不度)의 맑은 빛을 증명(證明)한다.



## 군사(軍事) · 경제면(經濟面)에서 본 일본(日本)

—아세아(亞細亞)에 있어서 일본(日本)의 위치(位置)—

정순근(鄭淳根)

패전직후의 일본과 약 15년이 경과된 금일의 일본을 비교하여 볼 때 황무지가 금성왕국(金城王國)으로 변한 감이 든다.

아세아의 다른 국가들이 아직 경제적 자립과 완전개발상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지금 유독 일본만이 독보적 발전을 가졌음은, 일본이 약 1세기를 통하여 형성시킨 산업의 현대화 및 공업기술에 기인하기도 하나, 그보다는 전후 지금까지 계속되어오는 냉전의 소산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즉, 미국은 일본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국력이 부강하여짐은 곧 대륙에서 일어난 중공 등 공산세력과 대항되는 힘이라고 믿고 이러한 신념 아래 일본의 재건을 촉진시킨 것이다.

이와 같이 아세아에 있어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을 위하여 육성된 일본의 군사적 경제적 위치를 다음으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일본의 군사적 위치

아세아에 있어 일본의 군사적인 무게는 일본 자신이 갖는 방위력에 있다기 보다는 일본의 지리적 조건에 의한 전략적 가치와, 일본이 자유진영의 방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유지되는 세력균형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대륙을 석권한 공산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Containment Policy에 의하여 아세아에 있어서의 대공산세력 방위선은 명백히 그려진 바 있다. 즉, 알래스카, 아류산 열도, 일본, 한국, 충승(沖繩, 오키나와), 대만, 비올빈(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을 제1선으로 하고, 태평양 서방부 제도(諸島)를 제2선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애치슨, 덜레스 국무장관 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미국이 견지하여 온 방위선으로서, 동선의 어느 일격의 양보도 자유 진영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일본의 군사적 가치는 그가 이 선의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혹자는 현대의 고도의 정확성을 가진 대륙형단 유도탄(ICBM)의 실현으로 인하여 앞으로의전쟁에서는 거리감이 희박하여졌으며, 따라서 전기한 방위선의 존재가치는 감소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하(現下)의 국제사정을 볼 때 전면전쟁보다는 제한된 지역전쟁의 가능성이 오히려 많으므로 전략에 있어서는 아직도 종래의 개념에서 벗어날 수 없고, 따라서 동 방위선의 가치는 불변한 것으로 보여진다.

일본은 전술한 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외에 전략면에서 제이선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즉, 미국의 극동방위는 공군과 해군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는데, 한국 대만 등지에서 지역전투가 일어날 경우, 일본은 중요한 보급지가 되는 것이며, 대륙과 근거리에도 있으므로 반격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역시 일본은 태평양 서부제도 보다는 훨씬 가치있는 제2선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한국동란 시 입증된 바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한 일본의 군사적 위치를 떠나 능동적인 면으로 볼 때에도 일본은 극동방위에 중대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다.

일본의 방위체제는 주로 미일안전보장조약을 기초로 하여 편성되는 것인데, 지난 6월에 개정된 동 조약이 규정하는 바를 보면

(1) 미국은 일본이 외부로부터 침략받을 시 이를 방위한다.

(2) 극동지역에서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은 일본 내에 기타 및 시설 의 특권을 갖는다.

를 골자로 하고 기타 미국은 일본이 종래 일부 지불하여 오던 주둔미군의 경비를 면제하여 주는 동시 극동지역방위를 위하여 재일미군이 출병함에 있어서는 일본과의 사전협의를 하여야함을 규정하였다.

동조약에 의거하여 일본이 자유진영의 방위를 위하여 능동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 기대되나, 여기에는 한가지 고려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재일(在日)미주둔군이 유사시에 자동적으로 재일기지를 사용 출병할 수 있는나 문제이다.

동조약이 규정한 사전협의를 일본 측의 거부권을 의미한다면 미병의 출병이 자동적으로 가능하지 못할 것인데 실지로 안보조약을 반대하여온 일본 국민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듯하다. 반면에 미국 상원 홀브라이일 외교분과위원장 등 미국 측은 사전협의를 동조약에 삽입한 것은 일본 국민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어디까지나 협의에 그치고 거부권을 말하는 것이 아나라고 한다.

그 해석이 여하튼 간에 미병 출동에 있어서는 일본 측의 동의 내지 협의가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일본 내의 정치적인 양상이 극동의 안전보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가차운 예로 극성스러운 일본국민의 안보조약반대와 재일 U2기 철수의 여론으로, 아이젠하워 미국대통령의 방일은

취소되고 인수상은 사임을 강요 당하였고 U2 정찰기는 일본기지에서 철수되고 말았다.

일본국민의 이러한 일련의 몰지각이 극동의 자유진영의 방위를 약화시킴은 물론이다.

최악의 경우를 가산하여 미국이 재일본기지를 상실하는 경우 미국이 입는 재난은 막심한 바 있다고 한다.

즉, 미제7함대로서는 진주만 서방의 단 하나의 대수리시설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현상태의 함대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함선교체가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하여는 제7함대를 2배로 증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공군에 있어서도 현재 일본에는 비교적 소수의 전투기와 경폭격기가 있는 것이나 일단 동공군이 타지역으로 이동하여야 한다면 미국은 유사시에는 미본토로부터의 전략공군(Strategic Air Command)에 대폭 의지하여야 할 것이라 한다.

이에 가하여 일본 내의 독구(Dock), 창고 및 공장시설이 없으면 한국동란의 재발시 등에는 이전과 같은 유효한 작전을 전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주둔 2개사단도 지원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물론 극동에 타기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한국 내 기지로부터 불과 2, 3분 내의 비행거리에 있으며, 충충의 기지는 이미 협소하여졌고, 비울빈의 기지도 시설 불충분과 지리적 거리로 그 효용이 의심스러운 것이라 한다.

이상 약술한 미일안보조약과 관련한 일본의 군사적 위치를 떠나 일본 스스로가 갖는 방위력을 보면, 금년 말까지 육군 17만 천5백 명, 해군 3만 68명, 공군 3만 6천 70명으로 총 23만 8천2백78명이 된다고 한다.

장비면을 보면, 육군은 거의 현대식 무장을 하여 구제국육군의 기동력과 화력의 약 4·5배의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해군은 구제국해군력보다는 극히 미약할 것이나, 금년 말까지는 경비정 45척, 잠수함 6척, 경비정 1척, 소해정(掃海艇) 50척, 기타 함정 116척, 총 210척, 11만 5천 8백 48톤(噸, 噸(噸))이 된다고 한다. 공군력을 보면 주력은 F86으로서 금년 말까지 472대를 보유할 것이며, 그 외 정찰기, 연습기, 수송기 등을 합하면 1,115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F104 전투기를 일본서 생산하게 되어 있다. 그 외 100발의 싸이드 와인드 공대공 미사일이 금년 말까지 미국으로부터 도입될 것이라 한다.

일본의 앞으로의 5년 계획을 보면, F104 전투기 생산, 미사일 제조 등 주로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남아 제국에의 무기 수출국이 될 징후조차 엿보인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국방력이 강화되는데 대하여는 일본 국민 자신의 전쟁도발혐오감이 없지 않으나, 아세아민중이 일본군국주의세력 재대두를 우려함도 적지 않다.

### 경제면에 있어서의 일본의 위치

일본이 아세아에서 갖는 무게는 군사적인 면보다는 경제적인 면이 더 중하다 할 것이다.

전후 15년간 일본의 경제는 세계사상 예를 찾을 수 없는

급속한 발전을 하였다.

그 실적을 보면 전국토의 17.4 퍼센트 밖에 안되는 농토를 가졌으나 국민인 식량의 85 퍼센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만 보더라도 철의 생산량은 480만 톤에서 1,800만 톤으로, 제유(製油)는 170만 톤에서 2,200만 톤으로, 조선은 34만 톤에서 170만 톤으로, 그리고 무역고는 8억2천만 불에서 36억 불로 급증하였다.

이상의 실적이 증명하다시피 일본은 아세아의 최선진 공업국으로 독보하고 있음은 事實이다.

일본경제의 이러한 월등한 위치는 결코 그들 자신의 공과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물론 전후 군국주의의 악몽에서 깨어나 그들이 1세기 동안에 이루어 놓은 현대화된 산업을 토대로 즉각적인 세력을 경제재건에 경주한 공로에 기인하나, 그것을 뒷받침한 것은 역시 미국의 원조라고 할 것이다. 1945년 이래 1951년간만 보더라도 미국은 약 20억 불을 직접 원조하였으며 그 외 군사물자구매 등의 형식으로(한국동란시 등) 일본에 공여된 간접적 원조액은 천문학적 수에 달할 것이다.

일본 경제재건에 이바지한 다른 하나의 요인은 미국과 아세아 등 자유진영 제국이 일본상품의 판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수입품목은 2할이 식료품이고 나머지 8할은 생산원료인데, 동 원료를 가공한 일본상품의 판로는 주로 2대시장에 의지되어 왔다. 즉 그 하나는 미국이요, 다른 하나는 아세아, 아프리카 제국이였다. 동 2대시장 중 일본상품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시장에 있어서는 몇 가지 어려운 문제가

첫째, 일본은 대미무역에 있어서는 4대3의 비율로 수입초과의 현상을 보여 주고 있고

둘째, 미국자신의 발달된 상품으로 강한 경쟁에 불착하게 되었으며

셋째, 국제사정 내지 미국내 여론으로 일본상품에 대한 제한이 가하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예를 보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방일이 취소된 후 미국상사는 자전거, 라디오, 녹음기, 완구 등 대량의 주문을 취소하였으며 약 40만 불의 양화의 주문도 취소되었다고 전하여지며, 이러한 현상은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동남아를 위시한 아(亞)·아(阿) 지역에 장기적인 경제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수단을 기도한 바 있다. 즉 전후 일본이 이 지역각국에 보상하는데 있어 기술원조, 투자 등을 가능케 함이 그것이며, 또한 국제기구를 통한 저개발국 원조계획에 가담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미국의 자본을 빌려 이 지역의 개발을 기도하였는데 그것은 일본이 미국에 지배하여야 할 GARROA, ERROA, 원조배상을 미국에 지불하지 않고 동남아지역의 개발에 이용하려고 교섭한 적이 있고,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미일안보조약에 규정된 미일경제협력에 의거하여 양국간에 관민을 일체로 한 경제협력기구를 설립할 것을 기도한 바 있다.

이러한 일대의 불굴의 세력은「미국의 자본과 일본의 기술」이라는 미명 아래 아세아의 개발을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보자는 심산에서임은 물론이다.

<89에 계속>

# 공산권(共産圈)에 있어서 중공(中共)의 비중(比重)

—최근(最近)의 동정(動靜)에서—

김용현(金用賢)



## 1. 그들은 한국전에서 자신을 얻었다.

중국대륙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통일만 되면 큰 힘을 발휘하고 사위(四圍)의 제민족국가에게 큰 위협이 되어 왔던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진한(秦漢)이 대륙을 통일했을 때는 북방의 강국인 고구려 몽고가 숨을 크게 못 쉬었고, 남방은 안남(安南) 버마까지 위압당했으며 당, 원, 명, 청이 대륙을 제압했을 때도 사위국가들은 반드시 침략을 당했었다. 중공이 한국전에 참가한 때는 대륙을 제압한 지 불과 1년만인 1950년 10월이었다. 물론 그들은 처음에 미국의 힘을 무서워한 나머지, 그렇게도 성화같이 참전을 중용하는 스탈린의 권고를 듣지 않다가 유엔군이 절대로 압록강을 넘지 않기로 되었다는 약속을 미영(美英)간에 밀약하고 있다는 비밀정보를 영국의무성관리가 소련에 팔아먹은 결과 이 소식을 알게 된 중공은 비로소 안심하고 참전한 것이기는 하나 당시의 중공형편으로 보아서는 상당한 모험이요 무모한 짓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만약 미국이 영국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맥아더 원수의 작전대로 감행할 결심만 보았더라도 중공은 참전하지 않았거나, 불연(不然)이면 벌써 궤멸했을는지 모른다. 하여간 이 전쟁에 중공은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내 통일을 강고히 했고, 대외적으로는 벌써 국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공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현실화해 놓았다. 중공은 이때부터 교만해지고 대담해져서 기회있는 때마다 대만을 점령하겠다고 위협했고, 또 사실상 침공을 감행하려고 수십만 군대와 수백 대의 전폭기를 대만 건너편 하문(廈門) 부근에 집결시키기도 했다. 여기서 미국의 힘, 즉 고 텔레스 국무장관의 소위 전쟁 일보 전의 외교정책에 의한 미국의 대만방위에 대한

굳은 결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아마 중공은 그때 벌써 대만을 침공했을 것이다.

## 2. 그들은 너무 커졌다.

중공의 과거 10년간의 눈부신 업적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들은 중공업면에서 제2차 5개년 계획에 성공한 듯해서 안산(鞍山) 철제소가 확장되었고 1958년에는 중공최대의 안산 제10호 용광로에 점화하고 소위 세계최대라고 하는 안산 평로(平爐)(일생산 1,300-1,500톤)가 조업을 시작했고, 만주공업지구, 무한(武漢), 포두(包頭) 등 공업지구가 완성되었다 하고, 불원간 서남과 서북지구에도 철강과 화력발전공업지대가 완성된다고 했다. 철강생산 목표는 연간 4천만 톤으로 불원간(不遠間) 영국을 앞지른다는 것이다. 기계도 1958년에는 트럭을 매일 생산 120대라 하고, 잣트기·대형선박·기관차·공작기계 발전시설을 제작한다 하고, 전력은 현재 백만 키로를 발전한다 했다. 철광은 안산이 최대산지이지만 포두·사천·감숙에는 수억 톤 매장량이 있고, 최근 하남에서 3천억 톤 매장량의 철광을 발견했다 한다. 그 외 석유도 감숙·청해·신강에서 대유전을 발견해서 1958년 생산량은 2백 25만 톤이라 했다. 철도는 1958년까지는 3만여 킬로인데 서북변경의 청해 티베트선과 중경(重慶)에서 귀양(貴陽)까지 내강(內江)에서 혼명(混明)까지 난주(蘭州)에서 아코도가 감숙과 신강을 횡단하여 소련철도와의 연결했다고 하니 동서남북을 통해 거미줄 걸어 놓듯 한 셈이다.

군사방면은 극비에 부쳐있는 모양이나 알려진 바로는 한국전 때는 5백만이었으나 지금은 많이 줄었다 하며 공안부대가 50만, 공군은 4, 5천 기 정도요, 해군도 12만 6천 톤이 된다 하고 민병은 16세부터 15세까지는 다 참가하는 모양이어서 일즉 중공정치국원 팡진(彭眞)은 호언장담하기를 만약 제3차대전 이 일어나는 경우 중공은 1억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상 숫자는 어느 정도 진실인지는 알 길이 없으며, 다만 오늘날 중공의 방약무인한 태도와 배짱을 알아보는데 참고는 될 수 있을 것이다.

## 3. 티베트와 맥마흔 선에 대한 침공

일즉 원·명·청이 다 티베트를 점령한 일이 있으나, 도저히 그것을 지니지 못하고 형식상 종주권만 가졌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방임해 두었다. 그런데 중공은 작년 봄에 이 티베트를 송두리째 병합하려 들었다. 중공은 1952년 티베트에 진주한 후 라싸 정부와의 사이에 티베트 해방방법협정이란 것을 체결하고 이 협정에 의해서 티베트의 종교, 언어, 문자, 교육의 개선과 내정, 문화, 경제 생활에까지 간섭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중공군의 티베트 각지에 주둔한 총병력은 약 20만이었었는데 이들 군대와 중공공작대들은 각 방면에서 티베트 인민과 마라승의 반감을 샀다. 1952년에서 1959년의 8년간 티베트 각지에서는 반란이 일어났고, 그중 캄바족의 대 반란은 중공군을 상당히 곤경에 빠뜨렸다. 그 기간에 티베트군 사상자는 5만에 달하고, 중공군의 사상자는 1만 2천 명이라는 중공당국의 발표였으나 대북의 발표는 배나 더 넘는 숫자였다.



중공은 차차 노골적이었다. 라싸의 활불(活佛) 다라이 라마를 간계로 꼬여서 감금하려 하자 라마는 창졸지간에 심야를 타서 라싸를 탈 줄 인도국경으로 피난했으며 거기서 세계 각국에 구원을 호소했다. 그러나 인도와 영국은 냉담하다기보다 그들 자신이 오히려 겁을 집어먹고 떨고 있는 형편이요, 기타는 너무 손이 멀고 이해관계가 없었다. 이리해서 다라이 라마는 영원히 티베트를 버리고 인도로 망명 함으로써 티베트는 완전히 중공의 손에 들어가고 말았다. 물론 이때부터 캄바족을 위시한 티베트의 전민족은 일제히 들고 일어서서 각 처의 도로와 교량을 파괴하고 중공부대를 습격하는 등 대규모의 반란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중공군을 대량으로 투입하여 철저한 소탕전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원시적 무기와 전법으로서의 당랑거철(螳螂拒轍) 격이 아닐 수 없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지금 전 티베트 민족은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히말라야 산맥의 고원지대(볼모지)를 향하여 대이주를 개시했다고 한다. 약소민족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 4. 극동문제에 관한 중공의 위치

세계의 주시하에 중공은 착착 세력을 확대해 가는 중이다. 우리는 지난날의 안남문제를 상기해 본다. 제2차대전 이 끝나고 불군(佛軍)이 다시 안남에 진주했을 때는 호志明(胡志明)은 절망에 빠지고 압담한 가운데서 겨우 운남에 접경해 있는 산악지대에서 소규모의 유격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절망적인 호志明의 생활은 1949년 말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중국대륙이 중공의 손으로 넘어가고 중공군이 안남지경에 이르자 호志明은 다시 일어나 중공의 절대적인 원조하에 남하를 개시했고 마침내 전안남에서 15만 불군의 비극적인 철수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만약 미국이 전쟁을 각오하고 나서지 않았던들 안남은 이미 중공세력권 내에 들어갔을 것이다. 띠엔 디엔푸가 함락되자 하내(河內)는 그대로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고 호志明 공산군이 노도(怒濤) 같이 사이공을 향하여 내려올 때에 호志明 군 가운데는 많은 중공군이 변장을 하고 참가해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제7함대가 안남해역을 둘러싸고 지중해의 제6함대일부와 하와이에 있던 제1함대일부가 달려오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미국이 최후통첩을 발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슬아슬한 일이다.

작년 봄 후루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자 중공은 노골적으로 이것을 싫어했다. 아마 미국에 가지 말라고 적극 반대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공의 생각에는 세계문제를 미·소 두 나라만이 맘대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극동문제에 관한 한 중공의 참가없는 회담은 참을 수 없는 멸시요, 모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리해서 후루시초프가 미국을 향하여 출발하기 전에 중공군은 돌연 인도 국경을 침범했다. 그들은 지금까지 영국이 인도를 통치하던 때에 그어져 있는 맥마혼 국경선을 부인하고, 인도 쪽 깊숙이 침범해 들어가서 그것을 옛날부터 내려오는 중공영토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세계는 또 한 번 놀랐다. 영국과 인도정부는 중공에 항의하고, 한편 인도군은 맥마혼선으로 집결시켜 일전을 각오한다고

분개했으나 중공은 까다도 않고 군대를 증원했다. 후루시초프도 당황해서 중공의 자중을 호소했다. 더구나 방금 미국을 방문하여 동서냉전을 해소해 보려는 역사적인 순간에 중공의 그러한 행동은 공산진영의 이익에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비난도 해보았다. 그러나 중공은 제고집대로 행동했다. 후루시초프는 이와 같은 중공의 당돌한 행동 때문에 미국에게 좋은 구실과 언질을 주게 된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미국을 방문했다. 아나니 다를까 미국은 후에게 중공의 침략적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견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공의 행동을 믿을 수 없으니 소련이 책임을 지라는 말이었다. 후가 아 대통령에게 그러마 하고, 승낙한 후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북경에 들렀을 때는 기가 막혔다. 중공요인은 거의 비행장에 나오지 않았다. 후가 모(毛), 주(周)를 만나 이야기했을 때도 냉정하기 짝이 없었다. 후의 방미를 노골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후는 도저히 중공을 납득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총총히 북경을 떠나 만주를 거쳐 모스크바로 돌아갔다. 여기서 벌써 1년 후로 약속된 파리정상회담의 성패를 점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중공은 벌써 소련의 괴뢰는 아니었다. 모든 문제는 중공의 참가 없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지난 5월 16일 파리에서 정상회담이 열리자마자 아 대통령과 후루시초프는 서로 인사도 나누기 전에 후의 폭탄적 선언에 의해서 결렬이 되고 만 것도 결국 직접구실로 삼은 U2기 사건만은 아닐 것이다. 아마 중공의 강경한 반대에 봉착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내릴만한 이유가 많다. 왜냐하면 설혹 정상회담에서 무슨 타협이 생긴다 하더라도 중공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상 그 타협이란 것이 하루 아침에 중공에 의해서 깨어질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과연 중공은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가자 전방송과 언론을 통하여 서방 제국주의자들과의 타협이나 공존은 어리석은 잠꼬대에 불과하며 결국 서방제국주의자들과의 전쟁은 불가피한 운명이라고 선전하기 시작했다.

이 전쟁불가피론과 공존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중공의 주장과 소련의 동서공존가능론 사이에 논쟁이 벌어져서 공산권의 분열이 생기는가 했더니 최근 중공의 양보로 조용해지기는 했다.

중공은 확실히 어느 누구도 다루기 힘든 존재가 되었다. 소련도 함부로 다루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미 상술한 바와 같다. 그리해서 지난 6월 28일 아 대통령이 극동을 방문하고, 대만에 들렀을 때도 중공은 틀림없이 행패를 부렸다. 금문, 마조도(馬祖島)에 대해서 사상 유례가 없는 대포격을 가했기 때문이다.

별써 지나간 일이지만 일주 애급과 영·불·이스라엘 사이에 스에즈 운하문제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도 소련과 같이 중공도 의용군을 파견하여 애급을 도움겠다고 협박, 공갈한 일이 있었다. 이제 아마 모르긴 하지만 극동과 동남아 문제는 물론이지마는 세계문제가 일어나는 때마다 중공의 비중은 차차 증대해 갈 것이다. 중공의 국경은 너무나 넓어졌다. 압록강 두만강에서 하바로 스크를 거쳐 후룡강, 아모우루강, 흥안령과 고비 사막을 거쳐서 신강 칭해 그리고 티베트를 둘러싼 곤륜산맥과 히말라야 산맥까지 인도 버마와 접경하고 남으로 안남태국에 이르는 4, 5만 리의 국경선은 너무나 길고 방대하다. 이와 같이 광대한 지역과 7억에 가까운 인민을 옹하고 있는 중공의 비중은 공산권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큰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필자 연세대 교수>

# 여명기(黎明期)의 아프리카 대륙(大陸)

—아프리카대륙의 지정학적 고찰—

홍 시 환(洪始煥)

## 1. 서론

아프리카 흑인 Negro의 근거지인 아프리카 대륙은 실로 오랫동안 인류 발전의 무대에서 도외시되어 온 대륙이다. 그는 또한 신비하고도 처참한 대자연환경 속에서 원시적인 생활풍습을 그대로 지니고 내려온 미개한 암흑대륙으로 자처해 온 대륙이기도 하다.

한편 이 대륙은 이때까지 유럽 선진국가의 정치 경제적 세력 하에 있는 식민지 대륙으로도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 대륙이 제2차 대전의 커다란 시련의 일분야를 담당하고 나선 후 부터는 점차로 민족 자주 독립적 기운이 활발하여 새로운 여러 신생국들이 등장하고 있다.

즉 최근의 신문보도는 이 대륙에 있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의 많은 해외영토들이 속속 뒤이어 독립하거나 또는 독립이 약속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와 같이 먼동이 트고 있는 이 아프리카 대륙의 편모를 더듬어 보는 것도 의의 깊은 일이라 하겠다.

## 2. 혹독한 열대 대륙의 자연환경

전 대륙 면적의 4분의 3을 극단적인 열대성 기후 환경 속에 몰아넣은 그 지리적 위치는 물론 이 대륙의



<아프리카의 정치지도>

지형구조까지도 그 해안선의 단조(單調), 고원의 해안편재 등등 이 대륙의 자연을 가혹한 열대 환경으로 만들고 있다. 그중에서도 적도 다우(多雨)형 기후지대로 되고 있는 Guinea만 연안 일대와 Congo 분지 지역은 연중 고온 다우의 기후 환경으로 백인들의 식민 개척에 많은 애로를 주었으므로 이곳 Congo 강 유역의 분지 지대를 속칭 백인의 분묘지(墳墓地)라고도 하였다. 다만 지중해성 기후를 이

루고 있는 북 아프리카의 좁은 지역과 남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에서는 그 기후 환경이 온난하므로 고대부터 많은 주민들이 정착하여 개발에 노력하여 왔었으며 오늘날 이 지역을 근거지로 보다 내륙에의 개발 개척에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적도이북 멀리 전개되고 있는 Sahara 지방에서는 열대적 이면서도 건조한 기후로 말미암아 광활한 대사막인 대장벽이 동서로 펼쳐 있으므로 이곳 주민은 Oasis 부근에서만 겨우 천지(泉地) 관개(灌漑)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상용품이나 의료 장식품 등은 이 Oasis에서 저 Oasis로 떠돌이 왕래하는 Caravan(대상(隊商))에 의하여 취득하고 있다.

그리고 이 대륙의 지형은 단조한 탁상 고원을 이루고 있으나 산맥의 위치가 해안에 뻗어있는가 또는 내륙에 있는가에 따라 그 내륙지역에 미쳐주는 기후 환경도 역시 달리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열대 다우림 지역에서는 고온 다습의 기후 환경과 밀림의 대번무(大繁茂) 때문에 정주(定住) 주민들은 서로 상관관계적 왕래가 드물어 마침내 많은 군소 부족 토민들이 산재 할거하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 언어는 물론 생활습성에까지도 고유한 독자적 형식을 갖게 하였다.

이와 같이 장벽적 대자연환경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이때까지 이 아프리카 대륙은 미개발의 암흑대륙으로서 존속되어 왔던 것이나 시대문명의 거족적 발전과 인지 과학의 획기적 진보는 드디어 대 자연을 극복 개발하여 오늘날 이 암흑의 흑인, 미개대륙을 세계 자원의 보고로 등장시키고 있으며 인류 활동의 대무대로 그 적나라한 자태를 보여주게 하였다.

### 3. 식민지 대륙의 경제적 개발

그렇다면 오늘날 이 대륙은 어떠한 경제적 발전 경로를 가져왔으며 또한 그 세계 경제면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지위는 어떠한가?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 대륙의 개발을 경제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겠다.

#### 1. 노예 무역 시대

Herodots의 기록을 보면 아프리카의 연안 주항(週航)은 서기전 600년 경이었다고 하나 정확하게 알려지게 된 것은 1487년 Bartholomeu Diaz가 아프리카 남단인 희망봉에 도달한 이후부터이다.

그 후 포르투갈의 아프리카 영유(領有)시대로부터 시작하여 19세기 중엽에까지 이르는 3백여 년간은 주로 백인들의 노예무역이 번성한 시대이다.

굳건한 체력과 강한 인내력을 가지고 있는 이곳 Negro는 백인들이 식민하기보다 일찍 옛날부터 Egypt, Arabia 반도지역에 노예로써 끌려갔었으나 그 수는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것이었고 대량적인 집단이동이 실시된 것은 총포가 발명된 이후부터이다. 따라서 이때까지의 아랍인에 의한 노예포로는 주로 동아프리카 고원기슭에서 동원되었었고 백인들의 대량적 흑인반출은 열대 아프리카 서안인 오늘의 노예해안 즉 Slave Coast를 거점으로 삼았었다. 그 당시 흑인 노예는 Senegal의 Cape-Verde에서 적도남쪽의 포르투갈령인 Angola의 Benguel까지에 걸쳐 설치되어 있던 약 70개소의 백인상관(商館)에서 실시되었다. 1540-1840년까지의 3백년간, 매년 평균 5만명(최고는 1830년의 20만)이 매인당 80마르크(마크(馬克))로 투매(投賣)되었으니 이동안 약 1,500만의 흑인노예가 신대륙 각지에 반출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같은 노예가 반출된 아프리카는 수입화물로 총포도 있었으나 주로 담배, 라무주(酒), 유리제품, 거울, 금속제품들을 반입하였는데 특히 기호품이 환영을 받은 것은 열대적인 기후환경에서 온 요구였을 것이다.

그러나 영, 불, 화 그 밖의 미국의 남북전쟁 등으로 19세기 중엽에는 공개적인 인신매매는 쇠퇴하였다.

#### 2. 채집 무역 시대

그 후 아프리카 서안에서의 노예매매 경기는 없어졌으나 그래도 토인들의 채집 또는 수집되어 오는 토산물품과 일상용품과의 거래교환은 계속되었다.

즉, 무역품이 흑인노예에서 토산물품으로 옮겨지게 된 19세기 중엽부터는 이곳 대륙의 상아, 황금, 향료인 호초(胡椒), 타조의 털, 수피(獸皮), 야자실 등이 많이 채집되어 반출되었다. 지금의 상(上)Guinea만 해안에 여기저기 불리우는 Gold Coast, Slave Coast, Ivory Coast, Grain Coast 등은 모두 이때에 명명된 지명들이다. 특히 Ghana 공화국인 황금해안 당에서는 금이 많이 산출된 것은 보다가 이전의 17세기 때 일이나 그 후 계속 산출되어 본국인 영국에 반출되었으므로 이 이름이 남게 되었다.

#### 3. Plantation 시대

이와 같이 채집, 수집물품의 교환거래가 행해지자 이때까지와 같은 백인 상관의 번영은 완전히 쇠퇴해버리고 폐쇄하기에 이르렀고 그 후 1850년~1880년 경까지의 당분간은 그대로 암흑 대륙으로 방치해두는 시대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19세기 말엽에 영인들은 백인들의 기호품인 카카오, 커피, 낙화생(落花生, 땅콩), 면화(棉花, 목화)들을 대규모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하였다.

백인들의 다대한 추자와 과학적인 운영 그리고 이곳 원주민들의 값싸게 고용된 노동력은 드디어 이 지역의 자연적 입지조건과 더불어 세계적 산물품을 보게 된 대규모적인 Plantation을 발달시켰다. 오늘날 세계의 90%를 산출하고 있는 카카오는 포르투갈인에 의하여 1885년 남미에서 이식되었는데 원래의 야자유 채집보다도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곳 흑인들은 황금해안의 내륙지방에까지도 재배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독립한 프랑스 공동체의 Mali공화국의 Senegal 지방에서는 미국에서 이식한 낙화생의 이동 재식(裁植) 농경에 크게 성공하여 오늘날 프랑스 본토의 제유(製油)공업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동아프리카의 우간다지방에서는 영인의 자본과 기술로 대규모적인 면화재배가 경영되고 있다.

#### 4. 채광 경제 시대

그러나 오늘날 세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오랜 전통의 재식 농경도 아닌 광산업 등이라 하겠다. 물론 도처에서 근대적인 재식 농경이 실시되고 있기는 하나 최근에 개발된 각종 광산업은 가장 긴요한 것이다. 즉,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가지는 남아(南阿)연방의 금, 금강석을 비롯하여 벨기에령이었던 신생 콩고공화국의 Katanga 동산(銅山)

과 Kiroto 금광산, 북 Rhodesia의 여러 동산들이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에



는 아프리카의 우라늄광의 매장량이 세계의 90%까지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Congo의 Katanga 광산과 Sinkorowe 광산은 세계 제일가는 부광(富鑛)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도 이 대륙에는 젯트 엔진에 이용되는 희금속인 코론븀이 Nigeria에서 세계의 92%까지 독점하고 있으며 코발트도 80%를 콩고지역에서, 또한 공업용 다이아몬드도 98%를 출산하고 있어 실로 아프리카는 원자력 시대의 자원적 중심지가 되고 있다.

#### 4. 태동하는 민족자결의 기운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는 명실 공히 유럽선진국가들의 식민지로써 그들의 자본과 기술에 의하여 개발되어 온 대륙이나 점차 식민지주의 반대와 민족자결의 사조는 아시아, 아라비아를 거쳐 이 대륙에까지도 파급되었으며 드디어 식민지 대륙의 면목을 일신케 하였다. 즉, 제2차 대전전에는 통일 아랍공화국의 모체가 되고 있는 이집트(Egypt)(1922년 독립)와 1936년에 이에 침략을 받았다가 다시 복구된 이티오피아(Ethiopia) 그리고 1847년 미대륙에서 돌아온 흑인 노예가 세운 흑인공화국 리베리아(Liberia) 그리고 1910년 영(英)연방내의 자치령으로 된 남아연방 등의 네 나라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2차대전이 끝난 후 이 대륙에도 먼동이 트기 시작하였으며 드디어 그들의 거족적 민족투쟁과 미묘한 국제정세는 그들의 뒤이은 민족 자주독립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었다.

즉, 광대한 사하라 사막의 북쪽에서는 1951년 12월에 Libya가 이탈리아의 세력을 구축하고 독립의 선봉이 되었고 그 이웃인 불(佛) 보호령인 Tunisia와 Morocco는 1956년 4월에, 한편 나일강 상류지방에서는 1956년 1월에 Sudan이, 1957년 3월에는 황금해안과 영신탁지(英信託地)였던 Togoland가 합쳐서 Ghana로 제2의 흑인공화국으로 탄생하였다.

그리고 1959년에는 불령(佛領)기네아 Guinea가 공화국으로, 또한 불령 Sudan과 Senegal이 합치어 Mali 공화국으로, 동남해상에 있는 불령 Madagascareh(島)는 Malagasy 공화국으로 불(佛)공동체 내에 머물게 되었다. 그리고 금년 1960년에는 Cameroon이, 지난 6월말에는 Congo 공화국이 독립하였으며 이 밖에도 근간 독립이 약속되어 있는 지역으로는 Samali land가 Samalia로, 불령 Togoland가 Togo 공화국으로, Moretania가 Moretania 공화국으로 될 예정이다.

#### 5. 결론 (아프리카의 지정학적 제문제)

요컨대 식민지 대륙이었던 아프리카는 이제 제2차대전 후의 국제적 정세하에서 그 종래의 예속적 지위를 벗어나려고 태동하고 있다.

이제 식민지로서의 구태의연한 땅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이 지역들에서도 민족자결의 봉화는 오르고 있다.

이와 같이 태동하는 이 대륙의 당면적인 지정학적 문제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령 알제리아의 자주독립 투쟁**……이는 통일 아랍 공화국의 뒷받침과 불(佛)분국의 차별 처우, 국내 민족주의의 대두에서 온 것이다.

**둘째, 콩고공화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유망성에 대한 공산주의의 침략책동**……이는국내 다수민족의 분열적 환경 및 원자력 기타의 각종 전략자원이 풍부한 조건과 이때까지의 예속적 지위에 동정을 가장한 공산주의의 계략에 기인한 것이다.

**셋째, 남아연방의 인종 차별 문제**……이는 토착 백인의 원주민 학대 및 차별대우에서 온 것으로 앞으로 복잡해질 우려가 많다.

그러나 이상의 제 문제는 중주국가측에서의 관대한 처우와 현실을 이해한 약소민족의 자각적이고 질서 있는 행동에 의존 기대할 수 밖에 없다.

(필자·서울사대강사)

<79면에서 계속>

전술한 일본의 경제적인 팽창은 적지 않은 불안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일본의 경제는 무제한으로 팽창될 수는 없고,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는 아세아의 타민족으로부터 반발을 받을 것이다.

아세아 타국의 대일경계심과 민족주의는 일본의 이러한 침투를 무제한으로 용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일본은 대공산권과의 교역을 적극화시킬 것이며, 이렇게 되면 아세아에서 자유진영은 대공산권영 세력 균형을 상실할 우려도 없지 않은 것이다. 일본의 자유진영에 대한 신의는 아 이전하위 대통령의 방일 취소 등으로 극도로 의심스러운 지금, 일본의 동남아에의 경제적 발전이 저지될 경우 그들의 취할 태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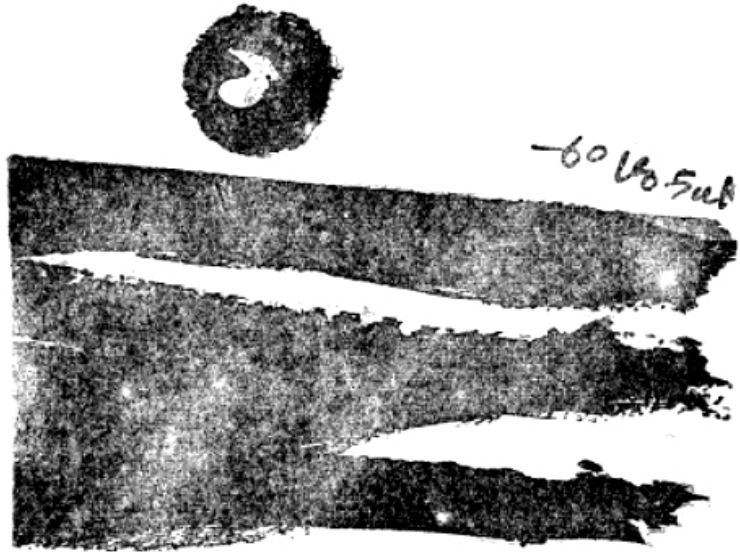
#### 결론

행이건 불행이건 일본은 현 아세아의 안전을 좌우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아세아의 평화의 안전전(楛)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파괴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은 후루시초프가 파리 정상회담을 파괴한 이래 안보조약반대 아 이전하위 대통령 방일 취소, 안수상 사임 등 공산주의 선전 앞에 무력하였다. 공산주의와 대항하기 위하여 자유진영이 육성시킨 일본은 도리어 자유진영의 앞날에 암영(暗影)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울타리 안에 범을 기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필자·외무부 아주과(亞洲課) 근무>





## 바다가 그리워

글·그림 박고석(朴古石)

나는 원래 여름철이 오면 대개 산이나 바다로 휩 떠나는 습성이 있다.

찌는 듯 내려쬐이는 더위에 두둥실 몸을 던질 수 있는

바다가 더욱 좋고, 폐쇄적인 도심지에 도사리고 있어 건디는

것도 요즈음의 습관이기는 하지만 찌는듯한 더위와의



대결은 오로지 완전한 별거승이의 자세만이 무장인 것이다.

자연속으로의 완전한 해방감이 마음과 육체를 가볍게 하여주고,

무한한 수평선과 깊고 짙은 바닷물은 단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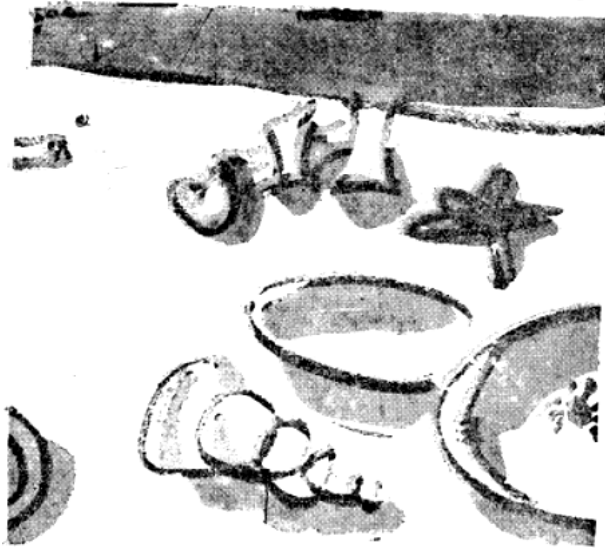
가운데 무한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어서 좋고 완전히

해방된 나의 육체와 마음은 제법 원시와 잇닿는 듯 시늉을 할 수 있어 좋다.

이러한 강력한 자극과 단순한 환경과 나의 응졸함을

망각케하여 주고, 무한히 내일을 바랄볼 수 있는 듯 여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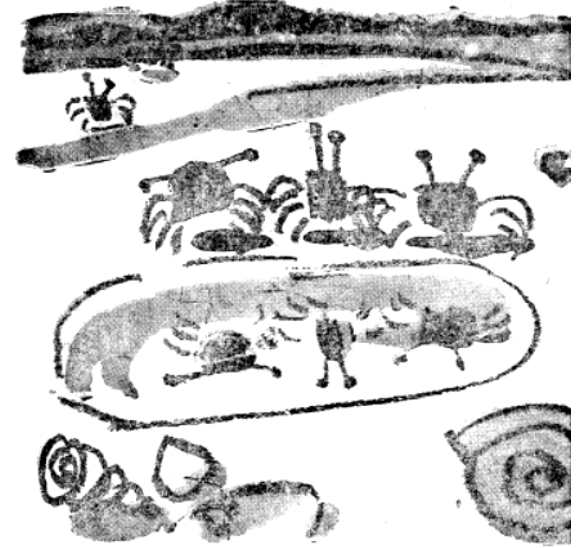
젖을 수 있게 하여준다.



## 바닷가素描

글·그림 백 영 수(白榮洙)

은싸래기 금싸래기 위로 깎안 퀘가 마치  
 산책이라도 하는 것처럼 제각기 멋을 부리고 있다.  
 고급동물처럼 경치를 찾아서 무언가 속삭이는,  
 가슴엔 정열(情熱)같은 거품을 품는다. 아마도  
 열열한 사랑을 고백함이 틀림 없다.  
 이런 풍경(風景)은 여기 저기 놓여 있는 조개, 소라,  
 고동껍질들의 역사(歷史)가 가고 있는 것처럼



오랜 전설(傳說)을 말하고 있다. 바다의 역사(歷史)는  
 백사장(白沙場)인 바닷가에소 볼 수 있다.  
 조개나 소라, 고동들이 바닷가 파도에 씻기어  
 모래알이 되기까지엔 수백년을 걸릴 것이고,  
 진주(眞珠)처럼 운이 나기까지엔 헤아릴 수 없는  
 파도에 씻기어, 바다의 역사(歷史)가 되고 있다.  
 바닷속 깊이 잠겨 있던 전설(傳說)도 파도에 밀려  
 모래사장에 달는다. 여인(女人)이 인어(人魚)가 된  
 이야기도 바닷가에 밀리어 마침내 백사장(白沙場)에  
 나타나고 있다. 거기엔 그녀의 머리 빛이니 가락지  
 같은 것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열쇠도  
 파도에 밀려 금싸래기 은싸래기 위에 놓였다.

## 노(怒)여움의 가지가지



김자림(金茲林)

<여류작가>

수 주일 전 원각사(圓覺寺)에서 「성낸 얼굴로 돌아다 보라」는 연극이 상연된 일이 있다.

영국의 신진작가 존 오스본의 출세작이다. 젊은 세대들의 기성사회에 대한 반발과 몸부림 즉, 이것을 합쳐서 노여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세계 각국에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작품이라고 소개되었다. 특히 이 작품 속에서 생각나는 재미있는 대목은 오늘의 기성세대들은 저마다 에드워드 왕조의 찬란한 옛꿈을 더듬으며 너무나도 뒤편고 변한 현실에 대해서 고민과 안타까움이 있는데 반하여, 젊은 세대들은 너무도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하여 울분이 있는 점이다. 젊은 가슴 속에 그 울분이 엉키고 성긴 끝에 드디어 일종의 노여움으로 폭발해 버렸던 것이다. 한쪽은 변한 현실을 슬퍼하고 또 한쪽은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화를 품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웃어 넘길 수 없는 대조이다.

그러면 그러한 노여움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현실을 직관하는 영국의 젊은 세대들은 과연 무엇을 받들고 있는 것일까?

나는 그 작품 속에서 그것이 뭐라고 뚜렷한 해답을 얻지는 못하였다.

그저 횡단여리가 어느 한 목표를 향해 터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덩어리는 어떤 정신세계에서 맴돌다 제깁에 사그러졌다가는 또다시 하나의 덩어리로 부풀어 간다는 식의 코스를 더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인공 지미의 말을 빌린다면 “우리들은 모든 의욕이 상실돼 가고 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해치웠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란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이란 하나도 없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말이다.”

그와 같이 젊은 층들의 무기력의 원인을 기성사회에 돌리고 그들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이 연극을 보고 나서 앵그리 영맨들의 노여움의 성격을 찬찬히 분석해 보았다. 흔히 노여움이라고 하면 원시감정에서 터지는 화, 다시 말하면 분노를 보고 말하기가 쉽다.

그러나 여기 앵그리 영맨들의 노(怒)의

의미는 그런 원시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노의 뜻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정신세계에서 폭발된 감정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그 노에 대한 의미의 윤곽을 파악하고 나서 새삼 노에 대한 가지가지를 생각해 볼 기회를 얻게 되었다.

앵그리 영맨들의 그와 같은 분노는 지금 세계도처에서 주시되고 있다. 문예비평가들은 그 분노에 대한 해석과 의견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노, 저런 분노를 생각하면서 나는 우리의 분노, 말하면 우리 한국적인 분노를 따져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우리 민족성은 본래 외유내강하기 때문에 좀체 자기본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것이 미덕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오늘의 현대의식과는 매우 거리가 먼 느낌이 든다.

미국의 비트나 아가 말한 영국의 앵그리 영맨이나 또는 프랑스의 앙띠 로망들이 그 뭔가에 대해서 사고하며 노여움을 품고 있듯이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사고하고 또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젊은이와 노여움이란 현대의 유행어가 되어 지지층들의 오늘의 화제를 독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노여움 속에다 젊음을 태우고 있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모든 것을 방관시하거나 비굴했었는가?

또는 무의욕의 나날 속에 젊음을 매장하고 있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다. 현대의식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외유내강한 기질 속에 부풀어 오르는 노여움을 품고 있었다가 이번에 탁 터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 노여움이란 꼬치 꼬치 따지거나 계산된 끝에 성장된 분노는 아니었던 것이다. 독재자에 대한 쌓이고 쌓인 분풀이었다. 인간의 감정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나는 4·19를 분노의 승리라고 말하고 싶다.

앵그리 영맨의 노여움이 영국적이고 젠틀한 노여움이라고 한다면 우리 노여움은 역시 어디까지나 한국적인 노여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앵그리 영맨의 노여움은 그 노여움 자체가 노여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비해 우리 노여움은 노여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점을 더욱 높이 살 수 있다. 진정한 노여움이란 올바르게 터지지만 하면 그것이 무엇보다도 무섭게 작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올바른 노여움의 시작이 곧 정의의 발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불의를 미워하는 마음이 곧 노여움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렇게 노여움을 분석하고 나니까 어떤 일인지 노여움 자체가 엄숙해져 온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따위의 노여움으로 해석해서는 큰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것 역시 노여움에는 틀림없다. 흔히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노여움이란 짜증이 바탕이 되어 생기는 감정이다. 그러니까 증오를 바탕으로 하는 노여움에 비하면 노여움의 질이 전연 다르다.

오늘의 젊은이들은 노여워할 줄 알아야 한다.

노여워할 줄 아는 젊은이의 눈에서는 불꽃이 된다.  
 노여워할 줄 아는 젊은이의 가슴 속에는 끓는 피가 이글거린다.  
 노여워할 줄 아는 젊은이들은 타협을 용서 안 한다.  
 진정 노여워할 줄 아는 젊은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의 지적인 수준은 높아 갈 것이다.  
 여기서 더욱 가혹한 표현을 해보면 노여워할 줄 모르는 젊은이는 현대인의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노여움 속에서 현대인의 진기와 매력을 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60. 성하(盛夏)>

## 삼각산(三角山)에서



박 명 성(朴明星)  
 <시인>

지금 내가 선 바위 위에는 건장한 불개미들의 행렬이 한 참 귀로를 서두르며 밀려가고 하늘에 덮인 노을은 차츰 다갈색으로 변져 가더니 어둠이 서서히 날개를 펴고 숲을 덮고 바위를 달래고 마지막엔 바람 마저 재우려 든다. 멀리 바라보이는 장안은 남산을 옆에 끼고 한강을 배개로 베고 화려한 꽃불들을 켜기 시작한다. 빨간 불, 노란 불, 파란 불 색색이 명멸하는 모양이 꼭 천식 걸린 사람의 가쁜 숨처럼 활짝거리고 꺾박댄다. 마침내 바위 아래 숲 쪽으로 새끼 손가락만한 새길이가 호미하게 누워서 어두움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웬일인지 모기와 파리는 없고 하루살이만이 귀 곁에서 앵앵거린다. 예불 시간을 알리는 목탁 소리 종소리……. 문명을 발아래 깔고, 태고연한 바람의 둔갑술을 배워 산신령들은 제멋대로 노니며 어둠을 찢기 시작한다. 죄악을 손짓하며 침묵을 비웃는다. 이 순간 내 손바닥 위에 꽃송이처럼 따올린 서울은 꿈속에서나 그리던 이국의 화초, 눈물 겨우고 낯설기만 하다. 멀리서 보면 더욱 가까운 것들이여. 괴로움 키는 사랑의 고향이여. 어두움 속에서 빛은 하늘, 빛나지 않는 것들을 위한 빛처럼 우리에게겐 웃음도 한숨도 외로움까지도 몸에 필요한 자양분처럼 부어지긴 하지만 머무는 것은 하나도 없다. 너의 그림자 네 목청을 울려 나온 목소리까지도 잡을 길 없는 유혹일 뿐. 또다시 일렁이는 빨간불, 노란불, 이들은 우리의 번뇌 우리의 욕망 몸속에 서식하는 불행한 결핵균, 그러나 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사랑에 앓고, 이별에 앓고, 동정에 앓고, 박해에 앓고…… 가면에 지친

눈은 햇빛을 더듬어 찾고 냉담(冷淡)의 대상에게 열애를 갈망한다. 이런 부질없는 생각마저 비워버리라는 듯이 낙수터에서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꿈을 깨운다. 아, 흐르지 않는 것이 어디 있으랴. 장안의 불빛 어린 눈물과 하늘에 박힌 순정, 비어 있는 가슴 속을 물소리가 지나고 대지의 피곤함이 솟구치다가 경건한 제사(祭司)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한다. 환호와 절규, 체념과 비상의 장중한 합주곡에 내가 동화되어 가듯이 산중의 모든 마음들은 끝없는 바닷물로 합류해 간다.

승가사(僧伽寺)에서

## 아나운서 생활(生活)



문복순(文福順)  
 <아나운서>

꿈 많은 여학교시절로부터 동경해 오던 그 꿈이 실현되어 아나운서가 된 지 꼭 3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스튜디오 생활에서 얻은 쓰고 단 추억들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은 내 생애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날들이 되어 훗날 아쉽게 느껴질 것이다.

아나운서 동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듯이 처음 방송할 때에는 어쩌면 그렇게나 마이크 앞이 무섭고 두려운지 모르겠다. 마이크를 애인과 같이 생각하고 속삭이듯이 방송을 하라는 선배들의 말을 명심하면서 보다 친절하고 부드러운 방송을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마치 심판을 받는 범법자 모양 마이크 앞에 앉으면 감정은 굳어지고 입은 자유로이 움직이지 않고 떨리기만 한다. 이제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가니 마이크와도 많이 친해졌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 놓고 친할 수 없는 애인이다. 바꿔말해서 결코 겸양에서가 아니라 아직도 만족할 만한 방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다.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엄청난기 때문에 아나운서란 직업은 매우 까다롭고 갖추어야 될 많은 조건이 있다.

고운 목소리나 훌륭한 묘사력 같은 것은 선천적인 것이지만 건장한 신체와 원만한 인격! 그리고 Something Everything에 통해야 된다는 것 등은 기본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아나운서들은 항상 사전을 들쳐 봐야 되고 신문잡지를 비롯해서 다방면으로 상식을 넓히고 있다. 아나운서실에는 유



난히 많은 전화가 온다. “지금 정확한 시간이 몇 시냐?” “내일 비가 오겠는가 안 오겠는가?” “지금 서로 의견이 달라서 내기를 하고 있는데 실내온도는 몇 도가 적당한 온도입니까?” 등

가지각색의 재미있는 전화가 온다. 아마 아나운서는 무엇인든지 다 잘 알고 있는 줄 아는가 보다.

또한 아나운서의 생활은 시간을 쫓고 시간에 쫓기는 소리의 홍수 속에서 불안과 안도감의 교차로에서 매일 매일을 보내고 있다. 어떤 사람은 아나운서는 비행기의 조종사같이 엄숙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나 조종사도 기계가 아닌 이상 미스가 있을 것이다. 아나운서들은 대부분이 부주의에서 오는 이 미스 때문에 항상 초조와 긴장 속에서 마이크 앞에 나간다. 그러나 눈감쪽할 사이에 저지른 오펙과 착각 등의 미수는 이미 지울 수 없는 미스이기에 때때로 청취자로부터의 꾸중을 받게 된다. 아나운서를 말하는 기계처럼 정확하기를 바라는 청취자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은 완전할 수 없는 인간의 약점이라고 할지? 더욱이 최근에는 방송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반응으로 방송에 대한 평도 자못 활발해졌다. 여기서 나의 방송실수를 한 가지 공개한다. 현업자만이 남고 모두 퇴근해 버린 조용한 토요일 오후 어린이 시간이었는데 고만 일요일로 착각해 버리고 “전국에 계신 어린이 여러분! 일요일 하루 얼마나 즐겁게 지내셨습니까?”하는 멘트를 방송했다. 어린이 신문이 끝나 스튜디오에서 나오자마자 요란스러운 전화벨이 울렸다. 아주 귀여운 꼬마의 목소리로 “오늘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이 아니에요”하는 것이다. 나는 그 순간 얼마나 당황해서 사과를 했는지 모른다.

잔칫날 부엌대기 모양 남이 즐길 수 있는 공휴일에는 더욱 바쁜 것이 또한 아나운서들이다. 무슨 특집 좌담회니 특집 음악회, 특집 방송드라마 등-. 눈코 뜰 새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게 된다. 여자 아나운서들에게는 숙직 근무가 허용되지 않지만 나홀 만에 혹은 닷새 만에 숙직을 해야 되는 남자 아나운서들은 결코 수월한 직업이 아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공복과 피곤으로 가득한 그들과의 교대 근무로 들어가는데 여자들은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다. 돈과는 인연이 먼 아나운서들이지만 결코 꿈만을 먹고는 살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좀 더 훌륭한 방송을 하겠다는 생각만으로 온갖 젊음의 정열을 마이크를 향해 송두리째 바치고 있는 아나운서에 대한 대우 문제는 시급히 요구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나운서실에는 항상 유모와 많은 화제로써 명랑하고 따스한 가정적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엄격한 사회생활이지만 학창생활의 연장인 듯한 기분이며 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별로 권태로움을 모르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 나는 꽤 만족하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화로 또는 서신으로 아껴주고 격려해주는 청취자 여러분에게 보다 좋은 방송을 해보겠다는 의욕과 노력으로서 나는 오늘도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마이크 앞에 나아간다.

8월 18일  
—Studio에서—



## 내가 본 공군

황정순(黃貞順)

<女優>

나는 공군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웃집에 가끔 오는 늙은 공군 장교의 모습을 보고 언젠가 믿음직하게 생각한 일이 있다.

늦은 가을이었다. 새파란 하늘을 향하여 마음껏 자라나며 청록의 젊음을 자랑하던 나무들도 어쩔 수 없는 계절의 윤회 속에서 찬 서리를 맞고 낙엽으로 몸부림치며 떨어졌다. 낙엽이 흐느껴 울며 땅 위로 뒹굴고 있었다. 빼만 앙상히 남은 산 저쪽 창공이 더욱 높아갈 무렵 나는 우연히 이웃집에 가끔 오는 공군 장교를 플라타너스 낙엽 지는 소공동 거리에서 만났다.

“아주머니 어디 가십니까?”

“아이구 난 누구시라구 혜숙이네 공군 아저씨군요”

“영화에서 많이 보였습니다. 무대에서도 가끔 뵈군요.....”

“영화 연극을 좋아하시나 보군요”

“좋아한다기보단 재미있게 보지요. 결국 재미있는 영화, 연극이 성공한 작품이 아닐까요? 하품만 나는 따분한 스크린과 무대는 제작자, 감독, 연출인 혼자만 좋아하는 게 되고 마니까요”

영화 얘기가 나오고 말았다. 내가 영화인이니까 자연히 거리에서 만난 이 공군 장교도 영화 얘기를 하게 된 것이다. 나로서는 영화 평론가의 비평이나 듣는 듯 그대로 지나쳐 듣지 않았다.

우리는 명동 다방에서 따끈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비행기를 타시나요?”

“네 제트기를 탑니다.”

“그럼 십비단(十飛團) 소속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공군에 대해서 잘 아시는군요?”

“언젠가 잡지에서 읽은 일이 있어요”

“영화 촬영이 있을 땐 꽤 고단하시죠?”

“그러나 조종사에 비하면 저희들 일은 아주 수월한 편이죠.”

“몇 회나 출격하셨어요?”

“여든 번 만에 휴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꼭 백 회를 채우려 했는데 휴전이 되어 분하게 되었어요”

“기상에서의 늙은이 모습 한번 보고 싶군요”

“틈 있으시는 대로 한 번 오세요”

“부인께서는 꽤 행복하시겠습니까?”

“행복이 무었니까 조종사의 아내란 항상 가슴을 조이고 산답니다. 종일 불안과 초조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아침에 집을 나오실 때의 기분이 근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군요”

“그렇지요. 아내는 항상 명랑하게 해주려고 애쓰지만 몸이 피로울 때라든지 할 때는 우울한 기분으로 배웅해주면 저 역시 우울하게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조종사의 아내란 꼭 어렵겠는데요...”

“행복한 편이 못 되지요”

이렇게 한 번 꿈결과 같이 만나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은 뒤 우리는 두 번 다시 만나지 못 하였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혜숙이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이었다.

어떤 때 나는 로케를 나갔다 창공에 원을 그리는 제트기의 모양을 보고 퍼져 흘러가는 비행운 속에서 혜숙이네 공군 아저씨의 씩씩한 모습을 그려 보며 어디선가 가슴 조이며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그의 부인을 생각해 본 일이 있다.

미더운 하늘의 용사! 한 번 만난 혜숙이네 공군 아저씨의 모습이 창공에 클로즈업될 때면 그이가 이끄는 제트기편대가 은익(銀翼)을 반짝이며 나는 믿음직한 모양이 눈앞에 보이는 양 싶다.

이처럼 하늘을 지키는 조종사의 노고는 말할 수 없이 크다 하겠지만 지상에서 근무하는 정비사들의 노고와 힘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한 정비사의 부주의는 우리가 만들지도 못하는 제트기와 나라의 생명인 조종사까지 잃게 되는 결과가 되니까 늘 면밀해야 할 정비사 역시 조종사의 아내 마냥 이룩한 비행기가 무사히 내려올 때까지 마음 놓이지 않고 불안해 할 것으로 생각된다.

21세기는 바야흐로 우주시대라고들 한다. 상상치도 못한 날들들이 저 많은 별과 별 사이를 날아다닐 때를 상상하면 공군에 기대되는 바 더욱 커진다. 발전되어가는 가지가지의 원자병기, 비행기보다 훨씬 빠르다는 각종의 유도탄 이는 오로지 공군의 사명이 중대해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무튼 앞으로의 전쟁은 공군이 도맡아야 할 것 같기에 공군에 더욱 관심이 가곤 한다.

오늘도 나는 폭폭 찌는 촬영소 안에서 몇 컷을 찍고 밖으로 나왔다. 시냇물에 발을 담그고 어린애처럼 즐기고 있을 때 삼사 명의 공군 장교가 언덕길을 내려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웬지 친밀해진 듯한 감정으로 나는 일어나 언덕을 올라왔다. 젊은 소위 한 사람이 나와 눈이 마주치자 빙긋 웃더니 앞으로 다가오며 아는 체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황정순 여사시죠? 영화에서 여러 번 뵈어 닐어 익습니다. 저희들 카메라에도 한 컷 얼굴을 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생처럼 친근하고 불임성 있는 말이였다. 사진을 찍은 후 나는 그들을 통해 혜숙이네 공군 아저씨의 그 후 소식을 들었다. 후진들을 훈련시키다 불의의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었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콧속이 화끈하였다.

나라의 보배, 아니 생명인 조종사! 수많은 후진들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귀중한

위치에 있던 그이가 부상을 당했다니 참으로 뼈저린 슬픔을 느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잠깐 만났다 헤어진 혜숙이네 공군 아저씨 안다고 하기엔 만난 시간이 너무나 짧았던 그이였지만 나라의 보배를 잃은 듯 서운한 감정이였다. 오늘도 우리의 하늘을 지키는 공군 장병들의 믿음직한 모습을 그리며.....

그러나 나는 공군을 잘 알지 못한다.

## 보다 믿음직한 군인(軍人)의 인상(印象)



전계현(全桂賢)

<여우(女優)>

저에게도 6·25 사변 때 역전의 경력을 가진 오빠가 있습니다. 그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원래 모습이 소녀적인 것처럼 마음씨가 누구에게도 거역할 줄 모르고 늘 눈언저리에 미소를 띤 소녀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한 오빠가 약 4년간의 군인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성격과 행동이 180도 변해 있었습니다.

보다 씩씩하게 자기 주견을 발표할 수 있고 개성적인 남성이 되었다기보다는 어딘가 반항심이 스며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오빠는 1년여의 처절한 격전지 생활에서 행방불명이 되었었고 그 후 3년이 지나 포로교환 때 홀연히 돌아왔던 것입니다. 학대와 가혹의 극인 공산괴뢰의 포로가 되어 평양에서 3년을 지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오빠가 군복을 입고 있을 때에는 톨스토이의「전쟁과 평화」중에 나오는 꼭두각시군대를 연상했었는데 180도 윈트가 어긋나 버렸습니다.

오빠는 그 후의 일상생활에 거의 말이 없어 그 명쾌하던 성격은 간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매사를 처절한 체험에 비교하였으며 전쟁터에서 싸운 군인들을 이해 못 한다고 사회를 통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투도 머리가 대가리가 되는 등 극단적인 말을 예사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오빠의 그 성격 변화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한낱 감수성이 빠른 오빠이기에 일부 망나니 군인들에게 감염된 것으로만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중 군인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지 못했었고 대대로 보도된 일부 군인들의 민폐는 일종의 공포심까지도 자아내게 했던 것입니다.

× × ×

그런데 언제인가 K라는 제대군인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6·25 사변 때 많은

군인들이 겪은 일과 또한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후천적인 제2성격 등을 조리있게 들었습니다. 만흔 그러한 사회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인들에 대한 그릇된 인상은 점차 고쳐졌습니다.

그는 평소에 응결된 것처럼 무표정한 얼굴에 거의 말이 없었고 눈만이 무서울 정도로 찬바람이 돌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선천적으로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저는 K씨가 본연의 자기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K씨의 말을 빌리면 “자기는 원래 아주 명랑한 성격이었다”고 하면서 “옛날에 나의 형이 웃음이 많은 자기에게 여자가 되라고 했었고 장난이 심했던 탓으로 학교 시절에는 수신은 늘 병을 했었다”고 하면서 서글픈 웃음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옛날에 실지 죽임이라는 것을 모르는 문학인들은 최고의 미문으로 죽음을 찬양했지만 그래암 그린의 말처럼 “사변 때 포탄에 맞아 하체만 남은 격전고지의 시체, 털을 칼로 밀어 튀어놓은 양뎨지처럼 온몸이 부풀어 떠다니는 낙동강이나 대동강 상의 시체에 자기를 결부해 보면 결코 그러한 미문이 나올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자기가 언제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명에 대한 애착심과 본능적인 공포심을 가진 채 수없는 죽음과의 대결로 해서 그 신경이 마비되고 굳어져 버렸다면 그 존재는 평범한 인간의 사회에서 상상키 어려운 새 인간형이 만들어졌을 것이 아니겠는가고 해명 반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나라 수백만 군인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국민의 의무인 군 복무를 기피한 나머지 일신의 안일을 위한 궁여지책으로 도피하는 지식인의 피신처가 공군이라는 일부의 풍문도 일소되었습니다.

K씨는 공군 출신으로 6·25 때 육군으로 특공을 갔었다고 했고 또한 캄벨과 일렛들 기타 공군인들의 감투상을 들려주어서 그릇된 생각을 가졌던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            ×            ×

4·19이후 혁명의 선봉에 선 학생들은 온 사회의 화제의 초점이 되고 또한 영웅시되어 지상의 찬사를 받는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족적으로 그들의 공에 물심양면으로 위안을 베풀었습니다.

학생혁명으로 이루어진 제2 공화국은 국군장병들의 숨은 힘이 얼마나 크게 미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엄 당국이 경찰과 동조하여 학생들에게 무차별 총질을 했었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아직도 광명을 보지 못한 채 암흑의 세계로 화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4·19·4·26의 참상은 언제까지 잊혀지지 못할 것이며 계엄 당국의 빛나는 노고는 길이 빛날 줄 압니다.

×            ×            ×

얼마전 6월 6일의 현충일에 6·25 때 순국한 17만 영령들의 유족들이 “반공의 상징은 국군기지”이라 했고 “유가족들의 대우도 개선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4·19 학생혁명은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었고 6·25의 국군은 공산침력의 손에서 국토와 민족의 생명을 수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 전 국민은 그 두 경우의 용사들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다 같이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휴전 후 오랜 냉전은 후방민의 에고이즘을 극도로 조장하여 일선장병의 노고에 대한 정은 날로 냉각해 가고 있는 상 싶습니다.

때때로 후방으로 휴가를 나오는 사병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순박 그것인데 국민들은 가분히 그들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버스값 때문에 버스 차장과의 가혹한 냉대를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펍이나 마음 아픈 것을 느낍니다. 진정 역전의 용사는 2등병이라는 말이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4.26 테모 때 광화문에 나섰던 저는 사자분(獅子憤)하는 학생들의 노파를 묵묵히 화석처럼 지키고 있는 장병들의 모습은 숭고한 기세 그대로였으며 그 영상은 오래도록 저의 기억에서 사라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4·19때 장병들의 태도는 국민들의 많은 칭송을 들었고 신뢰를 두텁게 하였던 것입니다.

×            ×            ×

아무튼 현재 저의 눈에 비치는 군인의 영상에서 오는 느낌 또 군인에 대한 감정은 옛날에 비해 완전히 달라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보다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보다 믿음직하게 숭고한 사명을 다하느라 고 애쓰는 그대들의 정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청년(青年)들이오!

청년들이오, 청년들이오, 항상 정의와 함께 있으라. 만일 정의의 관념이 너희속에서 희미해지는 일이 있으면 너는 모든 위험에 빠지리라.

……만일 어디엔가 중요 앞에 굴복되어가는 순교자가 있으면 그의 입장을 변호하고 그를 구출한다는 이 의협심이 풍부한 꿈을 왜 너는 품지 않는가?……

……오늘 부정에 대하여 분개하고 불타는 열을 가지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대행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의 연장자 노인들이라는 이 사실이 너희들에게는 부끄럽지 않은가?

<조라 1840-1902. 자연주의의 대표적 작가. 사회주의로 기울어져 **도레휴즈론** 사건에서 재판의 부정을 고발하였다.>

## 나의 등산(登山) 이야기

이승녕(李崇寧)



1

내가 이제 무슨 운동이니 하고 내세울 것이 있으랴 만은 내 생활은 참으로 눈코 뜰 사이 없는 벽찬 생활이지만 이러한 생활 속에서 절실히 느끼는 것은 최고급의 건강 유지와 나이를 먹을수록 운동을 가져야 한다는 신념이다. 나는 눈을 뜨면 외국논저, 논문작성, 자료정리, 새 구상 거기에다가 강의 준비에 원고 쓰기가 섞이어 일요일이나 방학이 있을 리 없이 잠은 오전 2시에서 때로 5시까지 자칫하면 밤을 새울 때도 있다. 하찮은 수입과 생활은 전부 아내에게 맡기어 내 자신 학교 월급액을 외우면 잊고 하여 정확한 것을 모르는 터이다. 그것은 아내가 타오기로 그리웠지만 내가 탄다고 장담하고 나서 오후면 잊고서 빈손으로 돌아오기가 예이므로 신용이 떨어져 이제는 생활면의 모든 것은 완전 양도하고 맡았다. 그리하여 나는 전적으로 공부하는 기계가 되고 온 정력을 한 곳에 쏟고 있는 셈이다. 내가 내 건강을 보살피 보아도 신기할 만치 버티고 나갈 실력을 가지고 있어 현재 내 연령급으론 제1급의 건강을 지니고 있다고 남도 그리 말하고 나도 그리 믿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공부하라고 주신 다시 없는 은총일지도 모른다.

나는 20 때에 체중 12관(貫)의 약체였다. 그래도 스케이팅, 보트 레이스(연습 때 5번, 시합엔 지휘), 검도, 승마, 수영 등 하느라고 했다. 40이 넘어서니 몸이 불기 시작하고 체중이 급격히 늘어갔다. 나는 생각했다. 공부는 건강도의 시합인데 이래 가지고는 건강이 유지될 수 없으니 운동을 가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학자란 최고의 건강을 가지고 오래 공부해야 하는 것인데 이래서는 심장에 탈이 올 것이라 믿고 방언 채집으로 바다나 산에서 어울린 산악회에 이끌리어

드디어 산악회로 발을 넣은 것이 오늘의 산악회 간부가 된 터이다. 이제 자신도 생기고 근육도 단단해지고 체중도 내렸다. 혈압 80-130이란 정상상태를 보게 되었다. 나로서는 무서운(?) 공부를 하지만 또 강철과 같은 건강을 소유하고 있어 만년 청년의 의기로 공부를 계속할 것이다. 지금 내 머리에 흰 털이 서리기 시작하고 있지만 등산복에 류크를 지고 무거운 등산화로 뇌우와 싸우며 물웅덩이에서 자면서 상행한다는 것은 나로서 영광으로 알려 연구실과 서재의 나를 본 자가 누가 변모된 이 나를 감히 상상할 수 있으랴... 어제는 서재에서 책과 싸우며 자료 속에서 어느 원칙을 찾으려고 무아지경에 잠기던 내가 오늘은 어느 전투의 지휘관과도 같이 젊은 산악대원과 계곡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다. 벽찬 이 수련이 끝나면 나는 다시 서재에서 책과 싸우는 본래의 생활로 되돌아서는 것이다.

등산에서 나는 하나의 정신력을 얻는다. 끈기와 인내 그리고 단결과 복종에다가 자신의 건강을 만끽함은 물론이지만 불굴의 투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공부란 최고의 건강과 불굴의 투지에서 성공하는 것이며 이것 없이 만사는 성공할 수 없다고 자신하는 터이다. 내 등산은 측면에서 이 정신적인 양식을 끊임없이 보급해 주며 내 공부에 항상 청신제를 부어주는 것이 된다.

2

내 서재의 미닫이 속에는 산악 장비가 어느새 거의 갖추어진 셈이다. 류크 싸크도 4, 5종, 텐트가 두 벌, 코펠, 버너, 우드 알콜, 각종 식기, 각종 복장, 겨울 장비에서 소도구에 이르기까지, 망원경, 트랜지스터, 카메라까지 제법 갖추어 놓았다. 5만 분지 1 지도에다가 콤파스, 각종휴대용 케이스 등 남이 보면 근사할지도 모른다. 이 방 저 방에 걸린 사진도 등산 사진이다.

일요일도 틈이 날 리 없지만 그래도 가끔 하루치기 등산도 한다.

베비 류크를 메고 나서는 5분이면 준비가 다 된다. 내 등산은 실력이 있어가 아니며 록 크라이밍을 위한 것도 아니다. 금번 계원장(金番計院長)(정대법관)과 산에서 가끔 만난다. 그분은 70객이시면서 등산은 일과로 하시는데 날 보시더니

“산이란 참 좋아요, 파트너가 필요 없으니 오르고 싶을 때 오를 수 있고 또 단체행동이 아니니 제 실력에 맞추어 쉬고 싶으면 어디서든지 남을 꺼릴 것 없이 쉬고 또 낚시질은 돈이 든다는데 이 산은 돈도 들지 않고서 최고의 덕을 볼 수 있는 운동이지요”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의 것이다.

나는 근교를 목표로 잡을 때에는





<사진·도봉산등반광경>

가족과 같이 오른다. 아내도 등산복에 등산화, 아들에게도 엑스파아트다. 도봉, 북한산이 하루 치기론 꼭 알맞은 곳이다. 우리는 올라가서 물 있는 곳을 찾아 짐을 풀고 버너, 코펠로 맛있는 취사를 한다. 계곡에서 이렇게 지은 점심 맛이란 참으로 일미다. 그리하여 석양에 우리 등산 가족은 하산하는 것이다. 때로 광릉에 캠핑도 간다. 두 개의 캠프면 전가족을 수용하게 된다. 이러한 재미란 그리 흔한 것도 아닐 것이며 이제 아내도 실력이 상당하고 아들은 그 학교의 산악부원이니 실력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지난 7월 16일 우리 내외는 몇몇의 그룹에 끼어 설악산 오대산을 갔다 온 것인데 오대산의 상원암(上院庵) 위의 적멸보궁까지 조반 전에 근거리인 월정사에서 단숨에 갔다가 내려 온 것이다. 이제 다시 지리산 계주계획이 있다는 산악회 전언에 대장으로 가라는 요청이 있어 망설이고 있기는 하다.

나는 학생들에게 가끔 다음과 같은 취지로 계언(戒言)을 줄 때가 있다.

한국 사람은 정신면에서 조숙조노(早熟早老)의 경향이 있다. 학자들을 보아도 40 고개에서 이미 그 학문이 늙고 더 연구할 기력을 상실하는 자를 본다. 공부한다고 해도 메마른 이념에서 정력적이 못 되어 뜨뜨미지근한 생활로 나가는 것을 보는데 그 원인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사회의 후진성에서 조금 노력하면 출세할 수 있어 싸우려고 생각하는 것, 수련기(修練期)가 찌르기로 바닥이 곧 드러나는 것에 원인도 있겠지만 그보다 생활태도와 건강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나는 지적한다. 젊어 한창이라고 과음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한다면 40 넘어서 그 표가 드러난다. 그래서 50이 넘으면 정력이 없어지고 끈기를 잃게 되어 정신면에서 노쇠하는 것으로므로 나는 이것을 가장 조심해 왔다.

나는 지금 술도 먹지 않고 잠기도 모른다. 그리고 주기적인 등산에서 얻은 정신적 육체적 힘을 가지고 공부에 정진한다. 이것은 평생 계속할 내 생활태도라고 하겠다. 건강에서 체력 거기서 정신력이 나오고 그 정신력에서 좋은 착상이 나오고 연구가 생광(生光)할 것이라고 믿는다.

<필자·문박(文博)·서울대교수>

## 생활과 취미

### 수렵잡감(狩獵雜感)



서웅성(徐雄成)

지금 필자가 펜을 들어 두서없이 몇 자 쓰려는 동기는 우리 공군 중의 수렵 초보자 동지를 위해서 엽도(獵道) 사십 년간의 평소 소감을 솔직히 여러 동지에게 참고가 된다면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수렵은 필자의 약 사십 년간 체험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들의 취미 중에서도나 스포츠 중에서 타 취미나 스포츠에 비교하여 볼 때 최고봉의 왕좌 격이라 아니 할 수 없으나 또한 그 반면에 최고 위험한 취미의 스포츠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연고로 초보자들께서는 더욱이 고상한 취미의 스포츠에만 혹하지 마시고 선배되는 엽사(獵師)들의 지도를 받고 경험담 등을 잘 참고하여 출렵시 혹은 총기취급시에 극히 조심하여야만 된다. 만약 사고가 난다고 보면 타종 취미나 타 스포츠에 비하여 이보다 더 큰 사고는 없을 것이다. 그 사고의 간단한 예를 들면 ① 총기의 오발사고 ② 화약취급 부주의 사고 ③ 장탄시 폭발사고 ④ 동물로 오인 살인사고 ⑤ 맹수포획시 피해사고 ⑥ 등산 부주의 사고 ⑦ 도강 부주의 사고 등 무수하다. 약 사십 년간에 걸쳐 사고의 직접 간접으로 본 수는 부지기수다. 참으로 막대한 숫자의 인명 살해 치상의 비극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현상을 우리 수렵인은 가슴 속 깊이 명심하여야 되는 동시에 필자 자신이 여러 수렵동지들에게 격별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재삼 재삼 경고하여 둔다. 그런 조심스러운 스포츠인데도 불구하고 근자에 와서 필자가직접 간접적으로 본 결과에 비추어 비판을 한다면 해방 전까지만 하더라도 초보자가 수렵을 시작할 시에는 꼭 선배나 사계(斯界)의 권위자를 엽사로 모시고 그 선생의 지도를 받아 왔었는데 지금 수렵가들 중에는 지도받기를 싫어하고 모르면서도 물기를 주저할뿐더러 올바르게 가르쳐 줘도 배우지 않고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주장하는 분이 많다.

소위 선배격의 엽사를 무시하는 분들을 내가 많이 목견했고 또한 내 자신이 많이 당해 봤다. 1, 2년간만 총을 가져 본 자면 벌써 엽도에 도통하고 대선생 노릇을 하려 덤비는 수렵가들도 인하여 혹시 선생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엽사를 만났다가는 불행하게 되며 차라리 선배로 모시지 않느니만 못하다. 더욱이 군인 출신이나 군인층에 그런 분들이 많다. 즉, 간단한 일례를 든다면 엽총을 군용총과



<1958년 12월 제주도 출립시의 필자(전열좌)와 김공군참모총장(전열우에서 두 번째)>

동일시하고 엽총을 소제할 시 M.I이나, 칼빈총처럼 완전 분해를 한 것까지는 좋으나 주유 소제(掃除) 후 바로 조립을 못하고 고장을 내서 수리하러 오는 예가 많다.

엽총을 소제하는 법은 개머리 편에 있는 기관 부분은 절대로 분해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사용 후 외부에서 주유정도로 소제하여 두어야 한다. 또 그런 예는 그만두고라도 화약의 성능이나 분량도 모르고 타전배의 지도도 받지 않고 제탄을 하

다 사고가 나고 또한 그 제탄을 사용하다 고급총을 과열케 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잃어버리며 혹 불구자가 되는 참혹한 예를 허다히 봤다. 연이나 생명만 유지되면 손가락이나 손이라 팔이 반이 남아도 십중팔, 구는 또다시 시작하는 사람을 다수히 볼 때마다 필자 자신이 느낀 점은 총 스포츠 정신과 수렵의 취미가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껴질 때가 많았다. 여사한 사고는 해방 후로부터까지 지금 가장 많이 봤다.

결국 미련한 기술과 우매한 자존심과 영웅심이 많은 청장년층에서 많이 보는 사고다. 군인들이 군용총을 잘 쓴다고 해서 산탄총을 잘 쓴다고 자신해서는 결코 오산이다. 인간의 얼굴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이 총기의 모양과 성질도 차이가 유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현하(現下) 국내에서 매년 엽총사고 발생 수가 수십 건에 달한다. 그러므로 일본에서는 수렵면허증 취득(受得) 즉시로 초보자들에게 노련한 엽사를 초빙하여 강습회를 개최하고 수렵법규, 수렵방법, 총기취급, 엽장안내 등의 필요한 과목을 수강케 하여 사고미연 방지에 적극 노력함은 관계 당국자들의 명안(名案)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엽도 계몽지도상 최적합한 방법이라고 찬성한다. 여사한 방법론은 우리나라의 수렵 초심자들에게도 급속실시되어야 오발사고 방지 및 수렵기술향상 보급에 중대 요소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타 스포츠에서 코치를 두고 선수양성을 해서 최고의 능률을 올리는 것과 꼭 같은 이론이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은 백발백중이라! 한방도 실수가 없네! 그런 말로 칭찬을 해주면 그 말을 듣고 좋아하는 자신이나 수렵을 해본 일이 없는 제3자들도 그럴 듯이 듣고 있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노련한 엽사가 그런 말을 들은 때는 잘 속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나 하면 1년 통계 발사 수의 2분지 1의 수렵동물을



잡은 엽사라면 세계적 명사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즉, 백발을 쏘서 그 중 50마리만 잡은 엽사라면 무도의 단수에다 비한다면 오단격의 유단자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역사로서 제법 타인 앞에서 서투르지 않게 보이는 정도로 쏠려면 매년 계속해서 1천 발씩 쏘서 약 10년간의 유경험자라야 하고 또 자신있게 쏠려면 적어도 약 2만 발을 소비 적공(積功)한 자라야 자신 있다고 볼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 연이면 서울 근처의 주소나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 소위 일요 포수가 일일 수렵하여 기발(幾發)을 쏘고 돌아올 수 있으며 또 1개월 4회 혹은 유고시에는 2, 3회씩 추산하여 일렵기간 약 6개월을 총산해 보더라도 일렵

기간 250발 내지 300발을 잘 소비 못 할 엽우(獵友)가 많을 줄 안다. 그런즉 1, 2만 발을 소비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가를 추측할 수 있으니 4, 5년쯤 쏘고 자신만만하게 타인 앞에서 큰소리치다가는 망신당하기 꼭 알맞다. 혹시 장소, 엽물, 시기, 시간, 무풍, 또 자신의 컨디션 등이 좋아 십발 십중의 특별한 날이 간혹 있으나 그것을 표준해서는 안되며 평균 실력을 발휘하려면 자존심이나 영웅심을 버리고 자중하여 기술연마에 치중하여야 한다. 가령 비행기를 조종할 때 있어서도 연습 시간 및 횟수를 무시할 수 없음은 사실이며 불연이면 유능한 파일럿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하다. 또한 엽사들 중에는 침소봉대(針小棒大)지격으로 허풍을 떨고 거짓말 반으로 남이 잡은 것도 자기가 잡은 양으로 하며 못잡은 체험담보다고 잡은 자랑만으로 밤을 새다싶이 떠들어대는 인사도 있다. 전기와 같이 명포가 되려면 제일조건이 명사수의 지도를 받는 일방 출립의 기회를 자주 만들어 무수히 쏘는 수밖에 타 방법이 없으니만치 소위 네굽다리 수류(獸類) 사냥은 후기로 생각하고 조수 등속 피추리, 되새, 구(鳩), 대소 암(鵞) 안(雁) 등을 수많은 쏘는 것이 상책이며 최진보적이다. 왜 그러나 하면 수류 수렵은 장(獐), 산저(山猪), 웅(熊), 호(虎) 등인데 초보자로서는 위험천만일뿐더러 사격술을 연마할 기회가 극히 적은 편이라 일렵기간 쏘다 할지라도 조류수렵한 사람의 1개월분도 잘 안 될 때가 많으니 기술향상적 견지에서 뒤떨어질 것은 사실이다.

고로 옛날부터 탄환이 절약되는 점과 비교적 보획물(補獲物)의 가격이 고가임으로 직업적 포수가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 형편이며

스포츠적 업무들은 평상시이나 기타 조류수렵을 많이 하게 되는 주원인이 된다. 우리 공군에서는 김신 참모총장께서 수년 전부터 수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솔선수범하시고 계시느니만치 장래에 있어서 여러 장병들께서 수렵을 즐기실 동지가 일익 증가되어 갈 것을 의심치 않으며 장래 공해육 삼군경렵대회 등을 개최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고 재미(滋味)있는 일이다. 더욱 우리 공군과 같이 항상 치밀한 두뇌를 쓰는 파일럿, 기관사, 통신사, 정비사 등 여러분들에게는 유일무이한 최적합한 스포츠로 아는 고로 필자는 소위 선배의 입장에서나 동호자의 입장에서 1일이라도 속히 사도에 입문하시기를 근고(勤苦)하는 바이며 수렵 및 엽총에 대한 문외는 하시(何時)라도 응하여 드릴 용의가 있사오니 서슴치 마시고 상의하여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 초보자 동지를 위하여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련다.

1. 우리나라 수렵기간

저9월 15일부터 익년 4월 말일까지인데 단 꿩만은 11월 1일에서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다. 우리 업무들은 차법규를 잘 지킴으로써 수렵도덕을 잘 준수하는 엽사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

2. 총을 선택할 경우

필자의 경험으로 봐서 가격은 고하간에 쌍연발총을 가급적 근장(勤獎, 勸獎)한다. 기외 여분으로는 오연발이나 라이플 총을 가질 필요가 있다.

3. 탄환을 선택할 경우

자기가 자작제작한 탄환도 노련한 솜씨면 가하나 초심자는 가급적 완전제품을 사서 쓰는 편이 안전하다. 또한 포획코자 하는 수렵조수의 형체가 체질에 적합한 장탄을 선택하지 않으면 큰 손실이다.

4. 엽건을 선택할 경우

- A. 영국 포인터(English Pointer)
- B. 영국 셋터(English Setter)
- C. 독일 포인터(Germany Pointer)

이상 3종류 중에서 일종을 선택하되 모빈(牡牝) 중 어느 것이나 우량 순종이면 좋다.

엽우 중에는 엽견은 빈견(암컷)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인사가 많으나 필자는 오히려 모견(숫컷)을 찬양한다. 그 이유는 남녀 스포츠맨에 비해 볼 때 그 씩씩하고 쾌활한 활동력이 강한 점을 봐서 모견이 더 우수하다고 인정한다. 동일한 기술면이면 빈견을 택하는 편이 좋다. 우리 수렵인들 중에는 대부분이 엽견을 이해치 못하고 그 가치를 모르는 분도 많다. 그러나 엽견을 모르는 수렵가들은 아직 엽도에 도통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며, 더욱 조류사냥에 있어서는 불가결의 요소라고 할 만치 절대적 필요한 것이 엽견이며 엽사의 기술이나 총이 좋아서 잘 잡는 것이 아니라 엽견이 잡아주는 것이다. 각 엽견의 그 우아한 기술은 신비스럽고 그 무어라 형언할 수 없을 만치 세월 가는 줄을 모른다. 또한 항상 엽견을 동반하던 엽사는 엽견 없이는 출렵 생각조차 나지를 않는다. 어느 정도 수렵 대가가 된다면 총 쏘는 재미보담 엽견의 활약하는 점에 도취가 되면 그 재미가 더 큰 것이다.

5. 엽모(獵帽) 엽복(獵服)을 선택할 경우

수렵에 관한 복장은 전문가 제품은 물론 좋으나 사제품을 혹은 기성복을 이용할 경우는 특히 경쾌한 면류 제품이 양호하며 피혁제품은 중량이 많고 강철우 시에 중량이 재가되며 동결하면 기동작전 상 곤란하다.

대개 초심자들이 피혁제품을 많이 이용하다가 산중에 가서 고생을 많이 한다. 피혁제품은 원래 시 착용하는 데는 무방하다. 또한 내복에 관하여서는 가급적 순모제품을 사용함이 가하다. 모직물은 한기를 잘 흡수도 하고 잘 방출함에도 있고 또한 중량이 경한 점과 활동상 유하고도 따뜻한 점이다. 양말은 더욱 순모를 택할 필요가 있다.

6. 수렵 복장의 색조 선택

엽복의 색은 엽우 수인 동반 시에는 황 적색 등 표시가 확연한 색을 택함이 엽우 상호간의 오발 방지책의 하나가 된다. 기타 소위 네굽다리 목사냥 즉, 맹수 사냥 시는 만추에는 황갈색 엄동설한에는 백색, 초춘(初春)에는 초록색 등의 보호색을 택하는 편이 좋다.

7. 출렵 시 적합한 인원수

엽우 동반은 2인 내지 3인이 최적화다고 생각한다. 엽우 없이 단독 가면 고적감을 느끼며 만일 불행한 일을 당하더라도 구조자가 필요함으로 마치 전우와 소호도 다름이 없는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엽우다.

또 3인 이상이 되면 엽장(獵場), 숙식 관계 등으로 고생이 되는 경우가 많다.

8. 수면과 명중률

출렵 전야에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명중률에 중대한 영향이 미친다. 수면 부족시에 타사고도 더 나기 쉽고 자기 자신의 컨디션이 불량할 경우에는 수렵을 중지하여야 한다.

9. 출렵 전 음주는 절대금물

음주가제씨(飲酒家諸氏)께서는 꾸지람하실지 모르나 음주는 절대 삼가야 한다. 모든 오발 사고가 많고 자기 자신에 피로가 증가되며 산중에서 실족 등 위험천만지사다. 여담은 이후로 퇴하고 이것으로 그친다.

(필자·수렵가·동양총포사장)

해외결혼단신

☆ 뽕때린 것이 인연(因緣)

파라마운트사 전속 얘기 배우인 조안브랙크먼양은 1연구학교에서 제작한 연극에 조비 베이커군과 공연하게 되어 서로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연극에는 그녀가 조비군의 뽕을 치는 장면이 하나 있었다. 그녀가 뽕치기를 어찌나 멋지게 해치웠던지 조비군에게 지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겨 주어 그 후 그들은 꾸준히 데이트를 한 결과 마침내 결혼에 골인하였다고...

☆ 개싸움이 천분인연(天分因緣)

잔 엔더슨양과 헬름드군은 다같이 개 한 마리씩을 데리고 산보를 하러 거리로 나왔었는데 그들이 데리고 있는 개들 사이에 그만 싸움이 붙었다. 겨우 개들을 뜯어 말리고서 서로 통사정을 해보는 그들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음을 발견 그후 마음이 맞아 그들은 결혼을 하였다나.....

☆ 소매치기가 인연(因緣)

강도 전과범인 세콘도 가니 군이 그의 현재의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은 그녀가 그의 돈지갑을 슬쩍 하려다가 그에게 잡힌 후였다.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손가락이 민활이 움직이는 여인에게 반해버려서 그 길로 그녀를 집으로 데려온 것이라나.....



## 생활과 취미

### 씨 없는 수박 재배(栽培) (무종자서과(無種子西瓜))



홍기창(洪基昶)

수박은 여름철의 과실 중 여왕이라고 일컬을만큼 우리들에게는 귀중한 존재로 되어 있다. 그것은 그 외모부터가 풍만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데다가 붉은 과육은(어떤 종류는 노란 과육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그 질이 그야말로 유연다즙하고 감미로운 맛과 고상한 감촉은 과연 우리들로 하여금 염서(炎暑) 중 망서지경(忘暑之境)으로 이끌어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박의 감즙(甘汁)으로 더위에 시달린 우리들의 인후를 축일 때 흔히 우리들의 신경을 귀찮게 하는 것은 과육 속 틈틈이 백여 있는 수박씨일 것이다. 성급한 친구에 대해서는 수박씨를 골라내기에 수박의 고마움이 매우 감쇄되는 느낌을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씨 없는 수박에 대한 욕구를 더듬게 된다.

과하내서(過夏耐暑)의 괴로움을 위무시키기 위해서 수박의 존재는 조물주가 인간에게 내려준 위대한 선물이지만 이제 씨 없는 수박은 20세기 과학 문명이 인간에게 제공해 준 역시 선물의 하나 입에는 틀림없다.

그러면 과학은 어떠한 수법을 써서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 문제를 밝히기 전에 우선 기초적인 생식 문제를 이해해야 하겠다.

비단 수박뿐 아니라 모든 생물들은 각각 그 종류에 따라서 일정 수의 염색체를 세포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물이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유전물질을 휴대하고 있는 것으로써 같은 종류의 생물들끼리는 그들 염색체 간에 친화성이 있으므로 튀기(F1)가 생길 수 있고 이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염색체들은 각기 생식세포를 통해서 규칙적인 행동을 취해 가면서 생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때에 유전적인 행동도 일정한 규칙 밑에서

수행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른바 유성(有性)생식을 하는 생물들은 그 개체가 태어날 때, 어머니한테서 반수의 염색체(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수에 대한 반수)를 받고 나머지 절반은 아버지한테서 받게 되어 결국 그 생물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염색체수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다. 가령 보통 수박은 22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절반인 11개는 모친에서 난세포를 통해서 받은 것이고 나머지 11개는 부친으로부터 정자세포를 통해서 받은 것으로서 이 수박이 자라서 성숙한 무렵에는 각각 반수인 11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모세포가 암꽃에 형성되고 또한 11개의 염색체를 휴대하는 정자세포가 수꽃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생식세포 속에 들어 있어야 할 염색체수가 이와 같은 수효가 아닐 때에는 그 수박은 생식작용에 이상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본 이야기로 되돌아 가기로 하자.

이제 보통 수박을 파종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싹이 트고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짧은 아생(芽生)때 수박의 성장점을 콜리친이라는 약품을 물 타서 0.2-0.4% 정도로 희석한 약물로써 하루에 한 번씩 4일간 쬐에 걸쳐서 처리를 해주면 이 처리한 수박에는 염색체가 2배로 증가해서 즉 44개의 염색체를 가진 개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4배체 수박이라고 한다. 다음 해에 이 4배체 수박과 보통 수박(2배체 수박이라고 한다) 과를 재배하고 개화기에 가서 4배체를 어머니로 삼고, 2배체를 아버지로 삼아서 즉 4배체의 암꽃에 2배체 수꽃에 있는 꽃가루를 인공적으로 수분(授粉)을 해주면 4배체에서 생긴 난세포 속에는 2배체와 같은 수효의 염색체가 들어 있고 2배체와 같은 수효의 염색체가 들어 있고 2배체 수박꽃가루 속에는 반수의 염색체가 들어 있을 터이므로 이들 난세포와 꽃가루가 수정을 해서 서로 합쳐지면 2배체 즉 33개의 염색체를 가진 수박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4배체 수박과 보통 수박과의 튀기인 3배체가 생기게 되는데 이 수박을 재배하여 성숙기에 이르면 생식세포를 만들 때 33개 염색체가 각각 절반씩 갈라져서 별개의 생식세포 속으로 들어가야만 건전한 생식세포가 생길 터이지만 실제로는 33개가 완전히 절반씩 갈라져서 분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3배체 수박에서 생기는 생식세포는 일종의 불구적인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맺어지는 수박 속에는 씨가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고 씨껍질 정도의 흔적만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이른바 죽정이가 들어 있게 되었고 수박 과실은 호르몬의 작용으로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3배체 수박은 씨가



맺어지지 않은 과실로써 등장하게 되는 썸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귀중히 여기는 바나나에서도 그와 같은 유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씨 없는 수박 즉 3배체 수박은 수박에서는 매우 무섭다고 하는 만할병(蔓割病)에 대해서 내병성(耐病性)이 강하며 감미도 많아서 품질이 높을 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씨가 없고 연한 죽점이 정도가 있을 뿐이므로 우리가 하나하나 씨를 골라낼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씨 없는 수박을 재배하려면 늘 4배체 수박이 있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2배체 수박을 어머니로 하고 4배체 수박을 아버지로 할 때에는 여기서 생기는 튀기는 제대로 짝이 트지 않으므로 4배체를 어머니로써 교잡(交雜)을 해야 한다.)

3배체 수박은 씨껍질이 매우 두꺼우므로 그대로 심으면 잘 짝이 트지 않으므로 씨 없는 수박을 재배할 때에는 우선 과종 전에 씨 양쪽 귀를 벤찌같은 것으로 절단해서 발아가 잘 되도록 조장해 줄 필요가 있다. 씨 없는 수박은 싹튼 뒤 처음에는 생육이 늦어져서 시원치 않은 기분이 들지만 생육 중 반기 이후로 접어 들면서부터는 차차 생육이 왕성해져서 회복됨으로 생육 초기만을 보고서 미리 겁을 낼 필요는 없다. 한편 꽃이 피게 되면 암꽃에다 보통 수박의 꽃가루를 가져다가 인공수분을 해주면 씨 없는 수박이 잘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씨 없는 수박을 재배하는데 있어서는 과종할 때와 수분할 때에 인위적으로 적당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 제대로 수박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씨 없는 수박이란 4배체 수박과 보통 수박과의 1대 잡종으로서 이른바 3배체 수박이며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씨 없는 수박이 실제 널

리 보급되려면은 우선 그의 모친이 될 4배체를 어떻게 하면 값싸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가 안출(案出)되어야 하겠고 이어서 4배체 수박과 보통 수박과의 튀기를 어떻게 해서 손쉽게 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 중에서 역시 문제로 되는 것은 4배체를 작성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씨 없는 수박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1947년 목원(木原), 서산(西山) 양씨(兩氏)에 의해서였다.)

<필자·고대 농대교수>



## 달밤의 산책

공군대령  
박 제 형

달밤의 산책, 달밤의 배회, 달밤 하면 어딘지 로맨틱하고 단발머리 문학소녀를 연상케 한다.

그런데 도대체 나하고 달밤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달밤의 산책이라는 제목을 주면서 쓰라고 청하는지 도시 마땅치 않은 일이다.

기왕이면 오히려 빈대떡이나 찹쌀 막걸리에다 결부시켜서 청탁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랬나 보다. 그렇다고 해서 빈대떡에다 막걸리가 달밤하고 전연 인연이 멀다는 말은 아니다.

구질구질한 날씨에 곱광 내 나는 방구석에서 빈대떡이나 매운탕이나 한 냄비 올려놓고 막걸리로 한 순배 하는 것도 제격일 것이나 술상을 달빛 아래 앞마당으로 옮기고 멍석이나 깔면 그야 흥취가 더할 수도 있겠고 더욱 머리채나 늘어뜨린 성숙한 춘색이라도 옆에 앉아 준다면 안성맞춤이라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아직 달빛 아래선 빈대떡을 먹으면서 기분 내 본 일이 없는 것이 유감이다.

달밤의 산책, 달밤을 굳이 회상해 본다면 어렸을 적에 고향에서 올 여름같이 몹시 무더운 날 냇가에 내려가서 고추가지 내 흔들고 밤새 물장난 치던 밤이 유난히도 맑은 달빛이었고 좀 커서 일본 군대 병영에서 그래도 고향 부모 슬하가 그리워서 달을 쳐다보고 제법 눈물을 흘리곤 했던 일 뿐이다.

요즘의 젊은 층들은 달밤을 흥미하고 향락할 줄 알아서 달이 밝은 날에는 여기저기 거닐고 소곤거리는 모습이 귀엽게 보이는데 맑은 달빛이 젊은 남녀를 제법 대담하게 만들어주는 모양이다.

달빛 아래 미풍이 한들거리는 언덕을 아름다운 연인과 함께 산책,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아담한 정경, 생각만 해도 가슴이 부풀어 오를 만하다.

군대 생활 십여 년에 몸에 맞는 것이란 군복 뿐이라 군복에다 군모 쓰고 달빛 아래 산책이란 아무리 보아도 감점이다. 달빛과 비교적 인연이 멀었던 탓을 군대생활에 돌리는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여름밤 남산의 산책길을 구부러져 올라가면 제법 깊숙한 숲이 사람 그림자를 삼키곤 한다.

약수터가 있고 몇 아름이나 되는 고목 밑에선 돛자리 위 네모상에다 몇 가지 안주 접시를 곱게 올려놓고 술상이 마련되면 가냘픈 손뭍시로 술까지 부어주기도 한다.

고고한 달빛 아래 마음이 한층 도취되고 여인의 몸뭍시는 요염하기만 하다. 나이하고 고향하고 어찌 이곳을 택했느냐고 물으면 입에다 손 갖다대며 소리없이 눈웃음만 친다고...이것은 내가 복중에 어느 친구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한번 실제로 그것도 달밤에 찾으려고 한 것이 그만 금일까지 뜻을 못 이루었다.

이번 이 글을 씀을 계기로 금년 가을 계절에는 좀 달밤과 친해볼까 하는 충동이 일어난다.

<필자·공분·행정차감>

<시조3수>

만리포(萬里浦)의 낙조(落照)

일 석(一石)

희멀건 해일러니

불그레 발그스름

싹뻗건 불이 되어

구름을 태우면서

바다엔 피를 뿌리고

기를 쓰네 마지막

등근데 이즈러져

반원(半圓)되고 눈썹되어

하늘과 물이 닿은

한 가닥 선(線) 속으로

도루루 말려들어서

사라지네 점(點)으로

타든 구름장이

연분홍 보랏빛을

솟아 오를 듯이

서천(西天)을 밝히다가

마침내 검은 막(幕)으로

백사장(白沙場)도 덮누나.

—4293·8·13—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 남북통일론(南北統一論)

—통일(統一)에 앞서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

김 창 순(金昌順)



### 기본사고(基本思考)의 一節

4월혁명의 필연적 산물인 민주당 정권은 그가 수행해야 할 중요정책 가운데 남북통일의 난제를 포함시키고 있다.

독재적 이(李)정권은 북진통일, 무력통일을 유일수단으로 하고 유엔 감시하 북한만의 자유선거를 부동의 정치적 주장으로 삼아 왔다.

이 정권의 그와 같은 수단문제와 정치적 주장이 남북한의 반공민주통일을 기본사상으로 한 것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독재적 이정권하에서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통한(統韓)의 기본사상에 있어서는 자유당과 다를 것이 없지만, 그 수단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당의 북진·무력통일에 대해서 무력과 정치의 양략(兩略)을, 그리고 유엔 감시하 북한만의 자유선거에 대해서는 유엔 감시하 남북한의 자유선거를 주장하여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기왕의 남북통일론이란 것은 그 기본사상에 있어서 남북한의 반공민주통일이라는 유일점에 있어선 자유당이나 민주당이 모두 동일한 태도를 견지하였고 다만 수단 문제에 있어서 양자는 전기한 바와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 본다.

통한의 수단문제로서의 북진·무력통일은 극한적이며 최후적인 형태인바 6·25의 사태가 그대로 오늘의 정세라면 이것은 금일에도 정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정세의 유동은 고정논리를 배격하는바 북진·무력통일이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 이유는 그 동기가 전적으로 휴전 후의 정세 유동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현금(悤琴)의 정세는 반공민주통한의 극한적 최후적 수단인 북진·무력통일을 행사할 수 없다는 데서 현실적인 방안일 수가 없다는 결함을 자초하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하여 유엔총회의 결의인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선거의 통한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차제(此際)에 현실적인 태도가 아니겠는가 해서 실인즉 정치적 통한의 사고가 현실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의문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공산측은 무력 남침의 통한 방안을 영구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통한 방안은 또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자위를 위해서도 무력 수단을 버릴 수 없는 이유와 또 군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도 상존하는 것이다.

통한의 정치적 방안이란 것도 우리가 공산측보다 약체한 조건하에서 자유의 사에 의한 정당한 해결을 성취시킬 수 없는 것이 사실 아니겠는가.

약체를 의미하는 것은 다만 군사력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산측과의 대결에 있어서 군사적으로 약체하다는 것은 피정복의 운명을 대기 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므로 통한의 정치적 방안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우리는 우선 피정복의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군사적 자위수단만은 일정한 시기까지 견지해 가면서 아울러 남북한의 자유선거실시가 공산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선택케 하는 결과를 낳도록 우리의 장점과 부강을 신장시켜 놓아야 할 것이다.

이것 없이는 남북한의 반공민주통일이란 가망이 없는 일이다.

하물며 우리가 공산측보다 약체화되고 단점이 더 많고 무자비한 빈궁 속에 헤매인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희망이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반공민주통일은 벌써 관념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 조건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되어 있다.

### 공산측방안(共産側方案)의 검증(檢證)

김일성이기 금년 8월 14일 밤 8·15 15주년

기념보고연설을 하는 가운데 남북한연방제와 최고민족위원회의 조직 및 남북한의 병력을 각각십만 이하로 삭감하자고 제안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운위함에 있어서 김일성 도당이 남북한연방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들 이론의 기초는 과거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형식논리에 있어서 그들의 삶의 태도가 과거보다도 더 오만하고 더욱 과대해진 것이 전보다 달라진 것이라고나 해둘까.

평화적 통일을 운위하는 공산측의 통한방안은 유엔군 철수를 통한의 선행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세계적 규모에 있어서의 반미소동의 야기를 흥책하고 있는 크레믈린 정책의 일환으로 되어 있다.

왜 그런고 하니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군의 남한철수를 선차적으로 실현시켜야 한다는 공산측의 주장이 증명하여 주듯이 남한지역에서 반미소동이 야기되어 미국이 한국문제로부터 손을 떼고 난 뒤가 아니면 통한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보니 이것은 정녕 한반도를 적화시키자는 은폐 전술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다시 말하여 한반도 전역을 반미 친소지대로 전변시키자는 것이다. 그와 같은 주객관적 조건과 환경을 조성해 놓고서 통한을 하자는 것이고 보니 한국의 적화를 한국의 통일로 간주함이다.

그러기에 공산측의 전술문건에 나타나 있는 통한방안을 보면 남북통일을 조선혁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선혁명은 남한지역까지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운명으로 전락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공산측의 이와 같은 기본사고는 북한지역을 극동의 공산권 초소로서 영구적으로 영유하려고 할 뿐 아니라 언젠가는 남한지역까지도 공산권에 편입시키고야 말겠다는 것으로 부동하다.

그 목적을 여하한 방법으로 달성시키느냐가 공산측의 전략전법문제로 되어 있을 뿐 당장에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통한을 성취시키자는 것은 아니다.

하기는 공산측에서도 남북한의 자유선거 실시라는 주장을 내걸고 있다. 그러면 공산측이 말하는 남북한 자유선거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유엔총회서의 소련대표 발언 및 1954년 제네바 회의에서의 공산측 주장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은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선거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확립(確執)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요컨대 공산당의 관제선거를 임의로 할 수 있는 중립국 감시하의 자유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공산측의 주장은 유엔 참전국을 모두 제거하고 실질적으로는 공산국들이 더 많이 포함되는 중립국 감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측의 이와 같은 요구는 미국을 포함한 유엔 참전국들을 한국에 대한 간섭자라고 규정하면서 간섭자는 중립일 수가 없다는 주장을 합리화시키려고 한다.

그러한 공산측 태도는 심지어 소련을 한국 문제에 대한 충분한 중립국가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말하는 소위 중립국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선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불문가지의 사실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공산측은 한국통일을 여하히 실현하자는 것인가? 이에 대한 공산측의 기본사고는 이상에서 지적된 바 그대로임을 인정하고 다음에 그네들의 수단문제를 검증해 보기로 하자.

### 최고강령(最高綱領) · 최저강령(最低綱領)

공산측의 한국통일방안은 그들로서의 최고강령과 최저강령을 가지고 있다.

최고강령이란 것은 소위 조선혁명을 실현하자는 것이고 최저강령이란 것은 소위 조선혁명을 실현하기까지의 계제(階梯)에 있어서 준비사업을 완수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도 논급한 바와 같이 공산측이 말하는 조선혁명이란 것은 한반도 전역의 적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문제로서는 최고형태와 최저형태를 견지하는 바,

△ 수단문제의 최고형태란 것은 6·25 남침과 같은 무력공격을 말하는 것이고  
△ 그의 최저형태란 것은 무력수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평화적, 정치적 수단을 내세우는 것을 말함이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 시기나 하면 북한지역만이라도 점유하고 있으면서 조선혁명을 가능케 하는 제조건을 성숙시키기 위한 축력(蓄力)시기라는 것이다. 공산측의 축력기전술이란 것은 어느 때나 밖으로 평화표방을 히마게 내세우면서 안으로 혁명기지를 공고히 다진다는 것으로 전통적이다.

그러기에 지금 공산측은 한국문제에 대하여 밖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성가시게 내세우면서 안으로는 북한의 공산기지를 백방으로 강화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남한을 약체화시키자는 것이며 북한의 영향력을 남진시켜서 조선혁명에 호응할 수 있는 정세와 조건을 성숙시키자는 것이기도 하다.

그 모든 것은 인위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더 많은 간첩을 남침시키고 있는 것이며 남한지역의 사회적 불안과 무정부상태의 조성을 위해서는 그 무엇이든지





## 1

지금 세계사에서 가장 강력히 움직이고 있는 힘은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족주의는 동양 아프리카에서 격동하고 있으며 이 동향의 여하가 세계사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은 과언이라고 할 수 없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라오스, 콩고의 동향은 예단할 수 없으나 이러한 동향은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족주의가 민족의 자유 독립을 주장하니만치 어떠한 세계질서를 장래에 있어서 생각할지라도 이를 무시할 수 없다. 우리도 제2차대전 후 독립한 신생국가로서 이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민족주의는 근세 이후로 발전한 것이다. 공통의 선조, 언어, 영토, 습관, 전통을 가진 한 사회집단이 한민족이란 공동의지를 가질 때 비로소 민족주의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여러 요소를 구비할 수도 있고 구비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거의 순수하게 모든 요소를 구비한 민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민족도 많다. 미국은 여러 민족의 집합체라고 일컫는 정도로 많은 이민족이 모여 있고 서서(瑞西, 스위스)에는 네 가지의 언어를 갖고 있으며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같은 조선(祖先)의 자손이며 거의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민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같은 정치체를 가질 때 이를 민족이라고 구별하는 학자도 있다. 그러나 민족 국민이라는 개념을 전혀 다르게 사용하는 학자가 있는 것을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 대개의 경우 민족은 위에서 본 제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갖고 있으며 동일 민족과는 공동의지를 가지면 그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체 즉, 민족국가를 수립코자 한다. 그리하여 한 민족이 민족국가를 세우면 이를 국민이라고 일컫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수단문제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남한을 약체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물론 사소한 조건일지라도 이것을 버리지 않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평화적 통일이라는 병풍 그늘에 숨어서 감행되는 공산측의 대남과괴전법인 것이다.

### 특수적(特殊的) 과제(課題)만도 아니다

제2공화국의 출현으로 국내의 정치적 민주화가 확립되리라는 것은 남북통일을 논함에 있어서는 제일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좋은 것을 복상시켜서 북한동포들로 하여금 우리와 마찬가지로의 정치적 입장에 서게 하자는 것이 반공민주통일의 기초적 과업이고 보니 우리의 민주정치 확립이 상대적으로는 북한 괴집(傀集)의 공산독제를 약체화시키는 정치적, 심리적 영향력으로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다음 국가의 경제적 형편과 국민생활의 수준을 비참한 것으로부터 부강한 것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이 남북통일을 논함에 있어서도 역시 제일급의 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산측보다 경제적으로 후진하고 약체하고서야 무엇을 자랑하여 우리와 같이 살자고 북한동포에게 권고할 수 있는 것이겠으며 더욱이 국민생활이 무자비한 빈궁 속에 헤매이고서야 무엇을 가지고 우리와 더불어 공생 공락(共樂) 하자고 북한동포들에게 권고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우리가 휴전선에 군대를 펴고 평화 아닌 기술적인 진술상태로 공산측과 대치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에 나라를 부강하게 가꾸고 산업을 일러 세우고 공업과 산업의 경제시스템을 근대화하여서 국민 대중의 운명을 개조함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남북통일을 추진하자는 것일지언정 결코 부패하고 낙후하여 공산측에게 한반도 저녁을 넘겨주자는 것은 아니고 보니 우리가 수행해야 할 당위적 과업은 인구 1인당 산업생산에 있어서 북한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다음 우리는 헛되어 왜국을 하거나 배타정책을 함으로서 불필요한 고립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문제는 남북통일을 논함에 있어서는 역시 제일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오직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진정한 합법적 민족주권이라는 인정을 받을 때 우리의 반공민주통일은 그만큼 전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통일은 국가의 개별적 정책론과 독립하여 특수적으로 취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국가시책의 그 모두가 남북통일과 결부되어 있다는 방침하에 조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 줄 안다.

그러면 이러한 민족주의는 어떻게 근세 이후로 성립하였을까? 근세 이후로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국민경제가 성립된다. 국민경제가 성립되면 국민공통의 생활이 성립하게 된다. 생활의 공동이 형성되면 자연히 공동의식 즉, 같은 민족 국민이라는 생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공동의식 공동의지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같은 조선의 자손이라는 혈연의 공동, 같은 영토 위에서 살아왔다는 공동의식, 같은 관습, 종교 등의 문화의 공동의식 등이다. 이러한 공동의식을 갖도록 한 것이 중산계급, 시민계급이며 시민계급을 통하여 민족주의가 전개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후진국가는 선진국가의 침략 또는 영향에 의하여 비로소 민족주의를 자부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민족주의는 17·18세기를 통하여 진행되었는데 이것이 세계사적으로 개화 진전된 것은 프랑스 대혁명이었다. 프랑스대혁명을 계기로 하여 19세기에 있어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로 향하여 진군한 것이 서구 및 동구의 제국이었다. 이러한 사조가 다른 후진국에 들어와서 민족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 19세기 말부터였다. 후진국은 식민지 반식민지로서 제국주의에 예속되었는데 외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지배에 대하여 반항한 것은 서구의 지식을 흡수한 지식인이었으며 이들의 주장에 일반민족도 각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후진주의는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민족의 자유 독립과 주권을 요구하는 민족해방운동이라 할 수 있다. 민족의 자유 독립은 민족의 자결권(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ism)에 입각하여 민족국가를 수립코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주 독립된 국가가 국제사회에 평등한 일성원으로 참가코자 하는 것이 평등의 권리이다. 민족자결권은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14개조(President Wilson's Fourteen points)로서 명백히 선언한 것이다. 이 민족자결의 원칙이 후진 민족의 민족주의의 진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나라의 3·1운동이 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윌슨의 주장은 제1차대전 후에는 동구(東歐)에만 부분적으로 적용되었고 이어 제2차대전 후에는 동양 아프리카에도 실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공산주의에 있어서도 마르크주의에 입각하여 노동자 계급의 해방 문제를 약소민족의 해방 문제와 연결시켜 약소민족의 해방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2대 사상의 영향에 의하여 현재 약소민족의 민족주의는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간단히 민족주의의 운동사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나 근대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를 보기로 하자. 민족주의는 민족지상, 국가지상주의라고 생각되어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 같이 오인되어 왔다. 사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같은 곳에 이러한 민족주의가 주장되어 온 예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민족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데 있다. 민족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아름다운 민족공동체를 수립코자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민족국가의 존속은 상호의존관계에 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개인의 자유의 의식이 있는 후에 비로소 민족주의가 성립되었다. 개인이 아무런 직각도 없이 단체적 전체에 매몰되어 있었던 근세 이전에는 개인이 자각도 없었고 민족주의도 발생하지 않았다. 근대적 개인주의를 전제로 하여 근대적 민족주의가 발생한 것은 근세 이후였다. 민족주의는 한 민족이 자기의 독자성, 특수성을 의식하고 이를 옹호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데서 나타났다. 따라서 집단적 개인주의의 없이는 민족주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한 집단적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각과 외국인과의 접촉하여 그의 지배를 받을 때 의식적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민족주의는 가족 혈연 향토에 대한 애착과 같이 본능적 식물적 감정의 연대가 아니고의식적 합리적인 지각이 매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혈연과 전통에 의한 것이 아니고문화의 공동 국가목적의 공동으로 하는 지적 공동감에 의하여 비로소 민족주의는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개인이 자각적으로 민족국가의 운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근세 이래로 오랜 역사적 전통을 경과하여 비로소 형성된 것이다. 그리하여 서구사회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와 민족국가의 존립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민족공동체를 수립코자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민족 성원의 생존복지를 확보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어떤 민족국가가 소수의 특권만을 옹호한다면든지 그들만이 독점한다면 그곳에 민족공동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비코(Vico)는 일찍이 조국 파트리가 res Patrum(부조(父祖)의 것 즉, 명문대가의 사유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으며 토마스 모어(Thomas More)는 국가가 Conjuratis divitiis(부호의 결맹)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사실 민족국가는 이와 같이 소수의 명문 부호가에 의하여 농락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곳에 민족공동체의 공동의식이 나올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근세 이후로 민족국가를 세운 나라는 꾸준히 대중의 경제적 향상, 경제적 불평등의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복지국가의 이념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근대 민족주의는 개인이 자유로운 주체로 되는 민족공동체를 수립코자 하며 민족공동체의 존립 독립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를 구성하는 개인의 생존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근대 민족주의는 필연적으로 경제생활을 계획화 조직화하여 경제생활을 보장하는 복지국가에로 나아가는 것이다.

근대 민족주의는 개인의 자유 경제생활에 있어서 불평등의 제거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국제주의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민족주의는 민족지상주의에 입각하여 다른 민족을 압박 침략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사실 이와 같은 침략적 군국적 민족주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주의는 그릇된 민족주의이며 진정한 민족주의는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홉슨(Hobson)이 말한 바와 같이 민족주의는 국제주의의 공도이다. 세계는 다만 개인의 집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민족국가를 토대로 하여 형성된 것이다. 개인은 그대로 세계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국가의 일성원으로서 세계에 연결되는 것이다. 민족국가를 떠나서 한 개인이 민족사회에 기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기여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족주의자는 그의 민족국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진일보하여 그의 민족국가를 통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일찍이 피히테(Fichte)는 다음과 같이 이 관계를 설명하였다. 즉 「…… 그리하여 제각기의 세계주의자는 그의 민족에 의한 제한을 통하여 필연적으로 애국자인 동시에 또 그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열렬한 애국자는 가장 열렬한 세계시민이다.」 민족국가를 초월하여 세계문화에 기여한다고 자부하는 인간은 뿌리없는 잎과 같이 부평초로서 자기의 민족국가에서 무용할 뿐만 아니라 세계사회에도 들어갈 좌석이 없는 무용한 인간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대 민족주의는 개인의 자유 경제적 불평등의 제거, 국제주의를 기간으로 하여 성립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가진 민족국가의 연합에 의하여 국제주의로 지향하는 것이 유엔의 목표로 되어 있다.

끝으로 우리가 본 근대적 민족주의의 성격이 공산주의 및 독일의 나치스의 이론과 어떻게 다른가를 보기로 하자. 막스주의는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모든 역사는 계급의 투쟁이라고 본다. 역사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즉 노예소유자와 노예봉건영주와 농노자본가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투쟁사로 본다. 국가는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보고 근대사회에

있어서는 무산자의 노동자 계급이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국가권력을 탈취코자 한다. 이러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다만 한 국가 내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연결하여 노동자 계급이 단결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기 때문에 막스주의는 계급이 위주로 되어 있으며 노동자 계급을 주축으로 하는 국제주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막스주의가 현대자본주의의 폐해, 빈부의 현격한 차이, 강자의 약자에 대한 착취를 비판하고 이에 사회주의를 주장하게 된 역사적 의의는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추오한 현실을 너무나 일면적으로 강조하고 개인보다도 계급을 위주로 하고, 민족국가의 존립보다 세계의 공산화에 주력을 넣고 있는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 막스주의는 노동자 계급을 위주로 한 독재정치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는 억압되고 민족주의는 공산주의에 의하여 부정된다. 그곳에는 개인의 자유, 민족국가의 독립을 무시하기 때문에 전번 동구 폴란드 헝가리에서 치열한 민족항쟁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제2차세계대전까지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에 일어나 나치스는 일견하면 강력한 민족주의의 주장과 같이 보인다. 사실 나치스가 민족 민족공동체의 이념을 높이 강조한 것은 이론적으로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막스주의가 제국가민족을 원리적으로 부정한 데 대하여 나치스가 민족공동체를 높게 평가한데 깊은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치스는 정신, 민족혼을 주장하여도 그것은 다만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맹목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자기 민족을 위주로 한 세계제패를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생물학주의에 입각하여 자기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사명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군국주의에 의한 세계침략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나치스당을 따르는 소수인이 철의 규율로서 국민의 모든 생활을 통제 간섭한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는 억압되고 세계평화는 항상 위협을 느끼게 된다. 양자는 다 같이 그의 근저에 있어서 자기의 소속하는 계급 또는 당파를 전체의 입장이라고 참칭(僭稱)하는 독단을 가진다. 이러한 곳에서 인간의 정신생활 또 정치생활에 있어서 자유가 없고 현대의 독재정치가 러시아 독일에 나타나게 된 것도 필연의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제2공화국의 첫 출발에 있어서 진정한 근대적 민족주의의 이념을 체득하고 제각기 정신적으로 왜곡된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심적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필자·서울대 문리대 교수>

## 「법(法) 앞에 평등(平等)」의 현실적(現實的) 의의(意義)

이 건 호(李建鎬)

「법 앞에 평등」이라는 사상은 사회의 계층조직에 반대하는 자연권 사상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에 대한 법률적 처우가 그가 속하는 사회적 계층 여하에 의하여 평등치 않았던 전근대적 제도하에서는 법 앞에 평등은 혹종의 혁명을 의미하는 위협사상이기조차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오늘날 법치국가의 국민생활을 지배하는 대전제로서 아무도 이에 의심을 개제시키는 자가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명의 이(理)라고 생각되는 사상이 액면 그대로 실천되고 있는가는 또 하나의 별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다.

평등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 자체 소극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소극적인 권리에다 다시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권리가 플러스 되기 전에는 별로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이며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여 국민 각자의 생활이 문자 그대로 평등을 실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무수한 차등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독립선언은 만민평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남북전쟁 시까지 노예제도는 그대로 존속되었으며, 그 후 평등한 법률적 보호를 규정한 제14차 헌법수정이 있는 후 오늘날에 있어서조차 흑인의 공민권(公民權)은 가진 구실을 가지고 유린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법 앞에 평등은 기타의 여러 가지 헌법상의 제원칙과 마찬가지로 다분히 이념적인 수식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보이느냐는 그 후의 하위제입법과 그 적용의 실태 여하에 의계(依繫)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법 앞에 평등을 원칙으로서 만족하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평등을 재래(齎來)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원칙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수다한 세부적인 입법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또 아무리 세부적인 입법이 이상적 상태에 있다 할 지라도 그 적용이 실질적인 정의 개념에 입각하지 않는 한 또다시 불평등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세부적인 입법을 하고 정의에 입각한 적용을 해도 불평등의 출현을 방지할 수 없는 사태가 있다. 즉, 형사법도 포함하여 공법분야에서는 평등의 구현이 비교적 용이하나 사법분야에서는 그것이 대단히 곤란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 앞에 평등이란 이념은 경제적 약자를 무보호상태로 방치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논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허울 좋은 평등이 실질적인 불평등을 격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은 사법상으로는 특히 사법자치의 원칙 또는 계약자유 원칙과 관계하여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사법자치의 원칙이나 계약자유 원칙은 법 앞에 평등을 배경으로 하여 비로소 성립되는 것인데, 그러나 이들 원칙이 무제한이 실천되면 평등의 이념은 급기야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갑과 을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하한 내용의 계약이라도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이를 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공장경영주인 갑은 노무자인 을을 월급 일만 환을 지불할 조건으로 채용하였다. 그러나 을은 월급 일만 환을 가지고 십여 명의 가족을 부양할 도리가 없다. 그러나 이 비참한 고용계약을 일축해버릴 용기도 없다. 왜냐하면 수많은 실업자군이 일 자리를 구하여 헤매는 형편임으로 고용주 갑은 조금도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여 갑은 법 앞에 평등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유지한다. 이때 양자의 관계는 외견상 자유스러우며 만족스러울런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무서운 불평등을 가져온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경제력의 불균등 때문에 재래(齎來)되는 이와 같은 불평등이 무수히 누적되어가는 추세를 보인다. 이리하여 국가는 간섭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 국가의 간섭은 실질적인 불평등을 교정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즉, 이것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형식적인 정의관념이 반드시 지상의 원리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의 이와 같은 간섭은 주로 사회법 내지는 노동법 등으로 표현된다. 이와 같은 법률들은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법 앞에 평등의 관념이 수정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생존양식은 원칙적으로 무제한한 자유경쟁



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부의 편제가 현저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자유경쟁의 법률적인 배경이 바로 법 앞의 평등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한다는 것은 바로 자유경쟁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그것은 시민사회의 존재양식에 변용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사회법 내지 노동법의 출현은 시민사회의 존재양식에 변용을 가하게 되었으니 즉, 그 주요한 내용은 개인적 정의를 주축으로 하는 제관계의 모습이 사회적 정의를 주축으로 하는 제관계의 모습으로도 파악되어야 함에 이른 것이다.

양봉들이 대회를 열었다. 한 마리 벌이 중대한 발언을 하였다. “우리가 겨울의 양식을 위하여 아무리 꿀을 만들어 놓아도 결국은 이집 주인이 그것을 강취하여 시장에 갖다 팔아버리니 우리는 헛수고를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꿀 만들기를 중지하고 해산하자” 는 것이었다. 이것을 들은 여왕벌은 분노하면서 호령하였다. “너희들은 어리석다. 우리가 만약 꿀 강취 당하는 것만을 두려워하여 여기서 해산을 단행한다면 물론 이 집 주인은 아사지경에 이를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죽음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하나하나의 벌이 아니라 한 덩어리의 벌이라는 것을 알아!” 이것은 하나의 동화이다. 여왕벌은 개인적 감정이나 경솔한 이기주의에 현혹됨이 없이 수학적 냉철을 가지고 그 일단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법 앞의 평등의 관념은 근본적으로는 이기주의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고 이기주의 자체는 인간의 속성으로 이것을 전적으로 배척할 수 없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이것만을 철저히 추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정반대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도 간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법과 형평과의 관계를 논한다. 법은 인간행위의 일반적 준칙으로서의 의의를 갖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평등을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생활관계에서는 빈번히 그 불안정성이 폭로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주장은 경우에 따라 수정되며 보충되지 않으면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법 앞의 평등의 관념이 적용될 수 있는 이론적 한계를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계층제도가 현존하는 국가에서는 법 앞의 평등의 관념이 중대한 의의를 가짐은 물론이다. 그것은 계층제도의 타파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법 앞의 평등의 관념이 역사적으로 그와 같은 사명을 완수하였으며 또 현재도 계층제도탄생의 가능성을 저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아직도 원리적인 권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예로서 일본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일본 신헌법 제14조는 전시한 바 있는 우리 헌법 제8조에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지(門地)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주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은 적어도 구헌법하에서는 사회적 계층제도가 은연 중 확립되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전후의 헌법이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에 의하여 평등을 주장하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리하여 일본 헌법 제14조의 법 앞의 평등은 충분히 그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장래에 있어서도 일본의 민주제도를 보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와 같이 들인 혁명적 사실로 말미암아 국가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앞의 평등 같은 것은 이미 기정의 사실로서 별로 새삼스러운 의의를 가질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논한 바와 같이 법 앞의 평등의 관념이 원리적인 권위를 유지하면서도 그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 적지 않은 파탄을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은 결국 법 앞의 평등의 현대적 의의가 이 관념의 재확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관념의 수정적 해석의 필요성에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공법과 사법의 중간영역이라고 하는 사회적 내지 노동법의 등장은 구체적으로 법 앞의 평등 관념의 수정원리 또는 수정방향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이해되는 것이다.

<필자·고대교수>

제1회(回) 공중(空中) 사격대회(射擊大會)  
여주(麗主) 상공(上空)서 성거(盛舉)

경기도 여주 사격장에서는 지난 9월 25, 6 양일간 각 비행단에서 선발된 5개 조의 사격편대가 참가한 가운데 대지 및 공중사격 대회를 성대히 거행하였다.

한국공군이 제트기로 그 규모가 전환된 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 공군을 통합한 이번의 사격대회는 전기(戰技)향상과 전투조정사의 사기를 높이고 유기적인 공중작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각 전투조종사들의 우수한 전기를 과시하는 가운데 무사히 종료되었다.



이날 제1회 사격대회에서 제10전투비행단의 김인기 대위가 90%의 명중률로 단연 수위를 차지했으며 단체에도 역시 제10비행단 102대대가 우승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사진은 타겟을 향해 급강하하는 세이버 제트의 용자>

## 한국(韓國)의 유교주의(儒敎主義) 정치사상(政治思想)

홍 이 섭(洪以燮)

**서(序)**— 유교주의 정치사상이 중국에서 수용되는 것을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것은 한국사상사에 있어 핵심적인 과제이다. 허나, 지금까지 한국사상체의 별개적이든 또는 역사적인 이해가 이룩되지 못한 오늘에 있어서는 너무 조급한 일 같으나, 우리들이 한국사에 있어 유교주의적인 것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더 말할 것 없이 그 정치사상을 알아보는 것이야말로 그 핵심체에 접근하는 일이 된다.

**1. 유교사상의 이해**— 한국인의 유교사상의 제대로 된 이해를 어느 때에 잡겠느냐? 함에도 정확한 말을 하기는 어려우나, 제기록의 제시하는 데서 보면, 삼국신라통일기에 있어서는 그것의 이해에서 그 원리적인 것의 실천을 보았음을 보겠고, 흥미있는 자료로는 고려사열전 최승로전에서 보면, 유교주의 이념이 당시의 정치이념이었고, 그것을 얼마나 실용화하고 있었던 것은 그 최승로전에 보이듯, 최승로가 불교신앙의 타락형식(고루)화한 것을 공박하는 기준이 유교적인 왕도에 있었던 것에서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더욱 중엽 이후 유교주의자(특히 중국중심주의자-일례를 들면 김부식 같은 이들)들이 표면에 나와서 활동을 하며, 그들의 정신이 지배적인 일을 하는데 작용함을 가지고 잘 알 수 있거니와, 여말 배불논자들의 근거가 거의 한유의 원도론에 거하며, 정치이념으로는 주례(周禮)적인 자연에서 유교주의 정치이념의 기반이 되는 왕도적인데 두고 있었음에서 정치적으로는 곧 유교주의적인데 근거를 두었던 것이다.

**2. 유교주의 정치이념의 확립과정**—아무래도 유교주의 정치이념이 굳게 뿌리를 박는 것은 이씨

조의 창건에서부터다. 이것도 이씨 왕실의 창시자인 이성계는 아니고, 이성계를 한 무인에서부터 군주를 만들고 그에게 집권하게 하는데 지락을 다 한 정도전이었던 것이니, 정도전이 그러하였다 함은 그의 삼봉집 속에 있는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과 경제문감(經濟文鑑) 속에 내비치는 바이다. 정도전은 이성계로 하여 얼마나 유교주의 군주의 도를 체득—실천하게 하였는지를 보게 한다. 정도전은 자기와 더불어 고려 왕실의 신하이었던 이성계로 하여 왕권을 장악케 하였을 뿐 아니라, 자기는 그의 신하로서 유교주의 이념을 실제 국가 정치의 기본이념으로써 깔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니 그가 학교 교육을 주창하여 정치의 득실은 학교 교육에 달렸다고 하게까지 되었다. 이 학교 교육은 유교주의 관료군(후보자)을 양성하는 것으로 여기서 그대로 유교주의 이념을 주입시키는 것이어서, 정도전의 서상(敍上)의 생각과 실천적 활동은 조선왕조의 기반이라는 유교주의 이념을 깔아 놓는 일이 되었다.

**3. 유가사상의 전개**—정치적인 전변을 겪는 여말선초의 유가들에게 새로운 철학적인 하나의 요청은 주자학을 위주한 송학의 이해이었다. 유학에 있어 철학적인 송학의 이해는 한국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 유학사가 정리되지 않은 데서 여러 가지로 구구한 얘기를 하나, 대체로 여말의 몇 사람이나, 조선 초의 유가들이 도통 송학 이해에 힘썼던 것이다.

우탁(禹倬)이 월여(月餘)를 문밖에 나서지 않고 생각하고 공부한 끝에 이해하게 되었다는 전언은 다름 아닌 철학적인 송학 이해에 사색함이 필요했다는 것이요,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도 권근의 입학도설(入學圖說)이나, 이어 서경덕의 이기(理氣)의 이해 등이다. 훈고적인 학습에서 일약 궁리—사색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데서 그들이 송학을 이해하기 위하여 고심했던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송학 이해는 대체로는 정치 일선에서는 멀어지는 것이다. 권근은 입학도설 같은 기초적인 이해에 집중하였으나, 서경덕 같은 이는 정치에서 벗어나 사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은 그가 의식적이었다는니보다 궁리하는 공부에서 필연적으로 밝게 된 결론이었다. 이와 달리 조광조 같은 보고적인 지치(至治)주의자는 현실과 중간적인 고대의 이상과를 직결시키는데 급급한 데서 실패를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된 길은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에 와서 송학 자체도 보다 전반적으로체계적인 이해를 하며 다시 이이 같은 이에게서는 주자학의 실천면이 보다 강조되었다. 이에서 유교주의 정치이념은 일반의 전개를 보이었다.

**4. 유교적 정치이념의 현실적 이해**— 우리 한국의 관료들이 관에 오르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 유학공부이었으며, 관에 올라 군주에게 자기 견해로써 정치적인 현실을 비판하는 1, 2의 상소문을 아니 내 논 이가 없을 정도이었으며, 그 상소문에서 의기한 정치적 기본이념이 유교적인 데서 벗어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내왔고, 허다한 유가들과 유교주의 학자들이 배태(胚胎)되었으나, 일가의 사상적인 것으로 체계적으로 구축한 학자는 딱 드물다.

이러한 데서보다 체계적인 것은 성호 이익에서 찾아보게 된다. 그의 성호사설(星湖僿說)과 곽우록(藹憂錄)에서 검색할 수 있다.

사설과 곽우록의 관계는 후자는 전자의 추상 요약이며 전자에서는 분산적으로 논의한 것을 후자에서는 이론적으로 집약화하고 있다.

이제 그 대략의 내용을 보면..

경연(經筵)—나라의 정치가 제대로 되고 안 됨은 군주의 마음에 달렸고, 그 마음이 지우(智愚)(제대로 정치를 하게 되든지, 못하게 되는 것)는 강학(경연)에 달렸다고 한데서, 곧 군주에게 유교주의 정치이념을 이해시키는 것이 국가의 급무라고 하였다.

이익은 이러한 데서 출발하여 여하히 자기 시대의 한국사회의 정치적인 개혁 준비를 이룩할 수 있는냐는 데서 곽우록의 이론을 체계화하였던 것이다. 그럼으로 그 생각한 정치이념은 그대로 유가의 사상이었으나, 보다 현실적인데 초점을 둔 데서, 우리들이 유의하며 흥미를 갖는 것이다.

그의 유교주의 정치이념의 구조는 군주의 경연에서 출발함을 최정상에 두는 권력구조론으로 보겠으니,

① 경연 - ② 육재(育才) - ③ 입법 - ④ 치민(治民) - ⑤ 생재(生材) - ⑥ 국용(國用) - ⑦ 한번(捍邊) <국방> - ⑧ 병제(兵制) - ⑨ 학교 - ⑩ 숭례(崇禮) - ⑪ 식년시 - ⑫ 치군(治郡) ⑬ 入仕 - ⑭ 공거사의(貢擧私議) - ⑮ 선거사의 - ⑯ 전론(錢論) - ⑰ 균전론 - ⑱ 논과거지폐(論科擧之弊) - ⑲ 봉당론 등으로,

연경(筵經)을 통한 군주의 학에 대하여 관료인군의 형성에 있어 「부치막급어 현재(夫治莫急於賢才), 재막절어치민(才莫切於治民)」이라고 하여 여하히 인재가 필요한 것을 지시하면서 (인재즉현재(人才卽現在)에 있어서는 행정전문가를 말하는……)의 육성에 치중하였다.

이에 일국가의 지배는 법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서 입법을 논함에서 「군자에민수절(君子愛民雖切), 이입법불가불엄야(而立法不可不嚴也)」라 하여, 국가권력기구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단속을 엄중히 하고자 하였다. 즉 ①③은 상층권력구조의 지속을 논한 것으로

직접 일선 백성의 지배는 달리 분리하여 논하고 있다.

치민— 즉 ④ 항목 이하에서는 상층권력구조의 기반이 되는 제문제를 논함에서 득민위군(得民爲君)이란 민본주의 입장에서 일반행정(특히 지방행정)이 직접 군주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의 직책이었으나 수령이 오히려 여사로 여기며 민에 끼치는 폐가 많아진 데서 이것을 단속하며, 민의 지도보호를 이르고 있다.

그럼 이 민본적인 생각은 이 자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⑤ 생재, ⑥ 국용의 의론에서 민본적인 생각의 기도함이 어데 있었던가를 명시하게 된다. 그럼 생재 국용이 사회 경제, 국가재정을 논함으로 생산을 감당하는 민의 지도, 보호의 근원적인 의도를 포착케 한다. 다시 생산론의 기저가 민에 있으며, 이 정비에서 ⑦ 한번-국방, ⑧ 병제를 논한다. 국방의 감당은 역시 농민대중이었으니 여기서 민본적인 농병일치제가 전개되는 것이다. 이황은 여기까지 이끌고 오는 일련의 논의에서 민본적인 것을 빼지 않고 붙잡아 오기에 애를 썼다. 여기서의 군-민의 구조에서 양여(兩餘)의 후대적인 특권적인 것을 일체 배격하고 있다

이외의 제론은 다시 다음과 같이 도식적으로 재정비하게 되는 것이다.

- 1. 경연
- 2. 육재 — 학교
  - 식년시
  - 공거사의
  - 선거사의 — 논과거지폐
- 숭례
- 3. 입법 <입사>
- 4. 치민 — 치군
- 5. 국용 ← 생재 → 한번 병제
  - |
  - 전론
  - |
  - 균전론
  - 결론 — 봉당론

서상(敎上)의 체계는 물론 유가적인 것이었으나, 이것을 통한 한국 현실의 비판적인 인식은 당시의 역사적인 추이를 그대로 명확하게 잡고 있었음으로 우리들은 중국적인 테두리보다 그 속에 담긴 한국의 역사적인 현실을, 그것은 곧 봉건적인 정치체제의 상이었으나, 어떻게 비판 개혁될 것이 주장되었는가를 볼 것이다. 다시 나아가 이익은

그에 멈추지 않고, 당시의 한 중요한 과제이었던 당쟁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 민본주의에 섰던 그의 기반은 생재(사회경제)에 두고 일체를 여기서 보는 데서 당쟁의 발단을 예(禮)니 제도니 하는 일층 상층적인 데서 보던 것을 다시 하층적인 데서 찾고 있어, 이해관계에서 잡아 보았으며, 이런 정쟁이야 말로 봉건적 정치기구의 와해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게 이르렀었다. 이러한 데서 그의 봉당론은 그의 정치 이론 결론적인 것이었다. 즉 유교주의적인 판료 체제를 재정비하여 유지하게 하는 데 있어, 한국 현실에서 반드시 생각할 것이었던 것에 도달한 그의 정치이념은 유교적인 것이었으나, 그의 생각이 당시 한국에 있어 지배적이었던 주자학의 비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었다나? 하는 문제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여론(餘論)**—이익의 사실과 광우록 꽤연히 깔려 있는 생각은 이제까지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공현공론적(空現空論的)인 주자학에 싫증을 낸 것도 아니고, 그러한 데서 현실의 비판적 인식이 이끌어져 나올 것이냐는데도 생각할 바가 있고, 그에서 곧 서학-카톨릭적인 서구사상에 의해 그대로 사상의 각도가 달라지도록 되는 것도 아니었다. 물론 서학적인 색취(色臭)가 없는 것은 아니나, 거기서 전통적인 유가사상이 그대로 내밀어진 것도 아니었으리라고 본다. 여기에는 유교사상 자체 내의 어떠한 분리적인 전개에서 구할 바가 아닌가 한다. 즉 공리적인 것에서 그대로 그 공리적 세계관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와 다른 어떤 생각(자리)에서 그것을 비판하게 되는 데서 그의 생각이 익어졌던 것이다. 또 보다 현실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정치관계 일체를 보도록 일단의 적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 그의 현실적인 인식에서만 온 것이 아니다. 물론 반계(磻溪) 유흥원(柳馨遠)이나, 만호(晩湖) 신무(愼懋)라든지 하는 선배 학자의 지식체계나 비판정신을 수용 이해하나 여기에 이념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중국의 명말 청초의 양명학파의 한 걸음 진보적이었으며 그때의 그 사회로서는 과격한 일부의 사상을 수용하는데 있었다고 보겠다.

× × × ×

이러한 것을 실어(實語)적으로 원문을 대조제시하지 못함은 이 자체가 좀 더 복잡한 연구 과정을 밟아야 할 것임에서 여기서는 흔히 피상적으로 비판하는 유교주의 정치이념이 한국에 있어 어떠하였었다는 일례를 소개하는데 멈추고자 한다.

(1960년 8월 7일)

## 조종사(操縱士)의 하루

중위(中尉) 박 용 직(朴容稷)

잠을 깨고 침상에서 일어서니 창을 통해 보이는 푸른 하늘은 오늘도 하루의 즐거운 생활을 가져다 줄 것만 같았다. 어제의 시달렸던 심신도 간밤의 달콤한 잠으로 쇠신되고 힘찬 하루의 일과는 바야흐로 시작되려 한다. 짜여진 조종학생의 일과에는 별 변함이 없으려만 오늘 아침 맑은 공기를 담뱃 들어 마신 나의 가슴에는 유달리 희망에 벅찬 즐거움에 가득 차 있었다.

어려운 비행술을 뒷받침하는 학술교육 뿐만 아니라 장교로서의 소지(素地)를 닦는 일상 내무생활이 또한 병립하여 삼자 공이 발전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 어제였고 또 오늘 그리고 내일이리라.

공중조종에서 미숙하였던 제원(諸元)을 재상기하면서 어젯밤 잠자리에서 뇌까리던 이것저것을 연상하는 사이에 청소도 조식도 마치고 훈련은 시작되었다.

편대장 전체 브리핑 후 기상 브리핑 그리고 정상, 비상처리법에 관한 질의응답, 순서적으로 플라이트 룸(Flight Room)에서의 일과는 진행되었다. 간밤의 연구와 오늘 아침의 재정리로 제일번승에 대비했던 나의 기대와는 어긋나서 제2번승에 비행케 되었으나 교관과의 개인 브리핑을 마침으로써 오늘의 과목을 재상기 정리할 여유가 많아졌다. 근무학생에게 보고하는 씩씩한 동료의 모습들이 사라진 후 방안을 정리하고 비행교본을 손에 든 나는 오늘 실시될 조작에 관해 다시 그 절차들을 암송해 보고 또 실제 비행기를 타고서 교관의 지시를 받으며 비행하는 상태를 마음속에 그려 보았다.

나의 교관이 체험담이라 하여 들려준 몇 가지의 주요사항 중의 하나가 곧 이 마음속에서의 비행인 것이다. 나는 최소의 노력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현인은 못되지만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노력도 아끼지 않는 근면성만은 가질려고 한다.

땀으로 함뻑 젖은 Table-mate가 교관과의 De-Briefing을 마쳤으니 이제는 나의 차례다. 비행인가서를 제출하는 순간부터 나의 비행은 시작되었다. 매일 반복되는 절차이지만 빠짐없는 점검을 위해서 반드시 Check-List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규정이다. 교관의 입회하에 철저한 외부점검을 마치고 좌석 내에 들어가서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근차근히 시동 전 점검을 실시했다. 오늘의 비행에서 조금이라도 더 성과를 거둬야 하겠다는 열의는 더한층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게 했으며 교관의 신호에 뒤이어 엔진은 돌기 시작했다. 이제 무거운 과물은 나의 연약한 손과 발에 의하여 움직였고 과물을 좀 더 잘 배워 보겠노라던 나의 결심은 실천에 옮겨졌다.

심혈을 기울인 한 시간의 과목은 대체로 양호하였고 땀으로 함뻑 젖은 몸을 지상에 내려놓을 때 만족의 미소를 스스로 지어 보았다. 조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속히 비행감(Flying Feel)을 체득해야만



한다는 금언을 오늘의 De-Briefing에서도 들었다. 또한 비행 중에는 항상 주의 분배력을 가지고 앞으로 닥쳐올 상태에 대비키 위해서 Think Ahead함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말도 들었다.

어제의 약점을 시정하고 조금이라도 향상된 오늘의 비행에서 Above Average의 Grade Slip을 받은 기쁨을 지닌 채 주식을 마치고 잠깐의 휴식이 있자 또 학과장으로 나가야 하는 바쁜 일과이런만 어쩐지 오늘의 나는 몸이 가볍고 경쾌한 기분으로 3시간의 수업을 마칠 수 있었다.

일의 발전해 가는 항공분야에서 우수한 조종술만이 훌륭한 조종사를 만든다는 것은 과거의 개념으로 변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규정 제약 등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이 수반함으로써만 오늘날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공중근무자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할 때 주어진 시간 내에 보다 더 많이 배워 보겠다는 욕구를 안 가질 수 없다.

하오의 체련(體練)은 석식의 왕성한 식욕을 돋우어 주었고 조용한 분위기에 둘러싸인 자습실에서의 오늘 저녁도 자신의 수양을 한 걸음 한 걸음 발전시켜주는 좋은 시간이었다. 오늘을 반성하고 내일의 발전을 기약하는 가운데 해는 저물고 새날은 밝으리라

조종학생 시절의 한 수기를 들치고 나니 과거의 추억이 새로워진다. 조종사 되기를 대망하며 하루하루의 고된 훈련을 이겨나온 보라매들 이제는 국토방위의 중차대한 신성한 의무를 지니고 전투부대에서 혹은 교육부대에서 각자의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다. 각자의 맡은 바 임무와 직책은 같지 않더라도 조종사로서의 공통적인 사명과 생활이 있는 것이니 이들의 하루를 적어 보기로 하자.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하늘을 쳐다본다. 하늘에 터를 둔 이들이 하늘의 조화를 중요시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며 어부들이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천기의 변화를 점 치듯이 조종사가 기상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상식으로 되어 있다. 청명한 날씨가 가져다 주는 비행의 호조건에 만족하기도 하고 검은 구름이 뭉게뭉게 머리 위를 덮을 때면 악천후와 싸울 결심도 하게 된다.

Flight Room에서는 그날그날의 과목에 대한 브리핑이 있으며 그에 따른 비행 안전계획이 세워지고 기상이나 기타 비행조건이 돌변이 있을 때의 처치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받고 또 자신이 연구하게 된다. 각 임무에 따른 정상 및 비상절차를 머리에 그려 보아야 하기도 한다.

한쪽에서 공중사격 브리핑이 편대장으로부터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는 지도를 펼쳐 든 편대장을 중심으로 대지업호사격임무에 대한 상세한 항법설명과 임무의 중요성을 강조받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조종사는 방공의 임무를 부여받고 Alert Room으로 무거운 개인 항공장비를 걸머지고 향한다.

이렇게 해서 아침의 분주한 시간은 흘러가고 일단 유사시 우리가 획득하여야 할 공중우세는 물론 방공에 있어서나 지상군지원에 있어서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실력배양에 일로매진한다. 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와 실천만이

공군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뜨거운 태양열을 받아 문자 그대로 열열(炎熱)하에 놓인 여름철의 Ramp, 그렇지 않으면 복풍이 사정없이 휘몰아치는 활주로의 끝머리에서 창공을 제패하는 남야의 슬기로우름을 가슴 깊이 지닌 채 오직 조국의 하늘을 수호하겠노라는 굳센 의지로서 뭉친 보라매들의 충천의 사기는 폭음과 함께 공중을 나른다.

비상의 벨이 울리기가 바쁘게 완전무장의 애기(愛機)에 몸을 싣고 방공대열에 나서는 젊은 이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으리라. 잠시의 휴식이라도 피로한 심신을 회복함에는 좋은 것이다. 대기실에서 전우와 함께 바둑이나 장기판을 사이에 놓고 흥겨운 시간을 가지거나 안락의자에 몸을 기대인 채 홀로 명상에 잠김도 비행 후에 긴장을 풀어주는 좋은 길인 것이다.

선배조종사들의 무용담, 경험담을 듣기도 하고 전우들의 실패담도 들어 피로써 얻어진 고귀한 경험을 자기 것으로 하는 기회가 또한 얻어지기도 한다. 각 조종사는 비행하는 외에 다른 직책을 가진다. 비행을 끝내고서 또는 비행 전이라도 자기에게 부여된 일 즉, 비행안전사업, 비행시간총계, 비품관리, Schedule의 조정 또는 비행의 표준화를 위한 일 등을 맡아 몸으로써 능력있는 장교의 소지를 함양하는 것이다. 자발적인 호응을 촉구하여 마지않는 안전사상의 고취를 위하여 때로는 희의를 가져 과거를 비판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토론해 보며 통일된 조작의 실천도 논해 보곤 한다.

이와 같이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과제들이 조종사 각 개인에게 부과됨으로써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하루면 24시간, 1년이면 365일을 간단없이 지켜야 할 우리의 창공은 Alert의 임무를 지닌 조종사들에 의해서 수호되고 있으며 멸공사상에 투철한 전조종사에 의해 영원히 보존되라, 미숙했던 기술을 연마하고 또 연마하여 어제까지 이룩하지 못한 과업을 오늘에 이룩하고 행복의 내일, 대망의 내일을 바라며 조국통일의 성업에 매진하는 조종사의 하루하루는 계속된다.

(제11전비단 제101 대대)



## 조종사(操縱士)의 생활(生活)

중위(中尉) 김 상 호(金相好)

소매를 걷어 올린 작업복에 기름때 묻은 작업모..... 오 척 단신에 불품없게 분주한 것이 여기서 볼 수 있는 정비사들의 모습이다. 하기가 체격이 늙고 호남인 ○중위나 ○상사같은 사람도 너 댕 잇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주름없는 뽕당마지에 까맣게 타 있으니 작은 까마귀에 큰 까마귀 격이다.

조종사란 이름이 나에게도 붙게 되고

나도 이젠 그렇게 생각하게 됨에 따라 몽당바지 기름때 클럽에 나도 한몫 끼게 되었다. 이젠 어떤 시시한 관상가일지라도 첫눈에 “당신 조종사 아니오” 할 것 같은 느낌이다.

수기란 제목을 대하고 보니 어떤 것을 썼으면 좋을지 약간 주저하였다.

쓸 것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실은 쓸 것이 너무 많아서이다. 수기란 손수 쓰는 것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정비사가 손수 쓰는 것이니 그 내용은 나의 정하는 바이기에, 나에게서는 너무나도 쓸 것이 많았던 것이다. 정비사의 걸 어온 길 이것도 좋은 제목이다. L-19시절부터 F-86에 이르는 동안 우리 정비사들이 얼마나 노력하여 왔으며 얼마나 경이적인 발전을 하여 왔는가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재료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제트기를 정비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공군이던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혹 모르시는 분은 알고 있어야 할 사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공군의 연혁이니까——이다.

그러면 정비사의 고난이라 제할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허용치 않는다. 고난에서 시작하여 고난으로 일관하는 우리 정비사하기에 오히려 이러한 호소는 어린애의 울음같이 되어 버릴 것이다. 비행기를 띄우기 위한 준비! 그것은 항상 시간의 절박함에서 면할 수가 없다. 고장 난 비행기의 수리! 그것은 언제나 부속품의 결핍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들에게는 명일(明日)의 임무수행을 위한 야간작업과 철야의 고장담구 그리고 비상대기——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한층 괴롭힌다. 세상에 쉬운 일이란 없는 줄은 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각자의 수양과 달관에 의해서 극복되고 광명화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극복하고 명량화해 나갈 수 있기에 이 이상 말하려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던 끝에 정비사가 보고 느끼는 가지가지— 이러한 Title로 몇 가지 적어 보기로 했다.

RUN-WAY를 달리는 이륙하는 제트기의 모습은 정말 멋있고 믿음직하다. 그러나 우리 조종사들에게는 일종의 감개가 있다. “308호로군! 저놈 뜯어 놓고 고칠 때는 다시 뜯까 싶지 않더니 그래도 뜨기만 잘 뜨네요!” “아직 한 번도 나쁜 데가 없데”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잠시 행복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일게다. 345, 831……. 꼬리를 물고 나는 비행기마다 우리에게는 그것과 더불어 지내던 지난 일들이 번갯불처럼 스쳐가고 하나하나의 이력을 마치고 가족의사처럼 죄다 알고 있다. 그러나 비행기가 고장 없이 나르고 있을 때라도 우리에게는 근심이 있다. 혹 도중에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만일 세 번 감아 주어야 할 곳을 두 번밖에 감아 주지 못했다면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언젠가는 제대로 해 놓지 않을 수 없다.

비행기를 수리하는 일만큼 손발이 맞아야 하는 일은 또 없을 것이다. 엔진, 기체, 유압, 전기, 통신, 계기,

어느 한 가지라도 결함이 있으면 그 비행기는 뜰 수 없는 것이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BRAKE의 부속품이 □□□ 모든 계통의 점검 수리가 완료된 비행기가 3대나 밀려 있게 되었다. 작업반에서는 최선의 방법을 다 했으나 문제는 신청된 부속(PARTS)이 나오지 않아 부득이 대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부속이 없다는 이유로 다 된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고 두어둔다는 것만 큼 정비사들의 기분을 잡치게 하는 건 또 없을 것이다. 일은 일대로 해 놓고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루는 보급을 맡아 보는 김일병이 만면에 희색을 띄워가지고는 혈떡이며 뛰어왔다.

“반장님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뭘이 나왔어 작업복이라도 나왔나?”

나는 김일병이 늘 작업복 때문에 투덜대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물었다.

“아니에요 BRAKE PARTS가 나왔어요 반장님!”

“뭘이 BRAKE PARTS가!”

“네 나왔어요!”

“정말루?”

“정말이요!”

“야야! 나왔구나 나왔어!” 나는 김일병의 손을 잡고 기쁨의 함성을 올렸다.

그것도 일순이고 나는 직시 작업대장에게도 뛰어갔다.

“대장님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뭘이?”

“BRAKE PARTS가 나왔습니다!”

“그래! 야 그거 잘 됐구나, 근데 얼마나 나왔어?”

“얼마나 나왔는지는 몰라두 하여튼 나왔습니다!”

“좋아! 좋아! 어디있어 그제!”

체면도 잊고 우리는 보급계로 달려갔다. 그리고 나 보다도 대장님이 조금 앞서 있었다.

비행기용 PARTS를 고대하다가 그것이 나올 때, 그때의 기쁨이란 건 정비사가 아니고는 그 누가 알 수 있으랴 정비사만이 느끼는 공통된 희열! 그때는 일등병이나 반장이나 대장 할 것 없이 백만장자나 된 것 같은 흐뭇한 감정이다. 정비를 하다 보면 웃지 못할 넌센스도 없지 않다. 한번은 고장담구를 할 때의 일이다. 대개 어느 계통에 고장이 났다 하면 그 SYMPTOM으로 보아서 어디가 나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그곳을 검사해 보면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도 나타나지 않을 때는 전계통을 전부 검사해 보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번은 전계통을 조사해 보아도 TROUBLE을 발견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이쯤 되면 지옥 3번지다.

위에서는 빨리 고쳐내라고 재촉하고 신경질은 나고 며칠 동안 골물해서 입맛조차 없다. 요즘은 기술 정도가 높아져서 그런 일이 없지만 조금 전만 해도 이런 고난이 가끔 있었다. 그래 모 중사가 그날 야간작업까지 하다가 그만 지쳐서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얼마나 정신을 썼던지 꿈에도 고장담구 작업을 계속 하다가 꿈에 해결이 되었는데 어떻게나 기뻐던지 그 환성에 잠이 깨었다 한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꿈의 방법에 의해

고장을 발견해 냈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열성이 오늘날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종사의 비극도 없지 않다. 한번은 반원 가운데 강병장이 자기 손을 보이면서 한숨을 쉬었다. “반장님 제 손 좀 보세요. 손이 이래서야 어디 연애라도 하겠어요” 정말 강병장의 손은 거칠었다. 손톱 사이에는 기름이 스며들었고 손 마디는 마디마디 두드러져 보였다. 그리고 그것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고 한다.

“아 글썄 집엘 갔더니 내 몸에서 기름 냄새가 난데잖아요”

“목욕을 안 한게지?”

“에 목욕을 안 해요.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하는데”

그러나 강병장은 그 후 결혼을 하였다. 그리고 보면 손이 연애에 방해되지는 않□□□□.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른다. 그 Hydraulic oil이나 Paint Remover 같은 것은 워낙 냄새가 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아직 미혼이다. 그리고 우리 작업대장님도 이유 없는 노총각이다.

## 후보생(候補生) 일기(日記)

김열회(金烈會)

나의 대학 시절은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다. 생각만 하여도 지긋지긋한 고생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부터 좀 풀리기 시작하였지만 사회란 학창(學窓)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 냉혹하였다. 졸업 후 2년동안 말할 수 없는 천대와 굴욕을 참아가면서 오직 살아야겠다는 의지만은 버리지 않았다. 내가 공군장교를 지망하게 된 동기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부여된 신성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심한 자책과 나의 내면생활부터 개선해서 좀 더 가치 있게 살아가자는 절실한 욕망에서였다. 모집 광고를 본 뒤로 시험을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직장에서 하는 일이 원체 바쁘기 때문에 책 한번 변변히 읽을 수 없는 처지이고 더구나 응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금년도 대학졸업생들이어서기가 꼭 죽어 일단 단념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친구들의 간곡한 권고로 마음을 가다듬고 마감 전날 서류 미비 때문에 옥신각신 다투어가며 가까스로 원서를 접수시켰다. 다행히 시험문제는 예기했던 것보다는 용이하여 12대 1이라는 격심한 경쟁을 물리치고 합격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드디어 입교통지서를 소중히 간직한 채운명의 4월 11일을 맞이하게 되어 벽찬 기쁨과 부풀어 오르는 희망을 가슴에 안고 지금 우리들의 안식처인 기술교육단의 정문을 들어서게 되었다. 위병소 정면에 커다란 글씨로 새긴 Welcome이라는 먹글자가 우리들의 장래를 축복해 주는 듯하였다. 그때만 하여도 아직 싸늘한 공기가 온몸에 스며들어 집을 떠나온 나그네의 가슴에 서글픔을 더해주었다. 그렇게도 애끼고 매만지던 머리가 사정없이 찢려 땅에 뚝뚝 떨어질 때의 심정은 결코 평온한 것이 못 되었다.

잠시 중의 머리가 되어버린 머리를 아쉬운 듯 손으로 어루만지며 서로들 바라보고 말없이 빙긋이 웃는 모습들이 더욱 우습다. 그날부터 구대장들이 정해지고, 안내를 받아 우리들이 수 개월 동안 생활할 내무반에 들어갔더니 벌써 침구를 비롯해서 훈련복, 예복, 모자, 심지어 연필, 노트, 바늘, 실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물건이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된 위치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우리들의 내무반은 일류 Hotel에 못지 않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데 놀랐다. 스팀, 수세식 변소, 냉온수를 다 같이 쓸 수 있는 수도시설과 깨끗한 침상 등은 우리들이 사회에 있을 때에도 흔히 볼 수 없던 것이었다. 들어온 날로부터 약 2주일 동안 중대장을 비롯하여 전 구대장들이 우리들과 기거를 같이 하면서 내무교육을 비롯하여 군생활의 기초적 지식을 가르쳐 주었다. 사실 말이지 이 기간 동안이 가장 고통스러운 때였다. 아직 군대생활에 미숙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틀이 생기고 이에 대한 대가는 연속적인 기합이 가해지는 것이다. 우리들이 몸소 체험한 기합의 종류는 수십 가지가 되지만 그것은 주로 이 기간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에는 사회에서 자라난 정신을 뿌리채 뽑아 버리고 완전한 군인정신을 주입시키기 위하여 소위 인간개조, 정신수술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수많은 기합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도 재미있는 것은 매트리스 맘보라는 것이다. 맘보하면 무슨 영당을 몹시 혼드는 것쯤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 매트리스를 어깨에 메고 구보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추운 날씨에도 작업복 한 벌을 몽땅 적실만치 땀이 흐르고 밤중에 연병장을 등그렇게 도는 모습은 마치 인디언들이 춤을 추는 것과 비슷하다. 내부 생활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통일이다. 관물의 위치나 정돈, 신발의 위치와 심지어는 수건을 접는 법에 이르기까지 군대생활에 있어서 통일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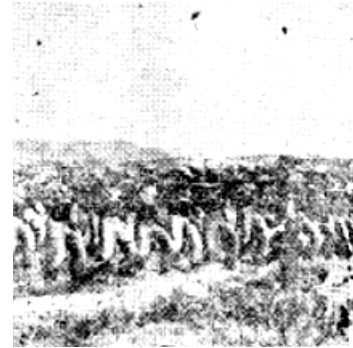
이 통일 때문에 가장 골치를 앓는 것은 침구정돈이다. 잘못하면 폭격을 당하기 일쑤이기 때문에 자고 깨면 담요를 이빨로 물어뜯고 이불에 줄을 세우는다고 법석거린다. 이젠 침구를 개어놓으면 사방에 각이 쳐서 꼭 두부를 잘라 세워놓은 것과 꼭 같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침구의 줄이 일직선이 되어 있어 누구나 한번 보면 탄성을 발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침구 정돈을 하는 데 있어서 불과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것으로 보면 군대교육이 얼마나 무서운 성과를 나타내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군대교육의 성과는 일석점호를 통해서 검토되고 시정해 나간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어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것은 맨 첫날 받은 일석점호행사이다. 그날이 아마 4월 14일이라고 기억되는데, 사전에 점호에 관한 상세한 교육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와 같은 불호령이 떨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였다. 우리 신입생으로서의 그야말로 있는 힘을 다하여 점호에 대비하였지만은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한데도 많았으리라고 생각된다.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와서 점호가 실시되었다. 책상, 청소함을 뒤집어 엎고, 재떨이가 공중에 날을 뿐만 아니라 벽력같은 구대장들의 고함소리는 신축 병사(兵舍)를 쟁쟁 울린다. “어이, 귀관” 하고 지적을 당하면 목소리가 목구멍에 꼭 얼어붙어 혀가 굴러지지를 않는다. 너나 할 것 없이 겁에 질려 얼굴이 새파랗게 되고, 두 다리가 와들와들 떨릴 뿐만 아니라 턱 끝이 딱딱 마주치는 소리가 들릴 정도다. 낮에 일꾼 외운 제목적이 까맣게 잊어져서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맴돌다가 사라지곤 한다. 일각이 삼추 같다는 말은 아마 이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일 게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나 하는 후회가 절실하였고 당장이라도 보따리를 싸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날이 밝으면서부터 그 지긋지긋한 일석점호를 어떻게 넘기나 하는 근심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이러한 지독한 시련을 통해서 정신력이 차츰 강해지고, 만난(萬難)을 극복할 수 있는 투지가 생겨난다.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받고 있을 때에 4월혁명이 한참 성숙되어 갔기 때문에 후보생들에게 조그마한 틈도 주지 않으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사실 그때에는 세상일에는 아주 감잡이어서 조그마한 풍문에도 수근거리 교육에 크나큰 장애를 줄 염려가 있어서 이러한 교육방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나 하는 것을 지금에야 이해할 수 있다.

보리밭의 보리씨가 제법 예쁘게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식당 주변의 잔디밭 위에 철쭉꽃이 아름답게 피어오를 때에 철조망 바깥 세상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른다.

철이 바깥에 따라 산과 들에는 새싹이 싱싱하게 피어나고 호남선을 달리는 열차의 기적소리가 Vo-하고 긴 여운을 남길 때에는 집에 대한 향수에 미칠 것만 같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스러움도 4주 말이 고비였다. 여지껏 금지되었던 모든 것이 해제되어 주보(酒保)출입과 외출이 허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보생들에게 자치능력을 인정하여 자치회가 발족하였다. 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일은 후보생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일임되었다. 이 자치회가 생긴 뒤로 우리들의 생활은 모든 면으로 놀란 만큼 향상되었다. 후보생 개개인이 우리 14기 각종의 명예를 위해서 잘해 보겠다는 새로운 의욕이 솟구쳐서 사업의 계획과 실행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기술교육단 안에서 우리 장교후보생들에 대한 칭찬이 대단하였다.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모든 자유를 준 것은 학교당국에서 여지껏 받은 교육성과를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장 즐거웠던 일은 첫 외출 때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달 동안 장안의 새처럼 제한된 생활을 해 오다가 모든 자유와 외출이 동시에 부여되었으니 말이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아침저녁으로 느끼던 한기도 눈 녹듯이 사라지고 기타 캠퍼스에 차츰 초록색의 녹음이 짙어지는 5월 8일 몇 대의 트럭에 분승하여 깨끗한 아스팔트 위를 세차게 달릴 때에 길가에 핀 클로버 꽃잎에서 그윽한 향기를 풍겨주어



한층 마음을 흥겹게 한다. 시원스러운 원피스로 곱게 단장을 한 여인들이 인어처럼 싱싱해 보이고 극장이나 다방에서 흘러나오는 Melody가 꽤 이상스럽게 느껴져서 마치 별유천지(別有天地)에 온 듯하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첫 외출에서 받은 깊은 인상은 내 가슴속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들은 모든 책임을 다할 줄 아는 기질을 기른다. 일주일마다 나오는 방대한 양의 숙제를 한 사람도 않는 법

이 없어 지정된 시간 안에 모두 마친다. 아침저녁으로 오락실에 들어가서 듣고 싶은 명곡을 감상할 수 있고 보고 싶은 서적은 무제한으로 도서관에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 있을때에 못지 않게 정서면을 함양한다. 그리고 자치회는 학교 당국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우리들의 좋은 의견이 꽤 많이 반영되고 있다. 그야말로 민주적 교육의 표본이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모든 계획은 후보생 제일로 수립되고 후보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100% 들어주고 있다. 입교한 지 4개월밖에 안 되는 우리들이 벌써 두 번씩이나 위로 휴가를 갔다 오고 찌는듯한 폭염 속에서 훈련받는 우리들의 건강을 위하여 거대한 설비의 샤워장을 만들어 놓았다. 처음 입교할 때만 하여도 험쵸한 모습들을 한 학사님들이 이제는 햇볕에 검게 거슬려져서 근육이 무쇠덩이처럼 단단해 보이며 체중이 평균 2kg이 늘었다고 기뻐 날뛴다. 허기야 나만 해도 직장에 있을 때에 워낙 절제없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몸이 꽤 허약한 편이었지만, 지금은 그 고된 훈련도 무난히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가끔 콩나물국에 먹는 보리밥이 어찌 그렇게 맛이 좋은지 어느 때에는 내 뭇을 제빨리 먹어 치우고 열의 맨 뒤에 슬쩍 기어 시치미를 떼고 한 그릇씩 더 먹지만 그래도 시원치 않을 때가 있다. 기기 내에 울창한 녹음은 마치 나의 모교의 캠퍼스와 흡사하여 어디를 가든지 공원과 같은 느낌이 난다. 이러한 자연 속에서 호흡하고 같이 생활하는 장교후보생들은 정직과 용기와 지식 이 세 가지를 생명으로 알고 있다. 각종 장교라는 의미가 일러주듯이 각기 전공분야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어떤 문제를 토론하고, 또 해결해 나간다.

이제 앞으로 있을 약 10일간의 해양훈련을 제해 놓고 보면 교육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좀 더 마음의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여 임관하는 날에는 아주 새로운 사람이 되어 보리라고 굳게 결심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 전파방해(電波妨害)란 어떤 것

<E.C.M 해설>



양신석(梁震錫)

ECM은 Electronic Counter-Measure의 약자로서 전파방해를 뜻한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적의 레이더 및 통신장비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바로 ECM인 것이다.

ECM은 현대전에서 중요한 무기의 하나이다. 적으로부터 고의적으로 받는 전파방해나 우군의 레이더 또는 통신장비로부터 받는 전파의 혼신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레이더는 전연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모든 학문이 완전하지 못하듯이 효과적인 ECM 도 완전한 것은 못 된다. 이제 ECM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 ECM의 역사

ECM의 역사는 아주 짧다. ECM의 첫 시도는 1939년에 독일이 영국의 레이더 위치를 탐지하여 레이더의 주파수, PRF, 유효범위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Zeppelin 비행선에 ECM 장비를 장치하여 사용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때 불행히도 독일군의 Zeppelin 비행선에 장치된 탐지장비가 고장을 일으켰던 것이다. Operator는 상부에 장비의 고장보고를 한다면 그에게 가해지는 형벌이 두려워 적(영국)으로부터 아무런 신호도 받지 못하였다고 허위보고(虛偽報告)를 하였다. 이 허위보고로 인하여 독일의 군사 고위층에서는 영국의 레이더를 과소평가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전쟁 후기에 이르러 치명상(致命傷)을 입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1940년에 영국의 윈스톤 처칠 경은 빔의 전쟁—Battle of the Beam이란 말을 사용한 일이 있다. 이 빔의 전쟁이 바로 ECM—다시 말하면 전파전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 후 독일군은 프랑스로부터 영국의 런던으로 향하는 독일군의 폭격기를 유도하기 위하여 좁은 비입을 한 방향으로만 발사(發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영국군은 이를 막기 위하여 독일군의 전파를 잡아 방향성이 없는 안테나로 다시 발사함으로써 독일군의 계획을 깨트렸다.

이처럼 시작된 ECM은 2차대전 중에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으며 적의 레이더를

마보처럼 만들고 놀려 주는데 가장 좋은 성과를 얻도록 된 것이다.

### 電波妨害(JAMMING)

Jamming이라 함은 강한 방해 전파를 발사하여 적의 레이더 또는 레이더에 대하여 수신을 방해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전파방해에는 전자적 전파방해(Electronic Jamming)와 기계적 전파방해(Mechanical Jamming)의 두 가지가 있다.

### 전자적 전파방해(電子的 電波妨害)

전자적 전파방해는 적이 필요로 하는 신호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강한 전자신호(Electromagnetic Signal)를 발사함으로써 적의 레이더 또는 레이더를 혼란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이 Electronic Jamming은 Barrage Jamming과 Spot Jamming의 두 가지로 나눈다.

1. Barrage Jamming…… 이는 2차대전 때에 많이 쓰인 것으로서 적진에 들어가는 대폭격편대가 사용한 방법 중의 하나였다. 이것은 항공기에 수많은 전파방해 송신기를 탑재시켜 그 송신기로 하여금 전체의 주파수대에 동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적의 Radar Coverage 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전체의 송신기를 일시에 동작시켜 적의 레이더로 하여금 목표물 탐지를 불가능하게 하던 방법이다. 이 방법은 Operator에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는 것이 장점이지만 많은 장비를 필요로 하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 결점이다.

2. Spot Jamming……이는 어떠한 한 지점에 대하여 행하는 전파방해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어느 특수한 적의 레이더 주파수에 전파방해 송신기를 동조시켜 그 지점으로 계속하여 전파를 발사하여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서 현대전술 작전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이 Spot Jamming은 ECM Operator가 적의 레이더 주파수대 및 정확한 지점을 알아야 하기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 기계적 전파방해(機械的 電波妨害)

기계적 전파방해라 함은 전파에 대한 반사물(反射物)을 사용하여 적의 레이더에 전파방해를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반사물(Reflector)은 Radar Echo를 만들기 때문에 보통의 목표물과 마찬가지로 레이더에 Target로서 나타나고 적은 이로 인하여 목표물을 식별하는데 골탕을 먹게 된다. 반사물 중에서 Chaff와 Rope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된다.

Chaff jamming을 할 레이더 주파수의 1/2파장 길이로 자른 얇은 금속조각으로서 하나하나의 조각은 다이폴 안테나(Dipole Antenna)의 역할을 한다. 이 반사물은 레이더의 신호를 받으면 즉시 각 방향으로 그 신호를 반사하게 되며 이 반사신호 중에 다시 레이더로 돌아가는 것은 항공기와 똑같은 목표물을 스크루에 나타나게 한다.

Chaff는 아주 높은 주파수(300-1100MC)에서 사용된다. 이보다 낮은 주파수는 1/2파장의 길이가 꽤 길어짐으로 Chaff를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이때에는 Chaff 대신 Rope를 쓴다. Rope는

알미늄으로 만든 얇고 길다란 것으로 리본(Ribbon)과 같이 되어 있다. Rope 한 쪽을 약간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에 흔들리며 내려 오면서 Chaff와 같은 방법으로 Jamming을 하게 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Chaff나 Rope는 효과적으로 목표물을 가려줌으로써 항공기는 적진 깊이까지 들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 반전파 방해 수법(反電波 妨害手法)

어느 레이더가 전파방해를 받게 되면 사이트에서는 장비의 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Operator는 전파방해의 영향을 최대한도로 제거하기 위하여 반전파방해(Anti-jamming)를 하여야 한다.

전파방해를 받은 여러 레이더 사이트에서는 각기 얻은 Data를 종합하여 전파방해를 가한 항공기 또는 지점의 위치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 한 레이더에서만 전파방해를 받았을 때에도 Jamming을 하는 대략적인 위치를 알 수 있다.

어떠한 레이더는 주파수를 변경함으로써 Jamming의 영향을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다. 그때 적이 변경된 새 주파수를 탐지하려고 시도할 때 한두 Sweep 동안은 안은 레이더 스크린에서 Jamming을 가하는 Target를 찾아낼 수 있다.

또 주파수를 변경할 수 없는 레이더는 전파방해를 받았을 때 안테나를 계속 하여 돌리되 송신(Radiation)만을 잠시 중단시켰다가 다시 송신을 시키면 전파방해를 가하던 항공기를 탐지해 낼 수 있을 때도 있다. 적기는 이때 레이더가 주파수를 변경하지 않았는가 하고 다시 한 레이더 주파수로 전파방해 송신기를 동조시키려 할 때를 틈타 레이더가 적기의 위치를 알게 되는 것이다.

전파방해를 하여 관제사(Controller)를 당황하도록 만들어 작전을 효과적으로 방해하면 Jamming은 100%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다. 따라서 전파방해를 받았을 때 첫째로 필요로 하는 것은 침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전에 전파방해를 받게 된다는 정보를 사이트에 줌으로써 Jamming이 나타났을 때의 대책으로서 반전파방해 회로(Anti-jamming Circuit)를 사용한다든가 장비를 계속 동작시켜 전파방해를 받는 상태 하에서도 침착한 가운데 가능한 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다.

처음 전파방해를 받게 되면 Operation 근무자는 maintenance 근무자에게 통보 하며 그들은 상부에 전파방해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전파방해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가 적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이 개념은 미상의 목표물을 식별하고자 하는 난문제를 제거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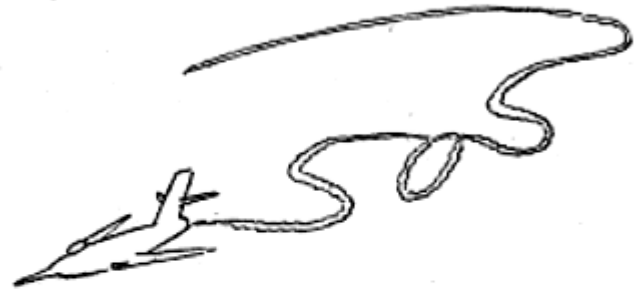
전파방해로 인하여 레이더로부터 갑자기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하게 되더라도 장비는 그대로 동작시켜야 한다. 또한 전파방해로부터 빠져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파방해는 완전무결하게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전파방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가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다. 적이 노리는 중요한 점은 전파방해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이상 목표물을 탐지하지 못하며 control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의 모든 일과 책임을 포기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 속으로 휘몰아 넣는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만화 에어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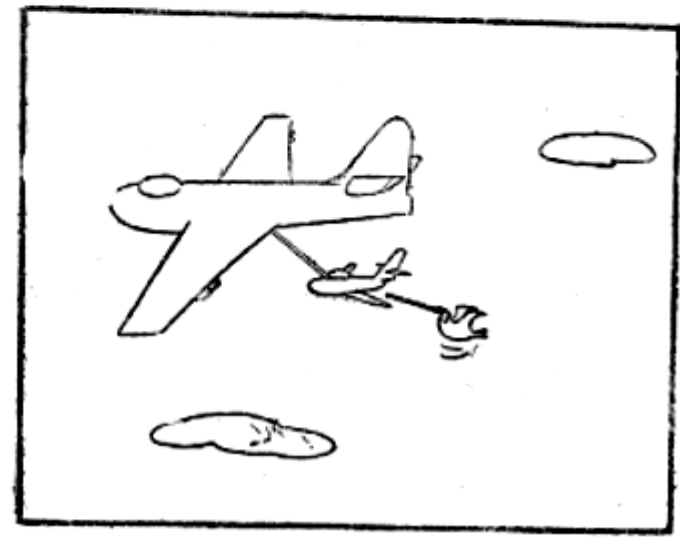
CARTOON AIR SHOW

정 을 경

비행은  
"무전이 고장났다"



"무전 고장났다"는 한문제를 제거해 줄 것이다



# 하늘의 일기

이상호 (李相昊)



- 조종사의 아내 -  
 「오늘 또 올렸군...  
 일찍 돌아와 극장에  
 가자 하더니... 또 올  
 렸군...」



「김대위님! 이것 갖다  
 가서야죠...」

순국산 세계제일편리지□물(純國產世界第一便利之□物)



「이르! 큰일났군  
 폭탄인줄 알구 라이아  
 를 잘못 던졌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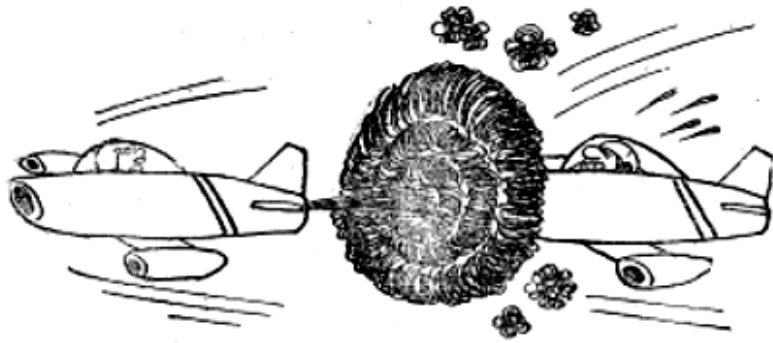
「김대위가 어제밤  
 또 외박한 모양이군  
 내려오지 못하는것을  
 보나...」

「내려 오기만  
 해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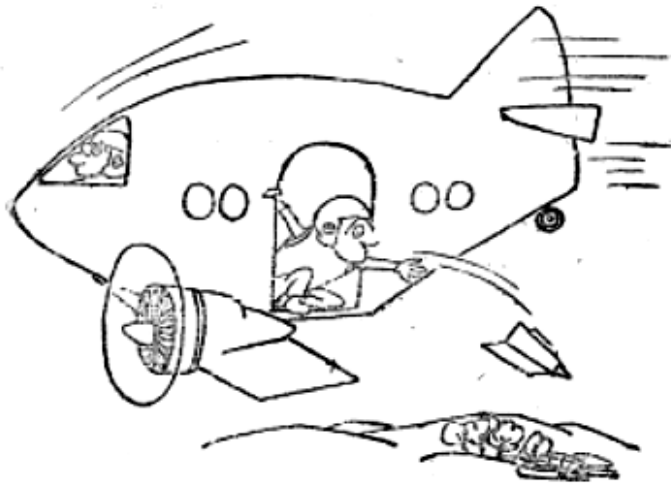
「저 친구 또 양달배  
 를 피우고 싶었음 모양  
 이군... 하두 지상에  
 서 씨끄럽게 노는  
 까...」

# 급행피서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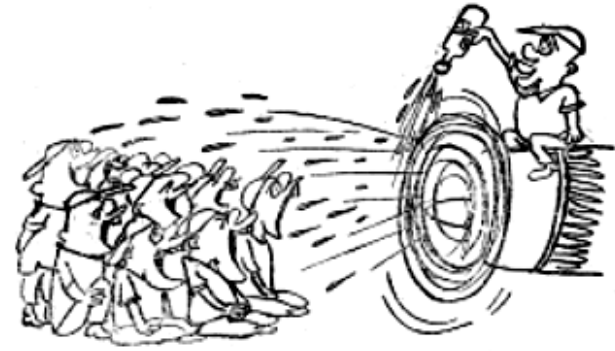
정한기(鄭漢基)



※무지무지한 방구※ 『자식! 감정(感情)있나베! 또 귀게...』



※『내고향(故鄉)에 직선(直線)한  
장보내오리다』※



※『공평무사(公平無私)하게 한밤을  
식(式) 나누어 마시자구나』※

※공부기(空賦機) 출현(出現)  
(?)※



※칠석(七夕)날※  
『앗차! 실례(失禮)했습니다!』







**2차의 대전(大戰)에서 한국전쟁(韓國戰爭)까지**

1. 인류(人類)의 꿈
2. 완전(完全)한 비행(飛行)으로
3. 1차대전과 항공기(航空機)의 공로(功勞)
4. 미국(美國)의 제1차대전 참가(參加)
5. 도양항공시대(渡洋航空時代)는 오다
6. 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과 항공기(航空機)의 활약(活躍)
7. 제트시대(時代)의 도래(到來)
8. 한국전쟁(韓國戰爭)과 제트항공(航空)의 활약(活躍)

이인섭(李仁燮) 역

**인류(人類)의 꿈**

하늘을 날려는 정열은 인류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별로 신기한 것은 아니다. 낡은 목판화나 석판화 혹은 전설 속에서 새와 같이 날아보려던 동경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결코 살 수 없는 인간이 무한한 공중으로 상승하여 훨훨 날아 보려던 이상의 실현은 실로 오랜 역사를 통하여 끈기있게 계속되었고 마침내 우리는 이것을 성취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과학의 시대가 시작되기 수 천 년 전 문명의 진화가 지지하였던 시기에 인간은 자기들의 몸을 훨씬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몇 가지의 기계적 수단을 발달시켰다. 많은 고난을 무릅쓰고 간단히 뗏목이나 소주(小舟)를 이용하여 바다로 저어나갈 수 있었으며 거륵(車輪)의 발견을 계기로 하여 지상의 여행이나 수송이 신속 용이하게 실현되었던 것이다.

인간이 열심히 신비적인 위대한 대공을 나는 꿈은 이미 이천여 년 전의 희랍신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신화에 의하면 크레타도(島)의 크레타왕조 최강의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미노스 왕의 총애를 받아오던 무류의 천재적 건축가 다이다로스가 뜻하지 않던 미움을 받아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그와 같이 투옥된 아들 이카르스가 날개를 만들어 몸에 달고 부자가 함께 탈출하였다는 줄거리이다.

이와 같은 신화시대가 끝나고 가장 비용적이며 과학적인 생각을 가진 자는 1452년 투스카니아에서 탄생하여 생전 뛰어난 재능을 수없이 발휘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이다. 해부의학까지 배운 이 위대한 예술가는 인간이나 다른 동물 혹은 조류의 골격이나 근육의 구조, 관절 접합 등을 연구하여 후일 복엽(複葉)의 풍차식 날개를 연구한 바 있었던 것이다.

중국에서도 기묘한 공중여행을 시사하는 고대판화가 있었다. 17·18세기에 그려진 듯한 2매의 관화의 1매에는 배와 같은 형태의 상자, 타의 1매는 우거(牛車)의 형태를 한 상자가 각기 풍차형의 외거로 진행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

1678년, 당시 프랑스의 일 과학잡지는 베스니르라는 발명가의 착상이라고 하여 지금도 공상적인 죽동비행기구의 설계도를 실었다. 1783년 프랑스 부랑카르는 야심적인 비행 곤도라를 고안한 바 있었다.

**완전(完全)한 비행(飛行)으로**

초기의 선구자들이 겪은 허다한 곤란을 극복하고 오랫동안의 꿈을 실현시킨 자는 미국인 라이트 형제였다. 고등학교마저 다니지 못한 이 두 형제는 기질에 있어서는 연구심이 왕성하며 생래불굴(生來不屈)의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다. 자전거 수리점을 경영하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1903년 12월 17일 마침내 인류의 소망을 이루어 852피트의 거리를 고도 14피트로 59초나 날랐던 것이었다.

라이트 형제는 비행실험의 초기에 미국 육군성에 그들의 비행기를 보였지만 아무런 흥미도 받지 못하였다. 그 반면에 영국은 데이튼까지 시찰원을 보내어 동비행기를 시찰케 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프랑스도 웨벨르 대위를 현장까지 보내서 시찰케 하였다.

1905년 라이트 형제는 그동안 엔진을 개량하여 새로운 비행기를 만들고 마침내 38분간에 걸쳐 24리를 비상하였다. 두 형제는 이때 다시 미국 정부에서 서한을 보내어 그들의 발명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역시 각하되었다.

이때 브라질인 산도스 듀몽드가 유럽에서 최초의 비행공인기록을 수립하였으나 비행시간은 불과 8초였다고 발표되었다.

라이트 형제는 선전목적으로 마침내 이 비행기를 프랑스로 가지고 갈 것을 결심하고 배에 실어 프랑스로 향하였으며 육군 관병실에서 1시간 이상을 비행하여 프랑스인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1909년 라이트는 유럽에서의 선전비행을 끝마치고 미국으로 귀국하여 육군에 납품하기 위한 비행기의 제작에 착수하였고 동년 7월 30일 벤자민 파로아 중위와 동승 태프트 대통령이 친임(親任)한 가운데 개최된 비행시위에서 시속 42리로 14분을 날랐으며 이로써 육군에 인정되고 보상으로

5천 불을 받았으며 수많은 공로훈장까지 가슴에 가득히 달게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세계의 항공계는 급속도로 발전을 시작 불과 50여 년 후인 오늘날은 이미 우주를 지향하여 날려는 항공시대를 초래한 것이다.

### 1차대전과 항공기(航空機)의 공로(功勞)

1912년까지 독일인들의 비행기에 대한 인식은 활발한 것이 못 되었으나 프랑스군이 전쟁에서 탄착관측이나 항공사진용으로 비행기를 이용하는데 착상하여 1914년까지 600대 이상의 비행기를 제작하였다.

1911년에 프랑스는 200대 이상의 비행기와 각 비행기마다 예비조종사까지 양성하였다.

보수적인 영국은 그때까지 왕립해군의 전통적인 신뢰에 의존하여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으나 1912년까지 육해군 장교들의 완미(頑迷)한 편견을 물리치고 왕립비행병단을 편성하였다.

대전이 발생한 최초의 수주 간에 영국정규군의 일대는 프랑스의 일대와 파리로 진격하여 오는 독일군을 저지하고 있을 때 당시 영국공군은 거의 전세력을 동원하여 실전에 참가하여 독일군 이동상황을 정찰하는데 불멸의 공을 세웠다. 이때로부터 비행기의 위력에 의문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다.

대전의 초기에 있어서 공중에서의 비행속도에는 커다란 관심이 없었고 다만 병력이동상황이나 탄착거리의 관측 등 주로 정찰임무의 수행에 이용하였을 뿐이었지만 때마침 피아의 비행기간에 상호간의 항공활동을 방해 내지 공격하기 위하여 소총이나 자동권총 혹은 수류탄을 서로 투척하기 시작하자 여러 모로 재검토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등속사격장치가 속도적으로 우세한 견인식 비행기에 설치되고 기관총을 프로펠라의 회전속도에 맞추어 일정속도로 발사하게 되었으며 1915년 포획한 독일전투기에서 등속 발사장치를 발견하여 연합군측도 즉시 이를 모방하여 만들게 되었다. 양군의 전투부대의 비행대가 기관총을 장비하게 되고 공중전의 신전략이 확정되자 조종사들은 마침 독일군이 고안한 방어용 V자형 편대비행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중전이 일익증가되기 시작하자 자연적으로 적기를 다수 격추시킨 조종사들이 영웅시 되기 시작하였고 하늘의 용사라는 칭호가 이때부터 유행되기 시작한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다.

프랑스 공군의 MS.23형기를 조종한 로당 가로는 연합군에서 최초의 에이스가 되었다. 1919년 5월 독일 조종사 리히토헨 남작에게 격추당한 영국의 알버트 볼 대위는 비행기 조종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계라고 일컫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정도이며 여하한 천후(天候)에도 불구하고 출격하여 시계에 들어오는 적기에 대하여는 승산 유무에도 불구하고 돌진하는 맹장으로써 전사 전까지 43대를 격추시켰다. 그 후 캐나다인의 윌리엄 비숍씨는 대전 말기까지 격추확인 72대라는 영국의 최우수 하늘의 용사가 되었다. 그의 공중훈련상황의 일단을 소개하면 병영의 조리실에서 강통을 싣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선회를 하면서 이것을 낙하시키고 떨어지는 강통을 따라가면서 사격훈련을 하는 귀신같은 조종사였다. 리히토헨

남작은 전사 전까지 80대를 격추하였다.

### 미국(美國)의 제1차대전 참가(參加)

미국이 1차대전에 참가하였을 때는 공중전투는 중대계급에 들어가 있을 때였다. 1917년까지 미국정부는 자국의 입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국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각지에서 수천 명의 조종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비록 미국 비행대가 참전한 것은 뒷일이라고 하더라도 대전의 중요시기에 그들이 공헌한 바는 전국의 결정적 요소로 되어 연합군을 승리로 인도한 계기가 된 것이었다.

미국공군장교 중에서도 가장 용명을 떨친 빌리 밋첼 장군은 선견지명이 있는 정력적인 장교로써 미국군복을 입고 적진상공을 횡단한 최초의 장교였다. 그는 참전 후 1년이 지난 1918년 여름까지 미국공군을 편성하여 선전하였다.

미국에 최우수 용사였던 에디 릭켄베카 대위는 26대 격추기록을 가졌으며 최초는 경주용 자동차 운전수로서 출발하였다

1914년의 대전시 각국 공군의 지도층은 누구든지 광범한 훈련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긴급사태로 단독비행시간 불과 30시간 정도로 전투에 참가하였던 것이다.

### 도양항공시대(渡洋航空時代)는 오다

1918년 대전종결과 더불어 과거 조종사였던 많은 청년들은 그들의 비행기술을 살리기 위하여 구직운동에 나섰다.

미국정부는 당시 보유기 1만 대로써 과잉상태에 있었으므로 나머지는 민간인에게 불하(拂下)하였으며 이것을 불하받은 많은 조종사들이 비행곡예사업까지 한 일이 있었다. 런던 데일리 메일지는 미·영간 최초의 무착륙 비행에 대하여 상급제도를 설립하였다. 미국 해군의 NC4호기는 약천후에도 불구하고 3천 9백 36리의 비행을 성취하고 1만 방(磅, 파운드)의 상금을 받았다.

후전 후 미국으로 귀환한 빌리 밋첼 대위는 전쟁의 쓰라린 경험을 교훈으로 가공할만한 항공무기와 방위대책의 중요성을 일반에게 설득하는데 부심하였다. 그러나 그의 반대파들의 치열한 반대를 받아 많은 난관을 격파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공중력을 근대화하여 국방군을 육·해·공 3군제도로 할 것을 강조하여 의회에서 요구하였으며 이어 진주만 내에 정박한 함대가 공중공격의 절호의 목표로 된다고 예언할 때 그의 반대파들의 미움을 최고로 받았으며 마침내 그는 궁기불복중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1936년 2월 그가 죽을 때까지 항공무기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었다.

1927년 여름 찰스 린더버그는 미국에서 파리로 무착륙 비행에 성공하여 세계 항공사상 위대한 전기를 이루었다.

1923년에 알 윌리엄이 제작한 시속 166리의 비행기가 세계 속도기록을 수립하였고 1924년 프랑스의 보네병조장(兵曹長)이 시속 278리, 32년에는 쟈스 두릿들이 시속 294리, 33년에는 쟈스 웬텔이 시속 304리, 34년에는 프랑스의



레이몽 데르뫼트가 시속 324리, 35년에는 화워드 휴즈가 시속 352리, 37년에 독일의 헤르만 뵤스타가 시속 379리, 1939년에는 후릿즈 뵤텔이 시속 469리의 기록을 세웠다.

세계일주비행은 비상한 인기를 집중시켰다. 1931년 윌리 포스트는 록키드 단발기, 위니 메 호로써 8일 만에 세계일주 비행을 성취하고 익년에는 7일 만에 세계일주를 하였다.

1938년, 하워드 휴즈는 4명의 승무원과 같이 록키드 쌍발기로써 전함정 1만 4천 7백 91리를 4일 만에 일주비행하여 기록을 세웠다.

### 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과 항공기(航空機)의 활약(活躍)

일본공군의 진주만공격에 충격을 받은 미국은 급속도로 국가군사태세의 재검토에 들어갔다. 미국이 추축국측에 선전포고한 수일 후 처칠 수상은 영국공군 참모총장 찰스 폴탈 중령과 폭격기부대사령관 아더 하리스 중장을 포함하는 군사고문단과 같이 신에전함 듀크 오브 요크호로 향미(向美)하였다.

미국은 진주만에서 받은 경험은 이것이 처음이지만 영국은 이미 당게르크에서 자국군대가 괴멸된 경험을 가졌던 것이다. 진주만에서의 미국함대가 대손해를 받아 불과 2척의 전함 밖에 없었는데 반하여 일본은 동지역에 10척의 전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대타격을 받기 전 미국은 총계 9천 대를 보유하고 그 중 연습기 백대를 포함하여 1천백 대를 해외의 기지에 분산하여 두었다.

속명적인 그날 아침 당시 하늘의 요새로써 이름을 떨친 B-17 17대의 편대가 마침 하와이로 향하고 있었는데 희갑 비행장의 관제탑에서 쌍안경을 들고 있던 1공군대령은 수평선 저쪽에서 비행기의 대편대가 진주만으로 비행하여 오는 것을 안심하여 보고 있었을 뿐이었고, 대편대군이 만상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동체에 일장기가 그려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이미 그때는 늦어 만 내에 있던 86척의 함선을 향하여 맹렬한 폭격을 가하고 있었으며 1시간 만에 걸친 일본군 공격 뒤에 이상의 B-17편대도 대손해를 받았으며 비행장도 수라장(修羅場)화되었다.

이 시기는 연합군측에서 실로 암담한 시기였다. 처칠 수상이 미국으로 향발하기 전 영국전함 푸린스 오브 웰즈와 레팔스 등 2척이 마라이 해상에서 격침 당하여 연합군의 해군력은 극도로 쇠퇴하였다. 루즈벨트와 처칠 양거두회담시 폴탈 영국공군중장은 영국공군의 정보에 의하면 일본의 실전기는 불과 3천 6백 대이며 월산능력은 3백 대라고 브리핑하였다. 진주만에서 공격을 받지 않은 미국항공모함을 사용하여 일본본토기습을 감행하자고 아놀드 대장에게 말한 바도 있었다.

당시 연합군은 추축군측보다도 우세하여 영국이 월산 2천 5백 대, 미국이 당초 월산 3천 대, 소련의 월산 1천 5백 대를 포함하면 월산 총 7천 대로 되었으나 반대로 일, 독, 이 3개국을 합하여도 총 3천 5백 대밖에는 되지 못하였다. 이때부터 미국의 전산업은 전시체제로 바뀌어지고 항공기공장은 대확장을 거듭하여 예전대 보잉항공회사는 월산 75대로 증산하게 되었다.

영국은 장병의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프랑스의 피점령지대에

있는 적목표를 시험적으로 야간폭격하기로 결심하고 암야를 이용하여 영불해협을 떠났다. 고도 2만 5천 피트 상공에서 지상에 있는 드럼통을 명중시킬 수 있다고 장담한 탑승원들은 맹렬한 폭격을 가하고 승리의 귀환을 하였다.

유럽에서 영국군이 선전하고 있는 동안 태평양지역에서 미국도 허다한 난관을 무릅쓰고 선전에 선전을 계속하고 있었다. 고레히돌 도(島)에서 포위된 맥아더 장군은 수많은 부하를 뒤에 두고 미국해군의 존 바크레이 중위가 지휘하는 어뢰정으로 야음을 이용하여 가족과 더불어 탈출하고 민다나오 도(島)로 향하였으며 거기서 낡은 B-17폭격기 1대를 수리하여 오스트레일리아로 날아갔다.

이렇게 하여 다시 비올벤(필리핀) 재탈환과 일본본토 침공을 계획하고 있었다. 독일군은 당시 소련진격을 저지당하고 있었으나 완만하지만 확실한 속도로 대서양연안에서 승리를 획득하고 있었으며 연합군은 인명이나 물자에 대대한 손해를 받고 있었다. 일본군은 한편에서 싱가포르, 자바, 뉴기니아를 탈취하고 오스트레일리아나 뉴질랜드까지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다.

1942년 4월 18일 일본 동경에 대한 최초의 미국공군의 백주폭격 보도에 연합군의 사기는 충천하였다. 완벽한 계획과 공모이함(空母離艦) 훈련을 받은 지미 두릿들이 지휘하는 폭격기 편대는 일본본토 650리까지 접근한 항공모함 호넷 트로부터 B-25 미첼 폭격기 15대로 출격하였다. 이들은 목표의 동경에 도착, 공장시설, 물자집적소, 부두 등을 맹격하고 때마침 정박 중이던 항공모함 1척을 침몰시켰다. 이것을 계기로 하여 일본인의 사기는 상당히 저하되었던 것이다. B-25기는 공격종료 후 폭우와 두터운 구름, 암흑과 싸우면서 착륙예정지인 중국본토로 향하였으나 약속된 무선유도를 받지 못하여 중국본토에서 15대 전부가 각기 불시착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중에는 일본군의 포로로 된 자도 있었다. 두릿들은 폭풍우 속에서도 구름 위에 불시착하였으나 장거리 비행의 피로로 인하여 동승원들까지 잃고 비틀거리면서 폐옥을 찾아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숙면하였다. 날이 밝아서 보니 그곳은 보릿짚이 깔린 조그마한 돼지우리에서 한 마리의 커다란 돼지와 같이 잠을 잤던 것을 알았다. 14명의 탑승원도 전부 무사하였다. 무사히 워싱턴으로 귀환 중 그의 불멸의 공훈으로 인하여 루즈벨트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훈장을 받았다. 그는 뒷날 군사사상 가장 용감한 행동의 하나라고 감탄을 받았다.

당시 미국해군은 태평양에 공모 4척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을 기지로 하여 길바드 제도와 마셜 군도의 일본군기지 공습을 감행하였다.

일·미항모와 함재기(艦載機)의 결정적인 전투의 하나는 일본육상부대가 뉴기니아 남해안에 있는 포트 모레스비 점령을 결의한 1943년 5월 초였으며 산호해 근방에서 행하여졌다. 미국의 항모 요크타운과 렉싱턴 2척도 연합함과 같이 항모를 포함한 일본해군부대와 교전하여 적을 저지하라는 명을 받았다. 이 양군함대는 상호간의 교전은 한 번도 하지 않고 해전에 새로운 양식을 보여주었다. 이 전투는 항공기 대 항공기의 전투로



끝났기 때문이다. 1942년 5월 7일 폭우와 농무를 이용하여 기습하여온 일본함모 봉상(奉上)은 격침되고 태평양전에서 최초로 잃은 일본항공모함이 되었다. 항공기간의 전투는 익일(翌日)까지 계속되어 일본함모 2척이 격침되었으며 미국의 렉싱턴 함모도 일본군이 발사한 어뢰 2정과 5발의 직선탄으로 화재를 일으켜 침몰되고 말았다. 그러나 포트 모레스비 침공의 위협은 제거되고 맥아더 장군과 공군사령관 조지 케니 대장은 비로소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이곳으로 다수의 병원을 공수하게 되었다.

산호해 해전에서 직격탄을 받은 요크타운은 손해를 응급수리하여 함모 엔타푸라이즈 및 호넷과 진주만에서 합류하여 거기서 밋도웨로 진격 중인 일본함대를 영격(迎擊)할 것을 명받았다.

일본군은 1942년 6월 3일 밋도웨도 공격을 개시하였다. 밋도웨도 기지의 카타리나 해군 초계기대는 전함, 순양함, 구축함, 공격부대를 실은 수송선 등 80척에 달하는 일본함선이 밋도웨에 진공 중임을 탐지하였으나 주력함대와 떨어져서 진공 중이던 일본함모는 탐지되지 않았다. 익일 조조(早朝), 미국기지의 색적기(索敵機)들은 4척의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일본군 항공기의 대편대를 포착하였다. 밋도웨의 미군기들은 열세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영격하여 조조 중에 일본기의 3분지 1을 격추하였다.

그간 호넷과 엔타푸라이즈 및 요크타운에서 출발한 미해군 뇌격기대들은 위집(擧集)하는 일본함선에 영웅적인 필사의 공격을 감행하여 일본함모 3척을 행동불능케 한 다음 그중 2척을 격침시키고 나머지 1척은 미국 잠수함에서 발사한 어뢰로 격침시켰다.

미국함모를 이합한 뇌격기 41대 중 귀환한 것은 불과 6대였으며 조종사들은 거의 실신상태에서 전과보고도 불능하였었다.

이때 일본연합함대사령장관 산본제독은 항공모함 1척을 남기고 다수의 비행사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속행을 결의하였다. 일본의 순양함, 구축함 기타 엄호항공기군으로부터 된 전열은 거의 무손해여서 다시 요크타운 공격을 결의, 마침내 성공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항공기도 일본군 최후의 함모를 결국 격침시켰다. 이렇게 하여 산본제독은 밋도웨도 점령을 포기하게 된 것이었다. 소수의 미국인 비행사들은 분명히 태평양전쟁의 전국을 역전시켰다. 일본군은 4척의 함모와 다수의 항공기, 최정예의 비행사를 모두 잃었다. 이때의 대손해를 보충하기 위하여 일본은 전시체제 하에 최대의 생산을 서둘렀으나 결코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때부터 역사 최대의 생산보급을 주로 한 필사적인 전투를 십수 개월 하였으나 역시 이 해전이 태평양 전쟁의 분기점이 되었던 것이다.

일본 동경으로 이르는 제일의 길인 카달카난도에 대한 장기간의 전투 끝에 1943년 2월 9일 일본군은 마침내 이 도에서 구축되었다. 이때 미해병대의 콜세아 전투기와 육군의 B-17이 용전하였다.

때를 이어 벌어진 동승로몬 해전에서 미국함모 와스프가 어뢰 공격으로 다음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미함모 호넷트가 각각 격침되었다. 그러나 일본군 역시 650명의 조종사와 다수의 수송함단을 잃었다.

1943년이 되어 전국은 외면적으로는 불길하였었지만 이미 계획의 시대를 지나 미국은 생산에 활기를 띄우고 맥아더 장군은 오스트레일리아를 근거로 하여 새로운 전투태세를 정비하고 새로운 공격용 군함과 비행기를 생산하고 새로운 탑승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은 북아프리카 작전에서 성공한 후 카사블랑카에서 회담하고 영불해협을 횡단하는 유럽 반공계획을 완성하였다.

아놀드 대령은 영국에 대하여 유럽통합군사령관 칼 스파츠 대장을 통하여 주간폭격의 실행가능함을 설득하고 영국의 항공기제조공장이 장거리전투기를 생산하여 폭격기의 작전을 완전히 엄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여 왔다. 북아프리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국 본국기지의 중폭격기대와 전투기대를 분할하지 않을 수 없어 두릿들 준장이 지휘하는 제12공군이 지중해에 파견되었다. 태평양지역에 온존(溫存)되어 있던 부렌튼 장군 지휘의 제9공군은 영국군이 사막에서 론델 장군이 인솔하는 독일 장갑부대와 대치하고 있는 것을 원호하여 독일군의 보급선을 절단하여 공을 세웠다.

1943년에 이르러 연합군에게 차차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하였다. B-29의 하늘의 초요새기도 완성단계에 이르렀고 태평양에서는 비스말크도 해전에서 일본군이 군함 10척과 만재(滿載)의 수송선 12척을 격침시킴으로써 맥아더 장군의 북진작전의 최대의 장애가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힘이 주효하게 되자 연합군은 각지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육군과 조종사의 훈련, 이외에도 1943년에는 8만 5천 8백 98대의 군용기와 27만 7천 대의 항공기용 발동기를 생산하였다.

1944년은 인류사상 일찍이 볼 수 없던 1년이 되었다. 전세계의 하늘은 미국의 군용기로 완전히 뒤덮였다. 7개의 대양에는 미국의 함선이 유과(遊戈)하고 전세계의 연합군 속에는 반드시 미국군이 혼입해 있었다.

5천 대 이상의 미국제 항공기가 소련으로 인도되었다. F-39 에어코코브라기, B-25, C-47 등의 비행기 등이 미군 정비사들의 최종 점검을 받고 알래스카를 경유하여 모스크바로 출전하였다. 1944년 봄에 이르러 B-17, B-24 등은 독일본토 공격을 개시하고 F51 무스탕 전투기 등은 독일 공격을 위하여 825리를 날아서 폭격기대의 엄호작전에 참가하였다.

정밀히 계획된 바와 같이 6월 6일 강력한 연합군의 반공이 개시되었다. 반군 기식별을 위하여 동체에 백색의 무너를 도장한 폭격기, 전투기, 낙하산부대 수송기가 효운(曉雲)을 뚫고 영불해협을 건너갔다. 조지 팻튼 장군 지휘의 전자부대는 전투폭격기대와 중폭격기들과 무전으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노도(怒濤)와 같이 독일로 침공해 나갔다.

한편 태평양전선에서도 맥아더 장군은 케니 장군이 지휘하는 제5공군과 협동하여 눈부신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도서가 점령되면 순식간에 케니 장군 휘하부대가 진격해와서

할주로 공사에 착수하여 다음 그곳에서 차기 공격목표를 위하여 색전비행에 나아갔다.

마리아나 군도의 사이판 레니안 광 제도의 탈취로 인하여 일본군은 중요한 거점을 잃고 말았으며 미국군은 이곳에서 B29에 의한 일본본토 폭격의 준비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상 3도서를 점령하기 위하여 미국군은 순양함, 구축함, 보급선의 대함대와 대형항공모함 8척, 소형함모 8척으로 편성된 제58기동부대를 투입하여 최대의 강인작전을 행하였다. 1944년 6월 19일 벌어진 최대의 작전에서 일본군기 366대가 격추되고 미군측의 손해는 40대였다. 미국 잠수함은 퇴각 중인 일본함모 2척을 격침하고 이날 밤부터 추적하여 익일 오후까지 일본함모 1척과 유조선 2척을 격침시켰다.

귀중한 마리아나 기지를 출발한 B29 하늘의 초요새는 이곳을 거점으로 일본본토 폭격에 들어갔다.

3천 리의 왕복비행능력과 막대한 폭탄탑재력을 가진 B29폭격기는 고도 2만 5천 피트 내지 3만 피트 상공에서 폭격하였으나 당시 제20공군사령관 카티스 리메이 장군은 이 폭격결과에 불만하여, 8천 피트 이하의 고도에서 야간폭격할 것을 주장하였다. 때때로 폭풍우나 두꺼운 구름에 방해를 받아서 골치를 앓은 탑승원들은 고고도폭격에만 훈련을 받아왔으므로 “적 전투기의 활동은 날로 위축되고 있으며 저공비행시 실수하면 우군기를 사격하는 염려가 있으므로 미부총좌 이외의 기종은 전부 제거하라”는 리메이 장군의 언명에 조종사를 비롯한 탑승원들은 적지 아니 당황하였다. 이와 같은 명령은 너무나 기발한 상규에 어긋나는 명령이라고 모두들 생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효과있음이 발견되었다. 1945년 3월 9일 이후 하늘의 요새는 초저공폭격을 감행하였으나 여름에 이르러서는 적의 반격을 거의 받지 않았다. 이때부터 미군기들은 차기의 공격목표를 알리는 전단을 살포하고 비전투원의 대피를 경고하였다.

미국 해병대는 일본본토와 아리아나 중간에 있는 유탕도를 점령하고 손해를 받은 B29나 조종사들의 불시착목지로 만들게 되었다.

충승(沖繩)상륙작전 시는 육해공군을 원조하기 위하여 B29는 기뢰를 투하하여 일본에 잔존하는 함대를 본토의 항만에 봉쇄하는 작전을 행하고 폭격을 중단하였다.

일본군의 항공기 성격을 미공군은 당초 과소평가하였으나 막상 교전해 본 결과 성능이 우수함을 알았으며 고속도로 상당한 기능이 있었다. 일본군의 형식명과 무관계로 미공군은 벤티 케이트 토니 질 잭크 푸랭크 등의 남자명을 붙여 불렀다.

1945년 4월부터 일본군의 가미가제(신풍)특별공격대의 자살폭격에는 연합군의 사령관 이하가 모두 당황 전율하였다. 명령 일하 이들 일본기들은 처음으로 발견한 연합국 함대로 향하여 자폭해오는 것이었다. 대형폭격기에서는 미군들간에서 똥판지라고 불리우는 어뢰형의 동체에 미익을 달고 수초 간을 날 수 있는 로켓추진장치를 한 특공기를 발사하였다. 정말 기분 나쁜 인간폭탄이었다. 미군기의 와일드 캣드, 쿨세아, 벤잔스, TBM 등은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의 출발기지를 철저히(徹底的)로 공격하여 마침내 이 인간폭탄의 출발을 완전히 봉쇄 하였다.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로 인하여 36척의 미국함선이 격침되고 164척이 대손해를 받았다.

1945년 여름도 끝날 무렵 테니안도를 기지로 하는 B29의 일부대는 정밀한 폭격연습을 위하여 매일 어디로인지 날아가곤 하였다. 그들은 그때 하루 16시간의 고투를 끝내고 귀환하는 하늘의 요새 조종사들로부터 무정한 사람들이라고 빈축을 사기도 하고 도락자(道樂者)라고 빈정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8월 5일 이와 같이 신비로운 훈련의 이면은 마침내 밝혀지고 미국공군의 폴 데이빗드 대령은 공업도시 광도에 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하였다. 이어 9일에는 장기에 2차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일본은 10일 마침내 중전을 제의하였다. 이보다 3개월 전 백림도 함락되고 히틀러는 자살하였다. 이때만 하여도 독일항공기의 성능은 매우 우수하였으나 결국 독일의 패전의 원인은 전쟁기술의 빈곤과 정부고관의 실책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45년 9월 2일 일본 무조건 항복을 계기로 항공기의 눈부신 전투활약은 다시 휴식을 찾아 중단하였으나 항공기의 발달은 날이 갈수록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무류의 제트항공시대를 마침내 초래하고 만 것이다.

### 제트시대(時代)의 도래(到來)

1943년은 대전 중이었으나 항공기 탄생 40주년 기념일에 그때까지 생존해 있던 라이트 형제 중의 오빌은 그가 항공기를 발명한 데 대하여 깊이 후회한다고 말하였다. 그것은 양차의 대전을 통하여 항공기는 무서운 전쟁수단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피스통식 항공기가 시속 42리에서 4백 리까지 전진하는 데는 첫째 새로운 연료를 만들던가 둘째 새로운 추진장치를 만들던가의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주저하였다.

1941년 아놀드 대령은 전시 중 군용항공세력을 시찰하기 위하여 영국을 방문하였는데 영국은 이미 이때 제트기의 연구에 상당한 진보를 거두고 있었다. 정보에 의하면 독일에서도 상당히 진보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놀드 대령은 영국군 수뇌자와 과학자들로부터 제트기관의 청사진을 받아서 귀국하여 즉시 벨 항공회사에 대하여 발주하였다.

영국은 이보다도 앞서 1941년 5월 14일 그로스스타제 단엽기에 제트엔진을 장치하고 최초로 비행에 성공하였다.

아놀드 대장이 처음으로 제트기의 비행을 본 1년 후에 영국은 불과 3대의 실험기가 생산되었으나 1944년 이미 월산 40대를 생산하고 있었으며 유럽전쟁이 끝나는 5개월 전인 1945년 3월에 아놀드 대장은 독일공군 중위 한 사람이 독일의 ME-262형 쌍발 제트기로 연합군측에 도망해 왔었는데 이때 백림방위에 독일은 제트기를 출격시키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독일은 이미 1939년 8월 27일에 폴란드 침입을 앞두고 하잉켈, HE 178형에 제트기관을 달고 있었음을 알았다.

초기의 생산 제트기 중 F80 슈팅스타 전투기는 속도기록을 수립하여 전시 중의 시속 4백 리에서 일약 시속 624리

까지 비약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4개년의 대전 중 1억 8백 1만 9천 9백 9시간을 비행한 미육군의 각종 항공기는 마침내 제트기의 출현 앞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이다.

### 한국전쟁(韓國戰爭)과 제트 항공기(航空機)의 활약(活躍)

1950년 6월 25일 공산군이 남침하였을 때 미국은 소수의 슈팅스타 제트기와 F-51 무스탕 전투기 그리고 B-29 폭격기를 충승기지에 주둔시키고 있었다. 한국반도에 새로운 MIG-15 제트기가 나올 때까지는 이것으로 충분할 줄 알았다. 그런데 소련제의 이 MIG-15는 슈팅스타나 F-51 무스탕 전투기와는 도저히 적수가 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미국은 급속히 본국으로부터 F-84 산더 제트와 F-86 세이버 제트 전투기를 가지고 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때 사상 최초의 제트기 대 제트기의 공중전이 북한상공에서 벌어졌다. 만주국정부근의 고도 4만 피트 상공에서 벌어진 이 공중전에는 유엔 군측의 F-86 세이버 제트기와 소련제의 MIG-15를 12대 1로 격추하여 대승리를 획득하였던 것이다.

세계 최초의 제트에이스 칭호는 쟈스 자바라 소령에게로 돌아갔다. 그는 제2차대전의 용자였던 것이다.

1953년 한국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제트기의 역사는 15년이 되었었다. 실전을 통하여 획득한 제트기의 약점과 경험은 그 후 많이 개량되었으며 그로부터 불과 수년이 경과 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제트여객기와 제트수송기 등이 앞을 다투어 속도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제트기의 진보는 일보일보 허다한 난관을 뚫고 진보하고 있다. 머지않아 인간은 지상을 벗어나서 우주로 향하여 항공기의 위력을 과시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 근 간(近刊)

### 정훈교육지도(政訓教育地圖(93~4))

공군정훈감실발행(空軍政訓監室發行)



<단편>

### 토요일(土曜日)의 삽화(插話)

정인영(鄭麟永)

늦가을이 되어 일찍 어두워진 토요일 밤, 거리에는 채 아홉 시도 되기 전에 약주가 거나해진 사내들이 눈에 띈다.

“그래 싫단 말이요?”

몸이 뚱뚱한 강태식은 진욱의 손을 잡으며 재쳐 다짐이다.

우연히 진욱은 다방에서 강태식과 마주쳐 간단히 약주를 나누자는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리를 같이 한 것이 진욱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상대방에선 먼저 취해서 강짜를 부리는 것이다. 진욱은 내심 심히 못마땅하고 불쾌하지만 묘한 자존심도 있고 하여 이런 때 발각 화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예편네도 김선생을 보고 싶을런지도 모르죠. 오늘 참 우연히 잘 됐소. 옛날에 열렬히 사랑하던 애인



들 끼리가 아니었소? 내가 이렇게 개방적이구 이해성 있는 사내니까 괜찮아요. 우리집에 가서 한잔 더 하구 그리구 옛 정도 풀어보구려. 아직두 나보다 김선생을 더 사랑하고 있을는지 모르는 우리 처두 같이서……”

지나치게 달라붙는 강태식을 바라보며 진옥은 묘한 친구라고 생각하며 난색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김선생, 산다는 것은 도박과 같을 수 있지요?”

강태식은 진옥의 팔을 잡은 채 무엇을 생각하는 듯하더니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다.

“그렇죠?”

진옥의 대답을 재촉한다.

“산다는 본질을 캐보면 모두가 도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말이 떨어지자 강태식은 득의양양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선생.”

강태식의 큰 얼굴이 진옥의 얼굴을 덮을 듯 가까이 온다.

“제가 우리집에 가자는 것을 거절했죠? 김선생이 어떤 심경이던 좋지요. 오늘 밤의 결과를 한번 걸어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수가 김선생에게 가면 자유로 나를 처분하고 그것이 내게 올 경우는 내 명령에 김선생이 복종하구……”

진옥은 잠시 머뭇거렸다.

“거리에서?”

어떻게 그런 도박이 거리에서 가능하냐는 질문이다.

“그렇지 거리에서 하죠. 화투나 카드가 필요치 않고 자동차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제는 강태식도 갑자기 묘안이 나오지 않는지 망설였다.

“자동차로 어떻게?”

진옥은 짐짓 망설인다. 갑자기 마음속에 자리하는 이상한 흥분까지 느낄 수 있었다.

“글쎄요 어떻게 할까?”

강태식은 아직도 선뜻 생각이 미치지 않은 듯 이마로 손이 갔다.

진옥은 스스로를 덮쳐오는 야릇한 흥분을 억제할 수가 없다. 자동차로 도박을 한다. 그것이 혜인을 볼 수 있게도 할 수 있고 영영 보지 못하게도 할 수 있는 투기가 아닌가? 그실 달가운 장난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묘한 방법을 들고나서는 강태식의 윗트에 호기심이 갔다. 진옥은 생각해 보았다. 자기의 한순간의 운명을 스스로의 이성과 자존심으로 억제하느니보다 어떤

계기로 해서 난처한 경지로 얽혀들어 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같은 곳에 서 보는 것도 재미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강태식은 그제사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진옥의 어깨를 탁 짚었다.

“됐어! 됐어! 이렇게 합시다.”

진옥은 흥분을 가라앉히기에 무진 애를 썼다. 그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흥분이 온몸을 휩싸고 있었다. 그것은 바람처럼 그리고 파도처럼 밀려온 흥분이었다.

이 사나이가 어떤 도박으로 자기를 옴아 놓을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결과에 의해서 자기의 자존심이 살아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난처한 경지에 빠져버릴 수도 있지 않은가?

‘혜인!’

진옥의 자존심과 지성이 자기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있는 이 여자를 향해서 달려가는 절실한 본능을 억제했고 재단해 온 것이 아니었던가.

이런 억제와 재단력이 이제 와서 강태식이란 사나이가 제의한 도박에 얽힐 줄이야…….

‘결과를 따라가 보자.’

진옥으로선 일종의 자포자기에 가까운 결심이 생겼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도박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새로운 정신적인 벽을 직면하게 될런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진옥이 아니다.

“어떻게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지……”

차를 세우기 편리한 곳까지 걸어온 진옥은 강태식의 얼굴을 뚫어지게 쏘아 보며 물었다.

‘이제부터는 싸움이군!’

강태식의 대답을 기다리며 진옥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두 사람의 의사를 걸기로 합시다. 바로 이 자리에서.”

강태식은 이 놀음에 무척 흥미와 기대를 갖는 듯 술주정꾼과는 달리 탄 사람처럼 되어 있다.

“의사용 거는 것이 아니라 건다면 서로의 자유를 거는 것이겠지요.”

진옥도 상대방의 대답을 기다리며 이렇게 말했다.

“의사든 자유든 다 좋지않소? 서로 약속을 합시다. 첫 자동차가 손을 들었을 때 우리 앞에 와서 서면 김선생이 우리집에 가고 서지 않고 지나쳐 가면 자유이고……”

진옥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역시 바보는 아닌 녀석이구나 하고.

“그렇지만 너무 간단하군, 첫 자동차로는……. 그러지 말고 다섯 번째의 자동차로 정합시다. 기다리고



초조해 하는 맛도 있으니까.”

“하하하…… 김선생은 나보다 좀 복잡하군…… 그래도 좋지. 아무려나 그럼 저기 오는 차부터 다섯 번째의 자동차……”

그들은 서로 웃었다. 조금 전까지 실강이를 하던 표정과는 전혀 다른 표정을. 그들은 서로의 의사를 아니 자유를 다섯 번째의 자동차에 걸고 차도 옆에 서 있다.

“하나! 둘……셋. 넷……”

그들은 같이 세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의 차가 오자 그들은 일시에 손을 들었다.

그러나 차는 획 지나쳐 버렸다.

진옥은 자기도 알 수 없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했다. 그러나 그 다섯 번째의 차는 십여 미터를 지나쳐 급정거를 했다.

진옥은 등골이 서늘했다. 십여 미터를 지나쳐 선 시발택시에서는 손님이 내리고 있었다. 강태식은 진옥을 쳐다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 웃음은 이미 자기가 진옥의 자유를 소유해 버렸다는 만족의 그것이다.

손님을 내려놓은 시발택시는 뒷걸음질로 진옥과 강태식의 앞까지 다가왔다. “타십시오!”

강태식의 말이 아니라 문을 열고 얼굴을 내미는 운전수의 말이다. 이 말이 진옥의 귓속에 화살처럼 와서 박혔다.

‘엿혀버렸구나!’

다음 순간 헤인의 얼굴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히 잡혀 있는 것 같았다.

“김선생 내가 이겼습니다. 싫겠지만 김선생의 자유는 내 것입니다. 아니 내 것이 아니라도 좋지요? 김선생의 자존심과 지성이 이제 와서 번복을 하지는 못하겠지요?”

강태식은 의기양양하였다.

진옥은 할 수 없이 차에 올랐다. 서로의 신용을 건 절대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진옥은 이미 체념하였다. 그러나 가지 않겠다는 그의 자존심이 이제는 새로운 현실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해야만 했다.

강태식이 지시하는 대로 차는 달리기 시작했다. 진옥은 입을 열지 않았다. 뒤쿠션에 깊이 파묻힌 채 시선을 움직이지 않았다.

“김선생!”

운전수 옆에 앉은 강태식이 싱글벙글 웃으며 진옥을 돌아봤다.

“왜 그렇게 심각하시오? 옛날 애인을 만나러 가는데!”

계법 농조로 진옥을 괴롭히고 싶은 모양이었다.

“장난이 아닙니다.”

진옥은 강태식의 이러한 농이 불쾌했다.

“김선생은 값싼 장난에 엿혀들었죠?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강하고 고지식한 인테리를 좋아하거든. 어쨌든 다들 정직하고 순진하니까, 하하……”

진옥은 속에서 각 치미는 분노를 참았다. 차라리 대답을 안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했다. 그 하찮은 도박에 걸려 아무말도 못하고 끌려오는 진옥을 가련하다고 생각할 강태식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불쾌하기 짝이 없다. 당장이라도 차를 세우고 내리고 싶었다. 그러나 강태식의 말과는 달리 진옥은 그의 자존심까지 건 도박이 아닌가? 반반의 확률을 가졌든 이 도박에서 우연히 진 자기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단 말인가.

차는 어두운 밤거리를 쏘살같이 달린다. 차가 해화동을 돌아 으스스한 골목길로 접어들자 강태식은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저 집안에 술도 있고 김선생의 옛날 애인도 있습니다. 하하……”

그는 차를 세웠다.

진옥은 강의 뒤를 따라 층층대를 올랐다. 2층 양옥 대문에서 강태식은 초인종을 울렸다. 안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진옥은 자기도 뒷걸음질 쳐 한 계단 내려서고 있었다.

식모인 듯한 계집애가 대문을 열었다. 대문을 들어서며 강태식은 안을 향하여 큰소리로 외쳤다.

“여보! 손님이 오셨어. 아주 반가운 손님이 오셨단 말야!”

집은 2층 양옥. 꽤 커 보였다. 정원에 선 상록수들이 푸른 현관등 빛을 받아 환히 보였다.

“김선생! 우리집입니다. 어서 들어 오세요!”

대문을 들어서서 엉거주춤한 진옥에게 강태식은 의미있는 눈짓을 해가며 들어오기를 재촉한다.

현관까지 나온 헤인은 문을 열고 어서 들어오라고 했다. 자기 남편의 친구려니 생각하고 그저 이렇게 응접하는 것이다. 그러나 얼굴에 붉은 홍조를 띠운 강태식이 헤인과 뒤에서 머뭇거리는 진옥을 번갈아 바라보자 이상한 예감이 든 헤인은 현관문 밖으로 걸어 나오며 강태식에게

“또 취하셨군요! 손님을 모시고 왔으면 좀 정신을 가다듬어 봐요……”

하며 자기가 응대하려는 듯 몸을 앞으로 굽혔다.

“어서 들어오세요!”

인사를 하고 돌처럼 서 있는 진옥의 얼굴과 마주친

혜인의 얼굴은 금시 굳어졌다.

아까부터 강태식은 이제 그의 눈앞에 닥쳐올 혜인과 진욱의 당황해 하는(?) 아니면 놀라운장면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진욱은 진욱대로 앞으로 닥쳐올 평범한 사실에 몸을 내맡기듯 뻥뻥하게 서 있었다.

그러나 강태식은 적이 실망하였다. 약간 당황해하는 것은 그의 처 혜인일 뿐 진욱은 돌처럼 무표정하지 않은가.

“어서 들어오세요”

혜인은 강태식을 현관 안으로 밀어들이며 진욱에게 재삼 들어오기를 권했다.

“안녕하셨습니다가?”

그제사 진욱은 혜인에게 목례를 하고 들어섰다.

진욱은 넓은 응접실에 안내되었다. 응접실은 이 집 주인의 사람 됨됨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소파의 커버나 창 쪽에 드리운 커튼의 빛깔이 집값을 뿐 아니라 벽에 붙은 한 폭의 그림까지도 상당히 교양이 있는 것이었다. 야하지 않고 어딘지 모르게 둔중한 품위가 풍기게 꾸며져 있었다. 진욱은 여기에서 혜인의 옛날 웃음과 목소리를 느꼈다.

코트를 벗어 던진 강태식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마침 밖으로 나가려는 혜인을 불러들였다.

“나가지 말고 좀 앉아요. 반가운 손님을 모셔왔는데……”

그는 짓궂은 웃음을 띠며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본다. 혜인은 좋지 않은 눈 초리였다. 이런 눈초리가 자기에게 던져지는 것이라고 알았는지 강은 별떡 일어서며

“술이 있지? 이 김선생도 약주를 아주 좋아하는군 그래. 술 같은 건 안 마시는 분 같은데 아주 대단해. 술상부터 보아 오도록 해봐!”

혜인은 말없이 앉아있는 진욱에게 종잡을 수 없는 복잡한 시선을 보냈다.

진욱은 시중 난처한 자기 존재를 생각하고 있다. 혜인은 돌연히 밤중에 찾아온 이 옛 애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진욱과의 사랑의 그림자까지도 그녀의 가슴 어느 구석을 훑어본들 조금이나마 남아 있겠는가? 그동안 혜인이 남편 강태식과의 결혼생활에 말끔히 빨려 들어가 있다면 진욱의 존재는 그에게서 재가 되어버렸을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러나 강태식의 오늘 밤의 행동은 무엇을 뜻하는가? 혜인이 아직 진욱을 잊지 못해 힘을 눈치채고 있다면 강태식이란 위인이 진욱을 집까지 억지로 데리고 옴으로써

혜인을 괴롭히려는 것인가? 아니면 옛날 혜인과 결혼할 때 뻥 진땀의 보복으로 ‘이제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산 현실을 진욱에게 보여줌으로써 승리자로서의 쾌감을 맛보려는 것인가.

진욱은 아직 어느 쪽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 하찮은 도박 그 시발택시만 지나쳐 갔던들 이런 어색한 자리로 끌려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진욱은 이미 결정 지워진 이 결과를 탓하거나 불쾌해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의 인격과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걸고 한 도박. 그 도박에 저서 이렇게 혜인의 앞까지 와야만 했을 뿐이다. 스스로의 위치가 난처해지자 진욱은 아까 명동 입구 거리에서 다섯 번째의 차를 세우던 그 순간을 생각해 보았다.

그 이슬아슬한 초조로움, 그러나 이 초조로움 속에는 혜인과 만나야 한다는 감정은 없었다. 자기 의사가 강태식에게 얽히느냐 아니냐 하는 실로 단조로운 초조함이었다.

강태식과 혜인은 나란히 앉아있고 그 맞은편 의자에 진욱이 앉았다. 그들의 앞에 있는 적은 탁자 위에는 양주 한 병과 마른안주가 있다. 진욱은 앞으로 전개될 일이 궁금했다. 혜인은 시중 시선을 내리깔고 있다.

“원 처녀같이 얌전한 걸 다 보겠네. 다 김선생님 덕분입니다.”

술을 따르라는 강태식의 말이었다. 이미 강태식은 혜인에게 진욱을 집에까지 데리고 온 경로, 애로를 죽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혜인에게 그의 잔을 돌린다. “이렇게 허물없이 찾아주어서 고맙습니다.”

그제사 혜인이 처음으로 진욱에게 한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혜인의 얼굴에 쓸쓸한 물결이 일었다.

“강선생이 들으시면 좋아하지 않겠지만 그실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올 이유나 필요보다도 그럴 매력이 없었지요. 그런데 약주가 높으신 강선생께서 웬 일인지 꼭 나를 데리고 와야 시원해서 야단이었을까……결국은 내가 도박에 진 거죠, 도박에서……”

진욱은 도박이란 말을 두 번씩이나 하며 말끝을 흐렸다.

진욱은 그들 내의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강태식은 자기를 쳐다보는 혜인의 날카로운 시선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진욱에게 담배를 권했다. 진욱은 그의 담배를 거절하고 자기 담배를 꺼냈다. 이들의 수작을 바라보는 혜인은 금시 표정이 변하였다. 무슨 기다란 파도같은 것이 그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나 한 것처럼 크게 숨을 쉬고는 술집을 단숨에 비웠다. 진욱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혜인에게서 받아 권 술잔. 그 술잔에 술을 따르는

혜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다. 진옥은 이런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는지 쉽게 생각되지 않았다. 조금 전의 강태식의 말, '술 같은 건 마실 것 같지 않은데 아주 대단하셔'

진옥은 속으로 픽 웃음이 나왔다. 진옥이 술꾼이란 것은 혜인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막연하나마 암시한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김선생 이렇게 와 주셔서, 아니 오게 돼서 참 좋습니다. 오늘 저녁엔 이렇게 우리 셋이서 마음껏 마셔 봅시다.”

“마음껏?”

진옥의 대답을 가로막는 혜인. 강태식을 향한 그녀의 야유 비슷한 말의 액센트를 진옥은 금시 캐치할 수 있었다.

“그렇지, 마음껏 마셔보잔 말이야! 이 김선생두 오셨고 나도 오늘밤은 각별히 기분이 좋은데?”

혜인은 술잔을 또 비웠다. 이번에는 강태식에게 술잔을 돌렸다. 그들은 양주 한 병을 다 비웠다. 강태식은 소파에 몸을 깊이 묻고 주는대로 받아 마셨다.

혜인도 독한 양주를 너털 잔이나 마셨다. 그녀도 술기운이 오르는지 자기 몸을 억제하는 노력이 역역히 진옥의 눈에 띄었다. 진옥은 이들 주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다. 지금껏 별말도 없이 주는 술만 받아 마시고 앉아있는 자기 자신이 알뜰도록 이상하기도 했다. 아무리 그동안 사라에 따라서 그녀를 체념하고는 있었지만 옛날의 아기자기한 그리고 비둘기처럼 따뜻하게 안기던 혜인이란 여자. 그 실체가 눈앞에 있는데도 조금도 마음의 동요가 없다니……

진옥은 비로소 자기가 혜인과 사랑하던 때의 자신과는 상당히 변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진옥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자. 마치 백화점 여직원처럼 진옥에게는 거래가 끝난 여자라고 생각되었다. 물건을 살 때 서로 애기하고 웃던 여자. 그 웃음이 아무리 유별나게 아름답고 지나치게 친절했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끝나면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

이미 그 실체와의 과거로 해서 애매해질 수 없다고 그리고 그 과거의 기억들이 이제 짝 남이 된 마당에 와서 진옥을 어찌지도 못한다고……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진옥은 자기의 존재가 좀 떼뻗해진 것 같았다.

“두 분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진옥은 강태식과 혜인을 바라보며 티 없는 미소를 던졌다.

“행복하게 보이죠.”

혜인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애매한 대답을 했다.

강태식은 갑자기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물론 행복해 보이죠.”

그의 걸음걸이는 비틀거렸다. 상당히 취해 있을 거다. 그러나 진옥의 앞이래서 인지 조심하는 기색이다. 그는 전축을 들었다. 조용한 음악이 일시에 취한 방안에 하나 가득 찼다.

“자! 혜인씨!”

강태식이 버티고 서서 손을 벌렸다. 천한 제스처까지 흘러며. 진옥을 힐끔 훑어본 혜인은 빨강계 물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일어섰다. 그들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춤을 추고 있는 것인지 혜인을 잡고 몸을 비틀거리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어려운 춤이다. 그래도 제법 스텝을 정확히 때놓는다는 혜인의 발에 강태식의 발이 걸리곤 했다. 이와는 반대로 강태식의 발이 헛나갈 때는 그들은 서로 끼어 안은 채 쓸어질 듯 쓸어질 듯했다.

“이렇게 곤드레 취해 가지고 춤은 무슨 춤을 춘다고…”

혜인이 강태식의 팔을 뿌리치려 했으나 강태식은 듣지 않았다.

“저 김선생도 와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정하게 산다는 것도 보여드려야 할 게 아니냐?”

진옥은 거리낌 없이 픽 웃었다. 이 웃음을 본 혜인은 발끈 화가 난 모양이다.

“글쎄 취했다니깐, 그만 두어요.”

혜인은 강태식을 억지로 끌고 소파에 앉혔다.

“내가 뭘 취했다구 그래.”

강태식의 말투가 제법 노기에 찬 것이었다. 그리곤 혼자 술을 따라 마시기 시작했다.

순간에 지나지 않으나 진옥의 침묵과 조소가 혜인의 얼굴을 덥치는 것 같았다. 남편 강태식의 언동을 진옥은 능히 경멸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니 혜인은 그런 진옥과 강태식 사이에서 정말로 난처했다. 혜인은 혼자 술을 따라 마시고 있는 강태식을 물끄러미 쳐다본 다음 순간 진옥 쪽으로 눈을 말끔히 뜨고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어쨌면 혜인의 이 시선은 자기 남편의 몰지각하고 무교양한 언행을 너그럽게 봐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곁에서 시달려야 하는 자기 존재를 불쌍하게 생각해 달라는 뜻인 듯도 했다.

“여보 김선생”

혼자 술을 따라 마시고 있던 강태식이 진옥을 불렀다. 진옥은 그를 주목하였다.

“오랜만에 만난 김선생을 당신이 좀 잘 대접해 드리구려”  
혜인이나 진옥은 다 같이 강태식의 이런 말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고 어리둥절했다.

강태식은 몽롱한 눈가에 웃음을 띠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여보 나는 술이 취해서 비틀거리니 틀려 먹었어, 안 그래? 그러니 김선생과 비틀거리지 않는 김선생과 한 스텝 해보란 말이야. 이 김선생은 아무리 술이 취해도 걸음걸이가 뻗뻗하지 하하하……”

그제사 진옥은 강태식이 한 말의 뜻을 알았다.  
혜인은 말없이 진옥을 건너다본다. 진옥은 난처했다. 혜인과 어떻게 춤을 춘단 말인가?

강태식은 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몸을 앞으로 일으켜 혜인의 손을 진옥에게 내밀게 했다.

“김선생 실례는 아니겠지요? 외국 같으면 예사라는데 김선생 같은 인텔리는 다 이해할 테니까!”

혜인이 먼저 자리를 일어섰다. 진옥에게 옹긋한 미소를 보내며 일어섰다. 진옥은 잠시 망설였다.

‘혜인이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 김선생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실험을 해봅시다.’

강태식이 술을 마시며 집에 가자고 한 이 말이 진옥의 등을 누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진옥은 주저 없이, 그러나 몸짓만은 점잖게 일어섰다. 그들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내부에 있는 의지를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혜인이 백화점의 여점원의 존재로써 그와 관련되어 있는 까닭이었다.

진옥은 혜인을 가볍게 잡고 스텝을 밟기 시작하였다.  
“언제 춤까지 배우셨어요?”

혜인이 진옥에게 다가서며 한 말이었다.  
“혜인씨가 배웠듯이 나도 배웠을 뿐이죠”

몇 걸음 스텝을 옮기며 진옥은 싸늘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돌아갔다. 강태식은 이들의 모양을 바라보며 쉼 없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흡사 발악하듯 마셨다. 진옥과 혜인이 춤을 추기 시작하자 그는 설새 없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푸른 전등 불빛에 혜인의 얼굴은 윤이 흐른다. 술기운이 오른 붉은 얼굴에 푸르스름한 빛깔이 혜인을 한층 곱게 비추고 있다.

“왜 그렇게 조용하세요?”  
“할 얘기가 없소.”

“저 때문이에요?”  
“아니.”

“그럼 왜 오셨어요?”

“아까 강선생이 얘기했잖았소?”  
“그런 이유라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을텐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지요……”

혜인은 말을 끊었다. 진옥의 얼굴을 쳐다본다. 혜인의 시선이 진옥에게 엉뚱한 의미를 주는 것 같다.

“혜인씨와는 상관없고 오직 그 순간의 내 자존심과 판단력만을 고집하지 못하게 하는 강태식이란 남과의 타협이었지. 아마 그 다섯 번째의 차가 쉬지 않았더라도 혜인씨의 낭군은 나를 귀찮게 했을거야……”

“그 다섯 번째의 차가 쉬고 난 다음에사 나는 혜인씨를 만날 것이라는 생각이 났어.”

“그렇게 잊으셨어요? 미워하세요?”  
“아니 잊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아요. 체념한 것이지……”

진옥의 입은 말이 끝날 때마다 딱 닫혔다. 혜인은 차츰 긴장과 함께 이상하게 속박되는 것 같았던 감정이 풀리는 것만 같았다.

진옥과 혜인이 춤을 그치고 돌아섰을 때 강태식은 빈 양주병을 둘씩이나 앞에 놓고 잠이 들어 있었다.

“똥아떨어졌군”  
“많이 마신데다 좀 떠들곤 한 다음이면 저렇게 아무 데서나 똥아떨어지곤 해요. 온통 정신이 없어요.”

혜인의 설명을 들으며 진옥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김선생님은 술이 세신가 봐……”

“……”

“저이가 저렇게 되도록 마셨으면 보통 같이 취하는 모양인데 김선생은 취한 기색이 전혀 없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눈이 좀 무섭다구나 할까 호호……”

혜인은 상기된 얼굴에 수줍은 웃음을 흘리며 다시 술병을 하나 더 내놓았다. 진옥은 묵묵히 흡사 노한 사람처럼 혜인의 움직임에 지켜보고 있다.

혜인은 술병을 들고 무슨 말을 하려는 듯 눈을 깜박거렸다. 그러나 진옥의 시선과 마주치자 생긋 웃었다. 그 웃음은 부끄럽고 난처하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술을 더 드세요 좀 취해 보세요. 저도 취해 보고 싶어.”  
이야기인지 책을 읽는 것인지 분간이 어려운 악센트가 없는 혜인의 말. 그러

면서 혜인은 술을 따라 진옥 앞에 놓고 자기 잔에도 따루었다.

진옥이 술잔을 들고 강태식의 똥아떨어진 쪽을 웃으며 바라본다. 그 순간 저 사나이가 얼마나 무관심하고 자신의 긍지와 소유와 정신력을 육체적인 피곤으로 해서 내던져버리고 있는가?

진옥의 웃음을 따라 혜인도 동감이란 듯이 눈웃음을 쳤다.



진욱은 반사적으로 헤인의 이 눈웃음을 불쾌하다는 듯 목살해 버렸다.

얼마 동안이 별말 없이 지났다.

헤인은 이렇듯 꺾꽂고 앉아서 냉수를 마시듯 독한 술을 들이키고 있는 진욱의 하얀 얼굴을 지켜보고 있다. 그 날카로운 용모. 팍 다문 입. 그 입속으로 빨간 액체가 들어가고 나면 다시 움직이지 않는 입술. 이런 진욱의 입술에 꽃 피고 있는 알 수 없는 대화를 읽고자 무진 애를 썼다. 하긴 옛날부터 진욱은 말이 적은 편이긴 했다. 서로 사랑하고 거의 날마다 만나면서도 사랑한다던가 좋아한다던가 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던 진욱이 아니었던가.

“좀 약한 술이 없소?”

“왜요, 취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정반대의 뜻이야. 좀 취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약한 술은 맥주 뿐이야요.”

“그거 됐소. 적격이지. 이렇게 독한 술 위에 맥주를 마시면 취하게 되는 거요. 좀 취하고 싶어!”

헤인은 조심스럽게 일어났다. 맥주병이 몇 개 날려왔다.

어느덧 진욱 앞에도 빈 맥주병이 몇 개 늘어섰다. 진욱은 땅속으로 가물가물하게 가라앉아가는 자기 자신을 느끼고 있다.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저만치 맞은 편에 훑아떨어진 강태식이 가물가물하게 보이는 것 같다. 그의 시야에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것 같았다. 착잡되는 거리감. 진욱은 이제부터 자기도 취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막연한 본능의 열기에 빠져 들어가고 있지는 않았다. 이런 취기에서도 자기의 궁지와 판단력을 정확하게 잡고 늘어지려는 집념에 사로잡히고 있었다.

헤인도 술기운이 얼얼한 양 소파에 몸을 깊이 파묻고 있다. 빨강계 상기가 된 그의 얼굴을 진욱은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다. 진욱의 시선을 느낀 헤인은 열적계 웃었다. 그리고 훑아떨어진 강태식 쪽으로 시선이 옮겨간다.

“일종의 열등의식 일 거야요. 중학교 밖에 못 나왔다고 해서 꼭 그러한 법은 없지만. 돈은 많지만 사고방식이 유치한 편이야요. 돈을 버는 이외의 상식이나 지식은 언어들은 풍월 정도지요. 그래서 아마 그럴 거야요. 김선생을 만났을 때도 그런 인격적인 열등감 때문에 상식 이하의 강요를 태연하게 할 수 있었을 거야요.”

진욱은 목석처럼 앉아서 듣고 있다. 헤인의 이야기 소리 속에는 하소연 같은 아니면 얌은탄식과도 같은 체념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나한테 미안한 생각을 가질 건 없어요.”

진욱의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듯 헤인은 망설였다.

“강태식씨가 나를 강제해서 이곳까지 데리고 왔다는 거 말입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진욱은 당장 후회했다. 그럼 어떤 뜻에서 헤인은 이렇게 자기 남편의 사람 됨됨이를 체념같은 목소리로 얘기했던 말인가?

헤인의 젖은 듯한 눈과 마주치자 진욱은 정신이 확 났다. 몽롱한 꿈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반사적으로 시계를 봤다.

“늦었는 걸……이제 이만 실례해야 겠어요.”

진욱은 별떡 일어섰다. 몸이 공중에 뜨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가까스로 가누었다.

“취했군!”

진욱은 중얼거리며 빙그레 웃었다.

“주무시고 가세요. 늦었는데!”

헤인이 따라 일어서며 아쉬운 듯 정색을 하고 진욱을 쳐다본다.

진욱은 다시 헤인을 바라보고 빙그레 웃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진욱은 스프링을 걸치고 조심스럽게 그 방을 나왔다. 헤인도 따라 현관까지 나왔다.

“주인한테 미안하군. 인사두 없이 돌아가서…….”

진욱은 대문을 나서며 뒤따르는 헤인의 눈치를 살폈다.

“밖에 나오니까 공기가 참 좋네요.”

헤인은 심호흡을 하며 판전을 폈다.

“자! 들어가세요. 주인이 깨서 찾을런지도 모르니까?”

“김선생님!”

진욱이 돌아서려는 순간 헤인이 새삼스레 진욱을 불러 세웠다.

현관등 빛에 헤인의 눈이 유난히 초롱초롱하다. 진욱은 헤인 앞에 다가섰다. 한동안 말 없이 얼굴을 서로 들여다 봤다.

“오늘 채수없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 기뻐어요.”

갑자기 혜인은 이런 말을 했다. 진옥은 혜인의 얼굴을 들여다 볼 뿐 말이 없다.  
“뭘 생각하세요?”

혜인이 한걸음 더 다가서며 다시 말을 걸었다. 진옥은 묵묵히 혜인의 얼굴을  
취고 가볍게 그녀의 입술을 스쳤다. 그리고 독백하듯 중얼거렸다.

“여자는 다 창부와 같은 일면을 그 본질 속에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지?”

이 말이 끝나자 진옥은 술 먹은 사람답지 않게 획 돌아서서 골목길을 걸어  
나갔다. 진옥의 말을 당초에는 어리벙벙하게 듣고 있던 혜인도 제정신이 들자  
무엇에 덜미를 잡힌 사람처럼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냉수를  
찾는 남편 강태식의 벼락같은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چه 그렇게 도도하고 잘난체하면 누가 알아주나?’

이런 생각이 혜인의 머리 속에……. 그리고 진옥은 골목길을 빠져나가면서  
제법 취한 사람답게 일부러 걸음걸이를 흘트리고 있었다.

‘이게 도박에 걸어서 얻은 오늘 밤의 내 생활이란 말인가?’

진옥은 쓴웃음을 웃었다. 통행금지기가 가까운 거리를 그는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집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는 하룻밤을. 그리고 여자가 있어야 했  
다. 지폐와 바꾼 여자의 웃음이라도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내일은 일요  
일이라는 것을 새삼스레 생각하며 그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끝>



<역사소설>

### 치악산야화(雉岳山夜話)

홍은표(洪銀杓)

#### 잡초 우거진 궁터

고려 오백 년의 사직도 가지가지의 비극을 연출한 뒤 드디어 망하고 신흥 이  
조가 옥일승천의 기세로 일어남에 여조의 충신들은 나라 망한 뒤 절의를 지  
키어 이조의 벼슬을 결사 거부하고 혹은 두문불출하고 혹은 배소에서 통원을  
날을 보냈던 것이다.

이태조 사 년 가을의 일이었다.

송악산 기슭 만월대(滿月臺)에는 가을이 짙어 우거진 잡초 사이에서는 벌레  
우는 소리만 처량하였다.

세 사람의 선비가 만월대 섬돌에 걸터앉아 저마다의 통분애절한 심사를 어  
찌할 바 몰라서 말없이 긴 한숨만 쉬는 것이었다.

|                                                                                                                                                                                                                                                 |                                   |                                                                                                                                                                                                                                                                                          |
|-------------------------------------------------------------------------------------------------------------------------------------------------------------------------------------------------------------------------------------------------|-----------------------------------|------------------------------------------------------------------------------------------------------------------------------------------------------------------------------------------------------------------------------------------------------------------------------------------|
| <p>개나리(Golden bell) = 잃어버린 사랑.<br/>고사리(Bradken) = 나는 당신을 믿<br/>습니다.<br/>나팔꽃(Pharbitis) = 기쁨. 그대 그리워.<br/>담쟁이(Ivy) = 결혼합시다.<br/>다알리아(Dahlia) = 변하기 쉬운 마음.<br/>등(藤)(Cane) = 나그네여 내게로 오라.<br/>라일락(Lilac) = 젊은 그날의 추억.<br/>적색(赤色) - 내마음은 그대의 것.</p> | <p>꽃<br/>들의<br/>속<br/>삭<br/>임</p> | <p>백색(白色) = 서로 사랑합시다.<br/>매화(梅花)(Plum-blossoms) = 결백(潔<br/>白), 정절(貞節), 고결(高潔).<br/>물망초(勿忘草)(Forget-me-Not) = 진실<br/>한 사랑 참된 그대 나를 잊지 마세요.<br/>민들레(Dandelion) = 내사랑 그대에게.<br/>배꽃(Pear) = 보고파<br/>칸나(Canna) = 망상(妄想), 의혹(疑惑)<br/>황색(黃色) - 영원히</p> <p style="text-align: center;">☆ ☆ ☆</p> |
|-------------------------------------------------------------------------------------------------------------------------------------------------------------------------------------------------------------------------------------------------|-----------------------------------|------------------------------------------------------------------------------------------------------------------------------------------------------------------------------------------------------------------------------------------------------------------------------------------|

한 사람이 일어서서 목동의 피리 소리 들려오는 서쪽 기슭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윽고 한 수의 시조를 소리 높여 읊조렸다.

홍망이 우수하니 만월대도 주초로다.  
오백 년 왕업이 목적에 붙었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또 한 사람이 일어나며,  
“고려 망한 지 이미 4년! 잡초 우거진 옛 궁터에서 그대 원천석(元天錫)이 한 사람 슬퍼한들 무엇 하겠는가?”

하며 시조 읊은 사람의 등에 손을 얹었다.

“그러나 목은(牧隱)! 여조 오백 년의 사직이 그렇게 쉽사리 무너져야 옳단 말이오?”

하는 시조 읊은 사람의 말에 또 한 사람이,

“간악한 벼슬아치가 뒤끓는 판국에 나라도 백성도 저버리고 저 하나만의 부귀와 공명을 다 닦기 위하여 나라 안을 어지럽게 하고 있을 때 여기에 새 나라를 탐내는 사람이 있으니 어찌 망하지 않겠소. 야은(冶隱) 그렇지 않은가?”  
며 다른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러하옵니다. 목은 스승님! 계집에게는 두 지아비 없으며 신하에게는 두 임금 없다 하였사운데 고산 이존오, 포은 정몽주 스승님의 흉내는 못 낼망정 정도전과 같이 두 임금을 섬겨서 부귀공명을 도맡아 누리는 패도 있으니 가엾기 한량없는 것은 백성뿐인가 하옵니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말하며 두 눈을 꼭 감았다.

시조를 읊은 사람은 윤곡(耘谷) 원천석, 또 한 사람은 목은 이색(李穡), 다른 한 사람은 야은 길재(吉再)였으니 오래간만에 망한 나라 옛 궁터에서 만났던 것이었다.

최형(崔瑩) 정몽주(鄭夢周) 같은 기둥이 쓰러진 뒤 여말의 충신을 잃은 두 사람은 두문동(杜門洞)에 들어가 굳게 문을 닫은 뒤에 이색은 궁천(淸川)에서 여흥으로 여흥에서 다시 장흥(長興)으로 지나간 세월을 귀양살이에서 지치고 말았으며 원천석은 고려가 서산 낙일처럼 기울어져 가매 강원도 원주 치악산(雉岳山) 속에 파묻혀 내 손으로 밭 갈아 늙은 양친을 봉양하고 후진들을 훈도함에 겨를이 없었던 것이었다.

길재는 스승되는 이색을 향하여,

“목은 스승님! 스승님께서 귀양살이 하시는 동안에

이성계(李成桂)는 윤곡 스승님에게 사람을 몇 차례나 보냈으나 끝끝내 지절을 꺾지 않으시고 두문불출하셨답니다.”

하는 말에 이색은

“이성계가 윤곡과는 죽마의 벗이라 원천석의 사람 됨됨이를 잘 알고 있으니 까 꼭 등용하려고 했던 것이 틀림없소. 그렇지 않소 윤곡!”

하며 원천석을 바라보았다.

원천석은 침울한 얼굴로,

“목은! 이번에도 이성계가 내게 벼슬을 주겠노라고 사람을 보내지 않았겠소?”

하는 말에 이색은 놀랜 얼굴로,

“그러면 윤곡 원천석이가 변절을 하여 이성계를 섬기게 되었던 말이오?”

하고 원천석을 원망스러운 듯이 바라보았다.

“하하하하 목은! 목을 매어 끌어온들 이성계의 벼슬을 받을 나이겠소? 이번에 나온 것은 단순히 목은 공의 소식이 궁금하여 나왔던 것이요.”

하는 원천석의 말에 이색은 말하였다.

“그러면 그렇지 윤곡의 마음이 변할 리가 있겠소. 나도 이성계와는 두터운 교분으로 그 사람이 태조가 된 뒤에 내게 벼슬을 주겠다고 사람을 여러 번 보냈으나 주는 감투를 마다한 죄로 귀양살이도 살 만큼 살았소이다.”

“귀양살이에 얼마나 고난을 겪으셨소이까?”

“귀양살이 쫓아야 고생이랄게 있겠소. 이젠 머지않아 주검이 닥쳐올 것이요. 목을 매어 죽이든지 칼로 베어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 일게요. 포은처럼 철퇴로 처 죽이지는 않을 상 싶소이다.”

“그러나 목은공! 이번에 듣자 하니 공의 자제분이...”

“오오 애비 덕분에 귀양살이하는 자식 중학이, 종선이 말이오?”

“곧 풀려 온다지요?”

“풀려오는 날이 아마 숨지는 날일게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길재는,

“목은 스승님! 설마 그런 일까지야 당하겠습니까?”

하며 침통한 얼굴로 스승을 바라보았다.

“설마가 무언가? 최형 장군을 죽이고 포은을 죽인 이성계 줄을 야은은 모르는가?”

하는 이색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서리었다.

이성계는 정창군(定昌君)을 왕위에 들어 앉히고 당당한 전 임금의 아들을 신돈의 자식이라고 거짓 꾸미어 서인으로 삼고 그도 못마땅하여 죽이기까지 하였다.

이색은 깊은 한숨을 쉬며  
 “이성계는 이제 앞으로 그의 왕조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지 않고 얼마든지 없애버릴 터이니 한심한 노릇이지.”  
 하며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감빛 저녁 노을이 어두움 속에 사라져가는 저 하늘 아래에는 여조(麗朝)의 왕릉(王陵)이 있는 곳이었다.  
 길재는 격분한 어조로  
 “모두가 정도전(鄭道傳)이 같은 간신 때문입니다.”  
 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야은의 말이 옳소. 황초령(黃草嶺) 기슭 사냥꾼의 아들이 성계를 역적으로 만들어 왕좌에 앉힌 것도 간악 간사한 벼슬아치들이었소.”  
 이렇게 원천석은 말하며 잔디 위에 드러누웠다.  
 멀리 단소 소리가 서글프게 들려왔다.  
 길재는 시조를 읊었다.

오백 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결은 간데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이때 섬돌 아래에서 몇 사람이 오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누가 오는데?”  
 하는 천석의 말에 길재는  
 “이성계의 염담군인지도 모릅니다.”  
 하며 층계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운곡 스승님! 따르는 पै가 많은 걸 보니 굉장한 벼슬아친가 봅니다. 이리로 올라옵니다.”  
 하는 길재의 말에 원천석은,  
 “셋! 내가 수작을 걸어보지.”  
 하며 시조를 읊었다.

홍망이 유수하니 만월대도 추초로다.  
 오백 년 왕업이 목적에 붙었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원천석의 시조를 받아서 화답하는 사람이 있었다.

선인교 내린 물이 자하동에 흐르니,  
 만천 년 왕업이 물소리 뿐이로다.  
 아희야 고국홍망을 물어무삼하리요.

원천석은 씩 나서며 큰 소리로  
 “내 노래에 화답하는 사람은 삼봉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정도전을 삼봉이라고 부르는 이는——”  
 “듣던 소리도 같고 안 듣던 소리도 같지 않은가? 아! 그때는 하루도 못 만나면 서로 찾고, 한때만 눈에 안 띄어도 안타까이 찾아다녔거니——”  
 “그대는 누구인가?”  
 저편의 음성은 약간 높았다.  
 “따르는 무리를 물리치라. 이씨 왕조에 크게 감투를 쓴 정도전의 목은 벨 사람은 여기엔 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편의 강경한 태도에 저편 사람은,  
 “여봐라 너희들 아래로 내려가 기다리고 있거라.”  
 하고 따르는 무리를 물리쳤다.  
 원천석은 침착한 태도로  
 “정도전! 자네는 목은 스승님 문하에서 사서를 외우고 삼경을 읽던 정몽주, 이숭인, 이존오, 김구용이를 알 상 싶은데……”  
 하는 말에 떨리는 음성으로,  
 “아! 그러면 자네는……”  
 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원천석은,  
 “이존오는 일찍이 요승 신돈이의 오만무례함을 상소한 죄로 송주 석탄에 내려가 분통이 터져 죽었거니——정몽주는 이성계를 돕지 않았으므로 선죽교에서 처참한 죽임을 하였거니——김구용이도 의롭게 죽었고 이숭인도 머지 않아 죽을 것일세. 오늘까지 세상에 지탱하고 있는 누추한 몸뚱이는 나 하날 세나 그러!”  
 하며 저편 사람을 바라보았다.  
 “오! 자네는 운곡! 원천석이가 아닌가?”  
 “하하하하 몽롱한 달빛 아래서도 개국일등공신 삼도도통사(三道都統使)께서 치악산 처사를 알아보는 걸 보니 이진 경천동지할 일 인걸!”  
 “하하하하——원공! 그름 밤중인들 정도전이가 원천석을 못 알아보겠는가? 참 오래간만 일세나 그러!”  
 “괴이한지고! 부귀공명에 환장을 한 정도전에 대감의 눈동자만은 흐리지 않은 양 싶으니 기괴망측한 일이로다.”  
 정도전은 원천석의 쏘아보는 눈을 피하여 옆에 서 있는 이색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아! 목은……스승님!”  
 “정도전! 스승이라 부르질 말고 귀양이나 보내지 마라. 우리집 자식 종선이 종학이도 다 너의 공로로 유배되었다니 그 마음씨 가륙하도다.”  
 “처 천만에 말씀……그건, 그건 꼭해이십니다.”  
 정도전은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하였다.



“이제 앞으로 너는 내 자식을 죽이는 일에 선봉이됨을 사양치 않을 것이요 나를 처치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을 줄로 안다.”

“스스 승님! 그 그런 배은망덕하고 흉악무도한 일을 제가 하다니……”

매우 당황한 정도전을 옆에서 보던 원천석은 큰소리로 호통하였다.

“닥쳐라! 네가 녹을 먹고 충성을 바치던 고려를 헌신짝 같이 걷어차 버리고 이성계에게 아첨하여 부귀 복락을 한껏 누리고 있는 너는 이제 앞으로 이조를 배반하고 반기를 들고 날칠 날도 머지 않았느니라.”

“원천석! 너무 심한 호통이 아닐까?”

“치악산 처사의 언동이 개국공신에게 지나쳤다면 너의 도도한 권세로 나를 능지처참하면 되지 않겠느냐?”

“원천석 자네는 태조대왕과의 교분을 믿고 나에게 이렇게 해도 좋을 줄로 알고 있는가?”

정도전은 발끈하고 성을 냈다.

“하하하하하 삼봉! 너의 학문이 아깝다. 너의 능한문필과 시문으로 이조의 만세무궁과 이성계의 성덕을 찬양하는데 겨를이 없으며 그 학문, 그 지혜로서 삼척동자의 짓을 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로다.”

“운곡! 원공!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서울로 오게. 태조대왕께서는 아직까지 원천석을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네.”

“감투를 좋아하는 놈! 내 감투까지 네가 쓰고 다니려느냐!”

원천석은 주초를 치고 통곡하였다. 이색도 길재도 주초를 치며 울었다.

송악산 숲에서는 부엉이도 부엉부엉 울어댔다.

## 2. 두문불출(杜門不出)

태백산맥이 남으로 뻗어나가다가 오대산에서 갈라져 나가 원주벌을 내려다 보며 우뚝 솟은 산이 치악산이다.

치악산 각림사(覺林寺)라는 절에서 좀 떨어진 곳에 원천석의 집이 있었다.

날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 책을 보던 원천석은 조반을 일찌감치 먹고,

“옥련아! 나 오늘 뒷골 좀 다녀오겠는데 소 내다 매고 시전 어제 다음을 잃게 해라.”

하며 일어났다.

“네, 읽겠습니다.”

오양간에서 소가 울었다.

“소도 시장한 모양이구나.”

“네, 어서 빨리 숲속으로 가자고 재촉하는 것이랍니다.”

“하하하하 응, 그럴상도 싶다.”

“아버님! 오늘은 소를 각림사 절 밑에다 매려고 그러합니다.”

“응, 좋지, 풀이 한창 먹음직스럽게 우거졌더라.”

원천석은 책을 덮으며 딸을 내다보았다.

“아버님! 어제는 각림사 뒤 비탈에서 아주 큰 더덕을 꽤 많이 캐왔어요.”

“응, 그래? 참 잘 되었구나! 할아버님 생신에 잡숫도록 물에 푹 물려서 연하게 해서 올리게 해라.”

“네. 그리하겠습니다.”

옥련(玉蓮)이가 부엌으로 나가려고 하니 천석은 딸을 불러 세워놓고,

“그리고 할머니 약은 시간 어기지 말고 올리게 하라.”

하는 말에 옥련은

“네, 분부대로 하겠사오니 방심하시고 다녀오십시오.”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안심시켰다.

“저 참, 옥련아! 네 오라비 밭에서 들어오거든 잊지 말고 뒷골 좀 다녀오도록 하여라.”

“오늘 서울 가신다는 도령떡 말씀이옵니까?”

“그렇지, 그렇지! 우리 딸 옥련이도 그만하면 아버지 속에 들어 앉았구나!”

“호호호호 아버지두 참.”

“하하하하”

원천석은 옷갓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대문에서 아버지를 배웅하고 들어오는 옥련이의 귀가 따갑도록 까치가 지저귀었다.

마당을 쓸던 노비가 옥련이를 바라보며

“아가씨! 오늘은 귀한 손님이 오시려나 봅니다. 까치가 아주 자지러지게 우는 걸입쇼.”

하는 말에 옥련이는

“할멈두! 이 강원도 치악산 두메산골 속엘 누가 찾아 올라구?”

하며 울안 밤나무에 앉아서 지저귀는 까치를 쳐다보았다.

“두메산골이라두 영감마님 같은 어른이 계신 데 왜 귀한 손이 없겠습니까?”

“아버님이 송도에 가셔서 그쯤 하시구 오셨다니가 온다면 정도전이라도 올까?”

“작년 가을에 정도전이 영감마님에게 똥줄이 끊어진 일 말이지요?”

“그래 그 일이야.”

“정서방이 온다 해도 어디 귀한 손님입니까. 원수 우환 덩어리죠.”

“대궐에서는 또다시는 사람을 안 보낼게요. 할멈! 사촌오빠라도 오시려나”  
 까치는 아까보다도 더 자지러지게 지저귀었다.  
 “웬네가 괘를 보니까 남정네는 틀림없는데……그렇지 그렇지, 아가씨! 밤나무  
 골 도령님이 글을 지러 올지도 모릅니다요.”  
 “호호호호 할멈두! 왜 하필 밤나무골 도령을 끌어다댈까?”  
 “끌어다 대는게 아니라 점괘가 그렇게 나온거죠.”  
 “할멈이 언제부터 점쟁이가 됐지?”  
 “호호호호 아가씨 점은 그만두고라도 밤나무골 도령이야 그만하면 급제입  
 죠. 인물 좋겠다. 글 잘하겠다. 게다가 가문이 좋겠다. 영감마님께서도 글이  
 제일 용하고 기특한 도령이라고 전번 시회에서 칭찬이 자자하시던 걸입쇼.”  
 노비는 마당 끝에 비를 세우고 옥련이가 있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았다.  
 “할멈! 글을 잘해서 이성계의 새 나라 벼슬이나 꿈꾸고 있는 사람은 난 진정  
 이지 싫어.”  
 “밤나무골 댁도 두문동댁의 하나인가 본데 충신의 집에 어찌 역적 간신이  
 나올라구요.”  
 “정도전이 같은 사람도 있지 않아.”  
 “그런 사람이야 어디 흔합니까? 쌀에 누 섞이듯 흑간 가다가 드문드문 있  
 는 겁죠.”  
 한참 조용하더니 까치가 다시 지저귀었다.  
 “꼭 옵니다. 꼭 와요. 아가씨도 오늘은 곱게 단장을 좀 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젊은 상전과 늙은 계집종은 배를 움켜쥐고 한바탕 웃어댔다.  
 오양간에서 소가 “음매—”하고 울었다. 정녕 먹음직스럽게 우거진 수풀이 그  
 리운 모양이다.  
 옥련이는 생그레 웃으며 오양간에서 소를 끌어내어 고삐를 잡고 “이려! 쯤  
 쯤 쯤 이려! 이려!” 하며 대문간으로 나갔다. 시내에서 걸레를 빨아 가지고 들  
 어오던 노비가  
 “각림사 수풀로 가시는 갑쇼?”  
 하는 말에 옥련이는  
 “응, 곧 매고 올게. 약탕관 좀 들여다보고 있어.”  
 하며 방그레 웃었다.  
 “조심해 다녀오세요.”  
 노비는 숲속으로 들어가는 옥련이의 뒷모양을 배웅하고 안으로 들어왔다.  
 여러 산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에 섞이어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만이 들리는  
 산속은 고요하였다.

옥련이가 시내를 건너다가 소에게 물을 먹고 있으려니까 원천석이 언덕  
 아래서 올라왔다.  
 “어쩌면! 아버지! 왜 도루 오셔요.”  
 “응, 저 옥련야! 사랑방 좀 치워 놔니?”  
 “그럼요. 식전에 깨끗이 치워 놓은 걸요 뭐!”  
 “잠깐만 집에 다녀가거라.”  
 “누가 오시나요?”  
 “응, 귀한 손님이 오신다.”  
 “귀한 손님이 누구예요 아버지!” 대문 앞에 나왔던 노비가 입을 연다.  
 “영감마님! 귀한 손님이 오셨지요?”  
 “응, 귀한 손님이고 말구!”  
 “밤나무골에서 오셨는갑쇼?”  
 “아냐, 좀 먼 데서 왔어. 왜 할멈두 잘 알지 않아? 그때두 한 번 다녀간 아  
 은이랑구!”  
 “아버님! 길재 선생님께서 행차하셨군요.”  
 “응, 그래 길재가 뜻밖에 날 찾아왔구나.”  
 말방울 소리가 찢렁거리며 언덕 아래서 길재가 나귀를 타고 올라 왔다.  
 “아버님! 원로에 나귀를 타시고……”  
 “경마도 없이 왔더라. 어서 사랑방으로 모셔라.”  
 “네.”  
 “아가씨! 소는 원내가 갔다 매구 읊죠.”  
 “그럼 그렇게 해. 할멈! 각림사 밑에 마당바위 밑 위쪽으로 매개해. 알겠지?”  
 “네, 네, 압니다. 알아요. 이려! 이려! 쯤쯤쯤……”  
 노비는 소를 몰고 숲속으로 들어가고 옥련이는 길재를 맞으러 언덕으로 내  
 려갔다.  
 옥련이는 나귀에서 내리는 길재에게  
 “야은 선생님! 원로에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였다.  
 “음, 괜찮다. 내가 옥련이라고 했지?”  
 “그러하옵니다.”  
 “떡 컸구나. 아주 몰라보게 컸다. 그때 논어를 읽고 있더니 지금은 어디까  
 지 읽었느냐?”  
 “네, 무얼 아옵니까 만든 삼경을 외운 뒤 사서를 읽고 있습니다.”  
 “흠! 기특하다.”  
 “어서 사랑으로 들어가시지요.”  
 “오냐 걱정 마라. 시냇물에서 세수를 좀 하고 올라가지.”  
 “그러하옵니까. 저 큰 바위 모퉁이가 험하옵니다. 옥련이는 길재의 잡은 고  
 뼈를 움켜 잡았다.”  
 “저 바위쫘이야 꺾어봤으니까 걱정 없다.”

“그러하옵니까. 조심해 다녀오십시오.”

길재는 시냇가로 내려가고 옥련이는 나귀를 끌고 집으로 들어갔다.

원천석과 길재는 거의 일 년 만에 자리를 같이하여 앉았다. 원천석, 이색, 길재가 송도에서 만나 만월대 주춧돌을 치고 통곡한 것도 벌써 지난해 가을의 일이었다.

“야은! 위급한 일이라도 생겼는가? 원천석은 길재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운곡 스승님! 슬픈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길재의 얼굴에는 자못 비장한 물결이 굽이쳤다.

“슬픈 소식이라니? 그럼 급기야 일을 당하고 말았는가?”

“네, 눈으로 볼 수 없는 처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하며 길재는 처참한 일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목은 이색은 태조 이성계가 친분이 있던 관계로 여러 차례 이성계가 귀하게 쓰려고 이색의 입조를 간청하였으나 굳이 거절하였다.

그 죄로 여러 해 귀양살이에서 풀려나긴 했으나 그의 아들 중학과 종선을 귀양살이에서 놓이지 못하기는 고사하고 효수한다는 소문이 자자하였었다.

얼마 전에 이색의 장자 중학이가 배소에서 나오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정도 전이는 흥종(興宗)이를 시켜 중학을 무참히도 때렸으나 죽지 아니하므로 목은 매어 죽인 뒤, 체복사(體覆使) 황거정(黃居正)을 시켜서 이승인(李崇仁)의 허리를 칼로 찢으나 죽지 않음에 말 위에 가로 매달아 말을 말리게 하여 무참히 죽였다는 것이었다.

원천석은 긴 한숨을 쉬며

“음! 원통한 일이로다!”

하고 눈을 꼭 감았다. 두 줄기의 눈물이 소리 없이 주름 잡힌 얼굴을 흘러내렸다.

“운곡 스승님! 그리고 이번에 조민수, 이립, 변안렬, 권중화, 권근, 장하, 이귀생 같은 사람들도 중학공과 더불어 원통한 주검을 하였습니다.”

“위화도 회군에 공이 큰 조민수까지 죽이는 판국이니 우리들의 목숨이 아직 길군그래! 그러면 이색공의 소식은 아나?”

“네, 아웁니다. 목은 스승님께서서는 그만……”

길재는 말끝도 아물이지 못하고 북받쳐 오르는 울음을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목은도 급기야 가고 말았네 그러!”

원천석은 아랫니로 윗입술을 지긋이 깨물었다.

길재가 말하는 목은 이색의 처참한 주검은 이러하였다.

조정에서는 목은의 주검에 대하여 여주(驪州) 청심루(淸心樓) 하류 연자탄이란 여울 배 위에서 실족하여 사망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은 물속에 밀어쳐 넣어 죽인 것이었다.

“그것도 정도전이란 놈의 짓일 터이지?”

하는 원천석의 말에 길재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옵니다.”

하며 눈물을 씻었다.

“저의 스승도 죽이고 그 스승의 아들도 죽이고 친절한 친구도 죽이는 놈이니 앞으로 우리도 죽일 것일세.”

“그러하옵니다. 동서 두문동 일백 열여덟 사람 알알이 살살이 뒤흔겨내어 북방산 귀신을 만들 것입니다.”

“야은! 백 번 죽을지라도 내 나라는 하나일세!”

“웁습니다. 천 번 죽어도 우리에게 두 입금은 있을 수 없습니다.”

비장한 가운데서 두 사람 사이에는 잠깐 동안 침묵이 흘러갔다. 이때 방문이 열리며 노비가 들어왔다.

“영감마님! 왔습니다. 왔어요.”

“오다니 누가 왔기에 이리 당황한고?”

“한양에서 정안군(靖安君)이 보낸 사람이랍니다요.”

“정안군! 그럼 이방원(李芳遠)이가 보낸 사람으로군. 할멈 없다고 그러게.”

“네, 깊은 산속으로 야초를 캐러 가셨다고 하였습니다요.”

“의견 것 말해 보내도록 해.”

천석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서리었다.

“네, 이젠 몇 번 겪어봤더니 한성 사람 따 돌려보내는 데는 능통했습니다요.”

노비는 밖으로 나갔다. 한양서 왔다는 사람은 뜰 안으로 들어온 양 밖에서는 떠들썩하는 소리가 들렸다.

“할멈 꼭 좀 만나 봐야야 하겠소.”

“글쎄 깊은 산속으로 야초를 캐러 가셨는데 왜 이리 여러 말씀이십니까?”

“지금 방안에서 들려 나오는 음성을 내가 울 밖에서 확실히 듣고 들어왔소.”

원천석은 방문을 열고 나서며

“원천석은 확실히 여기 있소이다.”

하며 한양서 온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운곡, 운곡공! 염치 불고하고 공을 뵈려고 불원천리하고 치악산까지 들어왔습니다.”

하며 한양서 온 사람은 허리를 굽히었다.

원천석은 비웃는 듯한 태도로,  
“좌명공신(佐命功臣) 부원군(府院君) 박석명(朴錫命) 대감이 치악산 처사 원천  
석을 만나러 오다니 괴이한 일이로다.”

하며 마루 끝에 걸터 앉았다.

“정안군께서 꼭 좀 뵈옵자는 분부입니다.”

“귀하신 몸 정안군께서 땅파고 풀뜯는 원천석을 어이 만나려시고?”

“정안군께서는 운곡 원공에게 훈도를 받은 옛 정을 잊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공의 인품과 학문을 흠양하셔서 이번엔 꼭 뵈옵고 지극한 중대지사를 의논  
하신다고 하시옵니다.”

박석명의 말은 간절하였다.

“안 될 말이외다. 박공 나보고 박공을 닮아서 이성계가 주는 벼슬을 받으란  
말이요?”

“원공! 지금은 고려 왕조가 아닙니다. 이태조의 은공으로 우리가 살거늘 어  
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박석명! 너는 고려 왕조의 녹을 먹다가 이성계가 나라를 빼앗은 뒤 태조의 세  
상이 됨에 또다시 이조의 녹을 먹고 있지만 나는 이성계가 주는 감투를 숨이  
넘어가도 쓰지 않을 것이요. 능지처참을 하여도 이조의 녹은 먹지 않으려다.”

원천석은 큰소리로 호통을 하였다.

“원공! 일의 처사는 원형이정대로 하셔야 할 줄 압니다. 통촉하시옵소서.”

하고 박석명은 또 한 번 허리를 굽혔다.

원천석은 벌떡 일어서며 큰 소리로,

“가거라! 나도 너같이 이조에 허리를 굽히고 비굴하게 살란 말이나?”

하며 주먹을 부르짖었다.

박석명은 원천석 등용의 공로를 세우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눈물  
을 머금고 한양으로 돌아갔다.

이조 오백 년의 역사의 아침은 골육상쟁으로 시작되었으니 이성계의 왕위 계  
승 부당성이 원인으로 하여 태조 7년에 정도전의 난에서 방원은 이복동생 되  
는 방식(芳碩) 방번(芳蕃)을 죽이게 됨에 태조는 둘째 왕자 방과(芳果)에게 왕  
위를 물려주고 함흥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

정종 2년에는 왕자의난, 소위 방간의 난이 일어나 방원은 이것을 평정하고 왕  
위를 물려받아 왕위에 오르니 이가 곧 태종(太宗)인 것이다.

### 3. 태종대(太宗臺) 유래

산골의 해는 날래 저물었다. 앞산에 해가 뒸는가 하면 어느 사이에 뒷산 봉  
우리로 넘어갔다.

각림사(覺林寺)의 저녁 재를 올리는 종소리가 울려왔다.

“아버님이 왜이리 늦으시는지 모르겠어.”

하는 옥련의 말에 노비는 병글병글 웃으며,

“오늘은 아마 밤나무골 도령님하교의 혼담을 끝장을 내시고 오시려나 봅니다.”

한다. 옥련은 미소를 띄고,

“할멈두! 무얼 그럴라구……?”

하며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때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나며 바둑이가 뛰어 들어왔다.

“어머나! 우리 바둑이가 왔네.”

하며 옥련은 바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노비는 일어나며

“바둑이가 혼자 올린 없고 아마 영감마님께서 오시는가 보군요.”

하고 대문간을 내다 보았다.

밖에서 소의 우는 소리가 들렸다.

“할멈! 저게 웬 소 울음소리일까?”

“웬 소리니요. 이 골에 우리 소 밖에 또 있습니까요?”

노비가 대문간으로 나가자 원천석이 소를 몰고 들어왔다.

“할멈! 소 좀 들여 매게하지?”

“예, 예,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아버님!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오냐. 네 오라비는 아직 밭에서 안 들어왔구나.”

“해가 기울었으니까 곧 들어올 겁니다.”

원천석은 얼마간 긴장한 표정으로,

“아가! 방원이기 원주에 왔다는구나.”

하며 장죽에 담배를 담는다.

“이 두메산골엔 무엇하러 왔을까요?”

“방원이기 지혜있는 사람이라 왕의 자리를 차지한 뒤에 민심을 다잡으려고  
나라 안을 다순찰하는 모양이다.”

원천석이 방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바둑이 짖는 소리가 나며 노비가 문밖에서  
들어왔다.

“영감마님! 왔습니다. 왔어요.”

“오다니 누가 왔단 말이고?”

“그때 왔던 이방원이 심부름꾼이 또 왔어와요.”

“응, 박석명이 왔군그래.”



“그 사람이 대문간에 들어옵니다요.”  
 “그 녀석이 무엇하러 또 왔어?”  
 천석이 뜰 아래로 내려서려고 할 때 박석명이 뜰 안으로 들어왔다.  
 “상감마마의 거동이십니다.”  
 “원주에 왔다는 말 들었소이다.”  
 “여기까지 거동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자네가 드디어 공로를 세웠네 그러!”  
 “대문 밖 시냇가 큰 바위 위에서 쉬시고 계십니다. 어서 나가시지요.”  
 박석명은 천석은 나가서 상감마마를 뵈을 것을 지극히 권하였다.  
 “나는 만날 수 없소.”  
 “오직 원공 한 분을 만나 보시려고 황궁하옵게도 이 험로에 친히 거동하신  
 게 아닙니까?”  
 “연전에 당신이 왔을 때도 내가 딱 잘라 말하지 않았소? 이방원이가 정안군  
 이 되고 정안군이 다시 금상의 자리에 올랐다 해도 나의 절의는 한결같소.”  
 원천석의 음성은 얼마간 컸다.  
 “백성 되고 신하 된 자의 도리가 있지 않을까요?”  
 박석명의 소리는 높았다.  
 “나는 고려의 백성이요 여조의 신하다. 너는 두 임금을 섬겨서 부귀공명을  
 누리려는 것이 도리일는지 몰라도 나는 초근 목피를 씹으면서라도 이조의 임금  
 은 섬기지 않을 테이다.”  
 하고 원천석은 크게 외쳤다.  
 “깊이 통찰하심을 재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는 박석명의 말에 원천석은 대꾸도 안 하고 옥련을 향하여 말하였다.  
 “아가 네 오라비가 몹시 늦는구나. 아버지와 함께 뒷골까지 가 보련?”  
 “네, 모시고 가겠습니다.”  
 “박공! 공의 정성은 지극하오마는 치악산 초막에서 늙으신 양친을 모시고 풀  
 을 뜯고 있는 원천석이의 심중도 한번 깊이 헤아려보기를 바라오.”  
 원천석은 박석명을 뜰 안에 남겨둔 채 뒷문으로 나갔다.

이윽고 박석명 혼자만이 태종이 앉아있는 큰 바위로 갔다.  
 “어인 일로 경 혼자만 왔는고?”  
 태종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하였다. “깊은 산속으로 야초를 캐러 갔다 하  
 읍는데 금명간 돌아오기 어렵다고 집을 지키는 늙은 계집종이 말하옵나이다.”

“내가 친히 찾아와도 안 만나 주다니 섭섭한 마음 그지 없도다.”  
 “오만무례하기 짝이 없사옵나이다.”  
 “운곡 원천석은 짐의 나이 어릴 때 스승이로다. 고려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  
 극하여 끝까지 절의를 지켜서 이조의 녹을 아니 먹으려고 하는 그 심사가 가  
 특하도다.”  
 “황궁하옵기 그지 없나이다.”  
 “노비를 불러오게 해라.”  
 “바로 대문 밖에 서있사온대 곧 대령하도록 하겠나이다.”  
 박석명은 곧 노비를 데리고 큰 바위로 돌아왔다.  
 “대령하였나이다.”  
 “네가 원천석의 집 종이나?”  
 “늙도록 모시고 있사옵나이다.”  
 “천석 모의 병은 어떤고?”  
 “하도 오랜 병이오라 별별 약을 다 써보았으나 백약이 무효인가 하나이다.”  
 “네 주인은 약을 캐러 갔다구?”  
 “야 약이오니까? 네, 네, 깊고 깊은 산중으로 아가씨까지 가셨사온데 아마 며  
 칠 걸릴 상 싶사옵나이다.”  
 노비는 땅에 엎드리어 이마를 조아리며 당황히 말하였다.  
 노비를 내려다보던 태종은 지긋이 눈을 감고 길게 한숨을 지었다.  
 “그렇다! 운곡은 나의 스승일 뿐이지 신하는 아니다. 여봐라! 이 늙은이에게  
 금품을 후하게 내려라.”  
 태종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이 바위에서 내려왔다.  
 태종은 황감색 저택 노을에 곱게 물 들은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각림사 골짜  
 기를 내려와 치악산을 하직하고 원주로 향하였다.  
 원주 치악산 각림사 옆에 있는 태종이 앉아서 원천석을 기다렸다는 큰 바위  
 를 그 뒤의 사람들은 태종대(太宗臺)라고 불렀다고 한다.

(끝)

### 금 언

- ◇ 사람마다 오래 살기를 원하나 늙기는 바라지 않는다.
- ◇ 훌륭한 법률가는 괴로운 이웃이다.
- ◇ 현명한 사람도 바보에게 배울 것이 있다.
- ◇ 논쟁이 지나치면 진리를 잃는다.
- ◇ 우정은 혈족보다 강하다.



<번역단편>

## 밝혀진 등불

오 헨리 원작(原作)

물론 세상사에는 양면이 있는 것이다. 그 제 이면을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우리들은 샵 걸(Shop girls=여점원)이란 말을 가끔 듣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은 존 재하지를 않는다.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거기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째서 그들의 직장이 형용사로 나붙어야 하느냐 말이다. 공평 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5번가의 주택지에 사는 여자들을 결혼녀(Marriage-girls)라고 부르지는 않는 게 아니냐.

루와 낸시는 학교 동창이었다. 고향에서는 돈벌이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도 회지로 나와 직장을 구하는 판이었다. 낸시는 열아홉, 루는 스무 살로서 둘 모두 예쁘고 활발한 시골 처녀였으나 그렇다고 배우가 되고 싶은 욕심은 조 금도 없었다.

하느님이 도우셨는지 값싸고 그럴듯한 하숙집을 그녀들은

얻어 들었다. 그리고 직장을 얻어서 월급쟁이가 되었다. 그로부터 여섯 달이 지난 오늘, 나는 독자 여러분을 그들에게 소개코자 하는 것이다. 자—독자 여러분 여기 제 여자친구, 낸시양과 루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수를 하는 동안 조심스레 그녀들의 옷맵시를 살펴보시기를. 그녀들은 꼭마단의 특별지정석에 앉은 숙녀만큼이나 자기네를 살펴보는 것에 화를 낼 것이다.

루는 세탁소의 다림질꾼이다. 어울리지 않는 자주빛 양복에다 모자 깃은 또 너푼이나 길죽하다. 허지만 아민 가족 토시와 목도리만은 이십오불 짜리다. 그녀의 뺨은 볼그스레 하고 푸른 눈은 빛난다. 만족감 비슷한 어떤 것이 그녀로부터 풍겨나오는 것이다.

낸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습관이 붙어있으므로 그녀를 여점원이라고 부를 것이다. 거기에는 틀(형(型))이란 것이 없는 것이다. 허나 괴팍한 현세대는 자꾸 틀을 추구하려고 들므로 어차피 그것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녀는 뒷머리를 바짝 올려 부치고 앞머리는 지나치게 일직선으로 다듬었다. 치마는 값싼 모직물이지만 멋있게 퍼져있다. 아직 쌀쌀한 봄날씨인데도 털목도리 하나 두르지 않았지만 잘막하고 품 넓은 자켓을 마치 페르시아 산 양가죽이나 되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걸치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얼굴에는 노동자에는 전형적인 여점원의 냉혹한 타입 추구적 기질이 어려 있다. 그것은 잔잔한 것 같지만 실은 무위(無爲)의 여자기질에 대한 오만한 항거인 것이며 또한 닥쳐올 복수의 서글픈 예언이기도 한 것이다. 그녀가 깔깔거리고 웃을 때에도 그 기질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그것은 남성을 뇌살시켜야만 되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남성은 그 앞에서 능글맞게 웃고 또 거기에다 꽃다발까지 바치는 법을 알아 왔다.

이제 독자 여러분께서 “또 뵙겠어요”라는 쾌활한 루의 인사를 받고 또 좀 섭섭한 눈치를 보이면서 흰나뽕이 모양 필적필적 날뛰는 낸시의 냉소적이면서 달콤한 미소를 보셨거들랑 모자를 드시고 자리를 뜨십시오.

그 두녀는 길모퉁이에 서서 댄을 기다리었다. 댄은 루의 착실한 남자친구인 것이다.

“출지 않니, 낸시?” 루는 말했다.

“이봐, 일주일에 겨우 8불 벌려고 그 낱아빠진 상점에서 일하고 있으니 그거 얼마나 바보짓이나? 물론 다리미질이란 것이 계산대 뒤에 서서 레이스를 파는 일만큼 멋진 것은 아니겠지. 하지만 그만한 대가가 있거든. 우리들 중에 십 불도 못 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일이란 게 그렇게 천한 것두 아니구 말야.”

“너는 그럴테지, 난 한 주일에 팔 불짜리를 버틸테야. 값진 물건들과 대단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는 게 난 더 좋아. 그리고 생각해봐, 얼마나 좋은 기회를 내가 얻었는가를. 장갑 파는 애의 하나는 피츠버그의 철광업자와 결혼해서 백만장자가 되었던 말이야. 나도 언젠는 한 번 뺨을 잡을 거야. 난 지금 내 걸치레를 허풍 떠는 게 아니야. 행운이 것들은 기회를 붙잡으려는 것이야. 너희들은 세탁소에서 무슨 뽀족한 수가 있나니?”

“애 없니? 댄을 만난 곳도 거건데.”

루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는 일요일 셔츠와 카라를 달이려고 들어와서 내가 일번대(臺)에서 다리미질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말야. 우리들은 일번대에서 일하려고 모두 애쓰고 있어. 엘라가 그날은 아팠거든. 그래서 내가 대신 그 애 자리에 갔던 거지. 그이가 말하는데 자기는 얼마나 통통하고 흰 팔이나 하고 첫눈에 내 팔에 눈독을 들였다는 거야. 난 소매를 걷어부치고 있었지. 멋진 양반들도 가끔 세탁소에 들어오지. 옷을 옷상자에 넣으라는 등 문을 쾅 잡아다니라는 등 그들과 얘기할 수도 있어.”

“넌 어찌면 이런 조끼를 입고 있니, 루야? 이걸 아주 보기 사나운데.” 낸시는 두꺼운 눈꺼풀에 경멸의 빛을 띠고 조끼를 내려다보면서 말하였다.

“이 조끼 말이냐?” 루는 화가 치밀어 눈을 활짝 뜨면서 지껄었다.

“이거 십육 불 주고 산 거다. 원은 이십오 불짜리지. 어느 부인이 세탁해 달라고 이걸 가져왔어. 헌데 찾아가지지를 않았어. 그래 주인이 내게 팔았지. 이것은 온통 손으로 수놓은 것이야. 네가 입고 있는 그 불품없고 천한 거나 얘기하는 게 더 나올 거야.”

“이 불품없고 천한 옷은 말이야,” 이번에는 낸시가 침착하게 대꾸하였다.

“그래봐두 반 알스타인 핏셔 부인이 입고 있는 옷 중에서 본뜬 거라누. 작년 그녀의 백화점 계산서는 일만이천 불이라고 하더군. 이 옷은 내가 손수 만들었지. 일 불 오십 선 들었어. 암만 바짝 닦아서 봐도 넌 그녀의 것과 이것을 분간할 수야 없지.”

“아 그래…….” 이번에는 루가 상냥하게 말하였다.

“만일 굶어 죽으면서도 허풍을 입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난 내 일터와 샅돈을 취하겠어. 너는 이제 얼마 뒤에 내가 살 수 있는 멋진 물건이나 내놓아라.”

바로 그때 댄이 왔다. 그는 기성 넥타이를 맨 좀 신중한 청년으로 도회지의 경박한 분위기를 초탈한 사나이였다. 전기기술자로서 주당 삼십 불을 벌었다. 그는 로미오와 같은 서글픈 눈으로 루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수가 놓인 그녀의 조끼를 파리들이 기꺼이 뛰어드는 거미줄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오웬스씨 덴포드 양과 악수하세요.” 루가 말하였다.

“당신을 알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덴포드양. 루에게서 당신 얘기 자주 들었습니다.” 댄이 말하였다.

“감사합니다. 루가 당신 얘기하는 거 저도 많이 들었어요.” 낸시는 차가운 손가락 끝으로 그의 손가락을 쥐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루는 꺾꺾거렸다.

“너 반 알스타인 핏셔 부인에게서 그런 악수 배웠니, 낸시아?” 그녀는 물었다.

“내가 만일 그랬다면 넌 그걸 모방하려고 할 테지.”

“오- 난 그런 거 해보지 않았어. 그건 내게는 너무 멋진 것이야. 그런 고급 악수에는 보석 반지가 필요하지. 몇 개 살 때까지 기다려. 그때에 한 번 그런 악수해 보지.”

“먼저 배워둬. 그러면 반지도 더 쉽게 생길테지.” 낸시가 빈틈없이 말하였다.

“자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까.”라고 댄은 불쾌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두 분을 티파니의 연극에 모실 수는 없고……. 짝막한 회극에 가는 것 어떻습니까? 표도 있는데요. 진짜 보석 반지를 낀 손과 악수할 수 없는 처지이고 보니 무대 위에 번쩍이는 보석들을 바라보는 건 어떠하십니까?”

이 충실한 신사는 맨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루는 공작새마냥 뽐내면서 그 곁에 앉고, 참새마냥 검소하고 수수하게 차린 낸시는 그 안쪽에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녀는 반 알스타인 핏셔 부인의 걸음걸이를 잊지 않았다. 이리하여 그들은 검소한 오후의 유흥에 잠기는 것이었다.

대백화점을 교육기관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낸시가 일하고 있는 백화점은 그녀에게 하나의 교육기관인 것이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에서는 아치(雅致)와 정련(精鍊)이 풍겨 나오고 있다. 당신이 만일 사치품 속에서 살아간다면 당신이 돈을 내고 사던 다른 이가 사던 그것은 당신의 것인 것이다.

그녀가 접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가 부녀자로서 그들의 의상이나 태도나 사회적 신분은 표준형으로 알려져 있다. 낸시는 자기 의견에 따라 가장 좋은 점을 그들 하나하나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느 여인으로부터는 행동이나 제스츄어를, 또 다른 여인으로부터는 눈썹을 치키면서 하는 웅변술을 배우며 또 어느 여인으로부터는 걸음걸이랑 지갑을 지니는 방법, 미소짓는 법, 친구와 인사하는 법 또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과 이야기하는 법 등을 모방하는 것이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모델인 반 알스타인 핏서 부인에게서는 부드러움과 낮으면서도 은처럼 명확한 음성과 완전한 발음을 배우는 것이다. 이러한 상류사회의 세련과 예의범절에 젖어들므로 그녀가 그 영향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좋은 습성은 이론보다 더 낫다는 말과 같이 아마 좋은 태도나 행동양식은 습성보다도 더욱 좋을 것이다. 부모가 가르친다 하더라도 순교도의 양심은 당신 속에 살아있지 않을 것이지만 만일 당신이 깨끗한 나무 의자에 앉아서 프리즘과 필그림이라는 말을 마흔 번만 외운다면 악마는 당신에게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와 같이 낸시가 반 알스타인 핏서의 음성으로 이야기할 때면 그녀는 귀족 신분적 의무감을 빼속 깊이 느끼는 것이었다.

이 거대한 백화점 학교에게는 또 다른 배움의 원천이 있었다. 셋 혹은 넷씩 떼를 지어 모여서 여점원들이 시시한 얘기에 맞추어 쇠팔찌를 찔랑거리는 것을 보더라도 당신은 그들이 무슨 뒷머리 틀어 올리는 법을 숙덕거리려고 모였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기를. 비록 그 회합이 남성성에 대한 토론의 권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가정에 있어서의 그의 적당한 위치를 알아차리도록 하기 위해 이브와 그 만딸이 머리를 맞대고 소곤소곤하였던 그러한 중대한 사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무대와 남성관중들로 이루어진 세상에 대한 공격과 반격에 대해 공동방위와 전략이론을 교환하는 부인회』인 것이다. 하지만 사슴의 우아함을 지녔으면서 그 신속함을 갖지 못했으며 새와 같은 아름다움을 지녔으며 그 나는 힘을 갖지 못했고 또 꿀벌처럼 달콤한 것을 지녔으며……아, 이러한 직유는 집어 치우시다. 우리들 중에 누가 썩었을지도 모르니까. 여하튼 이렇듯 동물 가운데 제일 무력한 것이 여인.

이 전략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그녀들은 무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또 각기 생활 전술에서 창안 형성한 전략을 교환하는 것이다.

갈색 흑색 황갈색 붉은색 황색 등의 머리들이 모이고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다. 공통의 적인 남성과의 전투에서 각자가 앞으로 이용할 기습에 대한 회피책이 마련되어 지는 것이다.

이렇듯 낸시는 방위술(防衛術)을 배운다. 물론 여인에게서 성공적인 방위술 승리를 뜻하는 것이다.

백화점의 강의과목은 다방면에 걸쳐 있다. 어떠한 대학이라도 행운의 결혼을 꿈꾸는 그녀의 야망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백화점에서의 그녀의 자리 또한 마음에 드는 곳이다.

음악감상실이 가까이 있어서 유명한 작곡가의 작품을 늘 들으며 거기에 정통할 수가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녀가 몹시도 밭 붙이려고 애쓰고 있는 사교계에서도 그 진가가 인정되는 것이다.

다른 소녀들은 낸시의 야망을 곧 알아차렸다. 그럴듯한 남자가 그녀의 카운터에 다가올 때마다 그들은 그녀를 부르는 것이었다. “애, 낸시야 네 백만장자가 오신다.” 부인들이 물건을 사는 동안 그들의 남자들은 보통 손수건부근방을 어슬렁거리는 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 있다. 교양이 높은 체 꾸미는 데다가 우아한 미를 지녔으니 낸시가 인기를 끌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므로 몇 남자들이 그녀의 앞에 와서 호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어떤 이는 정말 백만장자일 테지만 백만장자 인체 기가 막히게 꾸미는 사람도 많았다. 낸시는 이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되었다. 손수건부 카운터 끝으로 창이 하나 있어서 길에 줄지어 있는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의 차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것이다. 주인에 따라서 그 자동차도 다르다는 것을 그녀는 알아차리게 되었던 것이다. 한번은 멋쟁이 신사 한 분이 네 타스나 되는 손수건을 사더니 카운터 사이로 그녀에게 치근거리 왔다. 그 남자가 가버리자 한 소녀가 말하였다.

“아니, 그 양반한테 그렇게 쌀쌀하다니, 낸시야 너 웬일이야? 내가 보기엔 멋있던데.”

“그이가?” 낸시는 냉소적이면서도 달콤한 반 알스타인 핏서 부인의 미소를 지으면서 대꾸했다.

“내 것은 못되. 그가 운전하는 걸 밖에서 본 적이 있지. 자동차도 엉망인데다가 아일랜드 태생의 운전수야! 더군다나 어떤 손수건을 사갔는지 너도 봤잖아? 명주 손수건! 권하려면 좀 똑똑한 걸 권하구 그렇잖음 그만 뒤, 제발!”

백화점 안에서 가장 세련된 여인으로서 문전안내인(門前案内人)과 출납계 여인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멋진 신사 친구가 몇몇 있어서 가끔 함께 식사를 나누곤 하였다. 한번은 낸시를 자기들 초대에 데리고 갔었다. 그것은 일류의 카페였는데 식탁은 벌써 신년 축하파티를 위해 예약되어 있었다. 두 신사 친구 중의 하나는 고등 생활 덕택에 머리에는 머리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친구였고 또 하나는 자기 재산과 뒤통이를 두 가지 그럴듯한 방법으로 드러내려는 젊은 친구였다. 즉 그는 술이란 술은 모두 코르크 마개를 하였다고 욕지거리를 하였으며 또 보석 카프스 단추를 달고 있었다. 이 젊은 친구가 낸시에게 훌쩍 반해 버렸다. 그는 원래 여점원에게 취미를 갖고 있었는데 여점원이라는 신분에서 나오는 매력



에다가 자기와 같은 상류사회의 음성과 태도를 짓들인 낸시가 나타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다음날 이 신사는 백화점에 나타나서 아일랜드산 린넨 손수건 상자 너머로 그녀에게 신중한 청혼을 하였다. 낸시는 거절하였다. 갈색 트레머리 처녀 하나가 멀찍이서 이 광경을 보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신사가 거절당해서 가버리자 그 처녀는 낸시에게 일장의 혼시를 퍼부었다.

“이 매친 꼬마 바보야! 그 양반은 백만장자야— 반 스키티스 노인의 친조카거든. 그리고 아까는 정색으로 얘기하던데, 더 미쳤니, 낸시아?”

“내가?” 낸시가 말하였다. “난 응낙하지를 앓았던 거지— 그는 절대로 백만장자가 못 돼. 집에서 그에게 쓰라고 주는 돈은 일 년에 이만 불밖에 안 되거든. 그 머머리 양반이 그걸 가지고 며칠 전날 밤에 그에게 놀렸든 거야.”

갈색 트레머리 처녀는 한 발짝 더 다가오면서 눈살을 찌푸렸다.

“넌 도대체 뭘 바라는 거야? 그게 너에게 넉넉지 못하다는 거야? 일부다처주의자가 되어서 립페퍼와 그랫든스톤 두위—그리고 서반아의 왕과 결혼할 셈이냐? 일 년에 이만 불이 네게는 부족한 거야?”

낸시는 천박한 눈동자들의 주시를 보고 다소 얼굴을 붉혔다.

“돈이 전부가 아니야, 캐리야.” 그녀는 설명했다.

“언젠가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그는 지독한 거짓말을 한 탓으로 그이의 친구에게 닦아세웠었지. 난 거짓말쟁이는 못 참아. 모든 면에서 난 그이를 좋아 안해. 그거지. 난 한몫보려고 노리고 있지만 그건 장난감 건반처럼 소리 내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일 수 있을 거야.”

이 쿼대 높은 생각을 낸시는 주당 팔 불로서 키워나가는 것이었다. 말라빠진 빵을 먹으며 매일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그녀는 한몫이라는 알 수 없는 행운을 그리면서 지내는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숙명적인 남자 탐색가다운 핏기 없으면서 늙름하고 또 달콤하고도 냉엄한 미소가 어리는 것이었다. 백화점은 그녀의 사냥터이어서 여러 번 그녀는 빨이 크고 큼직한 듯한 사냥감에 총을 겨누는 것이었으나 여사냥꾼의, 아니 여자로서의 실수 안 하려는 본능 때문에 늘 그녀는 총을 못 쏘고 다시 수색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세탁소에서 일하는 루는 꽃이 피었다. 일주일의 십팔 불 오십 전 받는 것에서 하숙방 값으로 육 불을 낸다. 그 나머지는 주로 옷 사는데 나간다. 취미나 몸가짐을 향상시키는 기회는 낸시에 비해 적었다. 김이 서린 세탁소에는 일밖에 없었다. 일과 저녁때 즐길 생각뿐이었다.

값나가고 그럴듯한 많은 친들이 그녀의 다리미 밑을 거쳤다. 옷에 대해 그녀가 취미를 더하기는 것은 아마 이러한 덕택에서 일 것이다.

하루 종일의 일이 끝나면 댄은 밖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는 그녀가 어떠한 불빛에 서던지 충실한 그녀의 그림자가 되었다.

그는 가끔 정직하고도 난처한 눈으로 요란한 루의 옷을 바라보는 것이었으나 이것이 불신은 아닌 것이었다. 그는 길거리의 사람들이 그녀에게 던지는 눈총을 피했으면 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루도 그에게 그만큼 성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소풍을 갈 때에는 언제나 낸시도 그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법칙을 세웠다. 댄은 그 커다란 경비를 기꺼이 부담하였다. 날씬하지만 기성복 기성 넥타이에, 실수를 모르는 온화한 기질을 가진 이 호위병은 흥분하거나 충동할 줄을 몰랐다. 그는 뼈대가 없는 온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눈앞에 있는 동안은 있는지 없는지 잊어버릴 정도도 그들이 살아지고 난 후에야 분명하게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고답적인 낸시의 기질로서는 이 꾸어온 듯한 쾌락이 가끔 괴로운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젊었다. 젊은이는 미식가가 될 수 없는 바에는 차라리 대식가가 되는 것이다.

“댄은 내가 자기와 곧 결혼해 주기를 늘 바라고 있어. 하지만 내가 왜 그래야만 되느냐 말야. 난 지금 독립해서 살아나갈 수 있지. 내가 벌어서 돈을 쓸 수 있다면 결혼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는 결혼 후에 일하라고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낸시아, 넌 어찌자구 그 낡아빠진 백화점에 딱 붙어 있는 거야? 반은 굶고 옷도 제대로 못 입으면서, 네가 오기만 한다면 난 세탁소에 네 일터 하나를 곧 얻을 수 있어. 돈 좀 벌어보면 네 쿼대도 좀 알아지리라고 난 보는데.”

“내 쿼대가 세다고 난 생각지 않아.” 낸시가 말하였다. “하지만 반 굶더라도 난 백화점에 그대로 있을테야. 언제나 카운터 뒤에만 서 있으란 법은 없지. 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 늘 세련되고 돈 많은 사람과 상대하고 있는 거야. 내가 비록 그들 시중을 들고 있는 것 뿐이긴 하지만, 난 내걸을 지나가는 어떠한 것도 놓치지 않고 있어.”

“아직도 백만장자를 낚으려는 거야?”하고 루는 웃으면서 물었다.

“아직 하나도 고르지는 못했지만 대개 물색하고 있는 중이야.” 낸시의 대답이었다.

“맙소사! 그들을 물색한다는 생각을 하다니! 물론 넌 농담하는 거겠지. 백만장자는 우리와 같은 직업여성

은 생각지도 않아.”

“그들이 생각지도 않는다면 정말 그들을 위해 좋은 일일 거야.” 낸시가 말하였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돈 간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거야.”

“만일 백만장자가 내게다 그런 얘기를 건다면 난 까무러질거야.” 하며 루는 웃었다.

“그건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탓이지. 멧쟁이와 보통 사람과의 차이는 단지 네가 멧쟁이를 좀 더 가까이서 보아야 한다는 것 뿐이지. 그 붉은 속옷은 그 양복에는 너무 밝은 색이라고 생각 안 돼, 루야?”

그러자 루는 친구의 천하고 어두운 올리브색 자켓을 바라보았다.

“아—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해. 하지만 너야말로 이렇게 물 낚은 옷을 걸치고 있구나!”

“이 자켓은 지난번에 반 알스타인 피셔 부인이 입고 있던 것과 똑같이 본뜬 거라우. 감 사는데 삼 불 구십팔 전 먹혔어. 그 여자의 감은 백 달러도 넘을거야”라고 낸시는 흐뭇해서 이야기했다.

“아 그래? 그런데 그건 아까 말한 백만장자 건만큼 놀라운 일은 아닌데. 너보다 내가 먼저 어떻게 하든 하나 잡아챌다면 놀라운 일 일테지.”

이 두 친구가 내세우고 있는 이론의 가치를 판정하는 데는 정말 철학자가 있어야 될 판이었다. 적나라한 생을 위해 일하는 처녀들로 들끓는 백화점에 담겨 있는 오만이나 괴팍스러운 것은 없다 하더라도 루는 떠들썩하고 숨 답답한 세탁소 안에서 그녀의 다리미와 더불어 즐거웁게 살아나가는 것이었다. 그녀의 수입은 안락의 지경에까지 그녀를 뒷받침해 주었다. 그녀는 가끔 댄의 미끈하지만 풍채 없는 옷을 못마땅하게 결눈질로 보는 것이었다. 댄은 언제나 한결같고 변함없이 탈선을 몰랐다.

낸시로 말하면 이것은 생판 달랐다. 비단, 보석 레이스, 장식품, 향수, 음악 등 교양과 취미의 물건들은 여자를 위해서 있는 것으로 그녀의 몸에 골고루 배어 있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것들이 그녀 생활의 일부라면 그리고 그녀가 또 원한다면 그녀를 그것들과 가까이 있게 내버려 두자.

이러한 분위기에 낸시는 파묻혀 있었다. 그녀는 그 가운데서 성장하였다. 마음을 굳게 먹고 만족스럽게, 보잘것 없는 식사를 하고 값싼 옷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미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동물과 다름없는 남성에게 대해 연구하였다. 앞으로 언젠가 그녀는 자기가 원하는 사냥감을 쏘아 떨어뜨릴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가장 크고 좋은 것 조금도 적지 않은 것이기를 그녀는 다짐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신랑이 오는 것을 맞아드리기 위해 그녀의 등잔불 심지를 자르고 거기에 불을 켜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교훈을 그것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녀는 배웠다. 그녀의 가치 기준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가끔 달러 표지가 그녀의 마음의 눈을 흐리게 하고 진리니 명예니 또 가끔 친절과 같은 글자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비슷한 예를 들어 보자. 울창한 숲속에서 큰 사슴을 사냥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는 이끼 끼고 나뭇잎이 울창한 골짜기를 발견한다. 거기에는 작은 냇물이 졸졸 흐르면서 그에게 쉬어서 놀 것을 조잘거린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위대한 사냥꾼의 창날이 저절로 무디어져 버린다.

그래서 낸시는 가끔 페르샤의 양털이란 것도 그것을 입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시세가 매겨지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것이었다.

어느 목요일 저녁 낸시는 백화점을 나와 육번가를 돌아서 세탁소로 향하였다. 루와 댄과 함께 음악소극에 가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세탁소에 이르자 마침 댄이 거기서 나오고 있는 참이었다. 의아하고 긴장된 모습이 그의 얼굴에 어려 있었다.

“그녀에게서 무슨 말을 들었나 하고 이웃을 둘러보려고 하는데요.”라고 그는 말하였다.

“누구의 말을요? 루가 거기 없어요?” 낸시가 물었다.

“당신은 알리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여기도 안 나오고 살던 집에도 없었대요. 그 집에서 짐을 몽땅 옮겼어요. 아마 유럽에 갈지 모르겠다고 세탁소의 한 처녀에게 말했다는데.”

“아무도 그를 못 보았대요?” 낸시가 물었다.

댄은 그의 턱을 무섭게 댕기고 검은 눈에 광채를 내면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탁소에서 말들을 하는데—” 그는 무뚝뚝하게 이야기했다.

“그녀가 어제 자동차를 타고 지나는 것을 보았다는 거요. 백만장자와 함께. 당신과 루는머리를 언제나 바쁘게 써먹는단 말이요.”

생전 처음으로 낸시는 남자 앞에서 겁에 떨었다. 파르르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댄의 소매에 얹었다.

“당신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없어요, 댄.— 마치 내가 거기에 관련이 나 있는 것처럼 말이예요.”

“아 그런 뜻에서 말한 게 아니죠.” 댄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조끼 주머니를 더듬었다.

“오늘 밤의 쇼 표가 여기 있는데.”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볍게끔 이야기 했다. “만일 당신이 원하신다면—”

넌시는 언제나 용감한 대담성 앞에서는 꼼짝없이 찬탄을 발하는 것이었다. “함께 가겠어요, 댐.”하고 그녀는 말하였다.

넌시가 루를 다시 만난 것은 그 후 석 달이 지나서였다.

어느 날 저녁 황혼이 질 무렵 이 여점원은 조용한 작은 공원 담을 끼고 급히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누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돌아서자 루가 그녀의 팔에 안겨들었다. 힘껏 서로 부둥켜안은 다음 그들은 마치 뱀처럼, 달려들거나 홀리려는 듯이 그들의 머리를 뒤로 제쳤다. 그들의 날름거리는 헛바닥에는 천만 가지 질문이 통겨 나오려 하고 있었다. 그러자 루에게 황제가 떨어진 것을 넌시는 알아차렸다. 값비싼 털목도리, 번쩍이는 보석, 멋진 양복 등이 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 꼬마 바보야!” 루가 크고 다정스럽게 소리쳤다.

“네가 아직도 그 백화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구나. 전과 똑같이 초라하게 시리— 아니, 한몫 보려던 것 어찌 되었누? 아직 안 걸려 들은 게로구나, 그렇지?”

그러자 루는 황제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이 넌시에게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보석보다 더욱 빛나는 것이 그녀의 눈 속에 깃들고 그리고 장미꽃보다 더 붉은색이 그녀의 뺨에 어려 있으며 또 그녀의 혀끝에서 곧 통겨 나올 것 같은 어떤 것을 루는 알아차렸던 것이다. “그래, 난 아직 그 백화점에 있어.” 넌시의 말이다.

“하지만 내주일에는 그만둘 거야. 난 한 몫 본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몫을. 루야 너는 이제 상관 않겠지? 댐과 결혼하게 되었어, 댐과! 이제 나의 댐이야—어때 루야?”

새로 나온 젊은 순경 하나가 공원 모퉁이를 돌아 거닐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털외투를 입고 손에는 보석 반지를 낀 한 부인이 쇠로 된 공원 담에 웅크려 서서 서글피 흐느끼는데 수수하게 차린 직업여성이 그 옆에 가까이 서서 그녀를 달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못 본 체 하고 그대로 지나쳤다. 왜냐하면 그가 갖고 있는 권한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아차렸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별에까지 소리가 들려라 하고 그의 밤단장으로 광광 보도를 두들기며 지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마(魔)의 공산치하를 벗어나 자유대한으로 월남 귀순한 정낙현(鄭落賢) 조종사가 당시 극적으로 내린 대용리(大涌里) 비행장의 MIG-15기상(機上)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코메트

THE COMET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